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사례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사례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사례 연구」의
최종 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06. 12

(사)한국건축역사학회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사례 연구

· 목차 ·

I . 서론

① 연구의 목적 3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② 연구의 범위 4

1. 조사대상
2. 조사내용

II . 등록문화재 제도 및 보존현황

① 등록문화재 제도 7

1. 도입목적 및 특징
2. 등록기준 및 절차

② 근대문화유산 보존·분포 현황 10

1. 지정·등록현황
2. 용도별 분포현황

III . 외국의 제도 및 프로그램

① 관련제도 15

1. 건축문화유산의 등록제 제도 성립
2. 프랑스 관련제도(1913)
3. 미국 관련제도(1966)
4. 영국 관련제도(1971)
5. 일본 관련제도

② 보존·활용 프로그램 29

1. 보존·활용계획의 원칙
2. 기술상의 원칙
3. 보전·운영의 방향성
4. 공공 건축물의 정보공개
5. 보존·활용의 진행방법
6. 역사적 공공 건축물 보존·활용의 효과

③ 보존·활용을 위한 기술적 접근 ... 40

1. 구조보강
2. 설비 도입의 원칙

IV. 국내·외 사례조사

① 국내·외 사례조사 개요 및 목록	55
1. 사례조사 개요	
2. 사례조사 목록	
② 근대건축	61
1. 국내사례	
2. 외국사례	
③ 교통유산	177
1. 국내사례	
2. 외국사례	
④ 산업유산	204
1. 국내사례	
2. 외국사례	
⑤ 근대마을 및 거리조성	234
1. 일본사례	
2. 중국사례	
3. 독일사례	
⑥ 근대유적지	255
⑦ 사례조사 소결	261

V. 보존·활용 및 홍보방안

① 보존·활용 방안	267
1. 등록문화재 제도의 활성화 방안 강구	
2. 활용을 위한 등록문화재의 대중화 유도	
② 홍보방안	270
1. 홍보자료의 다양화 추구	
2. 홍보자료의 구성방안	
□ 연구진 및 관계자	277
□ 참고문헌	278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사례 연구

I. 서론

① 연구의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② 연구의 범위

1. 조사대상
2. 조사내용

1

연구의 목적

1. 연구의 배경

- 등록문화재 제도 시행이후 매년 많은 수의 근대건축물이 등록되어 보존되고 있지만, 등록문화재 제도의 시행목적인 활용을 통한 보존에 대하여 건물 소유주의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
- 더불어 시행주체인 관계기관의 담당자들도 소유주에게 제도의 취지와 효과를 설명하는데 있어 선행사례의 자료가 부족하여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 대부분의 국민들 또한, 등록문화재 제도를 통한 활용·보존을 지정문화재의 동결 보존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 그러므로 등록문화재 제도의 시행 취지와 활용을 통한 보존의 장점을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
- 그 선행작업으로서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국·내외 우수한 사례를 수집해야 한다.

2. 연구의 목적

- 국내·외 다양한 보존·활용사례를 수집하여 홍보함으로써 문화재 등록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일반국민 및 등록문화재 소유주에게 등록문화재 제도의 필요성과 편리성을 알린다.
- 국내 활용사례의 자세한 소개를 통하여 등록문화재 소유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 또한 외국의 근대문화유산 관련 제도를 소개하고 보존·활용에 따른 기법과 접근방안을 고찰함으로써 등록문화재 소유주 및 관련 당사자에게 참고자료로서 활용하도록 한다.
- 이러한 자료조사와 홍보를 통하여, 기존 문화재 소유자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문화재 등록 참여율을 향상시킨다.
- 추후 등록문화재 제도에 대한 홍보자료로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한다.

2

연구의 범위

1. 조사대상

- 국내·외 근대문화유산중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보존사례를 근대 건축·교통유산·산업유산·근대마을 및 거리·근대유적지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 국내사례는 기존의 등록문화재외에 지정 및 미지정 근대문화유산도 포함한다.
- 외국의 사례는 국내에 분포하는 근대문화유산과 비슷한 종류·양식으로 한정함으로써, 실제 활용 가능하도록 한다.
- 국내의 등록문화재 제도와 함께 외국의 근대문화유산 관련 제도를 조사한다.
- 또한 외국의 보존·활용기법을 조사한다.

2. 조사내용

- 등록문화재 제도와 시행취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문화재 등록 방법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식으로 표현한다.
- 외국의 근대문화유산 관련제도는 현재의 운영실태와 함께 제도 도입취지와 홍보 및 정착과정을 조사한다. 관련제도는 사례조사 국가와 되도록 일치시켜 일반인의 이해를 쉽게 한다.
- 사례조사시 가급적 많은 사진을 수록하여 일반인의 이해를 쉽게 한다. 사진은 직접 촬영한 것을 수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활한 의미전달을 위해서 관련자료의 것도 인용한다.
- 근대문화유산의 국내·외의 보존·활용사례는 조사가능 범위에서 현재의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과정 및 수법에 대한 내용도 조사한다.
- 외국 근대문화유산의 보존·활용 프로그램은 구조·설비 등 기술적인 내용으로 조사하여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사례조사와 함께 효과적인 등록문화재 제도의 홍보방안에 대해서 제안한다.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사례 연구

II. 등록문화재 제도 및 보존현황

① 등록문화재 제도

1. 도입목적 및 특징
2. 등록기준 및 절차

② 근대문화유산 보존·분포 현황

1. 지정·등록현황
2. 용도별 분포현황

1. 도입 목적 및 특징

■ 근대문화유산

문화유산은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치·경제·사회·예술활동 등을 통해 생성된 모든 유·무형의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특히 개화기 이후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건축물, 기념물, 구조물 등 우리의 삶과 함께 했던 근·현대 시기의 문화적 소산을 근대문화유산이라 한다.

대부분의 근대문화유산은 현재도 거주·업무·경제활동 등의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일반에게 미흡하게 인식되고 있다. 근대문화유산은 전통문화유산과는 달리 동·서양의 문화가 혼재되어 그 양식과 기법이 매우 다양하므로,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매우 크다.

■ 근대문화유산 보존의 필요성

우리 근대사는 전통과 현대를 잇는 과도기적 시기이자 근대문화가 도입되는 시기로 이 시기에 생성된 역사적 산물은 당대의 문화·역사를 반영하는 결과물이다.

이러한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재조명과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고 보존·관리하여 후세에 전승하는 것은 우리민족의 역사·문화적 전통을 지켜나가는 일인 동시에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이는 우리 세대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 등록문화재

지정문화재가 아닌 근·현대시기에 형성된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으로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록

된 문화재를 말한다.

■ 등록문화재 제도의 도입배경

오늘날 근대문화유산 중 보호되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이며, 대부분은 각종 개발행위와 도시화 및 경제적 논리에 의해 철거, 훼손될 위기에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종래의 지정문화재 제도로는 어려움이 있고, 문화재 보호방법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어, 신고제와 지도, 조언, 권고를 기본으로 하는 등록문화재 제도를 지정제도의 보완적 제도로써 도입(2001.3)하였다.

■ 등록문화재 제도의 특징

등록문화재는 지금까지의 지정문화재 제도와는 다르게 당해 문화재의 외관 보호를 주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내부는 문화재별 용도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변경하거나 수리·수선이 가능하도록 하여 문화재를 보호하는 동시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간직한 문화재들을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문화재의 등록대상은 건축물, 역사·인물유적, 근대산업 시설물, 생활문화유산 등 보존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므로 매우 다종다양하다.

□ 지정문화재

지정주체	구 분
국가지정 문화재	유형문화재 : 국보, 보물 기념물 : 사적, 명승, 사적 및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민속자료
시·도지정 문화재	시·도 유형문화재 시·도 기념물 시·도 무형문화재 시·도 민속자료
문화재 자료	위 사항 외 보존이 필요한 문화유산

□ 등록문화재 구분

구 분	세부사항
건축물	주택, 사무소, 공장, 학교, 등대, 망루 등
산업 구조물	교량, 터널, 댐, 굴뚝, 담장 등
생활 문화 유산	이·미용원, 세탁소, 목욕탕, 방앗간, 염전 등
역사 유적	역사적 사건 또는 사실의 현장
인물 유적	생가, 거주지, 활동근거지 등

2. 등록기준 및 절차

■ 등록대상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시설물중 건설 후 50년 이상이 경과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선정한다.

- ① 우리나라 근대사에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큰 것
- ② 지역의 역사 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 ③ 한 시대의 조형의 모범이 되는 것

- ④ 건설기술이나 기능이 뛰어나고, 의장 및 재료 등이 희소하여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큰 것
- ⑤ 전통 건조물로서 당시의 건축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또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 후 50년 이상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조물 또는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원

소유자·관리단체가 등록문화재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와 보호, 수리 또는 기록의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등록문화재 건물·토지 등에 대한 세금감면 등 등록문화재 소유자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세제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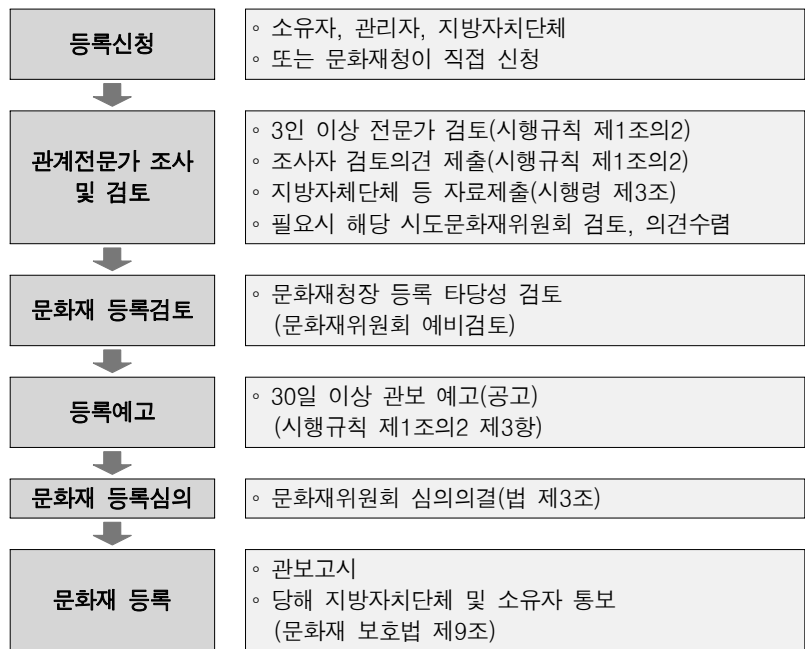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토지세, 재산세 50% 감면 ◦ 상속세 징수유예 ◦ 1가구 1주택 특례

■ 문화재 등록절차

등록문화재의 등록절차는 시행규칙 제35조의2 제3항과 제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 지정문화재 제도

구분	세부사항
제도목적	◦ 문화재를 중점적으로 엄선해서 극히 가치가 높은 것을 강한 규제와 함께 강력한 보호에 의해 영구적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제도
보호대상	◦ 역사적, 학술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것
지정기준	◦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지정주체	◦ 문화재청장/시·도지사
심의회	◦ 문화재위원회/시도위원회
소유자 동의	◦ 제도상은 필요없음, 운용상 의견수렴 참고
현상변경	◦ 허가 ◦ 필요한 지시, 행위중지, 허가취소
보존 외 행위	◦ 허가(경미한 것은 제외) ◦ 필요한 지시, 행위중지, 허가취소
국고보조	◦ 국고지원 근거 규정
세제지원	◦ 종합토지세 비과세 ◦ 상속세 등 비과세



2 근대문화유산의 보존·분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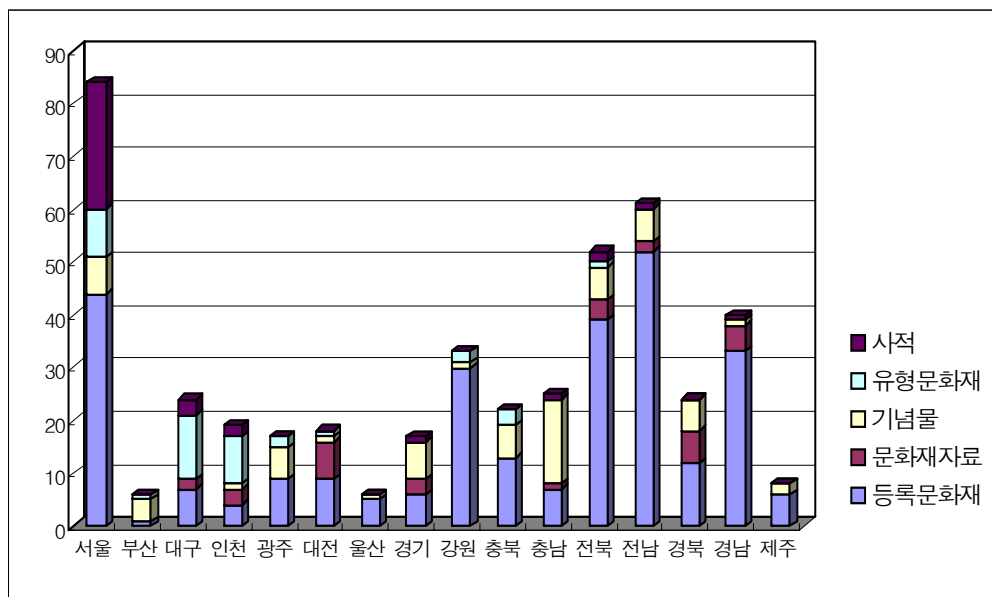
1. 지정·등록 현황

2006년 11월 현재 지정문화재는 9,437건이다. 이중 현재까지 근대문화유산으로 분류되는 것은 179건이다. 물론 이 수치는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정의와 범위설정에 따라 다소 달라진다. 지정현황에는 민속자료는 포함하지 않았다.

등록문화재는 2006년 11월 현재 277건으로 집계되었다. 여기에는 동산문화재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건축물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등록문화재 등록 수량은 이미 지정문화재의 2배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매년 증가되므로 격차는 계속 벌어질 것이다.

□ 근대문화유산 지정 및 등록 현황

구분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백분율
		등록문화재	44	1	7	4	9	9	5	6	30	13	7	39	52	12	33	6	277
국가지정 사적		24	0	3	2	0	0	0	1	0	0	1	2	1	0	1	0	35	8%
시도지정	유형문화재	9	1	12	9	2	1	0	0	2	3	0	1	0	0	0	0	40	9%
	기념물	7	4	0	1	6	1	1	7	1	6	16	6	6	6	1	2	71	15%
	문화재자료	0	0	2	3	0	7	0	3	0	0	1	4	2	6	5	0	33	7%
소 계		84	6	24	19	17	18	6	17	33	22	25	52	61	24	40	8	456	100%



□ 지정·등록문화재 지역별 분포현황

2. 용도별 분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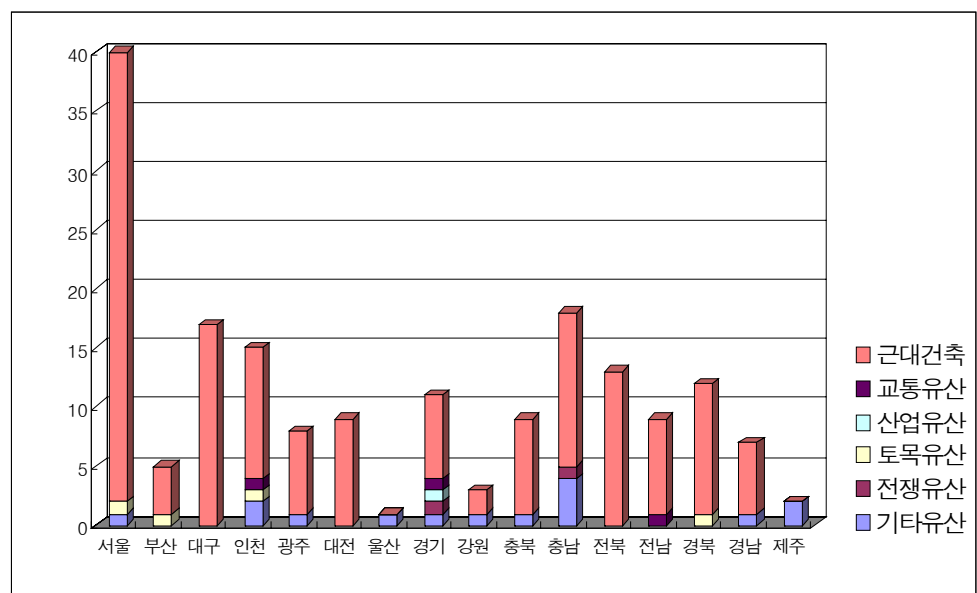
근대문화유산을 지정·등록문화재별로 근대건축·교통유산·산업유산·토목유산·전쟁유산·기타유산으로 항목을 세분하여 분포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항목은 사례조사에서도 그대로 적용하여 조사되었다.

- ① 근대건축 : 주거와 사무소 등 일반건축물
- ② 교통유산 : 철도시설물, 해운항만, 도로
- ③ 산업유산 : 재화를 생산하는 건축물(공장 등)
- ④ 토목유산 : 치산치수에 관련된 시설(댐, 상하수도, 농수로 등)
- ⑤ 전쟁유산 : 근대기 전쟁관련 유산
- ⑥ 기타유산 : 역사적 장소, 유적지, 동산문화재 등

□ 지정문화재중 근대문화유산 용도별 분포현황

지역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백분율
근대건축	38	4	17	11	7	9	0	7	2	8	13	13	8	11	6	0	154	86%
교통유산	0	0	0	1	0	0	0	1	0	0	0	0	1	0	0	0	3	1.7%
산업유산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1	0.6%
토목유산	1	1	0	1	0	0	0	0	0	0	0	0	1	0	0	0	4	2.2%
전쟁유산	0	0	0	0	0	0	0	1	0	0	1	0	0	0	0	0	2	1.1%
기타유산	1	0	0	2	1	0	1	1	1	1	4	0	0	0	1	2	15	8.4%
소 계	39	5	17	15	8	9	1	11	3	9	18	13	9	12	7	2	179	100%



□ 지정문화재중 근대문화유산 용도별 분포현황

근대문화유산중 지정문화재는 근대건축 항목에 대부분이 편중되어 있으며 교통·산업·기타 유산 등은 매우 적게 분포되어 있다. 전쟁과 토목유산의 경우는 분포되지 않는 지역이 대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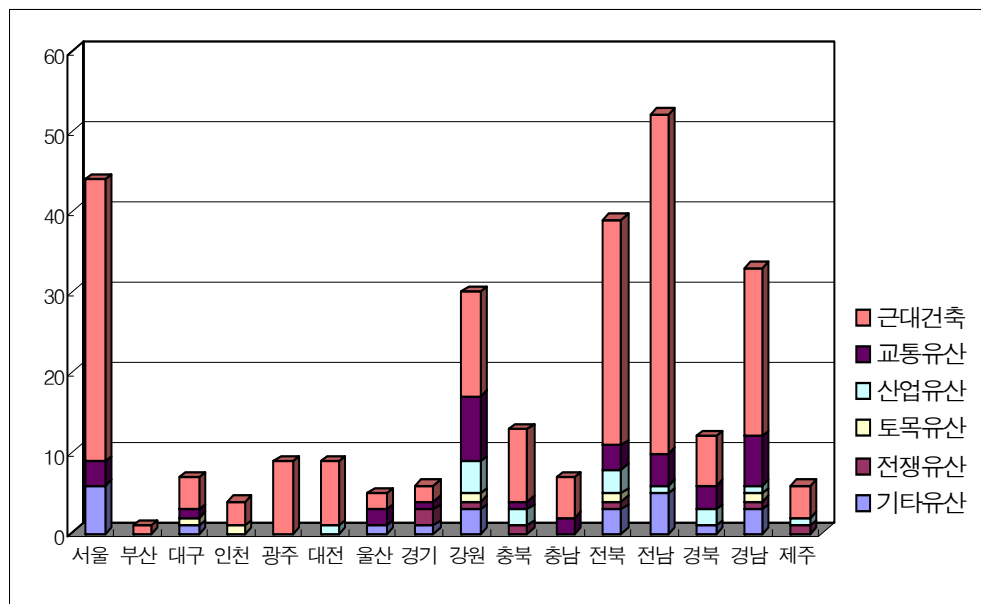
지역적 분포로는 전남이 가장 많으며, 서울과 전북이 그 뒤를 잇는다.

등록문화재의 용도별 분포 역시 근대건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정문화재에 비하여 교통·산업·토목·전쟁·기타유산 항목은 고른 분포를 보여준다. 등록문화재는 국가·시도지정문화재에 비하여 대상의 폭이 넓고, 활용 가능한 이유로 판단된다.

지역별 분포에서는 서울보다 전남지역에서 많이 등록되었으며, 광역시의 등록현황은 낮다.

□ 등록문화재 용도별 분포현황표

구분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백분율
근대건축	35	1	4	3	9	8	2	2	13	9	5	28	42	6	21	4	192	69%
교통유산	3	0	1	0	0	0	2	1	8	1	2	3	4	3	6	0	34	12%
산업유산	0	0	0	0	0	1	0	0	4	2	0	3	1	2	1	1	15	5%
토목유산	0	0	1	1	0	0	0	0	1	0	0	1	0	0	1	0	5	2%
전쟁유산	0	0	0	0	0	0	0	2	1	1	0	1	0	0	1	1	7	3%
기타유산	6	0	1	0	0	0	1	1	3	0	0	3	5	1	3	0	24	9%
소 계	44	1	7	4	9	9	5	6	30	13	7	39	52	12	33	6	277	100%



□ 등록문화재 용도별 분포현황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사례 연구

III. 외국의 제도 및 프로그램

① 관련제도

1. 건축문화유산의 등록제 제도 성립
2. 프랑스 관련제도(1913)
3. 미국 관련제도(1966)
4. 영국 관련제도(1971)
5. 일본 관련제도

② 보존·활용 프로그램

1. 보존·활용계획의 원칙
2. 기술상의 원칙
3. 보전·운영의 방향성
4. 공공 건축물의 정보공개
5. 보존·활용의 진행방법
6. 역사적 공공 건축물 보존·활용의 효과

③ 보존·활용을 위한 기술적 접근

1. 구조보강
2. 설비 도입의 원칙

1 관련제도¹⁾1. 건축문화유산의 등록제 제도 성립²⁾

구미(歐美) 여러나라의 근대문화재와 우리의 근대문화재의 차이는 지난 2세기간의 역사성으로부터 왔다. 그들은 근대화의 주체로서의 영광이 있었는가 하면, 건축 자체의 연속성에서도 아시아 여러나라들과는 그 의미가 달랐다. 그들은 오랜 건축사적 연속성에서 근대건축문화를 형성해 온 것이다. 아시아 여러나라로 볼 때 근대건축물은 피침의 상징적 표현물로 인식되었다. 물론 신건축물을 도입한 경우 나라마다 그 인식은 다르게 나타났다. 우리 건축은 외세의 침략이라는 피동적 시대 상황에서 세워진 것과 일제의 침략기에 세워진 건축물이라는 상황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서 그들과 우리와는 건축물 보존측면에서 그 의미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유럽의 역사물보존하기(Conserving the heritage) 작업은 산업혁명과 병행하여 19세기 초부터 시작되었다. 그 동기는 두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프랑스 혁명의 '반달리즘'에 대한 반성, 또 하나는 영국의 산업혁명에 대한 '향토 지키기'로 이뤄진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는 1840년 이미 보존을 위한 건축물의 목록화 작업이 시작되었다. 영국의 윌리엄 모리스는 1877년 존 러스킨과 함께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을 위한 단체, 즉 『고대건축보존협회』를 설립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에서 만들어진 등록문화재 제도는 근과거를 중시하는 문화재 보존의 한 척도로서 자리 메김했다. 일종의 '메모리얼 사업'이었다. 등록문화재 제도는 1913년 프랑스가 '역사적기념물에 관한 법'으로, 이어 1966년 미국에서 '국가역사보호법'으로, 영국은 1971년 '도시전원계획법'으로 각각 만들어졌다. 아시아에서는 1996년 일본이 그리고 2000년 우리나라가 각각 도입했다.

1) 1장. 관련제도는 2002년 목원대학교 건축근대사연구실에서 주관한 한국과학재단 목적기초연구(근대건축물 보존과 활용방안 연구)학술세미나 자료집에서 보완 · 인용했다.

2) 1절. 건축문화유산의 등록제 제도 성립부터 4절. 영국 관련제도(1971)까지는 아래의 자료를 인용했다.

* 김정동, 「외국의 근대건축물, 보존제도에 관하여」, 한국과학재단 목적기초연구(근대건축물 보존과 활용방안 연구)학술세미나 자료집 - 근대건축물 보존과 등록문화재 제도, 12~19쪽, 2002

등록문화재 제도는 세계경제의 활성화로 기존 도심과 건축물이 파괴되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이 법제화된 문화재 보존제이다. 구미도 마찬가지였다. 개발도상국도 시간차이지 별 다를 것이 없었다. 사실 개발도상국에서 역사적 건조물들은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의 피크를 맞으며 위기가 왔다.

유럽의 근현대사 보존을 위한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 제도를 비교해 보면, 그 뉘앙스는 지정문화재가 우리의 생활과 먼 곳에 있는 것이라 느껴진다면, 등록문화재는 우리와 아주 가까운 이웃에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건조물 문화재는 이제 개별 국가의 것으로만 중요시 여기지 않고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1964년 베니스에서 개최된 제 2회 ‘역사적 기념물에 관한 건축가·기술자의 국제회의’에서 ‘베니스 헌장’이 채택되었다. 헌장은 기념물 및 유적의 보존·수복을 위한 국제헌장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최근의 국제회의는 이코모스(ICOMOS;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로 ‘국제기념물유적회의’라 할 수 있는 것이다. 1985년 파리에서 첫 회의가 열렸다. 근대건축물 보존을 주의제로 하는 회의이다. 1994년 11월에는 일본 나라(奈良)에서 개최된 바도 있었다. 1999년 총회에서는 ‘역사적 유산의 현명한 활용(The wise Use of Heritage)’이란 주제로 열린바 있다.

또 하나 도쿄모모(DOCOMOMO; International working party for documentation and conservation of buildings, sites and neighbourhoods of the modern movement)도 근대건축 보존문제에 관한 국제조직체이다. ‘근대운동에 의해 생겨난 건물, 부지, 환경에 대한 기록과 보존을 위한 단체’로 결성된 것이다. 네덜란드 아인트호헨 공과대학 엔케 교수가 발의해서 시작된 것이다. 1989년 네덜란드에서 첫 회의가 열렸다. 유럽 여러나라와 미국 등 3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도쿄모모에서는 현재 전세계의 근대건축유산을 리스트 업하고 있다. 일본은 1998년 스톡홀름 대회에서 일본 근대건축 20건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민간이 주체가 되는 영국형 내셔널 트러스트가 뒷받침하고 있다.

2. 프랑스 관련제도(1913)

프랑스의 건조물 수복관계는 파리 문화부 역사유산국(4, rue d'Aboukir 75002 Paris)에서 컨트롤하고 있다. 중앙의 수복주임 건축가를 중심으로 그리고 그들을 보좌하는 지방 도 건조물 담당자, 양자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양자의 기술자는 국가시험에 패스하여야 자격이 주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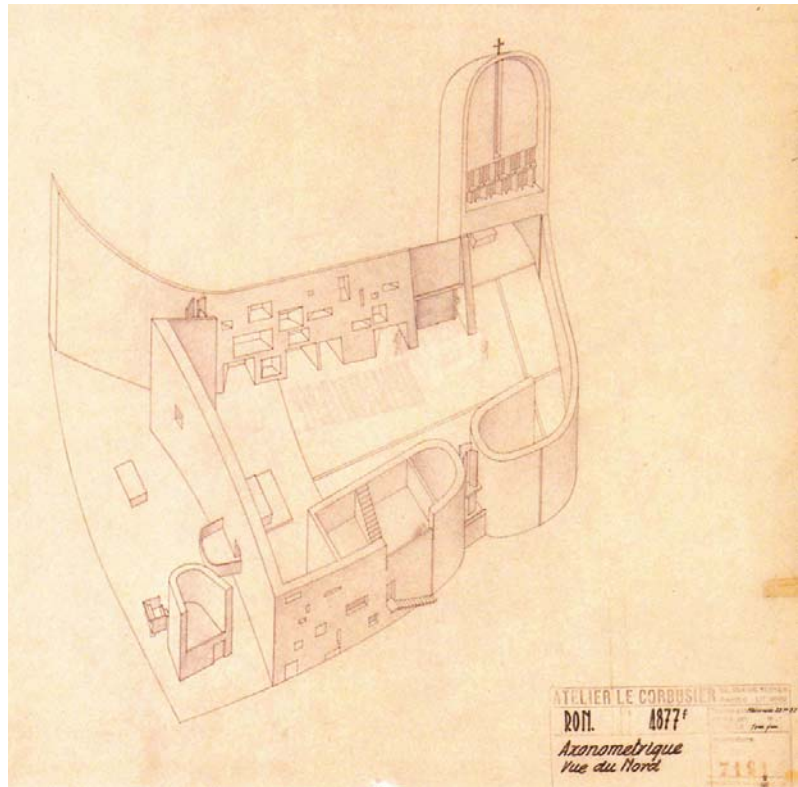
중앙의 보존전문가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건축설계사무소 소장으로서 그 일을 하게 된다. 지방의 경우는 공무원 신분으로 지방 도에 파견되는 형식으로 건축가의 협조자로 역할 하게 된다. 그들의 일반 지침은 '베니스 헌장'을 따르게 된다.

프랑스는 건조물의 보존을 위해 중요 건축물을 지정관리하고 있거나 재질, 성격 등을 고려하여 몇 가지의 제도를 동시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프랑스 보물목록'이 있는데 중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유산의 진정성이 잘 보존되어 있는 유산 중 시골지역이나 중소 도시에 있는 건조물이 국가에 의해 지정되어 이 목록에 올라 있다. 또 도시유적지, 보호지역, 건축유산 및 경관보호 지역 등이 적용되기도 한다. 사적이나 이와 유사한 유적들은 별도의 여러 유형으로 지정되어 목록 집성이 완벽하게 유지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부 지정문화재의 소유현황을 보면 정부가 직접 소유한 유산은 전체의 6%밖에 되지 않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63%, 그리고 일반 민간이 소유한 유산이 28%에 달하고 있어 정부의 역할은 이들 관련 유산 소유자와의 협력관계 유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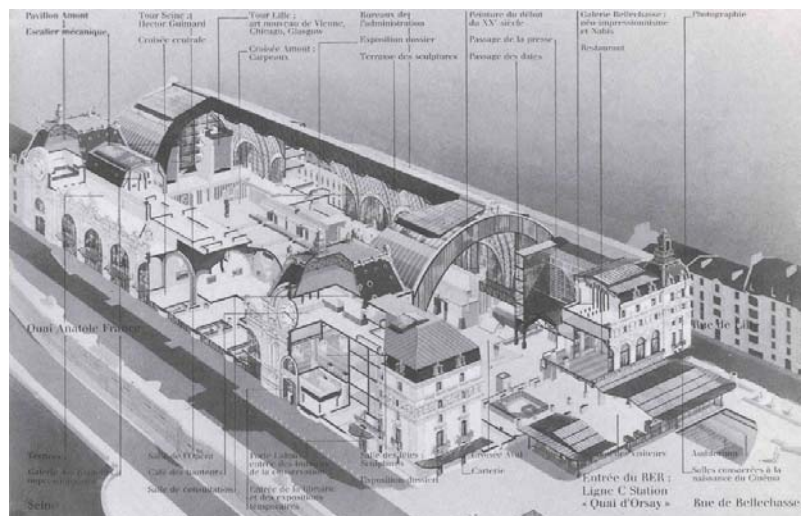
프랑스의 문화재는 지정과 등록 두가지 패턴으로 구분된다. 그들은 국가주의, 주변환경의 규제 측면에서 문화재를 보호하고 있다. 프랑스의 등록제도는 1913년 '역사적 기념물에 관한 1913년 12월 31일부 법률'로 정해졌다. 등록을 지정의 전 단계로 파악하고 있으며 주변 500m 제한을 가하는 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1945년 이후의 건축물도 문화재로 지정·등록하고 있다. 예를 들면 르 꼬르뷔제의 롱상교회는 1955년에 준공된 것인데 1967년 역사적 건조물로서 지정되었다. 세워진지 12년 세계 역사상 최단 기간 내에 선정된 것이다. 참고로 우리는 5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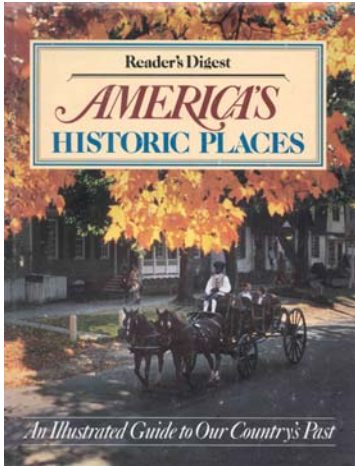
△르 꼬르뷔제의 롱상교회(자료: 르 꼬르뷔제 재단 소장)>

1980년 프랑스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1900)이 개장(改裝)된 것은 전세계에 큰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우리나라와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도 이에 큰 자극을 받게 된다. 기차역이 미술관으로 변신한 것이다.



△파리의 오르세 역. 미술관 계획안>

3. 미국 관련제도(1966)



△미국 역사적 장소(American Historic Place) 데이터 북(1988)

미국의 역사는 1776년부터 시작됨으로 현재 230년 미만의 역사에 지나지 않으나 근대문화유산으로서 장소와 건조물은 세계에서 가장 많다. 1988년 현재 약 500여개의 장소가 '미국 역사적 장소(American Historic Place)'로 지정되고 있다. 물론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의 보존행정은 우리와 달리 내무부가 권한을 갖고 처리한다. 1935년 제정된 '역사적 장소법(Historic Sites Act)'에 근거한다. 이 법은 미국 국민을 고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사상의 유적, 건조물 및 물건을 보존해 공공의 쓰임에 쓰이도록 하는 것은 국가정책이다'라고 하고 있다. 미국은 등록제도, 지방분권, 시민참가, 유도적 세제(稅制)로 역사적 건조물을 관리하고 있다.

건국과 애국심이 담긴 곳, 남북전쟁과 관계된 곳 그리고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사람에 관한 것은 모두 랜드마크가 되어 역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1812년 필라델피아 독립기념관 옥탑 복원 사례는 그 이정표라 볼 수 있다. 또한 인디안, 하버드 대학, 육공군사관학교, 우주항공, 펄벅 등과 관계된 현대적 장소들도 등록 문화재가 되고 있다.



△하버드 대학

1966년 ‘국가역사보존법(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은 법률적으로 문화재 ‘국가등록제도(National Register)’를 두고 있다. 등록 리스트는 건축물, 지구(地區), 사적, 공작물, 물품 등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이 법의 시행은 여러 레벨로 나뉘는데, 국가 레벨과 주 레벨 그리고 시 레벨로 하고 있다. 국가 레벨은 내무부의 국립공원국에서, 주 레벨은 자연자원국에서 행하며, 시 레벨은 도시위원회에서 행한다. 도시위원회는 자원봉사 그룹의 성격을 갖는데, 건축가, 도시계획가, 예술가, 역사가, 법률가, 개발업자(디벨로퍼) 등으로 구성된다.

미국은 ‘적합사용(Adaptive Use)’이라는 수복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시장논리에 의한 것으로 ‘새로운 용도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 건물에 대해 실질적인 변화를 가하는 것’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제도는 보존론자와 개발론자간의 타협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소극적 의미의 활용·전용이란 의미보다 좀 더 적극적인 방안으로 ‘등록문화재를 마케팅과 비즈니스 대상으로서 활용하는 프로젝트’라는 의미가 강하다. ‘최소한 건물은 보존된다’는 논리이다. 세제혜택이 큰 장점이라 소유자와 해당 정부와의 마찰을 줄일 수 있고, 국민들은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조지아 주 애틀랜타 시의 한 예를 보면, 미드 타운에 있는 ‘조지안 테라스 호텔’은 1911년 완공된 것으로 보자르 양식의 외관을 갖고 있다. 252베드 9층짜리 호텔이다. 세워질 당시 미국 남동부 최고의 호텔이고 애틀랜타의 랜드마크였다. 이 호텔이 널리 알려진 것은 1939년 12월 15일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세계 최초로 애틀랜타 시에서 개봉된 후이다. 그 피로연이 이 호텔에서 열렸다. 원작자·영화관계자 그리고 배우들이 몰려들었다. 따라서 이 호텔은 그 영화와 함께 인상지어진 것이다.

이 건물은 국가에 의해 역사적 건조물로 등록되었고 전미역사보존협회에 의해 역사적 건조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이 호텔은 1981년 폐쇄되었다. 여러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1989년 보존 재생키로 결정 1990년 8월부터 1991년 12월까지 아틀랜타 디벨로퍼에 의해 아파트로 개장 공사해 1991년 준공되었다.

1920년대에 만들어진 ‘폭스 극장(Fox Theatre) 역사보존지구’ 내에 포함되었다.



△조지안 테라스 호텔(수리전)



△조지안 테라스 호텔(수리후)

뉴욕 맨해튼(Manhattan)의 바테리 구역 해안부두(피어 A)는 등록 문화재로 이민, 해양사의 중요한 구역이다. 이를 적합사용이라는 프로젝트로서 개발, 역시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맨해튼의 바테리 구역

최근에는 근과거의 건조물도 그 대상이 되고 있다. 1952년의 레버 하우스, 1958년의 시그렘 빌딩, 1959년의 구겐하임 미술관,

1962년의 케네디 국제공항 터미널, 1963년의 델러스 공항까지도 보존대상이다. 40년이 채 안된 것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층 사무소, 최첨단 기술, 주택가, 냉전과 우주개발 현장 등 어떤 면에서 근대사의 축적이 된 것이라면 모두 보존 대상이다. 미국은 보존이 가장 잘 이뤄지는 나라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뉴욕의 9-11 테러 현장도 일부 보존되고 있다.

4. 영국 관련제도(1971)

영국의 등록제도는 1971년에 제정된 도시국토개발법(Town and Country Act)에 의한다. 계획법(Planning Areas Act)은 1990년 제정되었는데 이중 등록건물과 보존지구(Listed Building and Conservation Areas) 조항이 등록제도의 시작이었다.

보존을 해야 하는 건축물은 도시의 유산으로서 등록건축물(Listed Building)이라 부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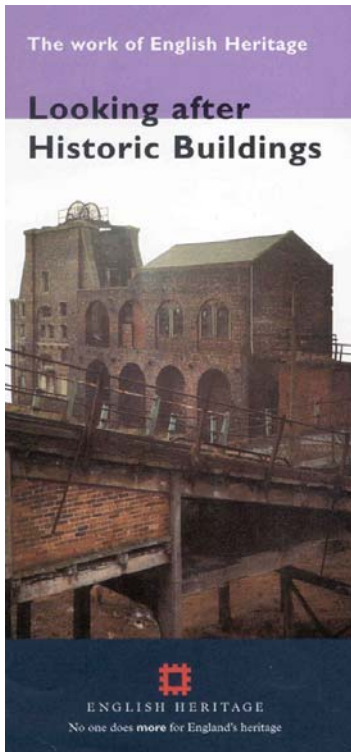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등 독립적인 행정권을 가진 국가들의 연방체이다. 때문에 우리나라와 달리 통합적인 문화유산 보호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문화재를 담당하는 행정 기관은 문화홍보체육부(The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DCMS)이다. 문화홍보체육부 내 문화유산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40명에 불과하다. 웨일즈는 웨일즈 역사유적부(Welsh Historic Monument; CADW), 스코틀랜드는 스코틀랜드 역사부(Historic Scotland; HS) 그리고 북아일랜드는 정부 내 환경부의 역사기념물 건축과에서 문화유산 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문화홍보체육부 산하 잉글리시 헤리티지(EH; English Heritage; 문화유산국)는 1983년 만들어진 국가유산법(the National Heritage Act)에 의해 영국을 위한 역사적 건축물과 상징물 위원회(The Historic Buildings and Monuments Commission)에 의해 영국 의회에 의해 1984년 4월 설립되었다. 영국 역사환경의 모든 양상을 통괄하는 정부의 어드바이스 기관으로 각종 문화유산 관리업무의



△잉글리시 헤리티지의 리스팅 빌딩 목록



△역사적 건축물 보호 팸플릿

실무적인 작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건축물과 사적에 대한 조사 및 건의의 책임을 지고 있다. 이제 20년의 역사를 철하고 있다. 1999년 4월에는 영국 역사적 상징물 왕실위원회(the Royal Commission on the Historical Monuments of England; RCHME)와 합병하였다. RCHME의 주요임무는 역사적 건축물과 고고학 분야를 조사하고 스윈돈(Swindon)에 있는 국가 상징물(the National Monuments) 기록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영국 역사환경 기록을 만드는 것이다. 잉글리시 헤리티지는 문화홍보체육부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고, 또한 입장료, 회원증, 소매, 음식판매와 같은 활동으로 수입을 충당하고 있다.

잉글리시 헤리티지는 이사장 닐 코슨스 경(Sir. Neil Cossons)에 의해 운영되고, 16명의 이사진이 맡고 있다. 현재 약 1,400명이 종사하고, 최고 피크인 여름 시즌에는 약 1,700명의 종사자가 일을 한다. 대부분의 종사자가 각각 9개 지역의 지역 사무실에서 일을 하며, 본부는 런던과 스윈돈에 있다.

잉글리시 헤리티지의 직무는 다음 3가지의 주요 업무를 한다.

- 역사적인 혹은 건축적인 건물과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념비적인 요소를 밝혀내는 것
- 그 소유주를 도와주고 영국 역사환경의 미래를 위해 유물을 보존하는 것
- 그 유물을 시민들이 평가하고, 이해하며,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등이다.

잉글리시 헤리티지는 현재 수많은 흥미로운 프로젝트의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 계획 기간 동안 ‘교회 보존 트러스트(the Churches Conservation Trust)’와 ‘역사적 주택협회(the Historic Houses Association)’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위험 건축물 기록(Register of Building at Risk)’과 ‘위험 기념비물 기록(Register of Monument at Risk)’을 선정하거나 등재하는 작업도 한다. 1999년, 위험 건축물 기록에 등재되어 있는 108개(약7%)의 건물에 관한 보수(보존)의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도 했다.

등록 리스트는 환경부 장관이 작성하거나 잉글리시 헤리티지가 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등록은 6단계로 나뉘는데, 1840년을 상위 기준선으로 삼는다.

- 1700년 이전의 건물은 전부
- 1700-1840년간의 건조물 거의 다
- 1840-1914년간의 건조물로 질과 특성이 확실한 것
- 1914-1939년간의 건조물로 질이 높거나 역사적 의의가 있는 것
- 세워진 후 30년을 경과한 건물
- 특별한 경우, 10년을 경과한 것.

건조물은 그레이드(grade) I 과 II로 나뉘는데, 그레이드 I은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그레이드 II는 지역적(regional)이거나 보존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와 비교하면 그레이드 I은 국가 지정 문화재, 그레이드 II는 등록문화재가 된다. 그레이드 I은 전체 문화재의 1.5%밖에 안되고 나머지 98.5%는 그레이드 II 즉, 등록문화재가 된다.

1994년 통계를 보면 등록문화재 건수는 44만 건에 이른다. 우리와는 비교가 될 수 없다. 런던의 경우 4백 수십건이 등록되어 있다.

현재 영국은 산업혁명 시기의 방직공장, 직원 사옥 등 기술과 산업유산 분야와 1945년 전후 시기의 건축물도 등록문화재화 하고 있다. 또한 1960년대-70년대 건축물의 보존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 예로 노만 포스터가 1977년 설계한 하이테크 오피스 빌딩도 '10년을 경과한 것'에 해당되어 등록문화재로 선정되었다. 불과 20여년 전의 건물인 것이다.

민간 자발 단체인 내셔널 트러스트(National Trust)가 뒷받침하고 있다. 영국은 1907년 내셔널 트러스트 법을 제정했다.

5. 일본 관련제도³⁾



△일본 문화청 발간
문화재건조물활용사례집 표지

일본은 1990년대에 들어서 근대건축의 보존에 상당히 주력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일본근대건축의 보존에 관한 문헌들을 일부 발췌하고, 일본근대건축보존의 사례를 일별함으로써 일본근대건축의 보존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일본근대건축 보존의 배경 및 특징

■ 진실성 개념의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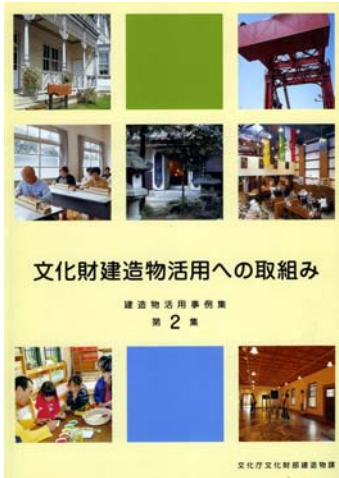
역사적 건조물의 보존활용에서 하나의 국제적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진실성(Authenticity)이라는 개념이 있다. 종래에 여러 국제적 단체에서는 이 진실성이 재료, 디자인, 기법, 장소가 당초로부터 변하지 않고 계속 보존되어 전해지는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해왔다. 1994년 11월에 나라(奈良)에서 열린 국제회의는 이러한 진실성(Authenticity) 개념을 확장한 회의로서 주목된다. 나라 회의에서는 진실성을 형태(form)와 의장(design), 재료(material)와 재질(substance), 용도(use)와 기능(function), 전통(tradition)과 기술(techniques), 입지(location)와 환경(setting), 정신(spirit)과 감성(feeling), 그 밖에 내적 외적 요인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합의하였다. 진실성은 이전의 4항목이 6쌍 12항목의 고려항목으로 확장하게 된 것이며, 그럼으로써 국제적으로 문화유산의 보존에 있어서는 각국이 갖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⁴⁾

■ 시대·장르의 확장과 방식의 변화

근대의 건축유산이 갖는 특징은, 그것이 “대량·다양·대규모”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전후 50년을 맞이하여 건조물 보존체제를 고쳐 보게 되어서, 건축만이 아니라 토목이나 도시관련의 시설에 대해서도 폭넓게 문화유산으로 파악하고 보존하자고 하는 기운이 일어났다. 이러한 작업 중에는 근대의 발자취를 보이는 국가적 유산뿐만이 아니라 지방적인 것, 비주류의 기술을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보존의 대상으로 삼자는 생각이 보여진다. 또한, 문화유산의 취급방식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이제까지 국보·중요문화재·중요미술품·사

3) 우동선, 「일본근대건축의 보존동향」, 한국과학재단 목적기초연구(근대건축물 보존과 활용방안 연구-목원대학교 연구수행)학술세미나 자료집 - 근대건축물 보존과 등록문화재 제도, 20~23쪽, 2002

4) 鈴木博之, 『現代の建築保存論』, 東京: 王國社, 9~10쪽, 2001



△일본 문화청 발간
문화재건조물활용사례집 2편
표지

적·명승이라는 지정기준의 체계 안에서 문화유산을 선별하고, 등급을 부친다는 사상이 약화되었다.⁵⁾ 또한, 예를들어, 문화유산에는 이전의 사사(寺社)에 더해져 카페가 등장하는 것처럼 장르의 구별에도 변화가 생겨났다.⁶⁾ 문화청에서는 1996년 10월에 문화재 보호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종래의 지정제도에 더하여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보호의 다양화를 꾀하였다.⁷⁾ 그리하여 사적과 건축을 탄력적으로 지정해가는 자세가 생겨났다.⁸⁾

■ 근대의 역사적 건조물에 대한 조사

일본 문화청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근대의 역사적 건조물 조사와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여 왔다. 1990년부터 「근대화유산종합조사(近代化遺産綜合調査)」를 시작하고, 1992년부터는 「근대화풍건축종합조사(近代和風建築綜合)」를 시작하여, 매년 수 개 현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성과를 바탕으로 근대화풍주택과 같은 건축물이나 수도시설, 철도시설 등 근대화유산을 중요문화재로 지정하고 있다.⁹⁾

근대화유산은 산업유산, 산업토목유산, 토목유산, 근대토목유산 등의 명칭으로도 불리고 있다.¹⁰⁾ 일반적으로 근대건축은 개항지라든지 대도시라는 중앙에 본격적으로 서구건축이 먼저 도입되고, 그것이 지방으로 파급하여 간다는 도식이 성립한다. 근대건축은 도시형의 건축이 중심인 것이다. 반면에, 근대화 유산은 이러한 도식이 반드시 성립되지 않는다. 산업건조물은 직접 생산과 연결된 건조물이고, 비록 산 속에 있더라도, 그곳에서 생산활동이 행해지면, 대규모로 첨단적인 건조물이 건설되는 것이다. 산업건조물에서는 중앙과 지방이라는 분류는 그다지 의미를 갖지 못하고, 어떠한 장소에서도 귀중한 산업유산이나 근대화유산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¹¹⁾

화풍건축(和風建築)으로서 하나의 정리된 건축군이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그때까지의 건축과는 양식이나 기술이 크게 다른 서양의 건축이 들어와서부터이다. 막말에서 명치에 걸쳐서 하나의 완결되어

5) 鈴木博之, 앞의 책, 18~19쪽

6) 鈴木博之, 油印物

7) 日本産業遺産研究會+文化廳 歴史的建造物調査研究會 編著, 『建物の見方・しらべ方, 近代産業遺産』, 東京; ぎょうせい, 1쪽, 1998

8) 鈴木博之, 앞의 책, 18쪽

9) 최선주, 앞의 책, 34~35쪽

10) 伊東孝, 『日本の近代化遺産』, 東京; 岩波新書, 2000

11) 日本産業遺産研究會+文化廳 歴史的建造物調査研究會 編著, 앞의 책, 19~20쪽



△일본 문화청 발간
등록유형문화재건조물
안내 팸플릿 표지

있는 건축세계 안에 종래의 건축과 이질적인 새로운 건축이 들어온 때에, 그때까지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던 건축이 상대화되어 위치지워지기 시작하였다. 1983년에 근대건축사가 무라마쓰 테이지로(村松貞次郎)는 근대화풍건축이 일본근대건축사의 커다란 공백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다. 화풍건축은 수량이 압도적으로 많고 표현이 다양하다.¹²⁾

이렇게, 일본은 이제까지 주류였던 서양 양식건축의 이입연구로부터 비주류였던 근대화유산과 화풍건축에 대한 조사와 연구로 향해가고 있으며, 그것은 근대화 과정의 여러 측면을 조명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 문화재 지정의 실제

소화(昭和)시대의 건축이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명치생명관(明治生命館)이 최초이다. 이 건물은 1934년에 준공한 건물인데,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 지정되었다. 1993년에는 군마현(群馬縣) 대빙치(碓氷峠)에 있는 벽돌조 철도 아치 교군(橋群)과 추전현(秋田縣)의 등창(藤倉) 수원지의 수도시설이 근대화유산으로서는 처음으로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다.¹³⁾ 이와 같이 중요문화재도 시기와 대상을 확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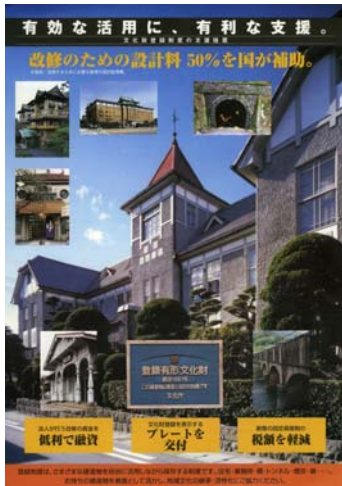
일본은 1992년에 세계유산조약을 비준하여 세계유산의 등록신청을 하게 되었고, 원폭 돔을 세계유산으로 등록하자는 추진운동이 일어나, 1995년에 사적(史跡)으로 지정되었다. 이제까지 문화재의 대상연대는 사적에서는 1890년이 최대였고, 건조물은 대정시대까지였다. 1966년에 광도시(廣島市)의회는 원폭 돔의 보존을 결의하였지만, 시의 문화재로 지정할 수 없었다. 시대가 너무 가깝다는 것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1995년에 원폭 돔이 사적이 됨으로써 문화재의 대상연대는 한번에 1945년까지 확대되었다. 그 영향은 전국의 현시정촌의 문화재행정에도 미치게 되었다.¹⁴⁾ 이는 시기적으로는 전후 50년을 맞이한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전후 50년을 계기로 일본은 자국의 근대를 명치유신 경부터 1945년경까지로 삼게 되었다.¹⁵⁾

12) 初田亨 他, 『近代和風を探る』(上巻), 東京; エクスナレッジ, 1~3쪽, 2001

13) 伊東孝, 앞의 책, 2쪽

14) 伊東孝, 앞의 책, 2~3쪽

15) 鈴木博之, 油印物



△일본 문화청 발간
등록유형문화재
각종 지원 안내 팸플렛

■ 일본근대건축의 보존사례

일본근대건축의 보존의 유형을 정리한 표가 있다.¹⁶⁾ 이 표에서는 원형보존을 현지보존과 이축보전으로 나누고 있다. 전자는 기능존속·전용·기능분담 등으로 원형을 유지하며, 현지에서 보존하며 문화재 근대건축물 보존에 많은 유형이라고 보고 있다. 후자는 철거 등으로 소멸되는 보존가치가 있는 근대건축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축하여 보존하는 것으로 야외박물관으로 이축하는 예가 많다고 나와 있다.

일본근대건축 보존의 배경 및 특징에서는 보존대상에 대한 개념과 범위가 확장되어감을 보았다. 일본근대건축의 보존사례에서는 원형보존을 중심으로 현지보존과 이축보존의 실례를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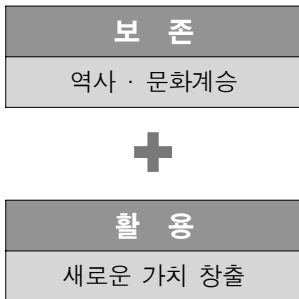
보존의 논리와 개발의 논리는 일종의 대응관계이며 하나의 세트로서 양자간에는 부단히 길항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보존과 개발이라는 이항대립의 도식에 과도하게 얽매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활용(活用)이라는 개념을 양자의 매개항으로 삼고자 하는 주장도 있다.¹⁷⁾

일본에서 근대건축의 보존은 개개의 건물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다른 목적과 전략을 갖고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보존문제에 처한 건축물에 대하여 작성하는 요망서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현재, 일본건축학회는 건축역사·의장위원회 또는 각 지부가 중심이 되어서 보존·활용·재생에 관한 요망서를 해당 건축물을 소유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송부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건축가 또는 건축사가 개인이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근대건축의 보존에 있어서는 어떤 일반적인 원칙보다는 건축물을 둘러싼 실천이 보다 중요한 특징인 것 같다.

16) 최선주, 앞의 책, 9쪽 참조. 이 표는 清水眞一 他, 『歴史ある建物の活かし方』, 京都: 學藝出版社, 1999를 참조한 것이라고 한다.

17) 보존을 전제로 한 보존적 활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도를 담은 활용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됨으로써, 보존적 활용에 대해서 활용적 보존, 활용적 개발이라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대치될 수 있다는 보는 것이다. 보존적 활용이 보다 정통적인 보존책이라면, 활용적 보존과 활용적 개발은 다소 벗어난 행위이겠지만, 이러한 행위가 갖는 의미를 생각하는 것은 장래의 보존을 위해서 극히 유익한 시사를 준다고 한다. 보존적 활용과 활용적 보존, 활용적 개발은 각각 최종적인 목표가 다르다고 한다. 보존적 활용은 역사적 조사와 구체적 목표의 엄밀한 설정이 충분히 이루어져만 하고, 보존은 활용계획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鈴木博之, 앞의 책, 8~17쪽

2 보존·활용 프로그램¹⁸⁾



1. 보존·활용계획의 원칙

건물의 역사성과 문화성은 한번 잃어버리면 두 번 다시 되찾을 수 없다. 「보존」은 이어받은 자산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현대에서 재생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건물은 단지 오래되어서 보존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존을 통해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할 필요가 있다. 즉 가치 있는 부분을 간직하고, 이것을 능숙하게 현재화함으로써 다양한 활용을 촉진시켜 건물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새로운 가치 창조를 위해 다양한 가치 평가를 기반으로 한 보존·활용계획의 「기본 계획」은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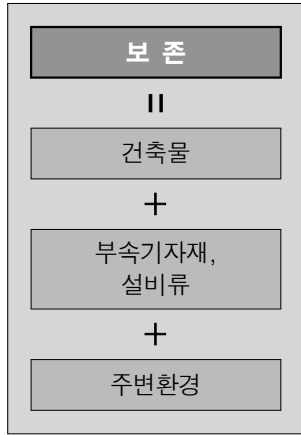
건물의 보존·활용방침·구체적 계획에서 기본계획 단계를 명확히 정의하고 명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물 고유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충분한 조사와 신중한 취급·원칙이 필요하다. 또한, 역사적 건축물은 지역의 경관 개선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지역 안에서도 그 역할을 명확히 해서 적극적으로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본 계획의 고려 항목

■ 기능의 유지와 전환

「형태」와 「외관」을 남기는 것만으로는 역사적 건물의 가치를 충분히 남겼다고 말하기 힘들다. 건물 자체를 계속 사용하거나 당시의 기능을 지속하는 것은 역사성의 계승이기도 하다. 하지만 당시의 기능을 남길 수 없을 경우 기능을 전환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면서 건물의 잠재적인 매력을 끌어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18) (재)건축보전센터, 『공공 건축물의 보존·활용 가이드라인』, 다이세이출판사, 일본, 9~20쪽, 2002. 발췌·요약한 것임.



■ 성능의 향상 · 환경으로의 배려

오랫동안 건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진 · 내화 · 안전 성능 · 방재 성능 · 기계 설비 등의 일정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단열성과 장애인 설비(배리어 프리(barrier free)¹⁹), 유니버설 디자인) 등 이용 상황에 따른 성능 향상도 모색해야한다.

지속적인 사용을 환경 배려로서 생각할 수 있지만, 단열 성능과 사용하는 설비의 성능 향상은 에너지소비 절감에 도움을 준다. 건물의 성능을 향상시킬 경우에는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계획할 필요가 있다.

■ 의장 존중과 새로운 가치의 창조

역사적 건축물은 당시 설계자의 의도를 반영하고, 건축의장 수준이 높기 때문에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개수(改修)할 때 이점을 감안해서 원래의 의장은 존중되어야한다. 또한 개수공사를 통해 신 · 구 요소의 융화와 대비 등 새로운 예술적 가치를 창조해내는 것도 바람직하다.

■ 총체의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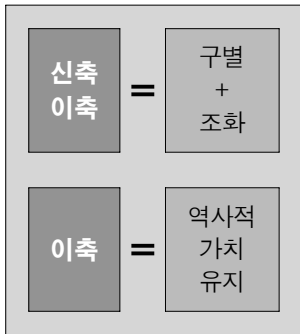
보존 대상은 건물 단위체외에도 건물과 일체된 가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예를 들면 가구 · 조명 기구 등의 기자재 · 설비류와 넓게는 주변의 지형과 환경도 또한 보존 · 활용의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건물 · 부지 · 환경이라는 구성요소의 변경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한다. 개수처럼 변경하지 않고 지속적인 사용이 이상적이지만, 어쩔 수 없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보존과 진실성(authenticity)²⁰

보존대상물에서는 진실성(본래의 형태 · 재료 · 기법 등이 유지되는

19)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 장애인이나 고령자들도 문제 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장애물을 제거한 주택. 단(段)의 높이를 없앤 도로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역의 플랫폼, 휠체어를 타고도 사용하기 쉽게 고안된 건축물이나 교통시설 따위의 공공시설도 여기에 포함된다.

20) 진실성(오센티시티, authenticity) : 문화재 보존에서는 건축 당시의 재료, 형태, 기법 등이 얼마나 남아있는지가 중요한 가치의 척도가 된다. 이에 따라 문화재에서는 본래의 재료, 형태, 기법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뜻한다.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보존할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범위와 요소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갱신 가능한 부분과 남겨야 할 요소를 알기 쉬운 형태로 나타내면 나중의 유지관리와 재개수에도 도움을 준다.

■ 시설의 신축과 증축

증축과 건물을 인접해서 신축할 경우에는 역사적인 건물과 구별되면서 역사적인 건물과 조화되도록 배치·용적·규모·의장 측면에서 고려해야한다. 단순히 의장을 유사하게 하기보다도 의장의 대비와 조화를 통해 새로운 가치가 창조되도록 노력해야한다.

■ 이축

건물의 이축은 본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크게 감소시키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방재와 활용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역사적 가치의 유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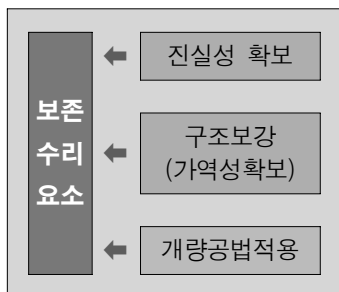
2. 기술상의 원칙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개수는 문화재 건조물의 수리에 준할만한 검토도 포함하고, 지난 세월동안 저하된 기능 회복과 새로운 기능 설치의 고려가 필요하다. 전통 기술의 계승과 새롭게 개발된 개량 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건물의 가치를 중시하고 기술의 적성도를 생각하면서 검토해야한다.

■ 보존·개수(改修)기술의 기본적인 사고방식

■ 조사·분석

대상 건축물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역사적·문화적·경제적·기능적 가치 등을 충분히 조사해야한다. 한편으론 파손현황조사·내구성·내진성·안전성 등을 조사해 그 원인을 밝힘으로써 정확한 개수의 기초 자료로서 사용해야한다.



■ 진실성의 확보

중요한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존수리가 바람직하고, 당시의 재료·공법을 활용하여 진실성(authenticity)의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그 외의 부분과 부위에서는 새로운 기능과 용도를 비교하면서 본래의 공간 이미지를 존중한 기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가역성(可逆性)

개수에도 가역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훗날 재개수가 가능한 상세공법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조 보강의 경우 장래에 더욱 유효한 다른 보강방법이 개발될 경우를 고려하여 새로 부착되는 부분은 떼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구성 방법과 보강

구성 방법은 원칙적으로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을 답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내진 진단·구조 진단의 결과에 따라 새로운 구조 보강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 재료·공법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가진 부분과 부위를 마감할 때 본래의 재료를 사용하고 당초의 공법에 준한 것이 바람직하다. 그 외의 부분과 부위에서는 가장 비슷한 재료와 당초의 마감을 남길 수 있는 대체 재료를 고려해야한다.

본래의 공법에 내구성·하중·방재에서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개량공법을 사용해야한다. 역사적인 형태와 재료를 보존하기위한 유효한 수단으로서 재료의 강화와 경화처리가 있지만, 본래의 재료를 손상하지 않도록 충분한 조사와 시험결과검토를 거친 후에 이것을 실행해야한다. 얼룩 제거는 정도에 따라 적절한 처리방법을 고려해야한다.

용도변경을 위해 전혀 다른 재료와 공법을 활용할 경우에는 기록으로서 오리지널의 일부분을 그대로 보존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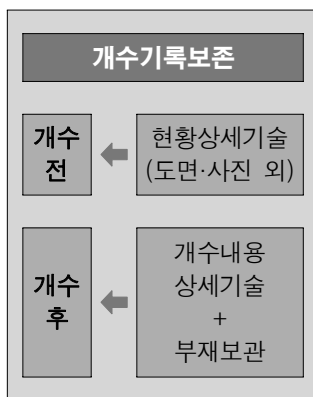
■ 복원

개축부분을 복원할 경우에는 사료를 이용한 실증적 연구와 분석을 통해 당초의 형태와 그 후의 변천을 명확히 해야 한다. 후세의 개축이 역사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도 많고, 반드시 당시의 형태로 복원한다고 해서 역사성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복원에서는 추측의 개입을 막아야한다. 구조와 형태가 분명히 불완전하거나 역사적·문화적으로 불명확한 부분을 충분히 분석·검토해 복원할 경우에는 복원범위가 오리지널 부분보다도 크게 상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복원 범위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기록의 보존과 공개

개수의 경우에는 미리 기록을 상세하게 남겨야한다. 특히 당시의 상세기법을 답습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수전의 기록은 도면·사진 그 외의 수단을 활용하여 정밀하게 남겨야한다.

파손현황파악과 원인 검토, 부재의 기록(도면, 사진), 개수공사의 공법과 공정, 준공도, 준공 사진, 사업비 등의 기록을 작성·보존하고, 그 개요는 보고서로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 기록의 일환으로서 당시의 상세기법을 나타내는 부재의 일부를 보관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



■ 개수 기술자 · 기능자

개수에 종사하는 설계 감리자는 개수의 기술 책임자로서 자각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충분히 인식한 후에 설계와 공사를 총괄해야한다. 역사적 건축물로서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현대적 기능을 만족시키도록 노력해야한다.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과 전통적 기술을 바탕으로 최신기술을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계획능력·디자인능력을 겸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수리설계자와 건축설계자와 연계하거나 다양한 전문가로 「활용계획·수리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시공 관리자는 공사의 내용을 정확히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문 기능자(목수·석공·미장이 등)에게는 높은 기량과 전통적 기술의 응용력 등이 요구된다.

3. 보존·운영의 방향성

※ NPO(Nonprofit Organization) : 시민활동 등의 특정 비영리 활동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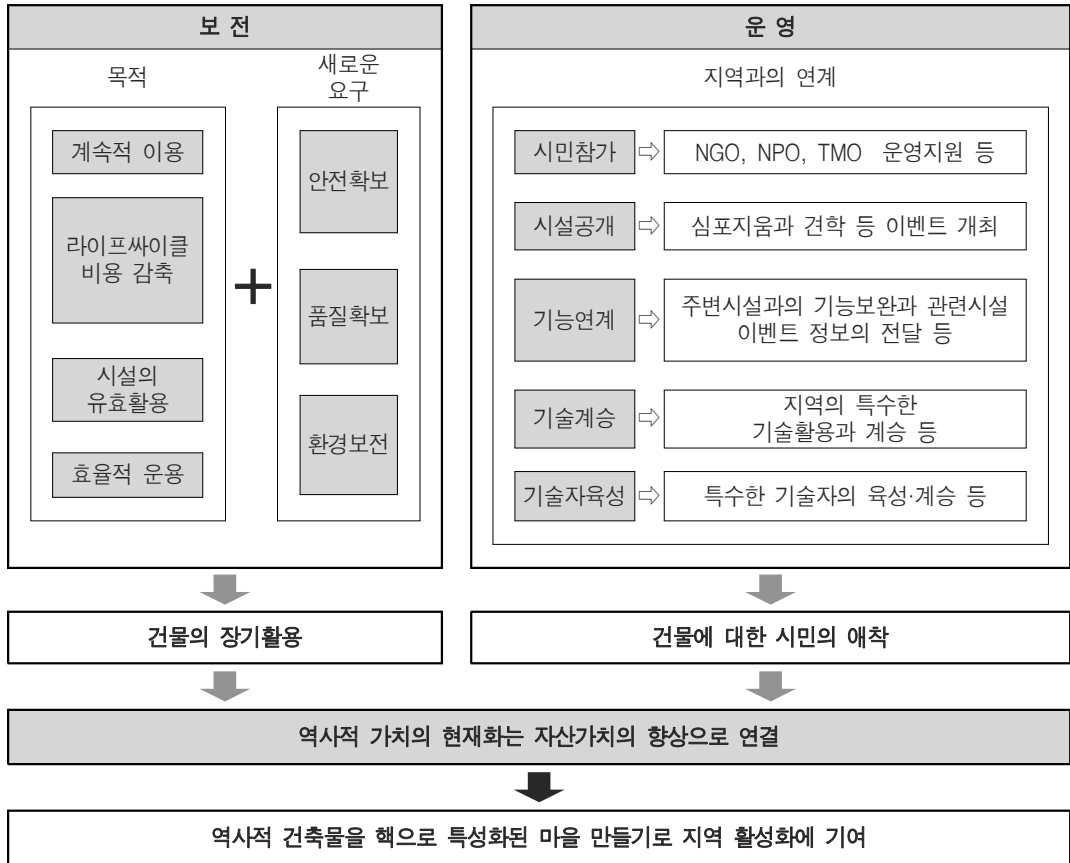
※ TMO(Town Management Organization) : 상점가, 상공 회의소, 제3섹타 등에서 조직된 시정촌의 「중심 시가지 활성화 기본 계획」에 따라, 시설정비와 빈 점포 대책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의 작성과 추진을 행하는 기관.

공공 건축물은 시민의 공유 재산이며, 그 재산을 오랫동안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물 성능의 유지와 향상을 포함한 보존계획이 필요하다. 시민의 애착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참가를 통한 운영지원과 마을 만들기 이벤트의 개최 등으로 지역과 연계한 운영이 불가결하다.

건물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가치의 현재화와 건물가치의 향상이 필요하다. 특히 역사적 가치는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건물 고유의 요소이기에 자산 가치로서도 인식해야 한다. 시민이 참가할 수 있도록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건물에 애착을 높임으로써 시민공유 마을의 재산으로서 개성이 넘치는 마을 만들기가 가능해진다.

다음 표는 보존, 운영의 방향성을 나타낸다.

□ 보존·운영의 방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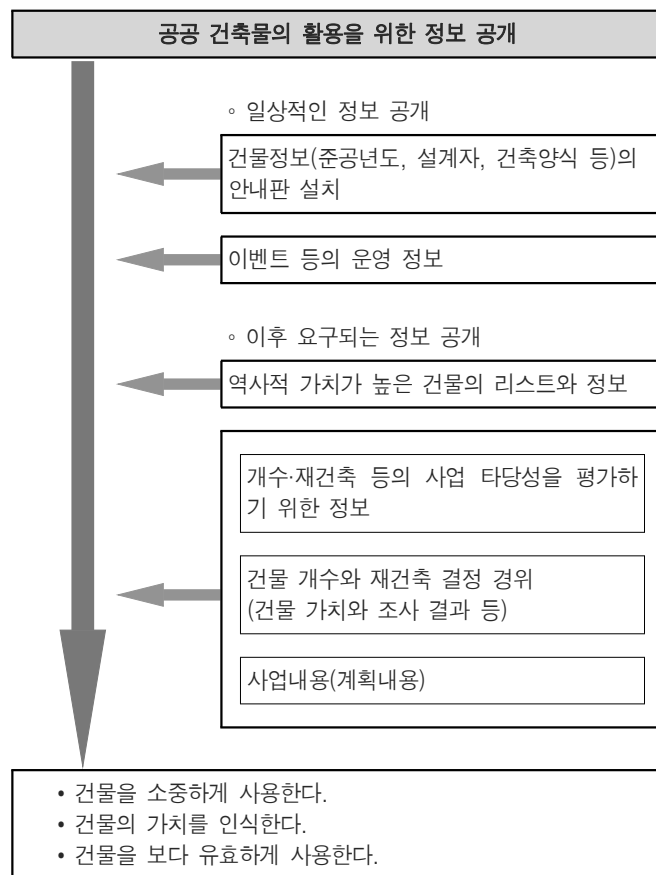


4. 공공 건축물의 정보공개

정보의 공유화와 커뮤니케이션을 추진하고 지역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시키면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정보공개가 필요하다. 공공 건축물의 PR을 통해 시민에게 건물의 가치를 인식시키면서 건물을 소중하게 사용할 의식과 관심을 심어 줄 수 있다.

정보공개를 위해서는, 건물의 준공년도·설계자·건축양식 등의 「건축정보」와, 전시회·각종 문화행사 등의 이벤트 「운영정보」를 일상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특히 역사적 가치가 높은 건물에서는 목록화를 통해 항상 정보를 검색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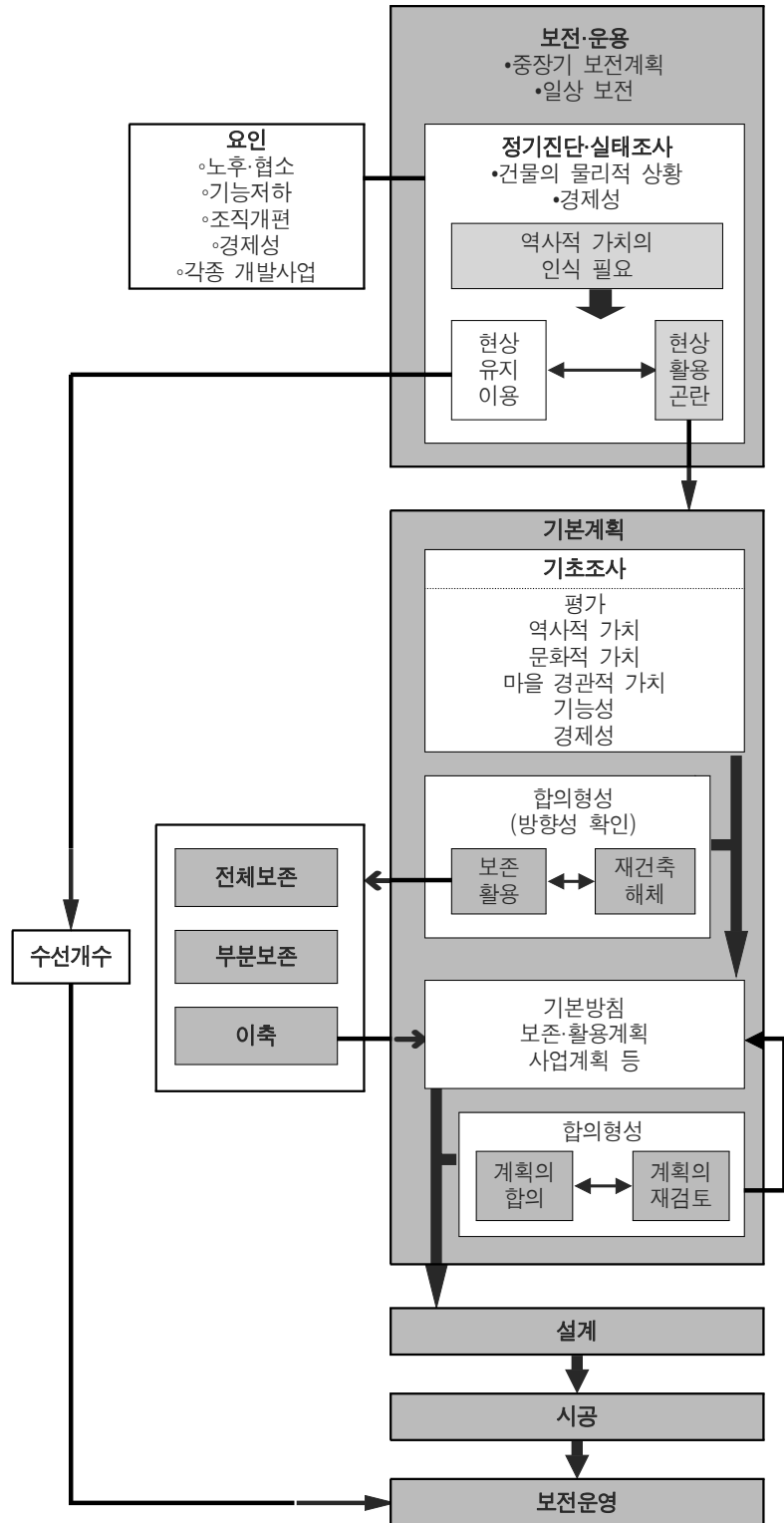
재건축과 개수 등의 사업개시단계에서는 그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정보를 공개해야한다.



5. 보존·활용의 진행방법 (조사·계획·실시의 전체 절차)

공공 건축물의 보존·활용은 현재 시설을 수선하거나 개수하여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흐름이 있다.

또한 현재 상태로 활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새로운 활용 방법을 검토하여 기본 계획을 책정하고, 설계·시공으로 진행하는 흐름도 있다.



6. 역사적 공공 건축물 보존·활용의 효과

역사적 건축물은 잠재적인 가치도 포함해서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적절한 보존과 개수를 함으로써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저하된 기능의 회복과 기능전환을 통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가능하고, 훨씬 높은 사회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문화적 가치의 유지·재생

오랜 세월로 건물 외장이 퇴락되거나 후세의 개조·수선은 그 건물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현저하게 손상시킬 수 있다. 목조와 석조에서는 세월의 흔적이 존중되는 경우도 있지만, 철근 콘크리트조 등에서는 검은 얼룩이 생기거나, 균열을 발생시켜 의장적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

개수·수리를 통해 당시의 영광을 되돌리고, 지역에서 상징적 존재가 되어 사람들에게 자긍심을 되살려 주거나 개성 있는 마을로 만들어주는 중심적인 존재가 되기도 한다.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활기를 되찾기도 하고, 관광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역사성의 표현

지역과 도시에서 쌓인 시간 퇴적은 ‘사람’과 ‘물건’에 남아있다. 언어·습성·기풍 등 무형의 것은 ‘물건’에 남고, ‘사람’의 행위도 다양한 ‘물건’에 남는다.

특히 역사적 건축물은 대지의 기억을 전해주며, 주변경관에 안정감과 정서를 제공한다. 역사적인 기억을 남기거나 알기 쉽게 표현하는 역사적 건축물의 적절한 보존과 활용은 지역의 지적수준을 나타내고, 풍부한 감성을 키우는 근원이 된다. 이러한 ‘사람’과 ‘물건’들이 만든 장소에는 관광객이 반복해서 방문하고 지역의 활성화와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준다.

일본의 모지(門司)²¹⁾와 오타루(小樽)²²⁾는 메이지(明治)부터 쇼와(昭和)초기에 이르는 역사적 건축물과 토목 유산이 많이 남아 있지

21) 모지(門司) : 북규슈시(北九州市)의 7개 구(區)중에 하나

22) 오타루(小樽) : 홋카이도(北海道) 서부, 이시가리만(石狩灣)에 위치한 시

만, 점점 없어져가는 운명에 있었다. 오타루에서는 운하의 보존운동을 계기로,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활용을 통해 새로운 시도가 있어 관광명소가 됐다. 모지시(門司市)는 JR모지항(門司港) 철도 역사를 중심으로 역사적 건축물을 보존·활용하여 마을 고유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등 지역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일본은행 오타루 지점

■ 새로운 가치 만들기

역사적 건축물을 활용하기 위해 기능을 전환시킴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문화적, 예술적 가치를 인정하면서 그 가치를 테마로서 활용하기 위해 개장하거나 증·개축할 수 있다. 신·구 의장의 조화와 대비를 통해 새로운 예술적 가치를 낳고, 긴장감 넘치는 공간을 창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루브르 박물관은 지하 증축이라는 오리지널 건물을 존중하는 계획과 중정의 유리 지붕을 이용한 아트리움은 현대적 표현이 낳은 공간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했다.



△파리 루브르박물관 중정 유리 피라미드



△유리 피라미드 하부

■ 지역 활성화의 사례

공공 건축물은 원래 지역의 심벌로서 지어진 경우에는 현재도 지역의 경관에서 중요시되고 있다. 건물을 남기려는 태도는 시민이 받아들이기 쉽고, 시민쪽에서 보존 요망이 제출되는 경우도 있다. 한편에서는 단순히 남기는 것만이 아니라 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나고야시 연극 연습관
아크테논

이러한 경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보다도 기능을 전환해서 활용을 도모하는 예가 많다. 예를 들면, 수도배수탑을 도서관 기능과 연극 연습관으로서 재생시킨 ‘나고야시 연극 연습관 아크테논’(愛知県 名古屋市)과, ‘가나자와 시민예술마을’(石川県 金沢市)과 같이 창고군을 예술 활동의 거점으로서 활용한 사례 등도 있다.

전쟁 후의 건축에서도 보존·활용 사례가 보인다. 본래 건축가 이소자키 아라타(磯崎新)의 초기 대표작인 ‘구 오이타 현립 오이타도서관’은 새로운 도서관이 개관된 후에 철거될 예정이었지만, 보존과 재생을 둘러싸고 지역에서 논쟁이 전개되었다. 결국 오이타시가 현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의 무상 대여를 받아 시민 갤러리로서 재생되었다.

이처럼,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의 활용에는 크게 두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는 원으로서 활용하는 예로, 건물 그 자체를 관광 대상으로 하는 경우, 건물을 관광 몰산 센터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그 양쪽을 모두 가진 경우가 있다.

둘째는 교류의 장소이거나 활동의 장소로서 활용하면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활용의 방향성으로서 건물의 가치와 매력을 끌어내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용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특히 계획적인 측면과 관리운영 측면에서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3

보존·활용을 위한 기술적 접근

1. 구조보강

건축물이 노후하였거나 태풍이나 지진 등의 재해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취약해진 경우 장기적인 보존활용을 위한 구조보강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건물 자체의 취약성 때문에 구조보강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활용시 관람자나 전시시설물의 하중 등의 요인 때문에 구조를 보강하는 경우도 생긴다.

구조보강도 건물의 원형을 최대한 손상시키지 않고 실시하여야 하며 원형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강재는 최대한 감추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추후 건물의 원형과 추가된 보강재를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 외관이나 내장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보존의 방침에 근거한 수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 각 구조별 구조보강방법은 다음과 같다.

■ 목구조

■ 보강의 방법

근대 문화재 활용을 위한 구조보강에서 목구조 보강은 그 다양성으로 인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매우 많다. 더구나 목조건물의 구조보강의 경우에는, 표준적인 진단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보강방법에 대해서는 최신의 사례나 전문가의 의견 등을 참고로 하면서, 목표로 하는 구조 성능을 설정해, 건물 전체의 밸런스, 의장 보존의 문제, 시공상의 문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부분적으로 과도한 보강을 하는 것에 의해 오히려 건물 전체에 악영향이 생기는 것도 생각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된 보강공법으로서는, 어긋남이나 보강 철물 등에 의한 강도 향상을 목적으로 한 재래의 보강공법, 은폐 부분에 철골 등을 이용하여 가구나 지붕구조 등을 보강하는 공법, 또 최근에는 제진(制振)덤퍼를 이용하는 것이나 면진개장(retrofit)등도 채용되고 있다. 주요 부분의 보강방법은 다음과 같다.

• 기초 및 바닥구조

장래의 장기간의 활용을 위하여 그 동안 노후가 장기간 진행되어

은 목조 건축물의 기초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특히 소형 근대건축물인 경우 일반적으로 말뚝이 없는 간이기초이거나 초석놓기 정도의 경우도 많다. 이때에는 지반다지기·기초다지기·동자주 엮기 등에 의해 바닥밀 부분의 일체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초형식의 변경도 고려한다. 또, 연약지반에서 부동침하가 생기고 있는 경우나 액상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지반 개량 등도 고려하여 보강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바닥구조에 대해서는, 수평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버팀목재(귀잡이)나 수평 가새의 삽입, 바닥기초판을 구조용 합판으로 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 몸체

몸체는 일정량 이상의 기둥과 벽이 균형있게 잘 배치되어 있고, 나아가 큰 개구부가 없는 것이 중요하다. 또, 몸체의 보강에는, 인방(引枋)의 강도나 토벽의 강도도 포함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무 장부이음의 큰 재료를 이용한 맞춤도 산지 등으로 긴결되어 있으면 강성도 비교적 높지만, 의장상 가는 재료를 이용할 경우나, 기둥 공간이 커서 밸런스가 나쁜 경우는, 상당한 보강이 필요로 되어 보강방법의 선정에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벽의 보강방법에는 가새, 구조용 합판, 철판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벽량을 그다지 늘릴 수 없는 건물의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벽배율을 높이는 것을 이용할 때는, 기둥에 대한 보강도 필요하다. 이러한 것은 활용상 요구되는 조건과 건물의 상태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합리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또, 건물의 구석 각부에 내력벽을 배치하면 흔들림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지므로, 이것도 고려할 수 있다.

· 지붕 부분

지붕은 활용의 필요성보다는 건물의 장기적인 구조적 안정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지붕부분은 보 구면(構面)의 수평 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보강 방법으로는, 지붕구조 가새, 구름 가새나 흔들림고정(대공밀잡이)의 설치, 산자판을 구조용 합판으로 하는 등 방법이 있다. 또, 지붕의 중량을 경감하는 것은 내진상 유효한 것이고, 보트를 놓는 방법을 온통바르기로부터 산자바르기로 변경하는 등도 검토될 수 있다. 다만, 지붕이기 재료의 변경은 의장상 큰 문

제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 유의사항

근대 건축물의 활용에 있어서 목조의 보존 개수는 시공시에 문제로, 건조 목재의 조달 및 품질 보관 유지를 위한 적정 공사기간의 확보, 기능자의 확보이다. 또, 가설의 문제나 띠 등의 지붕이기 재료, 기와·벽돌 등의 점토제품, 유리, 철물류 등도 조달하기 어려운 것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것은 활용을 위한 개수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보존개수에서도 중요하다.

활용을 위한 목구조 개수에서 구조체 자체뿐만 아니라 옷칠·미장 등의 마감재 시공에 대해서도 충분한 건조기간이나 양생기간이 필요하고, 또 희소재료의 조달시기나 시공시기가 한정되는 것도 있다. 이 때문에, 기능공만으로 공사기간을 산정할 수 없고, 품질 보관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관람자를 위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벽돌조

■ 보강의 방법

· 구조체 자체를 보강

활용을 위한 벽돌조 자체보강에는 관람자들로 하여금 구조적 안정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 실제로 장기적인 구조적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나아가 기존의 구조체와 가능한 조화롭게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덧칠을 하는 등의 방법은 피해야 한다.

벽돌조의 줄눈 몰탈은 석회 몰탈, 혹은 시멘트와 석회의 혼용 몰탈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시멘트 몰탈이 이용되지 않고 있으면 구조벽체 자체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또 벽돌재는, 경년 열화에 의해 풍화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가 상정된다. 벽돌의 풍화에는 수분이 관여한 염류 풍화나 건습의 반복으로 동결 융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침투성흡수방지재의 도포를 검토한다. 합성수지를 함침시키는 방법은, 강도의 증가보다는 열화를 방지하는 이유가 강하다. 줄눈의 열화가 심한 경우는, 에폭시 수지 주입을 세세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크랙에는, 수지의 시멘트 슬러리(slurry) 주입방법이 있다.

이러한 보강만으로 구조상의 안정이 얻을 수 없는 경우, PC강봉을 구조체에 관통하는 형태로 삽입하고, 그라우트제를 주입하여 강화하는 예도 있다. 내진적으로 약한 지붕구조와 만나는 부분의 벽체 최상부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외주부에 RC조 등에 의한 보를 마련하는 것도 있다.

· 철골에 의한 보강

구조체 자체의 보강에 한계가 있는 경우, 철골에 의해 보강하는 방법이 있다. 방법으로 내부 보강과 외부 보강으로 대별되어 외부 보강의 경우는 외관을 그대로 남기는 것이 어렵다. 내부 보강의 경우는 철근 콘크리트 보강에 비해 내부 의장 공간에의 영향은 적다.

철골과 벽돌벽체와는 구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구조해석을 하여 보강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철골과 벽돌벽체와의 연결 방법도, 가능한 한 원형을 손상시키지 않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로 한다.

이외, 벽체를 철판이나 탄소섬유 등으로 면적인 보강방법도 강구되지만, 가급적 재수리를 하는 배려가 바람직하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서 활용을 위한 기능상의 저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며 철공자체의 방청 등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

· 철근 콘크리트에 의한 보강

벽돌 구조체에 와양(臥梁)을 신설하는 방법이나, 기초 부분·개구부 등 부분적인 보강 방법, 벽돌 구조체의 안쪽에 콘크리트를 증설 보강하는 방법이 있다. 후자의 방법에서는, 보강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새로운 구조체를 구축하기 위해, 본래의 벽돌 구조체로서의 보존 가치 및 내부의 의장 공간 가치에 영향이 크고, 보존 수법으로서 선택하기에는 주의를 필요로 한다.

또, 보강에 의한 하중 증가에 대해서 장소에 따라 기초 지반의 내력 부족이 우려되므로, 지반 개량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유의사항

· 시공 사전 조사

시공에 착수하기 전에 개수 설계도서의 사양을 기본으로 시공 사전 조사를 하여 벽돌구조체 내부의 상태가 활용을 위한 개수 설계도의 사양대로 시공할 수 있을지 여부, 또 각종 보존부재의 수복 가

능성과 수복 정도를 확인 하고, 그에 따라 스케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활용의 용도에 따라 제약이 따르기도 하고 적당한 공간의 확보를 위해서도 사전 검토는 필요하다.

▪ 해체 공사

해체공사에는 부분 해체, 반 해체 및 전체 해체 수리를 들 수 있는데 지금까지의 벽돌조의 개수에서는 부분 해체로 한 사례가 많다. 활용을 위한 개수에서 해체공사는 활용을 병행하면서 부분해체로 했을 때 공간의 확보, 이용자들에게 주는 제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석조

▪ 보강의 방법

석조의 종류에는 구조체 자체가 석조인 건물과 기단부나 외벽이 장식쌓기의 석조로 보이는 건물이 있다. 또, 외관상 돌쌓기와 돌붙이기가 구별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부분적으로 돌을 붙이는 경우도 있다.

보강석조는 내진성이 낮기 때문에, 많은 경우, 구조체는 벽돌조, RC조, SRC조, 철골조, 목조 혹은 그 조합의 구조가 된다. 그래서 그러한 구조에 따라 내진성 등의 구조진단을 한다. 또, 돌의 구체에 설치방법이 구조적으로 충분한가 검토한다. 석조 자체에 내진성을 갖게 하기에는, 프리스트레스력을 도입하여, 석조간의 마찰력을 높혀 일체화하는 것도 있다.

활용을 위한 석조의 보강방법은 노후나 훼손, 그밖에 활용으로 말미암아 희생되는 부분에 대한 구조보강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이것을 공사 부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부동 침하

석조는 자중이 크고, 부동 침하에 의해 구조체에 손상을 발생 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에는 언더피닝에 의해, 기초에 새로운 지지력을 첨가한다. 언더피닝의 방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 지지지반의 개량

약액주입 등에 의해, 주변 지반의 지지력의 보강을 한다. 또 지반의 이완을 방지한다.

▪ 재래 기초의 보강

기초 푸팅을 증강하여 지지력을 증가하거나 지중보를 연결, 증강한다.

▪ 기초의 신설

이 방법은 지반 개량 등에는 비교해 확실하지만, 신기초의 축조, 바뀌쌓기 등 어려운 작업을 수반하며, 공사비도 많이 든다. 신설 기초에 반력을 잡아, 건물을 잭으로 올려 부동침하를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 유의사항

활용을 위한 시공상의 유의해야 할 점은 석재의 재이용을 위한 석재 떼어내기가 된다. 이것은 자재의 활용뿐만 아니라 건물의 활용을 위해서도 적극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줄눈에 커터를 넣어 몰탈줄눈으로 고정되어 있는 각 석재를 떼어낸다. 차례차례 상단으로부터 몸체와 석재의 사이의 몰탈을 깎아내면서 석재를 벗기듯이 떼어낸다.

떼어내진 석재는 발판 등에서 받아 체인 블록, 와이어로프에 의해 회수한다.

미리 도면에서 돌번호를 결정해 두고, 돌의 설치 위치를 확인한 다음, 회수한 석재의 이면에 번호를 매긴다. 석재의 번호를 확인하면서, 차례로 옮겨 쌓는다. 덧붙여 떼어낸 후 재이용하지 않는 석재에 대해서도, 자료로서 일부 보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관할 때는, 돌 사이에 잔목을 사이에 두어, 3~5 단쌓기로 한다.

■ 철근콘크리트조

▪ 보강의 방법

보강의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지만, 목표로 하는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최적의 방법을 선택 혹은 편성해 적용한다.

- ① 외벽을 마무리로 간주하고, 외벽 안쪽에 철근 콘크리트벽을 타설한다.
- ② 기존의 철근콘크리트 내진벽을 늘려 친다.

- ③ 철근 콘크리트 내진벽을 신설, 증설한다.
- ④ 철골 가새(brace)를 신설한다.
- ⑤ 기둥, 보를 철근 콘크리트에서 증대시킨다.
- ⑥ 기둥, 보에 탄소섬유, 강판을 감는다.
- ⑦ 기존의 철근 콘크리트벽에, 구조 스티트를 마련한다.
- ⑧ 구조체에 덤퍼를 짜 넣는다.
- ⑨ 건축물의 일부, 혹은 전체를 면진(免震)화한다.

상기에서 ①~④는 주로 건축물의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지진력의 저항에 이바지하는 것이다(強度型 공법). 이러한 공법은, 새로운 구조 요소를 추가하기 때문에 평면 계획상의 제약을 받기 쉽다.

⑤~⑦는 주로 건축물의 인성(靱性)을 개선하여, 지진력에 대해서 끈기로 저항하는 것이다(靱性型 공법). 인성형 공법은, 강도형 공법에 비해 평면 계획상의 제약은 적지만, 지진 시에 건축물의 변형보다, 지진력에 저항하기 때문에 구조 2차 부재나 건축 마감재 등의 피해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⑧~⑨는 건축물에 짜 넣은 덤퍼나 면진부재에 지진 에너지를 흡수시켜, 지진 에너지를 제어 저감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손상을 억제하는 것이다(制震·면진공법). 이러한 공법은, 앞의 ①~⑦의 공법에 비해, 더욱 평면 계획상의 제약은 적게 된다.

■ 유의사항

· 일반적으로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을 보강하는 경우

기존 부분의 철거·해체나 시공 앵커의 타설 시에 소음·진동을 수반하지만, 특히 진동에 의한 기존 구체나 마무리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 나머지 시공앵커의 설계강도는 기존 콘크리트 강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부위 마다 조사에 의해 설정할 필요가 있다

· 재료의 사용

보수·개수 시에 외벽에 사용되고 있는 석재, 타일, 벽돌과 동일한 재질감을 가지는 재료의 조달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에는, 그곳에 사용되어 있는 재료의 상태가 좋으면, 그것들을 재이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같은 재질감을 가지는 재료를 국내외로부터 찾을 필요가 있다.

▪ 외벽을 세정하는 경우는,

외벽의 일부를 잘라내고, 얼룩 성분과 얼룩의 침투 상태를 조사하여 적절한 세정액과 세정 방법을 선택한다. 고압 세정 때는, 미리 외벽의 일부에서 시험을 하고, 적절한 압력으로 조정한다. 세정제는 가능한 이용하지 않고, 수세 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대량의 약제를 사용할 때에는, 주변 환경을 오염하지 않도록 약제선정, 처리 후의 중화 조치의 배려가 요구된다.

■ 철골조

▪ 보강의 방법

건물을 장기적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노후나 저하에 의해 구조보강을 하는 경우에 보강방법을 선택한다. 설계도서나 현지에서의 실태조사에 근거한 내진진단 결과보다, 부재의 좌굴이나 접합부에서 내력·인성이 정해져 있는가, 가구(架構) 전체의 내력이 정해져 있는가를 판정한다. 이것에 의해 보강공법을 설정해 상세를 검토한다. 그렇지만, 보강의 자세한 것은, 건물의 사용상황이나 용도변경의 유무, 살면서 하는 개수공사가 있었는가, 아닌가, 또 장기간의 사용에 의한 구조체의 단면 열화나 부재의 잔류변형의 유무 등에 따라 적절히 설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 구조체의 보강

건물의 수평내력을 증대시키는 보강공법으로서 기존 가새를 보강하는 방법, 및 기존 프레임내에 새로운 가새나 내진 프레임·내진 샷기둥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가새는 인장력만을 부담하는 인장 가새로서 설계되어 있지만, 좌굴을 구속해 압축력도 부담시키도록 하면, 새로운 브레이스를 설치하는 일없이 건물의 수평내력을 큰 폭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 기둥의 보강

기둥 단면을 커버 플레이트로 보강하고, 단면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과 동시에, 기둥재의 인성도 향상시킨다.

▪ 보의 보강

대들보가 필요한 내력·변형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의 보강 공법에는 리브를 용접·접합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앵글을 볼트로 고정하기도 한다. 이것은 변형방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인성형의 보강공법이다.

■ 유의사항

· 사용 재료의 확인과 시공 범위의 설정

활용을 위한 구조보강에서 주의할 점의 하나는 설계도서나 보수·보강 이력이 갖추어지고 있는 경우에서도, 건물에 사용되어 있는 재료의 자세한 것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 청취나 현지조사를 거쳐서 사용 재료나 이력의 파악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 보강·보수 범위의 설정은 활용의 범위나 관련하는 규격이나 지침류를 참고로 한 보강 방법이나 사용 재료 다른 열화도의 판정과 거기에 기초를 두는 보강·보수 재료·사양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강 요령 및 보강부재의 형상·치수의 결정을 위한 기존 철골부재의 단면 치수, 접합 방법의 가능성에 대한 조사도 아울러 필요하지만, 조사시의 가설 상황에 따라서는 불충분하기 십상이다. 특히 활용상황을 설정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보강·보수 공법의 설정

보강·보수 공법의 선정은, 활용의 용도·품질·비용·공사기간에 크게 영향을 주므로, 충분한 사전 조정이 중요하다. 또, 건물을 활용 중에 개수하는 경우에는, 소음·진동·진애(塵埃)·악취 등의 환경 문제에 배려함과 함께,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무화기(無火氣) 공법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접합 공법의 보존

리벳접합으로 대표되는 접합공법의 양태를 그대로 현존시키는 것은, 강재부식의 억제라는 측면에서 곤란하다. 접합부의 표면처리를 거친 방식(防蝕)도장에 의한 대상이 현실적이지만, 사전검토에 의해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재도장 마무리

활용을 위한 마감은 기존 구조체와 시각적 이질성을 커버하도록

한다. 강재의 녹방지처리로서의 재도장 마감공정은, 바탕 조정으로부터 방식처리를 한 후, 도장 마무리를 한다. 바탕 조정에는 동력 공구와 수공구를 병용한 녹제거의 경우가 많다. 작업환경의 불안정함과 아울러, 접합부 등 형상에 따라서는 녹제거가 불충분하게 되는 것도 염려되므로, 품질 확보에는 충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녹방지처리에 대해서는, 기초나 기존 도막과의 조화를 고려한 고내구성 녹방지 시방을 선정한다. 도장시에는, 옥내 작업에 있어서의 약취 발생과 옥외 작업에 있어서의 비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환경 대응형태의 도료의 채용이나 충분한 환기, 비산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활용 중에 공사를 할 경우에는 이 점에 유의한다.

2. 설비 도입의 원칙

건축물은 사용됨으로써 세심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사람도 건물에 대한 애착과 이해를 갖게 된다. 건물을 건전한 상태로 유지하고, 사용을 하면서 유지해 가는 것은 보존의 유력한 수단이다. 그러나 활용의 용도에 따라서는 건물이 그 기능을 완수하기 위해서, 설비의 도입, 일부 건물 본체의 개수, 부속시설의 증설 등이 큰 폭으로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설치는 구조체나 내외장의 일부에 영향을 주거나 외관이나 공간을 손상시키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 건물 본래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큰 요소가 되기도 한다.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고, 용도를 가능한 한 충족시키는 한편, 상충되는 쌍방의 목적을 적절하게 절충하여 활용을 잘 성립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문화재에의 설비류의 도입 등에 대한 일반적인 가치관과 방법에는, 외관을 예로 든다면, 중요한 면은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도록 하고 후면 쪽에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을 이용하여 옥외에 설비기기를 설치한다든가, 실내 공간도 설비의 중요 기능을 한 실에 집중시켜 다른 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설비류 등의 도입을 수복의 관점에서 너무 억제하면, 결국은 수복 후의 활용 과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 결과 덧붙이기 등으로 무계획적인 설비의 증설이 될 우려도 있다.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수복시의 활용에 따르는 설비류의 계획은 장래를 예측하면서 과대·과소하지 않게 신중하게 해야 한다.

또한 설비류의 설계는, 대개는 각각의 기능마다 담당설계자가 별도로 하게 되고, 개개에 대해서는 잘 고안된 것이라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다. 기기의 위치나 설치하는 방법, 색조, 디자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과 통괄하는 책임자가 필요하다.

■ 공조설비

오늘날의 생활에서는 공조 설비가 당연하게 되고, 공공의 장소에서는 냉난방이 완비되고 있다. 활용되고 있는 근대 건축에서도, 실내 환경의 취급이 과제가 된다.

방문자가 활용 건물 내에서 쾌적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공조는 필요하겠지만. 한편, 건물에 살았고, 사용한 사람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는지를 알리기 위해서는, 공개 민가 혹은 카와사키 민가원이나 산케이엔 등의 야외 건물 박물관에서 볼 수 있듯이, 옛날과 같은 조건에서 환경 설비를 체험할 수 있어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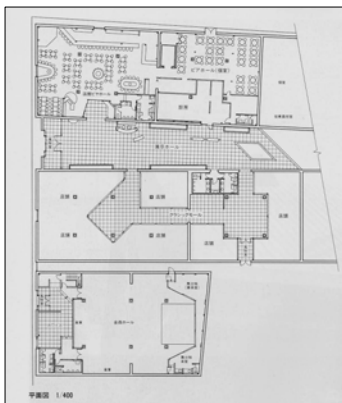
그러나 공개되고 있는 지정 문화재의 대부분이 관리상 실내는 화기 엄금이다. 따라서 수리과정을 통해서 난로가 mantelpiece(벽에 구멍진 장식난로)와 연도를 포함해 복원되어도 불을 넣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굴뚝은 구조상의 문제로부터 보강되어 화기 통로 자체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복원 되는 것도 드물다.

일본우편선주식회사 오타루 지점(1987년 수리)에서는, 전관이 새롭게 증기난방이 도입되었다. 귀빈실의 스팀라디에이터가 그 위치에 남아 있지만, 스팀 난방은 이미 이용되지 않기 때문에, 난방으로서의 기능은 복구되지 않았다.

건물에 있어서는 색다른 물건인 공조 설비를 어떻게 보이게 할지도 과제가 된다. 구 홍콩 상하이은행 나가사키 지점에서는 대형의 설비에 루버 커버를 씌워 가리고 있다. 굳이 보여도 상관없는 것으로서 창 밑의 허리 벽의 높이에 들어가는 기기가 선택되고 있는 경우도 볼 수 있다. 또 홋카이도에서 널리 볼 수 있던 것은 주위의 벽가에 설치된 바닥 놓기의 낮은 히터이다.

방수가 많은 곳에서는, 방문자가 모이기 쉬운 장소에게만 공조 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또 설비가 설치되어 있어도 방문자수가 적고, 상시 운전하게 하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되어 모처럼의 설비가 사용되지 않는 상황도 있다.

여름철의 더위에 대해서는, 창을 열어두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하코다테의 창고군 중 [히스토리 플라자]의 평면도.



△하코다테의 창고군 활용에 나타나는 설비기기의 설치 예. [하코다테 히스토리 플라자]의 '비어홀'로 기존의 실내 분위기를 손상하지 않고 설치하였다.

각 방을 차례로 도는 활용 건물에서는 이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지만, 건물의 활용에 임하여 장시간 같은 장소에 여럿이 집중하는 경우에는,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일례로 냉방설비가 없는 공간을 콘서트장으로 활용할 때 냉동한 캔 음료를 나눠주는 큐우투우 타가와 군 의사당과 같은 곳도 있다.

현대의 공조 설비가 문화재 건물에 대대적으로 도입되면, 지금까지 건물이 경험한 적이 없는 환경이 실내에 생기므로, 창호의 이상이나 도장의 열화를 볼 수 있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공조 설비의 도입에 임해서는 건물 사용자의 편리성과 건물에의 영향을 저울질을 하면서 신중하게 계획해야 한다.

■ 냉난방, 급배수, 부위, 조명 등의 도입

■ 기기설치

각 설비의 본체 기기는, 예를 들어 냉난방의 공기조절장치(실외기 등) 등을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기술·기능적으로 가능한 한 떼어 놓아 설치하는 등, 건물의 외관을 손상시키지 않는 위치에 눈에 띄지 않게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다.

무엇보다도,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부지의 제약과 그 위치의 선택에 한계가 있게 된다. 그러나 주어진 조건속에서 보다 좋은 배치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높이, 색채, 눈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나 식재 등도 배려할 필요가 있다.

■ 기구배치

각 실에 기구를 배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내부공간에 대한 배려로부터, 도면상의 뿐만은 아니라 현장에 현물크기 모형 등을 배치해 보고 검토하여, 가장 영향이 적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기구류도 크기, 색채, 형상 등, 내장과의 조화를 가능한 한 잘 이루는 것을 선택한다. 다만, 배려가 지나친 나머지 후면의 벽면에 모조상자 모양의 철제기기에 나뭇결 칠을 하는 예도 있지만, 이러한 위장은, 반대로 위화감을 만들어 내 버리는 것이 많다.

■ 배관

배관은 기기의 설치에 따라 필요한 양이나 크기의 배관을 천정과

벽과 마루에 관통시키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기구의 설치부와 마찬가지로, 건물의 손상을 줄일 수 있도록 종횡의 배관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가장 적절한 설치위치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공기조절 기기와 만나는 배관은 공이 많이 드는 조작이 되고 있는 중간 벽면보다, 바닥갈개의 바탕이 되는 바닥면에 그 구멍을 뚫는 것이 손상 정도가 덜하다. 또, 바닥에서도, 멩에·장선에 걸리지 않는 위치를 찾아 후세의 개수 등에서 바뀐 부분이나 재래의 설비설치 시에 뚫어진 곳을 이용한다면 보다 피해는 적게 된다.

새롭게 벽을 확장하여 수직배관을 묻어 숨기는 예도 있지만, 그러한 방법으로 배관을 눈에 띄게 하지 않게 하는 것은 실내공간에 오해를 생기게 하고, 마루, 벽, 천정의 부재에도 절단, 이동 등이 필요하게 되므로, 일반적인 예로서는 적당하지 않다. 유지보수에서 보더라도, 눈에 띄지 않는 몇 개의 방에 집중시켜서 노출되게 하는 방법이 적절할 것이다.

■ 조명

조명은, 실내를 현대적인 기능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복원하는 시대의 조도는 부족할 것이 분명하다. 그 때문에 조도를 더 높이는 방법으로서 조명기구의 추가가 강구된다. 이런 경우는 복원의 조명기구와는 별개의 기구로 조도를 보충하고, 새로운 추가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재래의 시공이나 복원한 공간을 가능한 한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고, 기구의 디자인이나 설치하는 방법과 그 위치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현대적인 기능을 갖도록 하여 조도를 증가시키는 것은, 단지 낡은 건물을 개수하여 이용할 때에는 상식적이지만, 문화재로서 건물의 이해를 위해서는, 완전하게 당시의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방도 일부에는 존속시켜야 할 것이고, 것처럼 완전 복원한 방을 원활하게 사용하는 활용방법도 강구하면서, 설비류의 설치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복원한 방의 기구에 조광장치를 달아서 어느 정도까지 양쪽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또, 타협안으로서 전환장치를 마련하여 복원된 조명기구만의 조명과 추가기구를 더한 조명의 양쪽 모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도 있다.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사례 연구

IV. 국내·외 사례조사

① 국내·외 사례조사 개요 및 목록

1. 사례조사 개요
2. 사례조사 목록

② 근대건축

1. 국내사례
2. 외국사례

③ 교통유산

1. 국내사례
2. 외국사례

④ 산업유산

1. 국내사례
2. 외국사례

⑤ 근대마을 및 거리조성

1. 일본사례
2. 중국사례
3. 독일사례

⑥ 근대유적지

⑦ 사례조사 소결

1 국내·외 사례조사 개요 및 목록

1. 사례조사 개요

□ 사례조사 최종수량

구분	국내	외국	합계
근대건축	45건	32건	77건
교통유산	8건	8건	16건
산업유산	2건	18건	20건
근대마을 조성	0건	6건	6건
근대유적지	3건	0건	3건
합계	58건	64건	122건

□ 사례조사 목표수량

구분	국내	외국	합계
근대건축	20건	30건	50건
교통유산	10건	10건	20건
산업유산	10건	10건	20건
토목유산	10건	10건	20건
합계	50건	60건	110건

사례 조사는 국내외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며, 되도록이면 항목별 국내외 조사수량을 비슷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연구초기 사례 조사는 총 110건이었으나 최종적으로 122건이 조사되었다.

연구 계획당시의 사례조사 항목중 토목유산은 외국의 사례는 일정 부분 조사되었으나, 국내 활용사례가 적합한 것이 없어 근대유적지와 근대마을 조성사례로 대체하였다.

국내사례 조사는 등록문화재외에 지정·미지정 근대문화유산은 조사대상에 전부 포함시켰다. 이중에서 보존상태가 우수하고, 활용 사례가 모범이 되는 것을 선별하였다. 또한 건물의 건립당시 용도와 지역적인 분포도 고려하여 조사대상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일부 용도와 지역은 마땅한 사례가 없어 분포가 일정하지는 않다.

외국사례 조사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지만 해당 건축물의 규모와 양식·용도 등이 국내 근대문화유산중에서 찾을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그 활용수법이 국내에서 직접 적용 가능한 것으로 선별하였다.

조사대상은 근대건축·교통유산·산업유산·근대마을·근대유적지로 구분하였다.

구분 항목중 근대건축은 공공시설부터 개인주거까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건축물로 한정하였다.

교통유산은 철도 및 관련시설·교량·터널 등 근대기에 나타난 각종 교통관련 시설물로 조사하였다. 교량과 터널은 토목유산으로도 분류 가능하겠으나, 원 이용목적이 교통에 관계된 것이므로 교통유산에 포함시켰다.

산업유산은 재화를 생산하던 시설물로 한정하였다. 주로 공장과 창고 건축물이 조사대상이다.

근대마을 조성은 다수의 근대건축물을 특정장소에 인위적으로 이전·복원하거나, 기존 거리를 보존·활용하는 사례를 조사하였다. 국내에는 적합한 사례가 없어 외국의 사례만 조사하였다.

근대유적지는 국내사례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근현대시기 민족의 독립과 자존에 관련된 유적지를 선정하였다.

□ 건축개요 예시

OOOO사례	
소재지 :	현 주소지 수록
지정 or 등록 :	문화재종별 및 번호, 지정일자
용 도 :	원용도→현용도 병기
건립년 :	준공년도
구 조 :	건축물의 주요구조
규 모 :	층수, 면적 수록
설 계 :	설계자 성명
시 공 :	시공자 및 단체명
소유자 :	현 소유자 및 관리자

사례조사 내용구성에서 건축양식·역사성 및 보존현황에 대한 것은 간략히 언급하고, 건물의 사용현황 및 활용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본문 좌측에는 박스안에 보존유형 및 건축개요를 정리하여 건물에 대한 기본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개요 중 기록의 미비로 파악되지 않는 일부 항목(설계자 등)은 누락시켰다.

근대문화유산은 그 특성상 많은 수리와 변경이 있어왔기 때문에 원형의 구분과 범위가 모호한 경우가 발생한다. 통상적으로 건물은 사용에 따른 수리 및 교체 등 많은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단어의 사전적 의미로는 보존유형을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

본 보고서는 ‘원형보존’과 ‘원형복원’에서 원형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보존에서의 원형은 건축물의 규모와 양식 즉 건물 구조체가 초기의 형태를 대부분 유지하는 경우로 해석했다. 근대문화유산은 퇴락에 따른 수리와 사용상의 변경(내부 인테리어 등)으로 원형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원형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복원에서의 원형은 일반적으로 건축물 초기 준공 모습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료의 부족으로 정확하게 복원할 수 없거나, 현 법률체제로 인한 구조변경과 활용을 위하여 내부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사전적 의미보다는 넓게 해석하여 복원대상의 맥락(양식·이미지 등)을 상당부분 복원하는 경우도 포함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하여 건물의 보존유형을 아래와 같이 7가지로 구분하고 거기에 따른 정의를 다시 내렸다.

□ 보존유형 구분

구분	정의
원형보존	건물의 유지보수는 시행되었지만, 증축이나 부분철거 없이 건립당시의 양식과 규모를 유지하는 경우
부분보존	건물의 일부분만 보존하는 경우(외벽 또는 내부인테리어)
개수보존	건물을 이용목적에 맞게 수선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 즉 건물의 규모나 양식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경우이다.
이축보존	건물의 전체 또는 부분의 위치를 이전하여 보존하는 경우, 이축시 변경부위의 원형복원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원형복원	변경된 원형을 대규모의 수리를 통하여 복원하는 경우
신축복원	소실된 건물을 원위치 또는 다른 위치에 초기 형태로 재건축하는 경우
현장보존	역사적 장소와 유적지를 보존하고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2. 사례조사 목록

1). 근대건축

□ 근대건축 국내사례 목록

원용도	현용도	보존유형	건 물 명(현재명/문화재명)	지역	비고
공공업무 시설	전시시설	원형보존	한국은행 화폐금융박물관 (한국은행 본관)	서울	사적280
	전시시설	원형보존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구 서울구치소)	서울	사적324
	전시시설	부분보존	서울시립미술관 (구 대법원청사)	서울	등록237
	전시시설	이축보존	서울시립미술관 남부지원 (구 벨기에 영사관)	서울	사적254
	전시시설	원형보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청지원	대전	등록100
	전시시설	원형보존	호남관세전시관 (구 군산세관 본관)	전북 군산시	시기87
	문화시설	원형보존	목포문화원 (목포시립도서관)	전남 목포시	사적289
교육시설	업무시설	원형복원	진해우체국	경남 진해시	사적291
	문화시설	원형보존	정독도서관 (화동 구 경기고교)	서울	등록2
	업무+전시	이축보존	광복회관 대구·경북연합지부 (효목동 조양회관)	대구	등록4
	교육시설	원형보존	이화여자대학교 파이퍼홀	서울	등록14
	업무시설	원형보존	공무원연공관리공단 사무실 (구 대구상업학교 본관)	대구	시유48
	전시시설	원형보존	대전갤러리 (대전여중 강당)	대전	문자46
	전시시설	원형보존	한밭교육박물관 (삼성초등학교 구교사)	대전	문자50
문화시설	공공업무	부분보존	서울시 의회 (태평로 구 국회의사당)	서울	등록11
	문화시설	원형복원	명동예술극장 (구 명동국립극장)	서울	미지정
	전시시설	원형보존	감리교신학대학교 역사박물관 (구 감리신학대학교 방송국)	서울	미지정
	전시시설	원형복원	인천문화원 (구 제물포구락부)	인천	시유17
종교시설	문화시설	원형보존	오웬기념각	광주	시유26
	전시시설	원형보존	감곡성당 사제관	충북 음성군	미지정
	상업시설	개수보존	커피숍 마이셀	대전	미지정
	전시시설	원형보존	산림정보관 (함양 구 임업시험장 하동, 함양지장)	경남 함양군	등록37
업무시설	종교시설	원형복원	전동성당 사제관	전북 전주시	문자178
	업무시설	개수보존	남대문로 한국전력사옥	서울	등록1
	전시시설	이축보존	건국대학교 박물관 (구 서북학회 회관)	서울	등록53
	업무시설	개수보존	구 제일은행 본점	서울	시유71
	전시시설	부분보존	일민미술관 (동아일보사옥)	서울	시유131
	업무시설	개수보존	우리은행 종로지점 (광통관)	서울	시기19
	업무시설	개수보존	신세계백화점 본관 (구 미쓰코시 경성지점)	서울	미지정
	전시시설	원형보존	부산근대역사관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산지점)	부산	시기49
	전시시설	원형보존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 (구 인천 일본18은행지점)	인천	시유50
	업무시설	개수보존	예산 새마을금고 (예산 호서은행본점)	충남 예산군	시기66
의료시설	전시시설	원형보존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구 대한의원 본관)	서울	사적248
	전시시설	개수보존	여수 애양병원	전남 여수시	등록33
주거시설	업무시설	원형보존	덕성여대재단 (운현궁 (양관))	서울	사적257
	의료시설	부분보존	강북 삼성병원 (서울 경교장)	서울	사적465
	전시시설	원형복원	최순우 옛집	서울	등록268
	전시시설	원형복원	임시수도기념관 (임시수도대통령관저)	부산	시기53
	전시시설	원형보존	선교박물관 (선교사 스위트 주택)	대구	시유24
	전시시설	원형보존	동산의료원 의료박물관 (선교사 챔니스 주택)	대구	시유25
	전시시설	원형보존	교육·역사박물관 (선교사 블레어 주택)	대구	시유26
	전시+주거	원형보존	오정동선교사촌	대전	문자44
	전시시설	원형복원	화진포의 성 (구 역사안보전시관)	강원 고성군	미지정
	주거시설	원형보존	이영춘가옥	전북 군산시	시유200
숙박시설	근린생활	원형보존	구 보성여관	전남 보성군	등록132

근대 문화 유산 보존 및 활용사례 연구

□ 근대건축 일본사례 목록

원용도	현용도	보존유형	건물명	지역	비고
공공시설	공공시설	개수보존	국제어린이도서관 (国際子ども図書館)	도쿄	
	전시시설	원형보존	동경국립박물관 표경관 (東京国立博物館 表慶館)	도쿄	
	문화시설	원형복원	요코하마개항기념회관 (横浜市開港記念會館)	요코하마	
	상업시설	개수보존	신평관 (新風館, 구 교토중앙전화국)	교토	
	전시시설	원형복원	홋카이도 구 본정사 (赤レンガ庁舎)	삿포로	
	상업시설	원형보존	명치관 (明治館, 구 하코다테 우체국)	하코다테	
	전시+상업	개수보존	하코다테시 개항기념관 (구 영국영사관)	하코다테	
교육시설	문화시설	원형보존	자유학원 명일관 (自由学院 明日館)	도쿄	
	문화시설	이축보존	구 동경음악학교 주악당 (旧 東京音楽学校 奏楽堂)	도쿄	
	교육시설	개수보존	동경대학 공학부 1호관	도쿄	
	문화시설	원형보존	CAP HOUSE (구 고베이주센터)	고베	
	상업시설	원형보존	기타노 마이스터 가든 (北野マイスターガーデン)	고베	
업무시설	전시시설	부분보존	DN Tower21 맥아더 기념관	도쿄	실내보존
	업무시설	부분보존	동경은행협회빌딩 (東京銀行協会ビルディング)	도쿄	외벽보존
	업무+전시	이축보존	BankART1929 요코하마	요코하마	부분보존
주거시설	전시시설	원형보존	도쿄도정원미술관 (東京都庭園美術館)	도쿄	
	상업+문화	개수보존	도쿄 오모테산도 힐스 (東京 表参道 Hills)	도쿄	
	상업시설	원형보존	오가사와라 백작 저택 (小笠原伯爵邸宅)	도쿄	
	전시시설	원형보존	구 이와사키저택 정원 (舊 岩崎邸 庭園)	도쿄	
	전시+상업	이축보존	외교관의 집 (旧内田定植邸)	요코하마	개수보존
	전시시설	원형보존	가지마도리관 (風見鶏の館, 구 토마스 주택)	고베	
	전시시설	원형보존	모예기관 (萌黄の館, 구 샤프 저택)	고베	
	상업시설	신축복원	옛 거류지 십오번관 (旧神戸居留地十五番館)	고베	지진피해

□ 근대건축 프랑스사례 목록

원용도	현용도	보존유형	건물명	지역	비고
상업시설	문화시설	개수보존	뷔뜨 오 까이유 수영장 (Piscine de la Butte-aux-Cailles)	파리	
전시시설	공공시설	개수보존	파리 도시건축정보센터 (Pavillon de l'Arsenal)	파리	
교육시설	공공시설	개수보존	이르캄 (Ircam)	파리	
주거건축	문화시설	개수보존	유리공예가 바리에의 집 (l'Hôtel Barillet, Maison du maître verrier Barillet)	파리	

□ 근대건축 독일사례 목록

원용도	현용도	보존유형	건물명	지역	비고
주거+축사	주거+문화	개수보존	굴프하우스 (Gulphaus)	Weser/Ems	
상업시설	기타시설	개수보존	Zum Loewen 엘리베이터 주차장	Duderstadt	
근대건축	주거시설	개수보존	Amberger Stadel	Regensburg	
근대건축	주거시설	개수보존	기센 학생기숙사 (Giessen)	Giessen	

□ 근대건축 캐나다사례 목록

원용도	현용도	보존유형	건물명	지역	비고
근대건축	전시시설	원형보존	오키프 목장	브리티쉬 콜롬비아 주	

2). 교통유산 목록

□ 교통유산 국내사례 목록

원용도	현용도	보존유형	건물명	지역	비고
철도역사	전시시설	부분이축보존	신촌역사	서울	등록136
철도역사	전시시설	신축복원	철원 월정리역	강원도 철원	미지정
터널	터널	원형보존	통영해저터널	경남 통영시	등록201
교량	교량	개수보존	부산 영도대교	부산	시기56
교량	교량	원형보존	철원 승일교	강원도 철원	등록26
교량	철도교량	원형보존	영동 노근리쌍굴다리	충북 영동군	등록59
교량	교량	원형보존	남지철교	경남 창녕군	등록145
교량	교량	원형복원	금강철교	충남 공주시	등록232

□ 교통유산 일본사례 목록

원용도	현용도	보존유형	건물명	지역	비고
철도역사	전시+상업	신축복원	구 신바시 정거장 (旧新橋停車場)	도쿄	
철도역사	역사+상업	원형보존	구 국철료우고쿠역사 (旧国鉄兩國駅舎)	도쿄	
기관차고	전시시설	원형+이축보존	우메코지증기기관차고관 (梅小路蒸氣機関車庫館)	교토	

□ 교통유산 프랑스사례 목록

원용도	현용도	보존유형	건물명	지역	비고
철도역사	철도역사	개수보존	파리 북역 (Gard du Nord)	파리	
철도역사	전시시설	개수보존	오르세 미술관 (Musee d'Orsay)	파리	
철도역사	상업시설	개수보존	파시 라 뮤에뜨 역 (La Gare de Passy-la Muette)	파리	
철도역사	상업시설	개수보존	카페 드 라 플레시 도르 (Cafe de la fleche d'Or)	파리	
철도교량	상업시설	개수보존	예술가의 거리와 고가교 위의 산책로	파리	

3). 산업유산 목록

□ 산업유산 국내사례 목록

원용도	현용도	보존유형	건물명	주소	비고
정수장	공원	개수보존	선유도 정수장	서울	미지정
양조장	양조장	원형보존	세왕주조 (진천 덕산양조장)	충북 진천	등록58

□ 산업유산 일본사례 목록

원용도	현용도	보존유형	건물명	지역	비고
산업시설	상업시설	개수보존	요코하마 적벽돌 창고 (赤煉瓦倉庫)	요코하마	
산업시설	전시시설	개수보존	도요타시 근대산업유산발견관	도요타시	
산업시설	전시시설	개수보존	도요타 산업기술기념관	도요타시	
산업시설	문화시설	개수보존	나고야 연극연습관 아르테논	나고야	
산업시설	숙박시설	개수보존	구라시키 아이비 스퀘어 (倉敷アイビースクエア)	구라시키	
산업시설	상업시설	개수보존	삿포로 팩토리 (삿포로 개척시맥주양조소)	홋카이도	
산업시설	전시시설	원형보존	삿포로 맥주박물관	홋카이도	
산업시설	상업+전시	개수보존	하코다테 히스토리프라자 가나모리 홀	홋카이도	
산업시설	상업+전시	원형보존	오타루 운하와 오오이에 창고 (大家倉庫)	홋카이도	
산업시설	전시시설	원형보존	오타루시 박물관	홋카이도	

□ 산업유산 프랑스사례 목록

원용도	현용도	보존유형	건물명	지역	비고
전시장	극장	이축보존	세느강의 7월 14일 극장 (Cinema 14-juillet-sur-Seine)	파리	
우시장	전시·공연	개수보존	라 빌레뜨 - 라 그랑드 알 (La Grande Halle)	파리	
도살장	박물관	개수보존	라 빌레뜨 - 과학 산업 단지 (Cite des sciences et de l'industrie)	파리	
가족거래스	극장	개수보존	파리 빌레뜨 극장	파리	
산업시설	전시시설	개수보존	라 빌레뜨의 집	파리	
시장	미술관	개수보존	나이프 아트 미술관 (Musée d'art-Naif)	파리	
시계탑	주거시설	개수보존	개인 주거 (Appartement dans un reservoir)	파리	
시장	문화시설	개수보존	에스빠스 블랑 망토 (Espace d'animation des Blancs-Manteaux)	파리	

4). 근대마을 및 거리조성 목록

□ 근대마을 및 거리 일본사례 목록

원용도	현용도	보존유형	건물명	지역	비고
근대건축	근대마을(건축박물관)	이축보존·복원	메이지무라 (明治村)	이누야마	
근대건축	근대마을(건축박물관)	이축보존·복원	에도도쿄다테모노엔 (江戸東京建物園)	도쿄	
근대건축	근대마을(건축박물관)	이축보존·복원	홋카이도 개척촌 (北海道開拓の村)	홋카이도	
근대건축	근대거리(상업+전시)	원형보존·개수	고베 이인관(異人館)거리	고베	

□ 근대거리 중국사례 목록

원용도	현용도	보존유형	건물명	지역	비고
주거시설	근대거리(상업+전시)	개수 및 이미지보존	상해 신천지 광장	중국 상해	

□ 근대마을 독일사례 목록

원용도	현용도	보존유형	건물명	지역	비고
근대건축	근대마을(건축박물관)	원형보존	아르누보의 요람지 다름슈타트 (Darmstadt) 마틸덴헤헤(Mathildenhöhe)	다름슈타트	

5). 근대 유적지 목록

□ 근대유적지 국내사례 목록

원용도	현용도	보존유형	건물명	지역	비고
유적지	유적지+전시시설	현장보존	제암리3·1운동 순국유적지 기념관	경기	사적299
유적지	유적지+전시시설	현장보존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경남	문자99
유적지	유적지+추모시설	현장보존	홍주의사총	충남 홍성군	사적431

2 근대건축

1. 국내사례

■ 한국은행 화폐금융박물관 (한국은행 본관)



△한국은행 화폐금융박물관 전경

원형보존사례	
소재지	: 서울 중구 남대문로 3가 110
지 정	: 사적 280호(1981.9.25)
용 도	: 공공시설 ⇨ 전시시설
건립년	: 1912.1(착공:1907.11)
구 조	: 석조 +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 지하1, 지상3, 옥상Dome 대지면적 6806.7평, 건축면적 884.66평, 연면적 2295.46평
설 계	: 다쓰노 킨고(辰野金吾) + 葛西萬司
시 공	: 청수조(清水組, 일본)

1909년 조선은행조례가 공포됨으로써 한국은행이 창립되었고, 1909년 7월 11일 정초식 거행, 1912년에 완공되었다. 준공 후 두 차례 화재가 발생하였다. 첫 화재는 1945년 8.15해방 직전에 발생하여 내부의 일부만 소실됐으나 두 번째 화재는 6.25 동란시 폭격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지붕과 지상층 내부를 거의 다 파괴하였다. 1956년 5월부터 보수돼 1958년 10월 수축(修築)되었다.

설계자는 실용적인 기능보다는 오히려 권위적이고 세력적인 외관으로 계획하였다. 외벽은 동대문밖에서 채석한 화강석으로 마감했으며, 벽돌은 관립연외제작소의 것을 사용하였다. 철재는 미국 카네기사 제품과 영국, 일본의 것을 각각 병용하였다. 건물의 지붕부는 철공, 철판을 장식적으로 조립하여 구성하였다. 건물 자체가 화강석의



△주 현관



△배면



△화폐의 일생

• 내용출처: 김정동, 「한국 근대건축의 재조명」, 건축사, 1987년 12월호, 43~46쪽

표피를 갖고 지붕에 돔을 매우 화려하고 정교하게 올려놓았다. 건물은 벨기에의 성관(城館 Chateau)풍으로 장대한 모습을 갖추고 위풍당당하게 보이는 르네상스 스타일이다. 건물은 전면부가 좌우대칭으로 좌우단과 측면의 모서리 3곳에 각각 원탑(계단실)과 사라센풍의 돔을 배치하여 이 건물의 특징을 더해준다. 평면은 우물 정(井)자형으로 1층 중앙홀은 160평으로 약 1,600명을 수용할 수 있게 중정으로 계획하고, 지하에는 당시 최대의 금고를 설치하였다.

현재 본 건물은 한국은행 화폐금융박물관으로 용도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다. 총 4,500여점의 화폐관련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1층은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주제로 전시실을 구성하고 있다.

제1구역은 ‘우리의 중앙은행’의 주제로 한국은행의 역할과 구성 등 한국은행 전반에 관한 내용을 전시 판넬 및 미디어로 전시한다.

제2구역은 ‘화폐의 일생’의 주제로 화폐의 제작부터 폐기까지의 과정을 실물을 통해 보여준다. 또한 주화제작기기와 위·변조 화폐 식별장치 등도 전시한다.

제3구역은 ‘돈과 나라경제’의 주제로 물가와 금리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제4구역은 ‘화폐광장’의 주제로 우리나라의 고대부터 현재까지 시기별로 화폐를 분류·전시하고, 또한 세계의 화폐도 함께 전시하고 있어 일반인에게 좋은 교육현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2층은 ‘한은 갤러리’로 구성하여 자료안내실과, 서적 및 기념품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2007년 전시관의 확장과 구성변경이 예정되어 있다.



△전시실 로비



△화폐광장

■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구 서울구치소)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전경

원형보존사례

소재지 :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101
 지 정 : 사적 324호
 용 도 : 공공시설 ⇨ 전시시설
 건립년 : 1907년
 구 조 : 조적조
 규 모 : 대지면적 19,834㎡, 연면적 26,446㎡
 설 계 : 시텐노 가즈마 (四天王數馬, 일본)
 시 공 : 미상(未詳)

이른바 ‘서대문 형무소’로 통칭되었으며, 개소된 후 80년 동안 약 35만 명이 수감되었다. 일제시기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투옥되어 고문을 받으며 처형되거나 옥사 당했던, 슬한 수난사를 낳은 역사적인 장소이다.

1912년 서대문감옥, 23년 서대문형무소, 46년 경성형무소, 50년 서울형무소, 61년 서울교도소 등의 명칭을 거쳐 67년 7월 7일 서울구치소로 개칭되었다. 1987년 서울구치소가 경기도 의왕시로 이전하자, 서울시 서대문구에서는 이곳을 민족의 수난과 독립 운동의 역사교육현장으로 남기기 위해 1988년 공원으로 조성하였다. 당시 구치소 건물은 구내 중앙지대의 수감동 9-13사와 나환자 수감동 등 6개의 건물과 사형장 및 보안과 청사 등이 남아 있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주출입구



△옥사 내부



△서대문형무소 역사전시관



△서대문형무소 역사전시관 1층 전시실



△서대문형무소 전경

서대문구에서는 옥사와 사형장, 망루 등 남아 있는 건물을 원형 그대로 복원하고, 악명 높았던 구 보안과 건물을 보수하여 ‘서대문형무소 역사전시관’으로 새롭게 개관하였다.

역사전시관은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서 각 층별로 서대문형무소에 관한 역사적 내용을 전시하고 있다.

1층은 영상실·안내실·기획전시실·자료실로 구성되어 서대문형무소의 설립배경과 역사적 변천과정을 상영하고 형무소에 관한 각종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또한 자료실에서는 민족 독립운동사와 관련된 서적들을 열람할 수 있다.

2층은 민족저항실·형무소역사실·옥중생활실로 구성되어 당시 일제에 대한 민족의 저항과 애국지사의 투옥현황, 옥중생활을 판넬과 미니어처 등의 다양한 자료로 전시한다.

지하1층은 임시구금실·고문실로 구성되어 애국지사에 대한 당시의 처참했던 폭력과 고문실상을 보여준다.



△사형장



△지하감옥(옛 여성옥사)



△지하감옥 내부

■ 서울시립미술관 (구 대법원 청사)



△시립미술관 전경(출처: 이상건축 2002년 6월호 17쪽)

부분보존사례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정동 37
 등 록 : 등록문화재 237호
 용 도 : 공공시설 ⇨ 전시시설
 건립년 : 1928.11.9 (착공:1927)
 구 조 : 철골+RC조+벽돌조
 규 모 : 지하1층, 지상3층,
 대지면적 25,339.40㎡,
 건축면적 3,199.99㎡,
 연면적 13,433.80㎡
 설 계 : 岩井+笹慶一
 시 공 : 다전조(多田組, 일본)

개수설계참여: 이봉, 김우영,
 김인수, 박현준
 인테리어: (주)삼우설계, 시공테크
 구 조 : 청림구조
 기 계 : 삼우설비컨설턴트
 전 기 : 코덕엔지니어링
 소 방 : 한국방재엔지니어링
 조 명 : 마브릭스
 조 경 : HAK & Associates
 감 리 : (주)삼우설계
 시 공 : (주)한일건설
 설계기간: 1999.9~2000.9
 공사기간: 1999.11~2002.4

경성재판소 부지의 유래는 1886년 국립육영공원(The Royal University)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곳에서 미국식 신교육이 시작되었으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곧 해체(1895년)되었다. 1895년 3월 이곳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재판소인 평리원이 들어섰다. 그 후 평리원(한성재판소)은 공평동 부근에 신축건물(1908.6~1908.11)을 세워 이전하였고, 옛 평리원 건물은 조선총독부 조사국 분실로 사용되어 왔다. 1926년 총독부는 정동 옛 평리원지에 이른바 「경성3재판소」를 세우고자 대지 4,860평을 확보하였다. 대지는 도로면보다 21척(尺) 높아 고단(高壇, High Place)의 개념이 자연스럽게 도입되었다.

경성재판소는 준공후 고등법원, 복심(覆審)법원, 지방법원의 3법원이 들어섰고, 8.15 해방후 대법원이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대법원이 이전 후 현재는 서울시립미술관으로 리노베이션되어 사용되고 있다. 현재 전면부 외벽면만 원형이다. 전면 상부 1개층은 후에 증축한 것이다. 건물 전체는 근세고딕식이나 현관의 아케이드식 아치 돌림과 3층 중앙부의 창문의 트레이서리 부분의 아치 돌림으로 인해 모던한 분위기가 난다. 건축당시 평면은 일자형(日字形)을 채택하였다. 입면에는 근세고딕식 수법을 많이 사용하였다.



△전면외벽 보이드 부분



△로비



△기념품 판매점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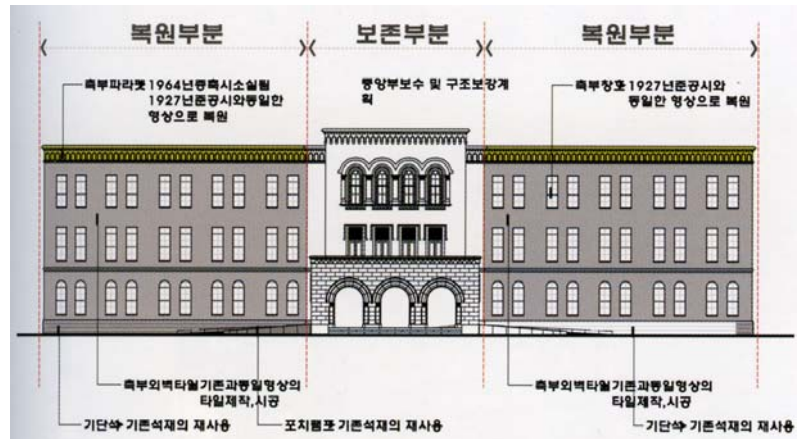
△기념품 판매점2

◦ 내용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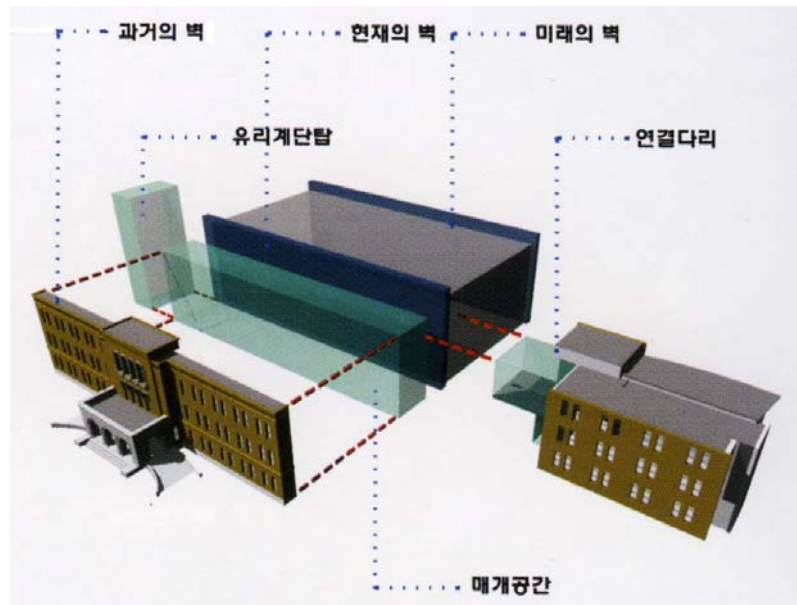
- 김정동, 「한국 근대건축의 재조명」, 건축사, 1988년 5월호, 22~24쪽
- 이상건축, 2002년 6월호, 70~71쪽

전면벽만 남기고 개수된 서울시립미술관은 공간구성에서도 큰 변화가 있다. 기존 파사드를 살린 전시동(main gallery)을 중심으로 우측에는 관리동이, 좌측에는 투명한 유리계단타워가 시민편의시설을 연결시켜준다.

증축된 각각의 전시실은 크기, 형태, 천장고, 바닥마감, 개구부창 등에 변화를 부여함으로써 전시물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전시 기법을 수용할 수 있다. 또한 관람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관람 피로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시 동선을 계획하였다.



△파사드 복원 개념도(출처: 이상건축 2002년 6월호, 71쪽)



△공간 및 매스 개념도(우)(출처: 이상건축 2002년 6월호, 71쪽)

■ 서울시립미술관 남부지원 (구 벨기에 영사관)

이축보존사례

소재지 :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95-13
지 정 : 사적 254호
용 도 : 공공시설 ⇨ 전시시설
건립년 : 1905년 (착공:1903년)
구 조 : 석조, 벽돌조, 르네상스
규 모 : 지하1층, 지상2층
건축면적 1,150㎡
연면적 3,468.9㎡
설 계 : 코다마(小玉)
시 공 : 호쿠리쿠(北陸) 토목회사



△구 벨기에 영사관 전경



△좌측 전경



△내부 중앙계단

• 내용출처:

- 김정동, 「한국 근대건축의 재조명」, 건축사, 1987년 8월호, 50~51쪽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근대문화유산목록화 및 조사보고서1·2-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1354쪽, 2004

구 벨기에 영사관은 르네상스양식의 아름다운 외관을 자랑한다.

1919년 영사관이 총무로 1가로 이전한 후, 이 건물은 요코하마 생명보험회사 사옥으로 쓰이다가, 일본 해군성 무관부 관저로 이용되었다. 8·15 해방 후에는 해군헌병대에서 사용하였다.

1970년 상업은행이 불하받아 그 소유로 되어 있던 중,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에 따라 원위치인 중구 회현동 2가에서 현 위치인 관악구 남현동으로 이군하였다.

건물이전은 1981년 11월 ~ 1982년 8월까지 만 10개월의 기간과 6억7천4백9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었다. 시공은 신성(주)가 맡았고, 삼성건축설계와 장기인교수가 설계와 이전책임을 담당하였다.

이후 한동안 상업은행 사료관으로 사용됐는데 이후 은행이 합병되면서 현재는 우리은행 소유이다.

근현대사의 다양한 흔적을 간직한 이 건물은 한동안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다가 현 소유주인 우리은행이 서울시에 미술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해오면서 서울시립미술관 분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건물의 원형을 해치지 않기 위하여 최소한의 공사범위로, 기존에 있던 방들을 그대로 살려 리모델링을 진행했다. 시립미술관 본관이 널찍한 전시공간을 자랑한다면 남서울분관은 아기자기한 전시공간을 갖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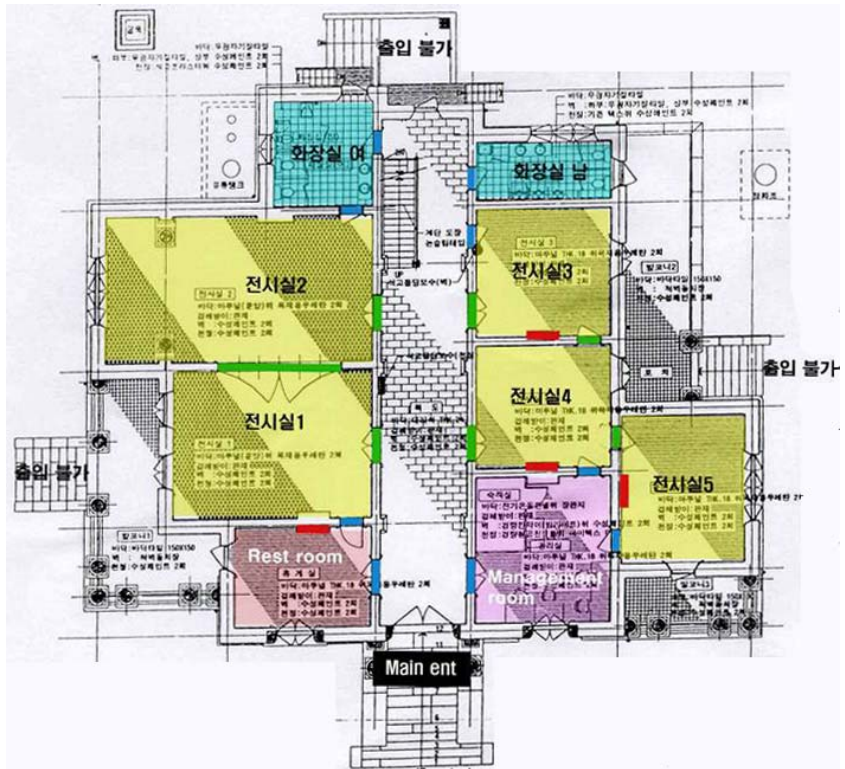
우측의 1·2층 평면도는 현재 이용현황을 보여준다.

기존실을 전시공간으로 조성할 때 내부벽체 및 기존구조물에 대한 보존에 매우 주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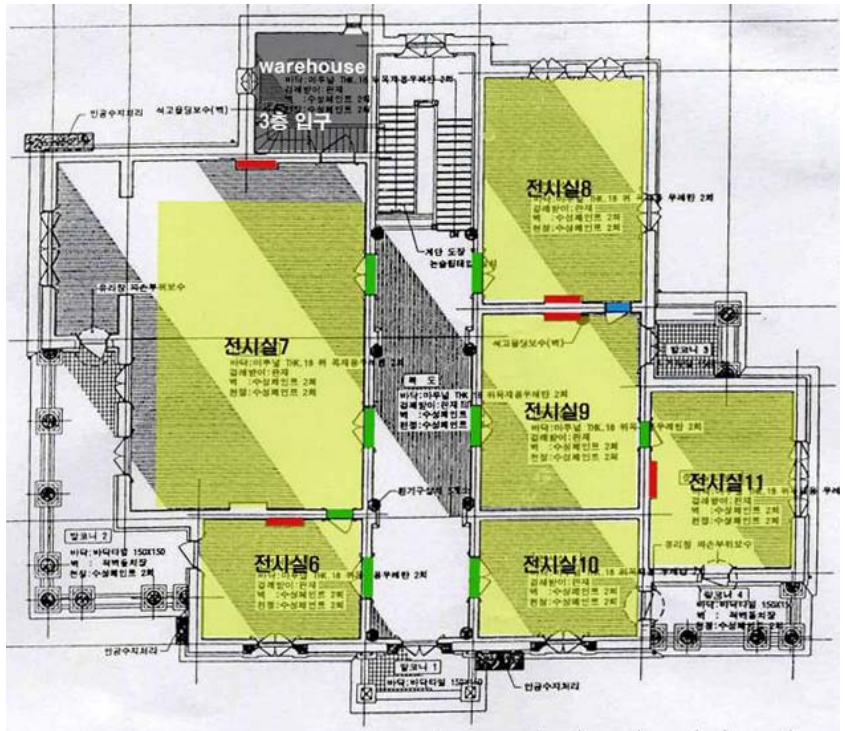
2층 전시실중 일부는 기존벽의 보존을 위해 그림을 걸 수 있는 내벽을 따로 만들었다.

관리공간을 제외한 전시실의 기존 출입문은 원활한 동선흐름을 위해 제거하였다.

2층 우측발코니는 출입이 금지되고 있다.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청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청지원 전경

원형보존사례

소재지 : 대전 중구 은행동 161
 등 록 : 등록문화재 100호
 용 도 : 공공시설 ⇨ 전시시설
 건립년 : 1953년
 구 조 : 조적조
 규 모 : 지상2층,
 대지면적 444.30㎡
 연면적 432.49㎡
 건축면적 247.43㎡
 설 계 : 배한구(배건축사사무소),
 한동석
 시 공 : 임현화(일성건설)



△로비 및 계단

입면에는 ‘브리즈 솔레이브’라는 차양요소를 사용하고, 관공서이면서도 일반주택의 규모와 상치되지 않도록 입면을 선적 요소로 분절하였으며, 외벽은 몰탈뿔칠로 마감하였다.

특히, 이 건물은 서향창이 많이 설치되는 방향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데, 깊은 날개벽을 설치하여 이를 차단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처로 1층의 서향창 부분은 철제 가리개를 넓게 설치하여 조형성과 기능성을 적절히 표현하고 있다.

내부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배려가 두드러진다.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곧바로 각각 사무실로 들어서는 문과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고, 2층은 사무실이 곧바로 연결된다. 전체적으로 넓지않은 건축면적으로 인해 사적 공간이 최소화되어 있다.

1997년 5월 27일에 1층 사무실 27.5㎡를 한차례 증축하였다. 1999년 7월부터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등의 품질관리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 변경되었으나, 그해 12월에 사무소를 선화동 옛 검찰청사로 옮겼다.

이후 본 건물은 몇가지 주제를 가지고 도심속의 전시공간으로 활용하였다. 2007년 말 대전시립미술관 분관으로 오픈 할 예정이다.

■ 호남관세전시관 (구 군산세관 본관)



△호남관세전시관

원형보존사례

소재지 : 전북 군산시 장미동 49-38
 지 정 : 시도기념물 87호
 용 도 : 공공시설 ⇨ 전시시설
 건립년 : 1908년
 구 조 : 벽돌조
 규 모 : 지상1층
 설 계 : 탁지부건축소
 시 공 : 미상(未詳)



△전시실 내부

대한제국 광무 3년(1899년)에 설치된 군산해관(1907년 해관을 세관으로 개칭)이 1908년부터 1993년까지 약 85년간 사용했던 건물이다. 탁지부 건축소에서 설계한 본관 이외에도 많은 창고와 부속건물이 있었으나 대부분 철거되었다.

세관은 서양 고전주의 양식의 붉은 벽돌 건물이다. 화강석으로 마감된 정면 출입구를 중심으로 양 측면 모서리를 돌출시켜 대칭성을 강조하였다. 내부공간은 홀을 중심으로 거의 대칭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복도가 한쪽에만 설치되어 있다.

현재는 호남관세전시관으로 용도변경하여 5개의 주제(세관장실 · 관세전시실 · 가짜상품 전시실 · CITES 전시실 · 역사전시실)로 전시관을 조성하였다.

세관장실은 옛 군산세관 청사시절 세관장 집무실을 복원하여 역대 세관장 사진과 세관 관복, 일제시대 사용되었던 금고 등을 전시하고 있다. 관세전시실은 군산해관 개청시부터 8.15해방과 6.25전쟁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관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역사전시에는 군산항 개항 이후 군산항의 변천사와 일제시대 군산시내 모습, 일제의 미곡수탈사진 등 역사 사진자료가 전시되고 있다.

■ 목포문화원 (목포시립도서관)



△목포문화원 전경

원형보존사례

소재지 : 전남 목포시 대의동
2가 15
지 정 : 사적 289호 (1981년)
용 도 : 공공시설 ⇨ 문화시설
건립년 : 1900년 12월
구 조 : 벽돌조
규 모 : 지상2층,
대지면적 6,575㎡,
건축면적 597.68㎡
설 계 : 고바야시(小林義雄)
시 공 : 미상(未詳)



△사무실

목포문화원은 목포 최초의 서양식 건물이며, 붉은 벽돌을 사용한 지상2층의 르네상스양식이다. 일제 침략의 실증적 유적으로 현재 목포시의 문화재 중 유일하게 사적(제289호)으로 지정되어 있다.

1897년 목포가 개항되고, 1898년 일본영사관이 목포에 설치됨에 따라 영사관으로 건축되었다. 1907년부터 목포이사청으로 전용되다가, 1914년에 목포부청사로 바뀌었다.

해방후 1947년에 목포시청으로, 1974년부터는 목포시립도서관으로 이용되었다. 1989년에 목포시립도서관이 용당동 안장산 기슭으로 신축이전하면서 1990년 이후부터 1층은 목포문화원으로, 2층은 박화성 문학기념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목포문화원은 향토사료조사사업과 함께 다양한 지역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수집·분류된 향토사료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화행사는 지역문화의 발굴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의 문화학교를 열고 있다.

건물의 원형 보존과 역사·문화를 통한 활용의 좋은 사례이다.

■ 진해우체국



△진해우체국 정면

원형복원사례

소재지 : 진해시 통신동 1번지
 지 정 : 사적 291호
 용 도 : 공공시설
 건립년 : 1912년 10월 25일
 구 조 : 목구조
 규 모 : 지상1층,
 대지면적 2,086㎡,
 건축면적 378.52㎡
 설 계 : 미상(未詳)
 시 공 : 미상(未詳)



△현재 내부전경

진해우체국은 ㄷ자 형태의 대지에 평면도 ㄷ자형으로 좌우대칭이다. 출입구를 중심으로 객장과 사무공간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정면출입구는 삼각 페디먼트를 두고 있으며, 출입하는 곳에는 아치와 터스칸 오더를 사용하고 있다. 벽체는 심벽이며, 외벽마감은 목조에 회반죽 바름이다. 전체적으로 르네상스 양식이다.

1910년 9월 현동1번지에 진해우체국이 개설되었고 성내우체국과 경화우체국이 있었지만 일본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먼 거리여서 현재의 위치인 중원로터리에 진해우체국을 신설하게 되었다.

1955년 9월 1일 객장 좌측 일부를 증축하였으나 1984년 12월 21일 문화재로 등록되었다. 이후 복원공사를 실시하여 증축부를 철거하였다. 2001년 12월 11일에 지붕을 동판으로 교체하고 창 및 천장 일부를 개보수하였다.

현재는 우체국 기능은 옆의 신축건물로 전부 이전하고, 직원 휴게실과 일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건물의 양식적 완성도와 역사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중이다.

■ 정독도서관 (화동 구 경기고교)



△정독도서관 전경

원형보존사례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화동1
 등 록 : 등록문화재 2호
 용 도 : 교육시설 ⇨ 문화시설
 건립년 : 1938년 4월 11일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 지상3층, 옥탑1층
 설 계 : 미상(未詳)
 시 공 : 미상(未詳)

경기고등학교는 1899년 관립중학교로 시작하여 1906년 관립한성고등학교 등으로 교명이 변경되었다. 관립한성고등학교는 당시 한국 최초의 학교였을 뿐 아니라 최고학부였다.

1938년 본관과 별관이 완공되어 교사로서 제모습을 갖추었다. 본관은 제국주의적 양식으로 수직선이 강조되고 중앙부를 높임으로써 흰색조(白堊)와 함께 상징적인 분위기를 유도하고 있다.

6.25 동란과 미군 501통신부대의 주둔으로 본관은 훼손되었으나, 1956년 여름, 반환되어 수리복구 되었다.

그 후 본 건물은 경기의 산실로 존속되어 오다가 경기고교가 강남으로 이전하게 되자 정독도서관으로 변경되었다.

건축물의 원형 보존과 함께 본래의 교육기능까지 일부 보존되고 있다. 최근 늘어나는 폐교에 대한 용도변경 및 활용의 좋은 사례이다.



△주출입구

• 내용출처: 김정동, 「한국 근대건축의 재조명」, 건축사, 1988년 11월호, 46~47쪽



△배면



△내부복도

■ 광복회관 대구·경북연합지부 (효목동 조양회관)



△조양회관 정면(출처: 문화재청 기록화조사보고서)

이축보존사례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산 234 - 33번지
등 록 : 등록문화재 4호
용 도 : 업무시설 ⇨ 업무+전시
건립년 : 1922년
구 조 : 벽돌 조적조
규 모 : 지상 2층,
대지면적7549㎡,
연면적837.08㎡,
건축면적418.54㎡
설 계 : 윤학기(한국인 건축가)
시 공 : 백남채(한국인)감리,
중국인 벽돌공



△항일독립운동 사료전시실

이 건물은 항일 민족주의자 서상일이 지역 청년들의 민족의식 고취를 위해 대구구락부 회원들의 도움을 받아 1922년 중구 대신동 달성공원 앞에 건립한 붉은 벽돌조 2층 건물이다.

본 건물은 1930년에는 대구부립도서관으로 사용되었고, 태평양 전쟁시에는 일본군 보급부대 사무실로 이용되었다. 1945년 해방 후 한민당 사무실로 잠시 이용되었다. 1950년 원화여중고를 설립하고, 조양회관이라 명명하였다. 원화여중고에서는 교무실·도서실 등으로 사용하였다. 1980년 원화여중고의 이전 후, 월성산업에서 인수하고, 1982년 대구시에 기부하였다. 1984년 6월 현 위치(망우공원)로 이전 복원하여, 광복회 대구·경북 연합지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외관은 정면 중앙부에 현관 포치(Porch)를 두고, 2층 벽면을 반원 아치(Arch)창과 페디먼트(Pediment)로 장식하여 정면성과 대칭성을 강조함으로써 르네상스적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내부에는 1,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 회의실, 인쇄실 등을 두고, 이곳에서 각종 강연회, 야학, 출판활동 등을 하였다.

건물내부에 항일독립운동 사료전시실을 조성하여 대구·경북지역의 독립운동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전시함으로써 민족과 지역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활용하고 있다.

■ 이화여자대학교 파이퍼홀



△파이퍼 홀 전경(출처: 문화재청 기록화조사보고서)

원형보존사례

소재지 :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11-1
 등 록 : 등록문화재 14호
 용 도 : 교육시설
 건립년 : 1935년
 구 조 : 석조+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 반지하, 지상3, 건축면적 1,142㎡, 연면적 4,195㎡
 설 계 : 보리스 사무소 (W. M. Vories & company, 미국) + 강윤
 시 공 : 마중유(馬鍾濡, 개성)+ 왕공온(王公溫, 중국)+ M.L.Swinehart

본 건물은 이화여대가 신촌 캠퍼스에 처음 세운 건물로 미션계풍이다. 설계는 1932년 일본에서 활동하던 선교사 겸 건축가 윌리엄 메렐 보리스(W.M.Vories)가 담당하였다. 1933년 6월 10일 정초식을 거행하였다.

고딕 양식의 석조교사로 계획되었으며, 평면은 좌우 대칭형 H자형이었다. 건물 좌우 양익은 전면으로 돌출되었다.

1935년 5월 교사가 준공되자 이화여전은 정동 이화학당에서 나왔다. 1953년 6.25동란의 피해 부분을 복구하였고, 현재는 캠퍼스에서 중심적 건물이다.

건축당시부터 본관으로 지어져 현재까지도 대학본부로 사용되고 있다. 초기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당시에 건축된 주변 건물과 함께 이화여대의 역사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 내용출처: 김정동, 「한국 근대건축의 재조명」, 건축사, 1988년 6월호, 60~62쪽



△중양홀 (출처: 문화재청 기록화조사보고서)



△학적과 (출처: 문화재청 기록화조사보고서)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무실 (구 대구상업학교 본관)



△대구상업학교 본관 정면(좌) 및 주출입구(우)

원형보존사례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60-10번지 3필지
지정 : 시도유형문화재 48호
용도 : 교육시설 ⇨ 업무시설
건립년 : 1923년 8월 6일
구조 : 벽돌조/일식기와지붕
규모 : 지하2층, 지상1층,
대지면적 26,031.8㎡,
건축면적 652.54㎡,
연면적 1,305.08㎡
설계 : 미상(未詳)
시공 : 미상(未詳)

구 대구상업학교 본관은 1923년 일제가 대구지역의 실업인 양성을 위해 건립하였다.

평면은 남북으로 긴 장방형으로 서쪽의 편복도를 따라 단위 실들을 배열하였다. 외관은 정면 중앙의 현관 포치를 중심으로 좌우대칭을 있다. 포치와 건물 양익부에는 페디먼트로 장식된 사각탑을 설치하고, 붉은벽돌을 쌓았다. 벽면에는 화강석 수평돌림띠·수직벽·반원형 도머창·굴뚝 등 다양한 형태요소들을 채용하여 정면성과 대칭성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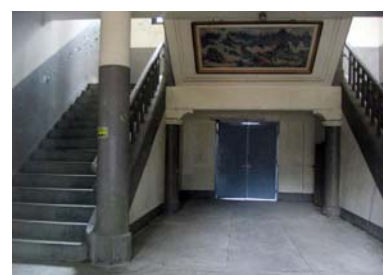
본 건물은 대구 상업교육의 요람으로써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시민들의 랜드마크적 역할을 수행한다. 내부 간막이벽·창호·마감재 등이 변경되었지만, 건물 외관형태와 내부구조는 상당부분 원형으로 보존하면서 용도변경 후 활용하는 사례이다.



△건물 측면



△건물 배면



△로비 및 계단

■ 대전갤러리 (대전여중 강당)



△대전갤러리 전경1

원형보존사례

소재지 : 대전시 중구 대흥동 418-1
 지 정 : 문화재자료 46호 (2001.6.27)
 용 도 : 교육시설 ⇨ 전시시설
 건립년 : 1937년
 구 조 : 조적조(적벽돌)
 규 모 : 지상1층, 대지면적 20,839㎡, 건축면적 360㎡, 연면적 360㎡,

대전여중은 1919년 대전공립실과고등학교로 설립되어 현 대흥동에서 일본인 학교로 운영되었다. 1947년 5월 13일에는 대동공립초급중학교에서 대전여자고급중학교로 승격되었다. 이후 강당은 대전광역시 교육청으로 소유가 변경되었다.

강당은 붉은 벽돌건물로서 아르누보형 지붕이 특징이다. 처마아래는 벽돌로 덴틸 장식하여 지붕의 곡선을 더욱 강조한다.

측면에는 장방형으로 창을 넓게 설치하여 실내를 밝게 하고, 이를 통해 개방감을 부여하고 있으며, 정면과 후벽면은 아치형 창을 내어 지붕선과 함께 유연한 선적 아름다움을 강조함과 아울러 환기를 위한 기능성도 함께 배려하고 있다.

1996년에 망형 슬레이트 지붕을 아스팔트 싱글로 교체하고, 내부 목재 천정틀을 보수하였다. 2002년부터 창호를 비롯한 천장과 바닥 등의 내장재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2003년 6월 대전갤러리로 개관하였다.

당초 강당과 체육관으로 사용되던 공간을 미술관으로의 보수 활용한 사례이다. 강당으로서 채광을 위해 넓게 계획된 창문을 필름지로 마감함으로써 미술관으로 활용이 가능하였다. 천정에는 전시를 위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이동식 전시대로 자유로운 공간구획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었다.



△우측면



△전시관

■ 한밭교육박물관 (삼성초등학교 구교사)



△한밭교육박물관 전경

원형보존사례

소재지 : 대전시 동구 삼성동 113-1
 지정 : 문화재자료 50호 (2002)
 용도 : 교육시설 ⇨ 전시시설
 건립년 : 1938년 6월 8일
 구조 : RC조+조적조(적벽돌), 슬레이트 기와
 규모 : 지상2층,
 대지면적 13,451㎡,
 건축면적 1,026㎡,
 연면적 2,052㎡
 설계 : 미상(未詳)
 시공 : 미상(未詳)



△전시실

구 삼성초등학교 교사는 대전지역에 설립된 최초의 보통학교(회덕 보통공립학교 1911.9.1) 건물이다. 1992년 7월 10일 한밭교육박물관으로 개관하였다.

7개의 전시실과 3개의 전시장, 야외 전시장 그리고 각종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박물관에는 옛날에 사용하던 교과서와 교육 관련 도서·학습기록·교원학생서장·사무용품 등 교육관련 유물 총 3만여 점의 자료를 보존·전시하고 있다.

제1전시실은 서당 교육부터 개화기 신식 교육까지의 많은 자료를 시대·영역별로 전시한다. 제2전시실은 일제강점기 창씨개명서장, 황국신민서사석 등 황국신민화 교육 모습들이 전시된다. 제3전시실은 해방이후 우리교육이 발달해 온 모습이 각종 교과서 및 교구 자료와 함께 전시된다. 제4전시실은 조선시대 교육기관과 사회풍습이 모형으로 재현되었다. 제5전시실에는 사랑방 중심의 선비들 생활모습과 각종 민속자료들이 갖추어졌다. 제6전시실에는 여인들의 생활상과 유물이 전시되고 있다. 제7전시실에는 조선시대 어전회의 모습과 옛날 저잣거리 모습이 꾸며져 있다. 야외 전시장에는 옛날 교문지주를 비롯한 12간지 동물석상, 탑, 해시계, 물시계 등 각종 석조물이 실물로 전시되어 있어 우리의 교육 문화는 물론 생활 민속 문화도 한눈에 볼 수 있는 훌륭한 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

■ 서울시 의회 (태평로 구 국회의사당)



△로비



△소회의실



△강당



△구 국회의사당 전경

부분보존사례

소재지 :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60-1
 등 록 : 등록문화재 11호
 용 도 : 문화시설 ⇨ 공공시설
 건립년 : 1935년 12월 10일
 (착공: 1934. 7. 30)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 지하1, 지상3, 옥탑탑부
 대지 1780평,
 건축면적 584평,
 연면적 1714평
 설 계 : 萩原孝一, 土屋積
 시 공 : 미상(未詳)

• 내용출처: 김정동, 「한국 근대건축의 재조명」, 건축사, 1988년 10월호, 66~67쪽

서울시 의회는 일제강점기 부민관으로 건축되었다. 부민관은 대민을 위한 강연회, 사교, 오락, 연극, 영화, 음악, 무용 등을 공연할 수 있는 다목적 공연장으로 계획되었으며, 동경 히비야(日比谷)에 있는 공회당을 모델로 삼아 건축되었다. 이 시기는 네오고딕적 수법 즉 생략된 면처리, 창문의 단조로움, 그리고 모던기능주의가 유행하였고 부민관도 그 시대의 조류에 따랐다.

이 건물은 준공후 일제 식민지의 홍보장화 되어 전쟁 말기 친일파들의 변절된 모습을 보이는 장소로 전락되었다. 그러나 이 건물에서 개최된 제헌국회는 초대 대통령을 선출하고, 1954년 6월 제3대 국회부터 건물을 국회의사당으로 사용함으로써 해방후 한국 정치사의 장소로서 역사성을 갖게 되었다.

건물은 태평로 도로 확장공사(50m폭)로 전면부 12m를 도로에 내어주고, 1980년 7월에는 정문과 현관 등 280평이 헐렸다.

현재 건물은 서울시 의회에서, 사무실과 회의실, 강당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 명동예술극장 (구 명동국립극장)



△복원전 모습 (출처:문화도시 문화복지 2002년 9월 36쪽)



△복원후 조감도1 (출처: 건축문화 2006년 3월호)

원형복원사례

소재지 : 서울시 중구 명동1가
54번지
지 정 : 미지정
용 도 : 문화시설
건립년 : 1936년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 지하2층, 지상5층,
대지면적 540평,
건축면적 389.18평,
연면적 1497.44평
설 계 : 이시바시(石橋)
타마다 건축사무소
시 공 : 미상(未詳)



△복원후 조감도2 (출처: 건축문화 2006년 3월호)

• 내용출처:

- 김정동, 「한국 근대건축의 재조명」, 건축사, 1988년 10월호, 70~71쪽
- 건축문화, 2006년 3월호

구 명동국립극장은 1936년 명치좌로 개관하여, 일본영화를 상영하였다. 해방이후 800여 석의 극장으로 용도·변경하였다. 국제극장으로 사용하다, 1948부터 1961년까지 서울시 공관으로 활용하였다. 1957년 이후부터는 국립극장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명동국립극장은 1973년 국립극장이 남산 중턱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명동 예술인의 명소였다.

국립극장 이전 후, 대한투자금융(현 대한중금)이 매입하여 사옥으로 사용하게 된다. 1975년 업무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내부의 전면 수리와 중·개축을 실시하면서 기존 구조와 형태가 변경되었다.

2003년 12월 문화관광부는 구 명동국립극장을 매입하여 국립극장으로 사용할 당시의 형태의 복원계획을 실시하게 된다. 복원설계는 2005년 문화관광부 주관의 공모설계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기본 및 실시설계는 삼우설계에서 담당하였으며 2005년 11월에 완료되었다. 복원공사는 2006년 4월 21일에 착공하여 현재 진행중이다. 2007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다.

현재 진행중인 외형 복원공사에서 남쪽(정면)과 동쪽(우측면) 외벽은 그대로 보존하게 된다. 계단실과 출입구 상부 장식은 해체 복원되며, 훼손된 부분은 각종 자료와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을 참조하여 복원된다.

구 명동국립극장의 복원은 국내 근대건축물의 보존운동에서 복원을 통한 적극적인 보존운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 감리교신학대학교 역사박물관 (구 감리신학대학교 방송국)



△박물관 내부1



△박물관 내부2



△역사박물관 전경

원형보존사례

소재지 : 서울시 서대문구 냉천동 31
 지 정 : 미지정
 용 도 : 문화시설 ⇨ 전시시설
 건립년 : 1958년
 구 조 : 조적조
 규 모 : 지하1층, 지상2층
 대지면적 20,328.4㎡
 건축면적 111.93㎡
 연면적 228㎡
 설 계 : 미상(未詳)
 시 공 : 미상(未詳)

2007년 개교 120주년을 맞는 감리교신학대학교는 우리나라 감리교회의 역사와 발전상을 교육하기 위한 역사박물관을 개관준비중이다.

감신대는 지난 2002년 학교 내 백주년기념관에 역사자료관을 신설한 이후 역사박물관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역사박물관은 학교 입구에 위치한 옛 방송국 건물에 들어설 예정이다.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에 1백여 평의 규모이며 리모델링 중이다.

박물관은 한국감리교회 최초의 여성 목회자인 전밀라 목사가 직접 사용했던 풍금, 1920년대 교회에서 쓰였던 강대상, 교회학교에서 사용되었던 교재와 학교요람, 33인의 독립투사였던 신석구 목사의 유품 등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했다.

또한 구한말에서 일제말기까지의 희귀본들과 연회록, 총회록 등 각 교회의 약사와 교회사 등 해방 전의 고서들을 중심으로 3천 6백여 권을 수집해놓았다.

이외에도 각종 사진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어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의 다양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인천문화원 (구 제물포구락부)



△주 출입구



△구 제물포구락부 전경1

원형복원사례

소재지 : 인천시 중구 송학동
1가 1
지 정 : 시도유형문화재 17호
용 도 : 문화시설 ⇨ 전시시설
건립년 : 1901년 6월
구 조 : 조적조
규 모 : 지상2층
설 계 : 미상(未詳)
시 공 : 미상(未詳)

구 제물포구락부 건물은 1901년 인천에 거주하던 미국, 독일, 러시아, 일본인들이 사교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립되었으며, 1913년 각국의 외국인 거주지역인 조계(租界)들이 철폐된후 일본제국 재향군인회 인천연합회 소속의 정방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1943년부터는 일본부인회관으로, 해방 후에는 미군시설로, 1953년부터 1990년까지 인천시립박물관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인천중구문화원으로 사용하였다.

건립당시부터 2층 규모였고, 건물 내부에는 사교실, 도서실, 당구대 등이 마련되었고, 실외에 테니스 코트도 가지고 있었다.

2005년 초 인천시가 이곳을 근대사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물포구락부의 복원계획을 수립하였다. 2006년 현재 증축부는 철거하고, 미국인 선교사 호머 헐버트의 기록 등 각종 자료를 참조하여 내·외부의 복원공사를 실시중이다. 2007년 개관예정이다.

건물 복원과 함께 내부는 스토리텔링(Storytelling) 박물관으로 조성중이다. 스토리텔링 박물관은 전시물의 단순 전시가 아닌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박물관이다.

박물관에는 제물포구락부로 사용될 당시의 각종 사진과 자료를 전시하고, 인천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영상 및 각종 전시물로 소개할 예정이다.

■ 오웬기념각



△주출입구 상부 아치



△예배당



△오웬기념각 전경

원형보존사례

소재지 : 광주 남구 양림동 67-1
 지정 : 시도유형문화재 제26호
 (1998.05.07)
 용도 : 문화시설
 건립년 : 1914년
 구조 : 조적조(회색벽돌)/
 우진각지붕
 규모 : 지상2층,
 건축면적 275.3㎡,
 연면적 434㎡
 설계 : 미상(未詳)
 시공 : 미상(未詳)

이 기념각은 순교한 오웬(Clement C. Owen. 1867~1909, 한국 명 오원 또는 오기원)과 그의 할아버지 윌리엄(William)을 기념하기 위해 1914년에 건축되었다.

평소 윌리엄 기념각 건립계획을 갖고 있던 오웬의 의지와 미국에 있는 그의 친지들이 보내온 성금으로 건립되었다.

목사이자 의사이기도 하였던 오웬은 1904년부터 배유지(E.Bell) 목사와 함께 전남지역의 선교 및 의료봉사활동에 헌신하다 1909년에 과로로 순교한 전남지역 최초의 선교사이다.

역사적으로 개화기 지역사회에서의 서양 선교사 활동연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이 건물은 한때 교회로도 사용되었다.

1977년 1월, 광주기독교간호대학이 이곳으로 이전하면서 현재는 강당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강당에서 기독교 관련 집회는 물론, 강연회·음악회·영화·연극·무용 그리고 학교나 유치원의 학예회·졸업식 등 지역의 크고 작은 문화행사들이 개최되면서 지역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1998년 5월 7일에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6호로 지정되어 2001년과 2002년에 걸쳐 건물의 내·외부 보수공사를 실시한 바 있다.

■ 감곡성당 사제관



△감곡성당 전경

원형보존사례

소재지 : 충북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 357-2
지 정 : 미지정
용 도 : 종교시설 ⇨ 전시시설
건립년 : 1934년
구 조 : 조적조
규 모 :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353.75㎡
설 계 : 미상(未詳)
시 공 : 미상(未詳)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88호인 감곡성당의 부속 사제관이다.

1934년에 충북 최초의 건립된 석조건축물이다. 사제관은 조지안(Georgian)양식으로 건물전면 서편 1, 2층에 발코니가 있다.

준공후 사제관으로 계속 사용하다가 개수공사를 거쳐 2002년에 유물전시관으로 개관하였다. 지하1층은 휴게시설로, 지상1·2층은 전시시설로, 지상3층은 사제들의 수양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전시관에는 충북 최초의 성당인 매곡성당(현 성당의 전신, 한옥성당)부터 현재까지 수집된 각종 유물과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유물전시관으로 개수 당시 기존의 원형 장식 및 각종 건축요소는 교체없이 최대한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시행되었다.



△지하 휴게실



△유물 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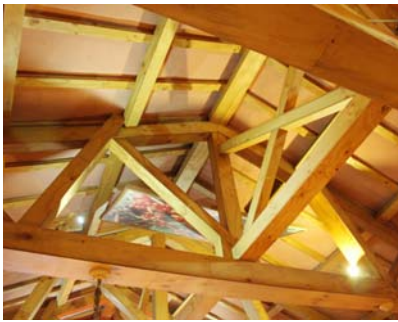


△3층 기도실

■ 커피숍 마이셀



△내부전경



△트러스



△커피숍 마이셀 전경

개수보존사례

소재지 : 대전 중구 대흥동
216-4
지 정 : 미지정
용 도 : 종교시설 ⇨ 상업시설
건립년 : 1959년
구 조 : 목구조
규 모 : 지상1층,
대지면적 255.01㎡
건축면적 216.31㎡
연면적 216.31㎡
설 계 : 미상(未詳)
시 공 : 미상(未詳)

건물은 일제시대 일본군 헌병대가 주둔하던 자리로 1959년에 한국 기독교장로회 대전교회가 헌병대 건물을 개조, 증축하여 교회로 사용하였다.

1959년에 다시한번 증축되었다. 이때 설치된 목재트러스는 구전에 의하면 6.25 전쟁때 파괴된 한강다리의 목재를 가져다 사용하였다고 전해진다.

현재 외벽의 노란색 수성페인트 마감이 두드러지며, 목조널판으로 건물의 외곽과 지붕 그리고 창 사이에 덧대어 의장적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정면부 좌측에는 종탑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 교회로 사용되던 원형을 추정할 수 있다.

교회로 사용되던 건물은 언제부터인가 브람스라는 대전에서 유명한 클래식 전용 커피숍으로 사용되었다. 현재는 건물주가 바뀌면서 커피숍 명칭도 바뀌고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던 1층 정면을 전부 통유리를 교체하였다. 또한 내부 천정 목재트러스도 외피를 덧씌워 원형을 관찰할 수 없는 점이 아쉽다.

■ 산림정보관 (함양 구 임업시험장 하동, 함양지장)



△산림전시관 전경

원형보존사례

소재지 : 경남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74번지
등 록 : 등록문화재 37호
(2002.5.31)
용 도 : 종교시설 ⇨ 전시시설
건립년 : 1917년경
구 조 : 목조 개량일식
(일식기와, 팔작지붕)
규 모 : 지상1층,
정면 5칸, 측면 4칸,
대지면적 3,194㎡
건축면적 132.23㎡
설 계 : 미상(未詳)
시 공 : 미상(未詳)

1917년에 건축되어, 1933년부터는 일본 경도대학 연습림 관리사무소로 사용되었다. 해방 후 임업시험장 하동, 함양지장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현재는 내부를 완전히 개조하여 서부지방산림관리청 함양국유림관리소 산림전시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건물은 정면 5칸, 측면 4칸, 두자 정도 높이의 기단 위에 직선적인 일본식 처마선을 가진 팔작지붕의 개량일식목조 건축물이다. 일본인 대공(大工)·동양(棟梁)에 의하여 지어진 건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예를 찾기 어려운 건물이다.

전시관은 산림자원 조성 및 활용, 임업 발전사, 산림의 혜택 등 다양한 산림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여러종류의 국내산 나무특징을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외형 및 단면을 전시하고 있다.



△우측 및 배면



△전시실



△목재 단면 전시

■ 전동성당 사제관



△사제관 전경

원형복원사례

소재지 : 전북 완산구 전동 1가 200-1번지
 지 정 : 문화재자료 178호
 용 도 : 종교시설
 건립년 : 1926년
 구 조 : 벽돌조
 규 모 : 반지하1층, 지상2층, 건축면적 186.1㎡ 연면적 559.2㎡
 설 계 : 라크루 신부(추정)
 시 공 : 중국인 벽돌공
 현황조사 및 복원계획수립 : 김정동 (목원대학교 건축근대사 연구실)

전동성당 동쪽편에 위치하고 있는 사제관은 르네상스 양식을 바탕으로 로마네스크 양식을 가미한 절충식 건물이다. 조형적으로 아름다운 외관을 자랑한다. 1926년에 준공되어 1937년에는 전주교구청사 및 교구장 숙소로 사용되었으며, 1960년 이후부터는 주임신부와 보좌신부의 생활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2003년 전동성당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사제관 원형복원을 계획하였다. 2004년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원형복원 사업을 실시하여 좌우측 베란다에 설치된 각종 실과 건물 배면에 증축한 보일러실(1992. 11)을 철거하여 원형 복원하였다. 내부는 사용상 편리하게 일부 개수하였다. 계단 및 출입문 등 주요부분은 원형 그대로이다.

전동성당에서는 추후 사제관을 ‘교구사료전시관’으로 전용할 계획을 추진중이다.

· 내용출처:

- 김정동, 「전주 전동성당 및 사제관 실태조사 보고서」, 2003
- 김정동, 「전주 전동성당 개보수 기본계획」, 2006



△사제관 후면



△1층 회의실

■ 남대문로 한국전력사옥



△주출입구



△로비 및 계단



△한국전력사옥 전경

개수보존사례

소재지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2가 5
 등 록 : 등록문화재 1호
 용 도 : 업무시설
 건립년 : 1928년 12월 30일
 (착공: 1927. 8. 20)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 지하1, 지상5, 옥탑2
 대지면적 700평,
 건축면적 266.3평,
 연면적 1666평
 설 계 : 小笹徳藏 (清水組 본점 설계부)
 시 공 : 清水組

•참조 : 김정동, 「한국 근대건축의 재조명」, 건축사, 1988년 5월호, 23~24쪽

우리나라에 내진설계가 처음 도입된 건물이다. 1923년 9월 일본 동경을 강타한 대지진으로 내화, 내진, 철근콘크리트구조를 함께 채택한 것이 특징이다. 일제시대 사무소 건물에서는 보기 드문 예이다. 신축 당시 김상근(金相根)이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참여하였다.

한국전력은 1898년 설립된 「한성전기회사」가 모태이다. 1925년 이후 한전 사옥은 총무로 2가에 있었으나 1928년 현 사옥으로 이전하였다

설계는 시카고학파적인 사무소건물 취향에, 르네상스적 장식요소를 일부 삼입하였다. 주두와 창대, 그리고 처마 밑부분에 덴탈요소들이 약하게 나타난다.

건물의 1층 부분은 전후, 좌측의 3방향으로부터 진입하고, 내부는 영업실과 진열실로 양분되었다. 코어는 중앙과 전면의 두 곳으로 나뉜다. 내부에 엘리베이터 2대를 설치하였다. 5개층의 각 평면은 모듈화 시켰고 모두 사무실로 분할된다.

건축당시 5층이었으나 해방후 옥상 부분을 철거하고 2개층을 증축하였다. 건물 내·외부의 원형은 비교적 잘 보존되어있다.

한국전력사옥은 건립당시부터 같은 용도로 계속 사용되면서 건물원형도 같이 보존되고 있다. 등록문화재 1호로서 상징성이 강하다.

■ 건국대학교 박물관 (구 서북학회 회관)



△서북학회 회관 전경 (출처: 문화재청 기록화조사보고서)

이축보존사례

소재지 :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
 등 록 : 등록문화재 53호
 용 도 : 업무시설 ⇨ 전시시설
 건립년 : 1908년 1월
 구 조 : 조적조(벽돌)
 규 모 : 반지하, 지상2, 옥탑1,
 연면적 300평
 설 계 : 청국기사(淸國技師)
 시 공 : 미상(未詳)

서북학회(西北學會)는 1908년 1월 이갑(李甲), 이동휘(李東輝) 등 서북5도인에 의해 결성된 애국 계몽단체이다. 본 건물은 회관으로 사용하다, 건국대학 야간부 낙원동 교사를 마지막으로 해체되었다.

건국대학교는 회관의 해체된 부재들을 보관해 오다가, 현 건국대 캠퍼스 구내에 1985년 11월 23일 복원하였다. 현재는 건국대학교 박물관(상허기념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박물관은 총 5,286점(국보1점, 보물1점 포함)의 유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정기간마다 순환·전시한다. 1층은 상허기념전시실로서 건국대학교 설립자인 상허 유석창 박사의 유품과 학교 역사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2층은 선사·역사유물전시실로서 구석기에서 초기철기시대의 선사유물과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의 역사유물을 전시한다. 지하층은 수장고로 이용하고 있다.

박물관은 또한 문화유적 발굴조사와 유적답사·문화강좌 등을 개최하여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와 역사의식의 고취에 힘쓰고 있다.

◦ 내용출처:

- 김정동, 「한국 근대건축의 재조명」, 건축사, 1987년 9월호, 33~34쪽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근대문화유산목록화 및 조사보고서1·2』, 서울특별시, 2004



△전시실1



△전시실2

■ 구 제일은행 본점



△구 제일은행 본점 전경

개수보존사례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충무로 1가 53번지
 지 정 : 시도유형문화재 71호
 용 도 : 업무시설
 건립년 : 1935년 11월 30일
 구 조 : 석조
 규 모 : 지하1, 지상5,
 대지면적 2,157.03㎡
 건축면적 1,173.56㎡
 연면적 7,038.05㎡
 설 계 : 히라바야시 김고 (平林金吾)
 시 공 : 대림조(大林組, 일본)

이 건물은 1933년 국내 건물 중 최초로 국제 현상설계에 의거 1935년 신축된 제일은행본점 사옥이다. 은행 건물로는 한국 최초로 철골, 철근 구조를 사용하였으며, 한국산 화강암을 사용하여 마감하였다. 전면의 석조기둥은 건물외관에 웅장한 멋을 부여하고 있다.

영업장 천장의 꽃모양 석고부조는 근대 건축양식의 걸작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전체적으로 화려하면서도 단아한 모양의 비례감을 보여주고 있는 국내 유수의 전형적인 네오-바로크 양식의 건물이다.

6.25전쟁 때에도 피해가 없어 원형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비록 제일은행이 본점은 이전하였지만, 현재도 은행 영업장으로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어 건축물과 함께 그 초기 기능까지도 원형으로 보존되고 있는 사례이다.



△은행 후면



△은행 내부



△후면 증축부

(출처: 제일은행 구분점 실측 및 개축준공보고서)

■ 일민미술관 (동아일보사옥)



△동아일보 사옥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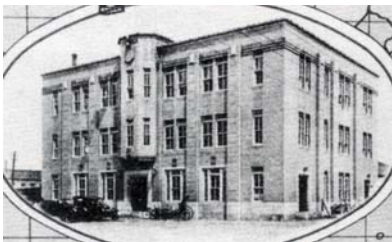
부분보존사례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39-8, 159-3
지 정	시도유형문화재 131호
용 도	업무시설 ⇨ 전시시설
건립년	1926년 12월 10일 (1차, 착공:1925.9.27)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 조적조(벽돌)
규 모	지하1층, 지상3층, 대지면적 402평, 건축면적 140평, 연면적 473.1평
설 계	橫濱建築事務所 + 나가무라 마코토(中村誠)
시 공	청수조(清水組, 일본)

1926년에 신축되어 1992년까지 66년동안 동아일보의 사옥이었던 일민미술관은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언론사 건물이다.

동아일보 사옥은 근대 Renaissance 양식으로 모든 부분은 단순하게 처리하였다. 현관 상부로부터 옥탑층까지 올라간 내받이창(Bay Window)의 처리가 건물의 양식적 특징이다. 1층과 2층 사이에는 허리장식을 부착하였다.

본 건물은 동아일보의 사세확장에 따라 증개축을 거듭해 왔다.

1935년경부터 증축 준비하였고, 1958~63년 사이에 건물 오른쪽으로 2Bay가, 상부로 2개층 추가되어 전체면적 540평으로 증축되었다. 1968년 동아방송이 개국(1963)함에 따라 다시 한개층을 증축하여 지하1층, 지상6층으로 현재의 규모가 완성되었다.



△초기 전경



△우측면



△아트트리움 상부



△1층 로비



△1층 카페테리아



△1층 전시실



△일민미술관 · 동아일보사 전경



△3층 일민 김상만 선생 집무실
(출처: 안내팸플렛)

1996년 컨템포러리 미술관으로 용도 변경되었다. 이후 2000년 동아미디어센터가 건립되면서 동아일보사옥의 리모델링이 시작되었다.

과거의 것과 새로운 것을 연결하고자 동아미디어센터와 접한 오른쪽에 새로운 문과 아트리움을 만들었다. 새로운 입구를 통해 관람객은 전 층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1~2층 전시실에 다양한 형태의 전시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2층에 있던 일민 김상만 선생의 집무실을 3층으로 옮긴 것은 내부 보존사례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집무실 이전은 집기뿐만 아니라 당시의 복도, 문, 몰딩 등 건축적 요소까지도 옮겼다. 국내에서는 최초의 사례이다.

1층은 전시실과 카페테리아 · 판매점을 배치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한다. 전시실은 주로 평면작품을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다.

2층 전시실은 설치작품에 주안점을 두어 계획되었다. 의도적으로 기둥과 보를 노출시켰다.

3층은 일민컬렉션 전시실로 일민 김상만 선생이 생전에 수집한 고려 · 조선 · 근현대의 다양한 예술작품을 전시한다.

4층은 다큐멘터리 아카이브로서 주로 비상업적 다큐멘터리 작품을 모니터와 비디오, DVD등을 통해서 감상할 수 있다.

5층은 영상미디어센터이다.

◦ 내용출처: 김정동, 「한국 근대건축의 재조명」, 건축사, 1988년 4월호, 62~63쪽



△2층 전시실



△4층 전시실

■ 우리은행 종로지점 (광통관)



△광통관 전경

개수보존사례

소재지 : 서울 중구 남대문로
1가 19
지 정 : 시도기념물 19호
용 도 : 업무시설
건립년 : 1909년 5월 24일
구 조 : 철근콘크리트+벽돌조
규 모 :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374㎡
설 계 : 미상(未詳)
시 공 : 미상(未詳)

광통관(廣通館)은 대한천일은행의 첫 점포였다. 상업은행의 전신인 대한천일은행(大韓天一銀行) 수형조합(手形組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의 하나였다.

광통관은 2층 건물로서 외부 벽체는 붉은 벽돌과 화강석으로 마감했다. 돔에서 오는 상징적 의미와 전면 4개의 화강석재 이오닉 오더(Ionic Order) 붙임기둥에서 장중함이 느껴진다. 크고 작은 박공의 조합이나 지붕면의 돌난간은 정교함에 있어 다른 탁지부 건축소의 건물보다 뛰어나다.

1914년 2월 9일 2층의 영업소에서 화재가 발생, 반소(半燒)되어 원래의 건물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으로 복구 되었다. 이때 박공들이 모두 사라졌으며 창틀은 투박해졌다. 기둥의 주요 부분도 고전적 이오닉 스타일에서 절충주의적 장식 주두로 대체되었다. 더욱 큰 변화는 쌍돔부분에서 왔다. 돔은 오히려 더 커져 역 비례적이다. 광통관은 이후로도 개축, 증축, 보수가 이어졌다. 현재는 우리은행 종로지점으로 쓰여지고 있다. 건물과 용도가 같이 보존·활용되는 사례이다.

• 내용출처: 김정동, 「한국 근대건축의 재조명」, 건축사, 1987년 10월호, 32~33쪽



△주 출입구



△건물 후면

■ 신세계백화점 본관 (구 미쓰코시 경성지점)



△신세계백화점 본관 전경(개수후)

개수보존사례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충무로 1가
52-5번지 외 1필지
지 정 : 미지정
용 도 : 업무시설
건립년 : 1930년 10월 21일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규 모 : 지하1층, 지상6층,
대지면적 2,410.40㎡,
건축면적 2,138.37㎡,
연면적 13,439.92㎡
설 계 : 하야시 코우헤이(林幸平)
시 공 : 타다공무점(多田工務店)
+ 다카시야출장소
(高島屋出張所)
자 문 : 김정동(목원대 교수,
보존 및 개수방향)

신세계백화점은 건립 당시에는 미쓰코시(三越) 경성지점이었으나 해방 후에 동화백화점, 한국전쟁 때에는 미군 PX로 운영되다가 1963년 신세계로 바뀌었다. 1936년과 37년 사이에 보수공사와 1971년에 5층 부분의 증축이 있었으며 1974년에 전망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다.

건축양식은 르네상스를 주로 한 절충식이며, 입면은 전체적으로 수평선을 강조하였는데 외부 4각 기둥의 적절한 배치로 수평과 주식이 조화를 이룬다. 외관상 준공당시보다 1개층이 더 증축되었다. 외벽은 기존의 타일과 화강석 마감에서 2006년 보수공사시 라임스톤으로 재질이 변경되었다. 또한 외벽의 테라코타 장식 역시 라임스톤으로 변경되었다. 내·외부 장식의 형식과 크기는 기존 것과 같다.

개수설계는 (주)삼우설계에서 담당하였으며, 신세계건설이 시공(2006.4~12)하였다. 한국에서는 최초로 건물을 지상에서 띄워서 시공하는 마이크로 파일(micro pile)공법이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개수전 신세계백화점(2004)

• 내용출처: 목원대학교 건축근대사연구실, 『신세계 백화점 본관 현황 및 실측조사 보고서』, (주)신세계, 2004



△중앙계단(개수후)



△휴게실(개수후)

■ 부산근대역사관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산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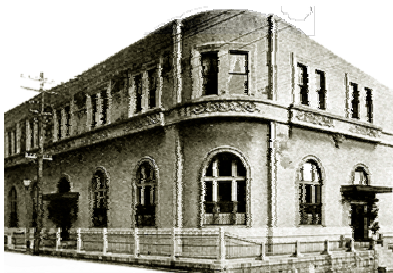


△부산근대역사관 전경

원형보존사례	
소재지	부산 중구 대청동 2가 24-2번지
지 정	시도기념물 49호
용 도	업무시설 ⇨ 전시시설
건립년	1929년 9월
구 조	철근콘크리트
규 모	지상3층, 대지면적 1,676.7㎡, 건축면적 659.24㎡, 연면적 1,380.46㎡
설 계	미상(未詳)
시 공	미상(未詳)

이 건물은 부산, 경남의 토지 및 경제침탈을 자행하였던 식민지 정책의 대표기관인 동양척식주식회사로 건축되었다. 해방 이후에는 부산에 진주한 미군들의 숙소로 사용되다가 1949년 7월부터는 미국 해외공보처 미문화원으로 변경되었다.

동양척식주식회사는 근대합리주의 양식이며, 외벽기초에는 대리석을 벽면에 두르고 바닥에도 대리석을 깔아 웅장함이 느껴진다. 건물의 외벽 중앙에는 문양을 넣었고 실내에는 전형적인 은행건물 형태로 대형 기둥을 세우고 문양을 넣었다. 창문은 서구 건축의 대표적인 형태로 되어 있고, 옥상은 철근콘크리트로 마무리 하였다.



△일제강점기 동양척식주식회사 당시모습(출처: 홈페이지)



△좌측면



△주출입구



△근대자료실



△정보검색 코너



△안내데스크

1999년에 미문화원에서 부산시로 건물 소유권이 반환되었으며, 민족의 아픔을 간직한 본 건물을 통하여 부산의 근현대사를 알리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3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3년 7월 3일 부산근대역사관으로 개관하였다.

부산근대역사관은 부산의 근현대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유물 200여 점을 비롯해 영상물 6편, 모형 2건 등의 전시물이 2층과 3층에서 전시된다. 1층은 영상실과 근대자료실을 배치하여 근대 부산에 대한 각종 자료를 검색·열람할 수 있다.

2층 전시실은 「부산의 근대개항」, 「일제의 부산수탈」, 「근대도시 부산」 등 다시 3개의 주제별 전시실로 꾸며져 있으며, 일제의 침략과 수탈로 형성된 부산의 근대사를 소개하고 있다.

3층 전시실은 「동양척식주식회사」, 「근현대 한미관계」, 「부산의 비전」 등으로 구성하여 일제의 침탈상을 상세하게 보여준다.



△2층 전시실 투시도(출처: 홈페이지)



△3층 전시실 투시도(출처: 홈페이지)

■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 (구 인천 일본18은행지점)



△근대건축전시관 주출입구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 전경

원형보존사례	
소재지	인천시 중구 중앙동 2가 24-1번지
지 정	시도유형문화재 50호 (2002.12.23)
용 도	업무시설 ⇨ 전시시설
건립년	1890년
구 조	조적조
규 모	지상1층
	대지면적 404.45㎡
	전시공간 225.17㎡
	휴게공간 179.28㎡
설 계	미상(未詳)
시 공	미상(未詳)

일본 18은행은 단층으로, 고전적 장식의 절충주의 양식을 하고 있다. 벽체는 조적위에 몰탈마감으로 하였으며 기둥과 기단부위는 돌로 마감되어 있다. 출입구의 석주 장식은 정교하게 시공되어 있으며 지붕은 목조트러스 위에 일식기와로 이은 모임지붕 형태이다.

1890년 준공되어 그 해 10월에 개점하였고 58은행의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18은행은 일본 나가사키에 본점을 두고 있었으며, 일본이 한국의 금융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은행이었다. 18은행 뿐 아니라 그 당시에 세워진 일본 은행들은 모두가 한국 금융계를 일본 식민지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7개 은행을 비롯해 13곳 보험사의 소유자가 천일은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본인 소유였다.

1936년 조선식산은행 인천지점에 그 업무를 인계하였고, 1954년 상공은행과 신탁은행의 합병으로 발족한 한국흥업은행 지점으로 사용되었다.



△업무전시실 출입구



△전시관 내부천정



△기존벽체 보호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 내부투시도(출처: 안내팸플렛)

인천시 중구청 별관으로 사용하다가 2006년에 인천시 근대건축의 홍보를 위한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으로 용도 변경되었다.

전시관은 크게 5개의 주요부분으로 구분된다.

도입부는 개항당시의 인천항에 대하여 전시하고 있으며, '1 전시실'은 개항당시 시대상황과 인천항 및 제물포의 모습을 재현해 놓았다. '2 전시실'은 각 조계지의 풍경과 1920년대 인천 중구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3 전시실'은 인천에 현존하는 근대건축물 및 소실된 근대건축물의 모형과, 엽서로 본 근대건축물도 전시하고 있다. 부대 시설로 야외휴식공간을 배치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휴식공간에도 인천 근대건축물 탐방 지도와 관련자료를 전시하고 있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전시관을 조성할 때 기존벽체와 구조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건물의 역사를 느낄 수 있다.



△개항당시 인천항 모형



△인천해관 모형(소실 건축물)



△존스턴별장 모형(소실 건축물)

■ 예산 새마을금고 (예산 호서은행본점)



△예산 호서은행본점 전경

개수보존사례	
소재지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482번지
지 정	시도기념물 66호 (1987.12.30)
용 도	업무시설
건립년	1922년
구 조	조적조+RC조
규 모	지상2층, 대지면적 1,286.66㎡, 건축면적 395.93㎡, 연면적 687.17㎡
설 계	나카무라 요시헤이 (中村與資平)

호서은행(湖西銀行)은 일본이 한국을 합병하고 금융권마저 장악하고자 했던 1913년에 이 지역 민간유지들이 설립한 민족 금융기관이다. 당시 일본의 금융압박 속에서도 민간자본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충남지역 최초의 지방은행이다.

1922년에 준공된 호서은행 예산본점은 경제사나 금융발달사 분야에서는 하나의 상징적 의미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경제사적인 의의와 더불어 당대의 금융시설로서 건물에 표현된 양식이 뛰어나고,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어 건축사적인 가치 역시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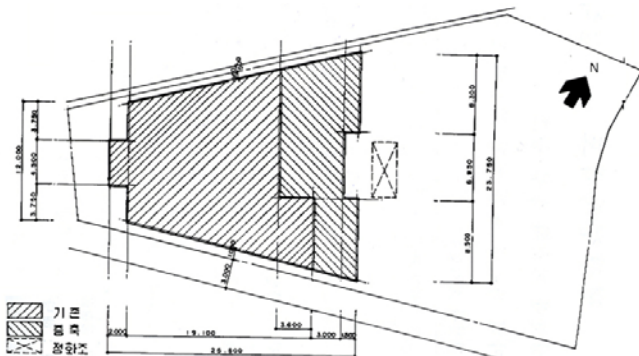
그동안 몇 번 상호는 변경되었지만 은행업무 기능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현재는 예산 새마을 금고로 사용중이다.



△배면 전경



△내부계단(원형)



△평면도 (출처: 『근대문화유산목록화사업』, 충청남도, 2004)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구 대한의원 본관)



△대한의원 본관 전경

원형보존사례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2번지
 지 정 : 사적 248호
 용 도 : 의료시설 ⇨ 전시시설
 건립년 : 1908년 11월 (착공:1907. 3)
 구 조 : 석조+벽돌조
 규 모 : 지상2층, 건축면적 1,686.87㎡, 연면적 10,181.91㎡
 설 계 : 아바시 겐끼찌(失矯賢吉)
 시 공 : 탁지부 건축소

대한의원의 외관은 중앙시계탑을 중심으로 양쪽에 날개부를 두고 그 끝 부분을 전면으로 약간 돌출시켜 박공면으로 처리했다. 중앙시계탑에는 붙임기둥을 세우고 바로크풍의 둥근 지붕을 얹었다. 평면구성은 좌우 대칭이며 현관 포치로 정면 입구를 강조하였다.

대한의원은 8·15해방 이후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으로 사용하다가 후면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병원연구소로 사용하였다.

최근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으로 용도변경하여 내부를 수리하고 근대기부터 현재까지의 의학에 관한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병원사 전시실’에서 근대기 서양의학의 도입에서부터 비약적으로 발전된 현대의학의 풍속도를 관람할 수 있다.

‘의료기구 전시실’에는 우리나라 근대의학 도입기 이후의 의료기기와 현대의학의 혁신적인 기구들이 전시된다.

‘인체체험 전시실’에서는 인체해부단면, 심장의 모형과 실제표본을 살펴보고, 생명의 신비를 각종 영상자료를 통해 관람할 수 있다.

◦ 내용출처:

- 김정동, 「한국 근대건축의 재조명」, 건축사, 1987년 9월호, 34~36쪽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근대문화유산목록화 및 조사보고서1·2』, 서울특별시, 2004



△전시실1



△전시실2

■ 여수 애양병원



△애양병원 전경 (출처: 문화재청실측조사보고서)

개수보존사례

소재지 : 전남 여수시 읍촌면
 신평리 18 외 2필지
 등 록 : 등록문화재 33호
 (2002.05.31)
 용 도 : 의료시설 ⇨ 전시시설
 건립년 : 1926년
 구 조 : 석조
 규 모 : 지상2층
 건축면적 422㎡,
 연면적 700㎡
 설 계 : 미상(未詳)
 시 공 : 미상(未詳)

여수애양병원은 1923년에 조선총독부 사립병원 취제규칙에 의하여 정식병원으로 인가되었다. 1926년에 현 건물을 신축하고, 이듬해부터 19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교회와 병사를 신축 이전하였다. 우리나라 의료선교사의 상징적 장소라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건물이다.

1967년 8월 3일, 애양병원이 신축건물로 이전한 후, 1992년까지 평안양로원 독신사로 사용되었다.

1999년 12월에 역사관으로의 전용공사를 시작하여 2000년 6월 24일에 'WLC 역사박물관'으로 개관하였다.

박물관에는 당시의 의료기구와 사진 자료 등을 전시하고 있다. 1층은 카페테리아 및 다용도실·목사관·수장고·안내사무실·화장실·역대 원장 기념관이 배치되어 있으며, 2층은 전시관·수술실 및 실생활 재현관·창고 등으로 꾸며져 있다.



△남측면



△1층 현관 및 중앙홀



△2층 중앙전시장

(출처: 문화재청실측조사보고서)

■ 덕성여대 재단 (운현궁 (양관))



△운현궁 양관(이준 저택) 전경

원형보존사례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50번지
지 정 : 사적 257호
용 도 : 주거시설 ⇨ 업무시설
건립년 : 1910년
구 조 : 조적조
규 모 : 지상2층,
건축면적 459㎡,
연면적 893㎡
설 계 : 가타야마 도우꾸마
(片山東熊)
시 공 : 미상(未詳)

본 건물은 운현궁안에 신바로크(Neo-Baroque)풍의 양관으로 건축되어 기존 운현궁 전통건축과 묘한 대조를 이룬다.

건물은 완전 대칭형이며 발코니 상부의 피라미드형 지붕 2개와 넓고 큰 중앙의 돛지붕이 중요한 양식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입면에서 벽면을 후퇴시켜 강한 음영 처리를 유도하고 있다. 전면 현관은 중앙 아치를 붙임기둥으로 세밀하게 마감하였다. 2층의 기둥머리는 쌍 이오닉 아치로 처리하였다. 원형보존 상태가 매우 좋다.

저택은 이준이 사망한 후 이우(李鐫)에게 상속되었으나, 8.15 해방후 이 건물은 미군정청에 접수됐었다. 1946년 8월 덕성여대로 완전히 넘어갔다. 현재 덕성여대 재단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다.

현재 업무시설로 용도변경되었지만, 주거시설로 사용될 당시의 평면구성 및 각종 장식은 대부분이 원형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 내용출처:

- 김정동, 「한국 근대건축의 재조명」, 건축사, 1987년 9월호, 32~33쪽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근대문화유산목록화 및 조사보고서1·2-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004



△1층 로비



△2층 홀

■ 강북 삼성병원 (서울 경교장)



△서울 경교장 전경

부분보존사례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평동 108-1번지
 지 정 : 사적 465호
 용 도 : 주거시설 ⇨ 의료시설
 건립년 : 1938년 (착공: 1936년)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 지하1, 지상2, 대지면적 1584평, 건축면적 117평, 연면적 264.4평
 설 계 : 김세연(金世演)
 시 공 : 대림조(大林組, 일본)

• **내용출처:** 김정동, 「한국 근대건축의 재조명」, 건축사, 1989년 2월호, 41~42쪽

신문로 평동 중턱에 자리잡고 있는 이 저택은 원래 금광왕 최창학(崔昌學)의 사저로 건축되었다.

해방후 김구 선생이 상해임시정부에서 귀국하여 이곳에 거처하면서 유명해졌다. 이때부터 경교장(京橋莊)이라는 이름이 붙어 해방후 정치사의 한 현장이 되었다. 또한 1949년 6월 26일 정오경 저격자 안두희에게 김구선생이 피살당한 현장이기도 하다.

그후 후손에게 상속됐던 이 건물은 한때 세들어 있던 미국인에 의해 무허가 모텔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후 고려병원에서 이 건물을 사들여 김구선생이 최후를 맞은 거실을 보전하며, 전용하였다.

현재 건물은 강북삼성의료원에서 본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내부는 개조하여 원형을 잃었다. 외부의 캔틸레버 부분이 수리 변형되었지만 그 외 외부벽체는 원형에 가깝다. 본 건물은 외벽만 보존하고 내부는 개수하여 활용하는 사례이다.



△지붕부



△측면부



△내부

■ 최순우 옛집



△최순우 옛집 외부 전경



△최순우 옛집 내부 전경

원형복원사례

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126-20
지 정 : 등록문화재 268호
용 도 : 주거시설 ⇨ 전시시설
건립년 : 1929년
구 조 : 목구조
규 모 : 지상1층,
대지면적 364㎡,
건축면적 82.64㎡,
연면적 82.64㎡
설 계 : 미상(未詳)
시 공 : 미상(未詳)



△정면 주출입구

‘ㄱ’자형 안채와 ‘L’자형 바깥채로 구성된 튼 ‘ㄱ’자 평면의 전형적인 경기지방 한옥으로 1930년대의 한옥을 복원한 것이다.

건물 배치는 안채와 바깥채 그리고 2개의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문을 통해 진입하는 안마당은 안방과 사랑이 위치한 ‘안채’와 부엌과 부속실이 위치한 ‘바깥채’로 둘러싸였으며, 사랑방 밖으로 후원 성격의 마당이 위치해 있다.

복원공사(2003~2004년)시 안채 대청 뒤쪽의 증축부분(벽돌조로 달아낸 부엌)을 헐어내고 대신에 뒷퇴간 부분에 반침 등을 설치하여 서측 인접건물(5층 빌라)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도모했다. 안채의 안방은 최순우 선생 생전에는 동편 1칸은 사랑방, 중간 1칸은 선생의 침실, 서편 1칸은 안방으로 사용했었는데 선생 사후 한 개의 방으로 터서 사용했다. 복원공사시 동편 1칸과 중간 1칸의 사잇문 1개소를 복원하였고 동편 1칸의 공간은 최순우 선생 생전의 사랑방으로 복원하여 안채 전체를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행랑채(바깥채)는 최순우 선생이 서재로 사용했던 동편 4칸은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서편 바깥채는 2칸을 증축하여 회의실, 수장고 및 화장실로 사용하고 있다.

미술평론가인 최순우(1916-1984) 선생은 1976년부터 작고하기 전까지 현 주택에 거주하였다. 현재 사단법인 한국내셔널트러스트에서 건물을 매입·관리중인, 시민보존운동의 한 사례이다.

■ 임시수도 기념관 (임시수도 대통령관저)



△주출입구



△임시수도 기념관 전경

원형복원사례	
소재지	부산시 서구 부민동 2가 22번지
지 정	시도기념물 53호
용 도	주거시설 ⇨ 전시시설
건립년	1926년 8월 10일
구 조	조적조
규 모	지상2층, 대지면적 1,500평
설 계	미상(未詳)
시 공	미상(未詳)

경상남도청이 부산부 부민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1926년 8월 10일 경상남도도지사 관사로 준공되었다. 건물은 붉은벽돌로 건축되었으며 지붕은 일식기와로 마감하였다.

관사는 한국전쟁 당시 수도가 부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임시수도대통령 관저로 사용(1950.8.8~1953.8.15)되었다. 이후 다시 경남도지사 관사로 환원되어 1983년까지 사용되었다.

1983년 경남도청이 창원으로 이전하게 되자 도지사 관사는 부산시에서 매입하여 한국전쟁기의 각종 사진자료 등을 전시하는 임시수도기념관으로 보수 활용하게 되었다.

한국전쟁 당시 대통령관저로서의 모습을 재현하는 건물 복원공사는 2000년 4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시행되었으며, 전시시설 공사는 2002년 5월부터 11월 사이에 실시되었다.



△1층 거실(출처: 안내팜플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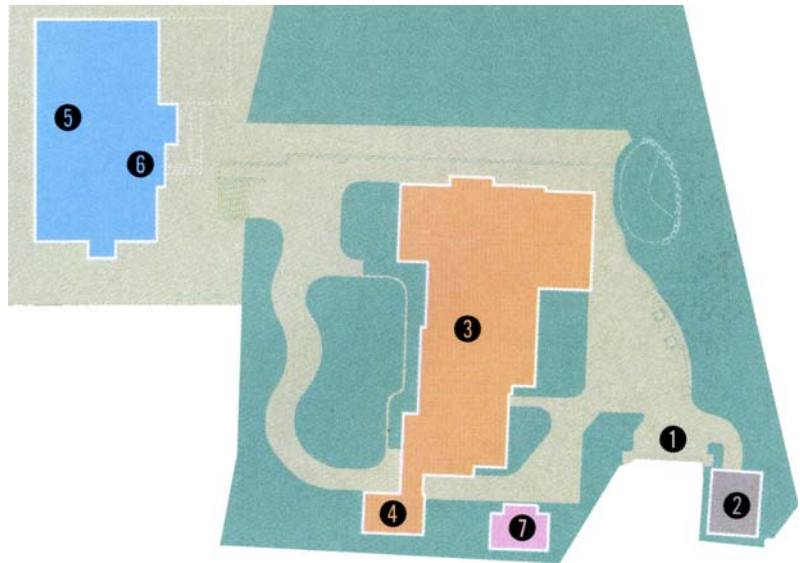
△2층 집무실(출처: 안내팜플렛)



△전시실 복도(출처: 안내팸플렛)



△화장실 보존현황



△전체 배치도

배치도 범례	
1. 정문	5. 영상실
2. 안내실	6. 연구실
3. 전시관	7. 화장실
4. 사무실	

평면도 범례	
1. 제1전시실 (응접실)	6. 제6전시실 (부엌)
2. 제2전시실 (서재)	7. 제7전시실 (조리사실)
3. 제3전시실 (내실)	8. 제8전시실 (경비실)
4. 제4전시실 (거실)	9. 제9전시실 (집무실)
5. 제5전시실 (식당)	

기념관의 전시구성은 부산임시수도시절 대통령 관저로 사용되었을 당시의 실내구조와 분위기를 그대로 재현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1층에는 응접실과 서재, 내실, 거실, 식당, 부엌, 조리사실, 경비실 등 8개의 방을 꾸몄고, 2층에는 집무실과 마루방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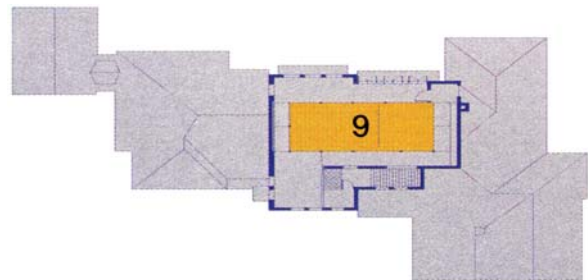
1층 거실과 2층 집무실에는 각각 2~3개씩 독립장을 배치하여 관련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2층 집무실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책상에 앉아 집무를 보는 모습을 밀랍인형 및 관련자료로 재현하였다.

본관과는 별도로, 인접한 구 고검장관사에는 영상실을 꾸며 이곳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전쟁의 아픔과 피난생활의 힘겨움을 곳곳이 이겨내었던 임시수도 당시의 부산시민·피난민들의 모습을 영상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 선교 박물관 (선교사 스위트 주택)



△구 스위트 주택 전경

원형보존사례

소재지 : 대구시 중구 동산동 194번지
 지 정 : 시도유형문화재 24호
 용 도 : 주거시설 ⇨ 전시시설
 건립년 : 1910년
 구 조 : 벽돌조
 규 모 :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342㎡
 설 계 : 미국인 선교사
 시 공 : 미상(未詳)

이 주택은 1906~1910년경 미국인 선교사들이 대구 동산위에 건립한 집으로 스위트(M.M. Switzer), 헨더슨(H.H. Henderson), 아키베드 캠프(Archibad Campbel) 등이 거주해왔다.

건물은 붉은 벽돌조의 한·양 절충식 건물이다. 평면구성은 남쪽 우측부에 현관으로 이어지는 베란다를 두고, 현관 홀을 통하여 거실과 응접실을 직접 연결하였으며, 거실을 중심으로 침실, 계단실, 욕실, 부엌, 식당 등을 배치하였다.

1981년 8월 동산병원에서 인수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면서 한식기와를 함석으로 교체하고, 내부 마감재 일부를 교체하였다. 1999년 10월 1일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개원100주년을 맞이하여 이 건물을 선교박물관으로 개수하였다.

박물관 1층에는 각종 성경과 선교 유물, 기독교의 전래과정 등의 사진자료와 2층에는 성막이 전시되어 있다. 이외 성서시대 유물 50여점과 근대기에 발간된 각종 성경관련 서적이 구비되어 있다.



△우측면



△1층 한국기독교의 역사전시실



△2층 성막모형(출처: 안내팸플렛)

■ 동산의료원 의료박물관 (선교사 챔니스 주택)



△구 챔니스 주택 전경

원형보존사례

소재지 : 대구시 중구 동산동
424번지
지 정 : 시도유형문화재 25호
용 도 : 주거시설 ⇨ 전시시설
건립년 : 1910년
구 조 : 벽돌조
규 모 :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482.75㎡
설 계 : 미국인 선교사
시 공 : 미상(未詳)

챔니스 주택은 남북으로 약간 긴 장방형 평면으로 1층은 서쪽 중앙에 있는 주 출입구에서 계단실이 있는 홀과 연결되고, 이 홀을 중심으로 거실, 서재, 부엌, 식당 등이 배치되어 있다. 2층에는 계단실을 중심으로 남쪽과 서쪽에 각각 침실을 배치하였다.

건립초기에는 라이너(R.O.Reiner), 챔니스(O.V.Chamness), 소우텔(Sawtel) 등의 선교사들이 거주하였다. 1981년부터는 동산병원 사택으로 사용하였다. 1999년 10월 1일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개원 100주년을 맞이하여 의료박물관으로 개수하였다.

건물내부 전시실에는 1800년대부터 1900년대에 이르는 많은 동서양의 의료기기 등이 소장돼 있어 의학 발전상을 한눈에 엿볼 수 있다. 이외 동의보감 및 의학입문 같은 의학서적들도 전시되고 있다.



△우측면



△배면



△전시실

■ 교육 · 역사박물관 (선교사 블레어 주택)



△생활용품 전시



△블레어 주택 전경

원형보존사례

소재지 : 대구시 중구 동산동 424번지
 지 정 : 시도유형문화재 26호
 용 도 : 주거시설 ⇨ 전시시설
 건립년 : 1910년
 구 조 : 벽돌조
 규 모 :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482.75㎡
 설 계 : 블레어(H.E.Blair)선교사, 라이스(R.F.Rice)선교사
 시 공 : 미상(未詳)



△일제만행 사진 (출처: 안내팜플렛)



△대구 3·1운동 시위행진도 (출처: 안내팜플렛)

이 주택은 1910년경 미국인 선교사들이 건축한 주택으로 블레어(H.E. Blair), 라이스(R.F.Rice) 선교사가 거주해왔다.

평면은 남북이 약간 긴 장방형이며, 1층은 서쪽 현관홀을 통하여 응접실과 거실·계단실을 직접 연결하고, 거실을 중심으로 침실·부엌·식당 등을 배치하였다. 2층은 ㄱ字形의 계단 홀을 중심으로 침실과 욕실을 두었으며, 서쪽 현관의 베란다 상부는 선룸(Sun Room)을 설치하였다.

외관은 남측과 서쪽에 목조 베란다가 설치하고, 콘크리트 기초 위에 붉은벽돌을 쌓아 벽체를 구성하였다. 지붕은 박공면을 남쪽과 북쪽, 서쪽에 두고, 동쪽과 서쪽의 지붕면은 외쪽지붕(Shed)으로 꾸몄다.

1981년 8월 동산병원에서 인수하여 사택으로 사용해오다가, 1999년 10월 1일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개원 100주년을 맞이하여 교육 · 역사박물관으로 개수하였다.

교육 · 역사박물관에는 다양한 민속사료와 조선시대 이후부터 1차 ~6차 교육과정까지 각 시대별 교육서적과 교과서가 전시되고 있다. 또한 서당, 초등학교 교실을 볼 수 있는 교육 · 역사관과 대구 3·1운동의 발자취와 일제만행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진 등이 전시되는 대구 3·1운동 역사관이 준비되어 있다.

■ 오정동 선교사촌



△오정동 선교사촌 전경

원형보존사례

소재지 :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133-2번지
지 정 : 문화재자료 44호
용 도 : 주거시설 ⇨ 전시+주거
건립년 : 1955년
구 조 : 벽돌조/팔작기와지붕
규 모 : 지하1층, 지상1층,
대지면적 10,317.4㎡
건축면적 226.55㎡
연면적 270.8㎡
설 계 : 인돈 박사(Mrs. Linton)
시 공 : 박상규



△건물 좌측

1950년대 서양인이 한국 건축양식을 도입하여 세운 보기 드문 예로서, 출입구에 있는 1동의 한식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들은 서구식의 평면에 합각지붕을 씌운 형태이다.

내부구조는 서편 3동과 동편 3동이 각각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중 서편의 3동은 ‘ㄷ’자 형태의 평면으로 전면에는 응접실과 서재를 후면에는 4개의 침실을 두고 연결부분에 주방, 식당, 다용도실 등을 둔 전형적인 서구식 개념의 구성으로 되어있다.

거실에는 벽난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나머지 방은 당시 다른 건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바닥배관으로 난방을 하고, 남서쪽에 조그만 선룸도 붙어 있다.

공간배치와는 다르게 지붕은 왕대공을 약간 변형하여 하현재가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다. 천정 마감은 서까래를 노출시키고, 그 사이를 석회석을 발라서 마감하는 등 전통적 방법을 적극 사용하였다. 그리고 출입구 부분의 바닥은 반원형으로 적벽돌을 깔고, 거실 내부의 창틀은 끝부분을 추켜올린 곡선을 가미한 특유한 형태로 설치하였다. 이밖에도 새마을운동 이후에 일반건축에 나타나기 시작한 화장실이 욕실과 함께 들어서 있다.

인돈학술원 건물을 비롯해 모든 건물들은 내부 어디서나 쉽게 자연을 볼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일례로 부역의 개수대 벽도 창문처럼 개방되어 있어 복도창 너머의 중정이, 거실에 앉아서도 채마밭이



△건물 우측



△건물 배면



△침실



△거실

한눈에 든다.

양식과 한식이 조화를 이룬 점이 건축사적으로 설명되지만 자연과 함께한 건물 배치와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도 이곳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

1990년대 초 임기를 마친 외국인 선교사들이 떠나면서 일부 부지가 대전신학교를 거쳐 개인에게 매각되었고, 1999년 5월경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계획이 추진되자 ‘오정골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공동대표: 김정동(목원대), 박용남(대전외제21))’이 결성되어 이를 철회시킴으로서 국내 최초의 내셔널 트러스트운동 성과로 기록된 장소이기도 하다.

이후 한남대학교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서편 3동 중 가운데 건물에 1995년 4월 13일부터 인문학술원이 개원하여 당시 유물을 보관·전시하고 있으며, 2001년 6월 27일에 서편 3동이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었다.

현재 한남대학교 총장 부속기관인 오정골 선교사촌의 건물 중 서편의 2동은 한남대학교의 외국인 교수가, 1동은 써머빌 교수의 학술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동편의 2동은 인접한 외국인 학교의 교사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1동은 학술원 관리인의 숙소로 활용되고 있다.

입구 맨 앞에 있는 한옥은 원래 관리원의 숙소로 사용하였으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고 있다.

■ 화진포의 성 (구 역사안보전시관)

원형복원사례	
소재지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화진포리
지 정 :	미지정
용 도 :	주거시설 ⇨ 전시시설
건립년 :	1938년 (1964년 재건축 2005년 복원)
구 조 :	콘크리트조
규 모 :	지하1층, 지상2층
설 계 :	H. Weber(독일)
시 공 :	미상(未詳)



△화진포의 성 전경



△주출입구



△외부전경



△당시 생활재현 모습



△벽난로

1937년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일본군은 원산항의 외국인 휴양촌을 비행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화진포로 강제 이주시켰다.

선교사로서 당시 휴양지 이전에 대한 실행위원이었던 셔우드 홀(Sherwood Hall) 박사는 독일에서 히틀러의 공포정치를 피해 망명한 독일인 베버(H. Weber)에게 조그마한 별장을 건축 의뢰하였다. 독일에서 건축학을 전공한 베버는 1938년 회색돌로 마감한 원통형 2층 건물을 현 위치에 건축하였다. 해안 절벽 송림속에 우아하게 자리한 모습이 영국의 성과 같다하여 ‘화진포의 성’으로 불리어졌으며, ‘돌집’이라고도 하였다. 건물내부의 벽난로는 동굴에서 채취해온 수정암으로 마감하여 장작 불빛을 반사시켜는 효과를 주었다. 셔우드 홀 박사는 이 벽난로에 대한 추억을 그의 자서전 ‘조선회상’에 적고 있다. 건물은 예배당으로도 사용되었다.

1945년 광복이후에는 북한당국에서 휴양촌을 정양소로 활용하였으며, 예배당은 귀빈관으로 이용하였다. 1948년부터 김일성의 처 김정숙과 김정일 형제가 여름 휴양을 위한 숙소로 이용한 적이 있어 김일성 별장으로 불리게 되었다. 1948년 8월 당시 6살이던 김정일이 소련군 정치사령관 레베체프 소장의 아들과 별장입구 돌계단에서 찍은 사진이 남아있다.

전쟁중에 건물은 훼손되었고, 1964년 군인휴양소로 재건축되었다. 1999년 역사안보전시관으로 개축 운영되었다. 고성군청에서는 2004년 3월부터 ‘화진포의 성’ 복원공사를 시작하여 2005년 4월에 완공하였다. 건물내부에는 당시의 생활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다.

화진포의 성 인근에는 이승만 초대대통령 별장과 이기붕 별장이 있으며, 세 건물 모두 역사안보전시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 이영춘가옥



△이영춘 가옥 전경

원형보존사례

소재지 : 개정동 413-11
 지 정 : 시도유형문화재 200호
 용 도 : 주거시설
 건립년 : 1920년대
 구 조 : 목구조
 규 모 : 지상1층
 설 계 : 프랑스인
 시 공 : 일본인, 중국인

1920년경에 일본인 대지주 구마모토(能本)가 지은 별장주택으로 프랑스인이 설계하였고 일본인이 시공을 맡았으며 중국인이 온돌을 축조하였다고 전해지며 1935년에는 개정병원 원장을 지낸 이영춘 박사가 관리를 위탁받게 되었고, 해방과 함께 박사의 소유로 전환되었다가 학교법인 경암학원 소유로 변경되었다.

이영춘 박사가 이주한 후에 부엌을 입식으로 만들고 다다미방을 뜯어내고 보일러를 설치하였으며 온돌방을 들였다고 한다. 온돌방은 원래 10첩(疊)의 큰 다다미방이었다고 하며 온돌방으로 개조하기 전에는 방의 서쪽에 도코노마가 있었다고 한다.

이영춘 가옥은 건축당시의 모습을 온전히 보존하고 있으며, 근대기 상류주택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매년 많은 건축관련 학생들의 답사와 영화·드라마(모래시계) 등의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다.



△남측면



△거실1



△거실2

■ 구 보성여관



△보성여관 우측면 (출처: 문화재청 기록화조사보고서)

원형보존사례

소재지 : 전남 보성군 벌교읍
640-2
등 록 : 등록문화재 132호
(등록: 2004.12.31)
용 도 : 숙박시설→근린생활시설
건립년 : 1940년
구 조 : 목구조
규 모 : 지상2층,
대지면적 1,504㎡,
연면적 368.26㎡
설 계 : 미상(未詳)
시 공 : 미상(未詳)

구 보성여관은 1940년부터 숙박과 요식업을 병행하여 영업 하였다. 1층은 주로 객실로 사용했으며 2층은 연회장으로 사용되었다. 연회장에서 다대(茶代)를 즐기며 모임, 파티, 상거래 등이 이루어졌다.

1988년 여관일대가 학교정화구역으로 지정되어 여관을 폐업한 상태로 객실일부는 사용하지 않고 소유자의 주택일부와 점포만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인 건물원형 보존사례이다.

평면구성은 남·북방향의 도로를 따라 장방형 형태를 이루고 중정을 둘러싼 ㄱ자 가옥이다. 실 내부 구성은 좁은 통로를 따라 건물내부로 들어가면 정원을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1,2층 구조의 건물이 배치된다.

구 보성여관은 1930년대 모습을 간직한 시가지 중앙에 위치하여, 당시 거리풍경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면부 지붕면



△진입통로



△2층 내부

(출처: 문화재청 기록화조사보고서)

2. 외국사례

1) 일본사례

■ 국제어린이도서관 (國際子ども圖書館)



△국제어린이도서관 전경(출처: 안내팸플렛)

개수보존사례

소재지 : 도쿄도 다이토구 우에노
공원 12-49 (東京都
台東區 上野公園)
지 정 : 국가지정중요문화재
용 도 : 공공시설
건립년 : 1906년
구 조 : 조적조+철골조보강
규 모 : 지하1층, 지상3층
대지면적 5,433㎡
연면적 6,671㎡
장서 40만권 수장

도쿄도(東京都) 다이토구(台東區)의 우에노(上野)공원에 위치한 국제어린이도서관은 1906년에 '제국도서관'으로 준공된 네오 르네상스 양식의 건축물이다.

최근에 실시된 근대건축물의 개보수를 통한 전용(轉用)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1929년에 증축공사 후, 1947년에 '국립도서관'이라고 개칭되었고, 1948년에 '국립국회도서관'으로, 다시 1949년에 국립국회도서관 지부 '우에노도서관'으로 변경되어 사용되었다.

이후, 도쿄도(東京都)의 '역사적 건축물'로 지정되어, 2000년에 국제어린이도서관으로 부분 개관하였다가 전면적인 개보수공사를 통해, 2002년 5월 5일에 전면 개관한 일본 최초의 국립 아동도서관이다.



△주 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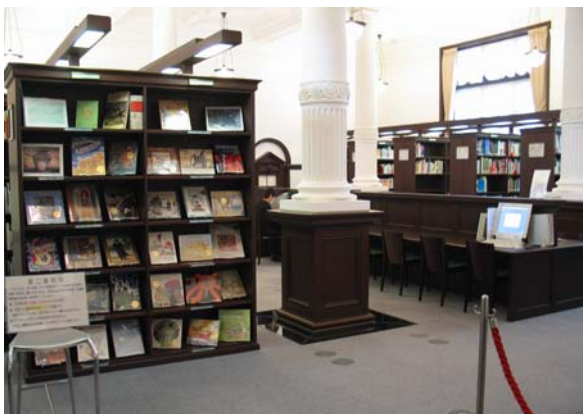
△주 계단

개·보수 공사개요

- 설계감리
 - 국토교통성 관동지방 정비국 영선부
 - 안도 타다오(安藤忠雄) 건축연구소
 - 닛켄설계(日建設計)
- 시 공 : 홍지조(鴻池組)
- 보존지도
 - 사카모토 가쓰히코 (坂本勝比古) 고베예술공과대학 명예교수

개보수공사는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근대건축물의 내·외장 의장 및 구조를 최대한으로 보존하고,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내진공법을 채용하여 진행하였으며, ‘세계를 배우는 방(구 귀빈 실)’, ‘제2자료실(구 특별열람실)’, ‘책 박물관(구 열람실)’, ‘주 계단’ 등은 원형보존을 위해 보수만 하였다.

특히, 주 계단의 난간을 살펴보면, 난간의 원형보존과 기능성을 고려하여 유리로 된 새로운 난간벽을 시공함으로써 문화재보호 및 기능성 확보와 더불어 조형적 아름다움까지 더하고 있다.



△도서관 내부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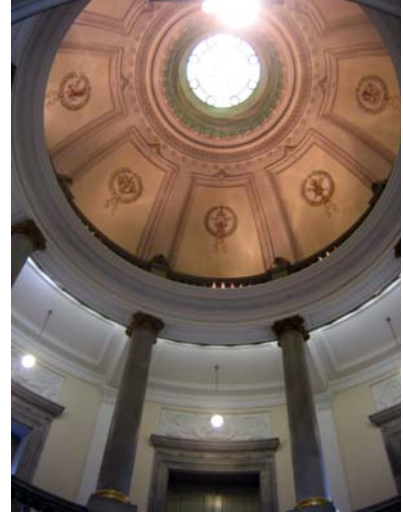


△카페테리아

■ 동경국립박물관 표경관 (東京國立博物館 表慶館)



△정면부



△내부 돔천정

원형보존사례	
소재지	도쿄도 다이토구 우에노 공원 12-49 (東京都 台東區 上野公園 12-49)
지정	국가중요문화재(1978.5)
용도	공공시설 ⇨ 전시시설
건립년	1908년 9월
설계	카타야마 토우쿠마 (片山東熊)
발주	독립행정법인국립박물관 동경국립박물관
보수설계	재단법인 문화재건조물 보존기술협회
시공	오오바야시(大林)건설
설비	(주)모리무라(森村)설계
전기	일본전설공업주식회사
기계	(주)산레이샤(三冷社)
시공기간	2005.12~2006.10
수리범위	지붕, 내외장, 설비기계교체



△내부 전시실

표경관(효케이칸)은 경축하고 표현한다는 의미이다. 표경관이 위치한 우에노공원에는 르 코르뷔지에의 국립서양미술관, 마에카와 쿠니오(前川國男)의 동경문화회관, 우에노 동물원, 동경국립박물관, 주악당(奏樂堂)과 동경예술대학이 위치하고, 조금 더 안으로 가면, 안도 타다오(安藤忠雄)의 국제어린이도서관과 동경문화재 연구소도 있다. 이 우에노 공원 일대는 연중 쉴 새 없이 각종 행사, 전시, 순회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로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표경관은 건물의 고전적 아름다움과 함께 박물관으로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우에노 공원의 명물로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2001년부터 건물의 내부에 빗물이 새기 시작하는 등 노후화가 갑자기 진행되면서 표경관의 보존에 적신호가 왔다. 2005년부터 수리공사를 시작하여 2006년 10월 24일에 다시 공개되었다.

건물의 보수는 원형보존의 관점에서 실시되었으며, 지붕과 내·외장 일부, 설비기계 교체를 실시하여 건물을 원형 그대로 활용하고자 계획하였다.

현재 건물은 전시 및 연주회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전시실 일부에서는 수리기간 중에 떼어낸 원형부재를 그대로 전시하고 있어 건물의 역사를 자연스럽게 관람객에게 강조하고 있다.

■ 요코하마개항기념회관 (横浜市開港記念會館)



△요코하마 개항기념회관 전경

원형복원사례

소재지 : 横浜市中区本町1-6
 지 정 : 국가지정중요문화재
 용 도 : 공공시설 ⇨ 문화시설
 건립년 : 1917년 6월
 구 조 : 벽돌조
 규 모 : 지상2층
 설 계 : 福田重義



△오카쿠라 덴신 기념비

시계탑이 인상적인 붉은벽돌 조적조의 요코하마개항기념회관은 요코하마의 개항50주년을 기념하여 실시한 공모설계(competition 방식)에 의해 건축된 것으로 1917년 6월에 준공되었다.

이건물이 위치는 요코하마의 정세를 관할하던 요코하마정회소(横浜町會所)자리였다. 아울러 동경미술학교(현 동경예술대학)의 창립자인 오카쿠라 덴신(岡倉天心)의 탄생지이며, 요코하마상공회의소의 발상지이다. 각기 이에 대한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1923년의 관동대지진 때 외벽이 훼손되고, 지붕과 내부가 소실되어 1927년에 동제(銅製) 돔을 생략하고, 일부 내장(內裝)은 간략화하여 재건되었다.

2003년 7월에 요코하마 도시발전기념관에서 발행한 요코하마의 역사적 건조물지도의 후면을 보면, 관동대지진시 훼손되었다가 복원된 건축물의 위치가 별도로 표기되어 있어 특색 있는 역사탐방코스



△내부바닥 마감흔적



△원형 벽체흔적

를 제공하고 있다.

이후, 전쟁으로 인한 파손은 피하였으나, 패전 후 1958년 9월까지 미군이 사용하였다. 이후 시가지 건축물의 고층화와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존폐의 논의가 있었으나 보존하기로 결정하고, 1978년에 보수하였다. 1989년 9월에 국가중요문화재에 지정되면서 돔을 복원하여 준공당시의 원형을 회복하였다. 또한, 1999년 11월부터 시작된 보수공사에는 내·외장을 보수하면서 지진피해 복구 당시의 분위기를 일부 재현하여 2001년 1월에 재개관하였다.

시계탑은 ‘잭(jack)’이라 불리고, 청사본관은 ‘킹(king)’, 요코하마세관은 ‘퀸(queen)’이라 불리었으며, 입항하는 선원들로부터는 ‘트럼프(trump)의 삼탑(三塔)’이라 불릴 정도로 친숙한 곳이었다.

건물내에 우노(宇野澤辰雄)가 제작한 스테인드글라스와 와다(和田英作)화백의 유채(油彩), 요시다(吉田初三郎)화백의 색채조감도 등이 전시되어 있다.

개보수공사에 있어 특징적인 것은 건물의 내부바닥 마감을 개보수하면서 기존 원형에 대해 확인 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에서는 원래의 바닥을 드러내어 놓고 있다. 또한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철거한 벽체선도 그대로 노출시켜 놓음으로서 벽체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내부 주출입구



△스테인드글라스

■ 신평관 (新風館, 구 교토중앙전화국)



△신평관 전경

개수보존사례

소재지 : 교토 카라스마(烏丸)산조(三條) 교차점
 지정 : 교토 등록문화재 1호
 용도 : 공공시설 ⇨ 상업시설
 건립년 : 1926.9(1기, 1925.2착공)
 1931.1(2기, 1929.5착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 지상 3층
 대지면적 3,840.76㎡
 건축면적 153㎡
 연면적 6,739㎡
 기획 : 도시기반정비공단
 설계 : 요시다 (吉田鐵郎, 통신성 기사)



△기존부(우)와 증축부(좌)

신평관(신평우칸)은 1920년대 중반에 건설된 교토중앙전화국이다. 평면 형태는 중정을 가지고 있는 ‘ㄱ’자 형태로 동측의 남북방향의 동만이 조금 더 길게 뻗어 있는 형태를 하고 있다.

디지털 전화기의 보급으로 전화국의 통폐합이 이루어지면서 1990년대 초 교토중앙전화국도 폐쇄되었다. 소유주인 NTT는 중앙전화국의 리노베이션 계획을 다음과 같이 목표를 정하고 시행하였다.

- 교토시 중심부의 기존거리 풍경과 조화를 이룰 것.
- 거리의 양태를 읽고, 거리와 함께 발전해 가는 거리를 만들어 나갈 것.
- 장래의 대규모 복합개발을 주시한 10년간의 프로젝트로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
- 교토시의 등록문화재 1호인 「구교토중앙전화국」을 보존하면서 활용할 것.

1983년에 교토시의 등록문화재 1호로 등록된 신평관은 「문화적 가치에서 중요한 요소는 현상 보존할 것」이라고 하는 방침을 기본으로 시대의 특징이 표현되는 외관과 구체를 가능한 남기고, 내진



△신풍관 출입구



△3층 원형부분



△내부전경1



△내부전경2



△내부전경3

벽을 넣고 구조적으로 보강하였다.

디자인 테마는 전통과 혁신의 대비와 융합으로, 외관과 기존 건물의 원형은 남기면서 신·구 건물이 좋은 밸런스를 가질 수 있도록 디자인 하는 것을 모색했다. ‘L’자형의 기존 건물을 남기면서 ‘C’자형의 증축건물을 조합시켜 중정을 ‘口’자형에 둘러싸인 배치를 하도록 하고, 중심성·구심성을 가진 공간을 만들어냄과 동시에 외관과 내부공간의 극적 장면전환을 연출하는 등, 놀라움과 감동을 주어, 마음속에 남는 공간을 목표로 하였다.

신풍관은 구 건물이 가지고 있던 건축적 디자인을 보존하기 위하여 카라사마도리에서 보이는 건축물의 파사드는 철저히 보존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공간은 임대용 상업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변화를 주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口’형태로 구성된 건물을 ‘L’자 형태 부분만 남기고 중정 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중심 공간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는 중정의 실내공간화로 근대건축이 가지고 있는 의장적인 파사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최근에 일본의 다른 사례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또한, 5m라는 높은 천정높이를 이용하여, 바닥레벨을 올리고 기존의 창문을 출입구로 활용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L’자 형태로 건물을 남기면서, 계단실이 철거된 것을 역으로 이용한 것을 철골로 복도와 계단을 증축하고 지진에 대비하기 위하여 독립된 구조를 갖도록 설계하였다.

- 내용출처: 김경호, 「근대건축물의 상업용도 활용사례에 나타난 내부공간 디자인 수법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5권 5호, 44~51쪽, 2006년 10월

■ 홋카이도 구 본청사 (赤レンガ廳舎)



△정면부 전경

원형복원사례

소재지 : 北海道 中央区 北3条西5丁目

지 정 : 국가지정중요문화재
 용 도 : 공공시설 ⇨ 전시시설
 건립년 : 1888년(메이지19년)
 구 조 : 벽돌조
 규 모 : 지하1층, 지상2층



△좌측면부 전경

1888년 완성된 홋카이도청 구청사는 도청의 기사인 히라이 세지로(平井晴二郎)가 담당을 하여 만든 미국식 네오 바로크 양식의 건물이다.

이 청사는 80여 년 동안 홋카이도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1909년의 화재, 1911년의 복구공사 이후 홋카이도 100년을 기념하여 1968년에 창건 당시의 모습으로 복구하여 영구 보존을 결정했다. 이후 메이지 시대의 서양식 건물 중에서 뛰어난 의장성을 인정받아 1969년 국가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홋카이도 구청사 건물은 벽돌조 건물로 긴 면과 짧은 면을 교대로 쌓은 일본에서는 드물게 사용된 프랑스식 쌓기가 이용되었으며, 길이61m, 폭36m로 탑 정상부까지의 높이는 33m로 당시에는 대형 건물 중에 하나였다.

이 건물의 특징으로는 건물의 정 중앙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8각 돔이다. 홋카이도 구청사 건설 당시, 미국에서는 독립과 진취의 상징으로 돔을 만드는 건축 양식이 유행하였고, 당시 설치된 홋카이도청의 초대 장관인 이와무라 미츠도시가 설치한 것이라고 한다.



△정면부 주출입구

지붕 상부에는 굴뚝을 연상시키는 환기탑이 있고 피뢰침 또한 메이지 시대에 유행했던 디자인으로 되어있다.

이 건물에 사용된 벽돌은 홋카이도의 삿포로 시내에 있는 지역에서 제조된 것으로 시로이시 무라와 도요히라 무라에서 제조된 것으로 250만개가 사용되었다.

이 건물의 1층 홀에 들어서면 3개의 연속된 아름다운 아치가 있으며, 이것은 회반죽 장식과 철로 된 기둥 상부의 조각 계단 측면에 장식된 원주 모양 등 계단을 미장적으로 처리하는 서양식 건축 수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창문은 홋카이도의 추위를 견디기 위해 이중창으로 되어 있으며, 의장적으로 두꺼비집을 이용하여 접이 유리창을 그 속에 수납하여 홀창으로 보이게 만든 노력이 보인다.

지금은 기념실로 되어 있는 역대 장관, 도지사의 집무실의 경우, 입구. 창문 주위는 당초문을 조각하여 장식하였다. 천장의 회반죽 장식은 1911년의 수복 공사시에 호주산의 메탈 실링으로 교체 되었다.

삿포로 시내에 위치하여 중심적이고 상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건물은 청사 내에 연못과 함께 수목이 우거져 있어 삿포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또한 관광객들에게는 근대화 시기로 되돌아간 듯한 느낌을 주는 특별한 건물로서 관광 명소가 되었다.

이 건물은 현재에도 청사의 부속 건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에게 개방되어 홋카이도 역사 갤러리·문서관·간행 정보 코너가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어 있다. 또한 ‘빨간 벽돌 기마대’가 매주 목요일도청 내를 순회하며 일반인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정면 주계단



△2층 집무실

■ 명치관 (明治館, 구 하코다테 우체국)



△명치관 전경

원형보존사례

소재지 : 北海道 函館市 豊川町
11-17
현명칭 : 유니온 스퀘어
용도 : 공공시설 ⇨ 상업시설
건립년 : 1911년
구조 : 벽돌조
규모 : 지상2층



△좌측면 전경

하코다테 우체국의 역사는 아주 오래되어, 1872년에 개척사 우체국이 개설된 것이 시작이다.

1887년에 하코다테 우체전신국으로 개칭하여 업무가 행해졌지만, 1907년에 큰 화재로 소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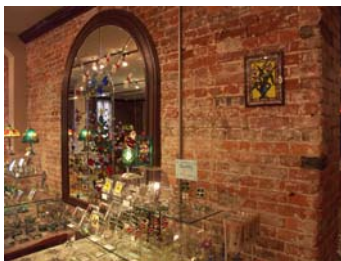
1911년에 도요가와초에서 신축공사에 착수하지만 지반이 좋지 않고, 바닷가의 습기로 인한 기초 공사에 난항을 겪었다. 해결책으로 1200개의 나무말뚝을 박고 부지도 지반보다 2미터를 파 내려가 낡은 벽돌과 콘크리트를 묻었다. 명치관(메이지칸)은 그해 준공되었다.

명치관이 건축된 후 1962년 8월까지 약 50년간 하코다테 주민들의 전보와 우편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민에게 친숙해졌다. 명치관은 홋카이도의 입구인 하코다테에서 1호 우체국으로서 상징성도 가지고 있다.

벽돌조의 건물로 평면은 3개의 블록으로 나누어져, 우측은 전신과 좌측은 우체국과로 사용되었다. 중앙부는 목조 트러스 구조를 노출시킨 단층이며, 우편과로 사용되었다.



△정면부 안내판



△기존 벽체의 이용



△기존 구조물의 재사용



△중앙부 물 전경



△1층 판매점

당시 중앙에는 본관의 실루엣을 돌기시키는 것 같은 현관의 차양이 붙어있었다.

1961년에 민간에게 분양되어 창고로서 사용되었지만, 1983년, 지역의 공예가 협동조합 ‘그래프트만 유니온’으로서 개관했다. 내부는 벽돌 벽을 그대로 노출시켜, 거의 원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는 명치관이란 이름의 오르골과 유리 제품 등을 판매하는 쇼핑몰이 되었다. 야간의 건물조명이 매우 아름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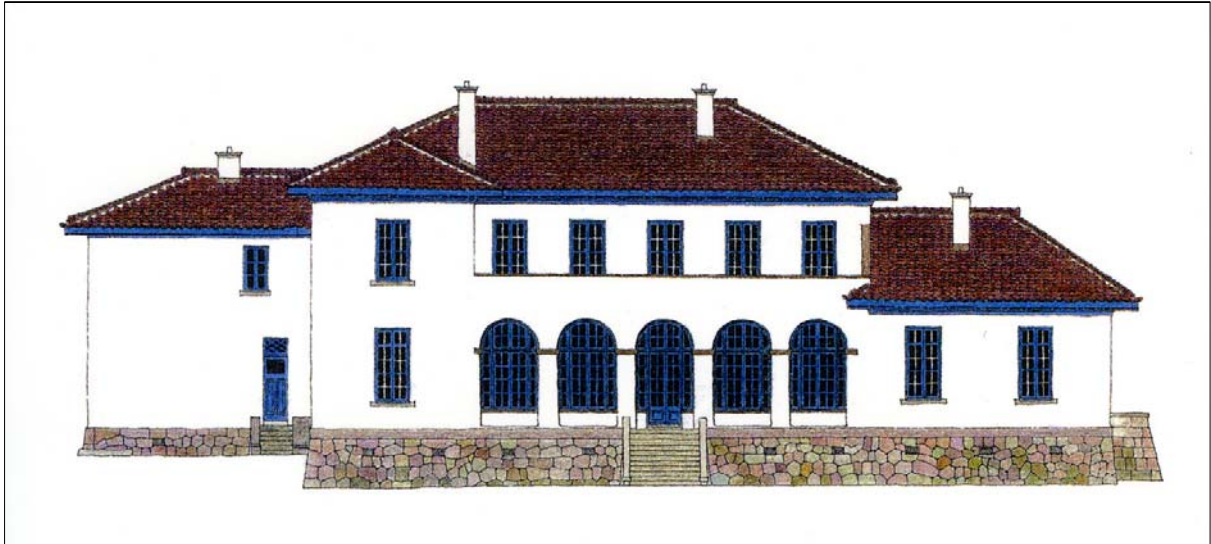
하코다테 시내에는 민간 자본에 의한 역사적 건조물의 전용, 활용예가 많이 보이지만 그중에서 가장 선구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하코다테 우체국은 중앙 우체국으로 이전 되었지만, 구 하코다테 우체국은 ‘하코다테 명치관’이라는 쇼핑몰로 변신하였고 빨간 벽돌이 특징인 역사적 건조물로서 하코다테의 역사적 거리 구성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코다테 명치관은 핫카이도의 민예품과 유리 제품, 오르골 등의 판매와 유리제품, 오르골의 체험 공간, 유럽 스타일의 카페가 입점해 있다.

이 건물은 하코다테 시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역사적 건조물의 활용에 있어서 선구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칭의 외관, 도로변에 설치된 창이 곡선과 벽의 최상부에 조각된 장식도 멋스럽다. 천장까지 통 층으로 된 실내는, 낮에는 중앙 홀의 천청에서 쏟아지는 천연광이 개방적인 분위기를 한층 더한다.

■ 하코다테시 개항기념관 (구 영국영사관)



△하코다테시 개항기념관 기념엽서(정면부)

개수보존사례

소재지 : 北海道 函館市 元町
33-11,14
지 정 : 시지정유형문화재,
전통적건조물
용 도 : 공공시설 ⇨ 전시+상업
건립년 : 1913년
구 조 : 벽돌조
규 모 : 지상2층

하코다테시(函館市) 모토초(元町) 공원에서 내려다보면 바로 오른 쪽에 우진각 기와지붕과 하얀 벽체에 파란 처마 서까래, 창이 인상 적인 건물이 하코다테시의 개항 기념관(구 영국 영사관)이다.

초대 영사 호지슨의 취임은 1859년이다. 2대째 영사 와이즈 재임 시 현 부지에 영사관이 준공되지만, 그 후 몇 번의 화재로 건물은 소실되었다, 현재의 건물은 1907년 대 화재후 재건된 것이다. 건물 은 1934년까지 영사관으로 사용되었다.



△측면 전경(출처: 안내팸플렛)



△1층 물 전경



△개항기념홀 상부 상세

구 영국영사관은 1992년에 시제(市制) 시행 70주년을 기념하여 복원되었다. 현재는 개항기념관으로서 일반에 공개 되어 있고, 전시실에서는 개항 당시의 모습을 매직 비전으로 소개하고 있다. 1979년에는 하코다테시의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개항 기념홀 상부의 유리지붕은 1992년에 복원·개수공사로 추가되었다. 유리지붕을 설치함으로써 외부공간이 내부공간으로 변하여 부족한 전시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2층 전시실1

건물 중앙부 몰은 개항 기념홀로서 하코다테를 찾아온 페리의 포하탄호와 개항 초기의 하코다테를 빛낸 영국 영사 유스덴, 하코다테 흰백합 학원의 창시자 마리 오네짐, 하리스토스 정교회 사제 니콜라이 신부의 동상이 놓여있다.

바다 쪽 5연속 아치의 베란다 부분도 편안한 분위기의 카페로 전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2층 전시실에는 하코다테 개항 당시의 모습을 입체 영상, 모형 및 정보 패널로 전시하고 있다. 시민들에게서 기증받은 물건은 따로 모아 전시실을 꾸미고 있다.



△2층 전시실2

2층 영사집무실에는 유스덴 영사의 인형 및 가구, 장식품 등을 전시하여 당시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거실에는 가구, 장식품 등을 당시의 모습으로 배치하여 영사 가족의 생활상을 재현하고 있다.

개항기념관은 분수와 장미의 정원이 유명하다. 33본 11종의 장미에 둘러싸인 서양식 정원과 빅토리아조로 디자인된 아즈마야와 청동 분수가 영국의 분위기를 끌어내고 있다.



△2층 영사집무실



△2층 가족거실

■ 자유학원 명일관 (自由學園 明日館, JIYU GAKUEN MYONICHIKAN)



△자유학원 명일관 조감도(출처: 안내책자)

원형보존사례

소재지 : 東京都 豊島區 西池袋
2-31-3
지 정 : 국가지정유형문화재,
용 도 : 교육시설 ⇨ 문화시설
건립년 : 1921년
구 조 : 조적조
규 모 : 지상1층

명일관은 자유학원의 창학지로 미국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설계한 건물이다. 요시카즈(羽仁吉一)와 모토코 하니(もと子 夫妻)가 자유학원을 창립하자, 그들의 친구인 건축가 엔도 아라타(遠藤新)는 마침 일본에서 제국호텔을 설계하고 있던 라이트를 그들에게 소개하고 설계를 의뢰했다.

라이트의 설계로 1921년에 최초의 교실이 준공된 이후, 중앙동·서교실동·동교실동이 지어졌으며, 엔도 아라타에 의해 강당이 순차적으로 완성되어 80여년의 세월을 견디며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다.



△자유학원 명일관 전경(출처: 안내책자)



△측면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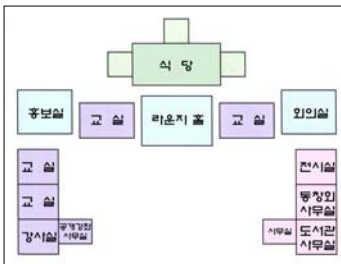
△휴게실 벽난로



△본관 내 식당



△패션화보 촬영모습



△자유학원 배치약도

당초 5년제 여학교로 발족한 자유학원은 초등부·남자부 등이 추가로 설립되면서 1934년에 본교를 도쿄도(東京都) 서부의 미나미사와(南澤)로 이전하고, 명일관은 졸업생 및 일반인들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전용되었다.

1997년 국가중요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노후화로 인해 1999년부터 국가보조로 별도 3동의 신축을 포함한 보존 및 수리공사를 실시하여 2001년 9월에 공사를 완공하였다.

문화재로 지정된 본관에는 300명 정원의 강당과 식당, 라운지 홀 회의실, 라이트 기념관 및 도서관 등이 있고, 공개강좌공간으로 정원 25명과 35명 규모의 교실이 각각 2곳씩 있다. 이외에 회의실, 강사실 등이 있다.

별동에는 부엌과 요리실습실, 교구창고 등이 있으며, 연구사업을 위한 자유학원 공예연구소, 자유학원 소비경제연구부 등이 있다.

이 명일관은 ‘실용적 보존’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문화재의 활용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건축물의 원형을 복원하여 건축이 주는 아름다움을 재현하고, 아울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용의 편리성과 다양한 활동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명일관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여 크게 회관운영사업·공개강좌·창작 전시판매점(JM Shop) 등이 있다.

회관운영사업은 라이트의 건물에 관심이 있는 견학자를 위한 소규모 박물관과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연참석자, 결혼식·피로연 등의 집회, 세미나·콘서트·문학활동 등 다양한 내방객들을 수용하기 위한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공개강좌는 자유학원 설립자의 교육이념과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라이트가 설계한 목조교실에서 25~35명 규모로 공개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재내에서의 의미있는 학습분위기를 제공해 주고 있다.

창작전시판매점은 부속동에 위치한 판매점으로 자유학원공예연구소에서 창작한 다수의 수공예 생활공예품 및 식품 등을 모아 전시와 판매활동을 하고 있다.

■ 구 동경음악학교 주악당(舊 東京音樂學校 奏樂堂)



△주악당 정면(초기 모습, 출처: 『歴史ある建物の活かし方』, 90쪽)

이축보존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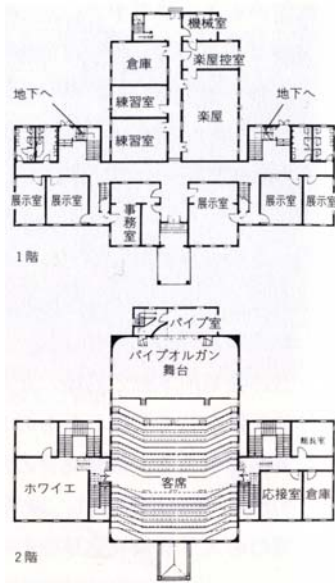
소재지 : 도쿄도 다이토구 우에노
공원 (東京都 台東區
上野公園)
지 정 : 중요문화재 294호(1988)
용 도 : 교육시설 ⇨ 문화시설
건립년 : 1890년
구 조 : 목구조
규 모 : 지상2층
설 계 : 아마구치 한로쿠
(山口半六), 쿠류우
마사미치(久留正道)

동경의 우에노(上野)공원을 가로질러 동경예술대학으로 이어지는 길을 가다보면, 목조2층의 양풍건축을 만나게 된다. 구 동경음악학교 주악당이다. 이 건물은 우리나라의 역사와도 관계가 있다. 애국가를 작곡한 난파 흥영후가 동경음악학교에 재학 중이던 시절 이곳에서 연주를 하며, 학창시절을 보냈을 거로 추정되는 곳이다.

건물은 정면에서 보면 크게 중앙동과 양쪽의 날개부로 나뉘어져 있다. 중앙동의 2층은 일본 최초의 서양음악 홀이다. 건물의 이름이 주악당인 이유도 이 음악 홀에서 유래되었다. 좌석수 338석의 음악 홀 정면의 파이프 오르간은, 영국의 애벗 스미스(Abbott & Smith)사가 제작했으며, 일본에서 제일 오래된 콘서트용 오르간이다.

주악당은 일본 음악교육의 정점으로 그 상징적 의미가 큰 건물이었지만, 건물규모 및 설비가 기능적 한계가 있고, 건물 자체의 노후화로 인해, 준공후 82년이 지난 1972년, 동경예술대학교는 주악당을 메이지무라(明治村)에 이전키로 결정하였다.

1979년 10월 동경예술대학 미술학부의 마에노 마사루(前野マサル)교수는 일본건축학회의 성명으로 문부대신과 문화청장관, 동경예술대학장에게 주악당의 보존 요망서를 제출한다. 일본에서 제일 오



△1,2층 평면도
(출처: 『歴史ある建物の活かし方』, 90쪽)



△후면 전경



△정면 주출입구



△정면 전경1

래된 콘서트 홀이라는 점, 음향계획에 의해 설계되어진 콘서트 홀이라는 점, 목조 콘서트 홀로써 콘크리트계의 콘서트 홀과는 전혀 다른 음질을 느낄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일본의 건축사상 중요한 가치를 지닌 건물이다 하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인 1980년에는 동경예술대학의 동창생과 일반시민 등이 주축이 된 ‘주악당을 구하는 회’가 구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1982년 1월 22일 당시의 동경도지사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는 주악당을 동경도의 재산으로 우에노 공원에 이축하여 보존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보존운동이 일어난 1979년부터 8년간에 걸친 노력의 결실이었다.

역사적 건조물에 대한 보존운동이, 특정 관계자를 포함한 일반시민을 주축으로 활발히 진행되어져, 실제 건물의 보존으로 이어진 성공적인 사례이다.

주악당의 보존 수리 공사는 옛 모습의 복원을 기본으로 하면서, 문화재로써 가치를 살리기 위해 보존과 활용의 밸런스를 신중히 검토하였다. 예를 들어 무대부분은, 건립 당시의 부재를 최대한 활용 하면서, 1932년의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또한 계단식의 객석도 건립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을 한 후, 새로이 바닥을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의 모습과 같은 좌석을 만들었다. 또한, 공조기와 전기설비 등의 설비들은, 익실부의 지하에 새로이 설비실을 건설함으로써 활용 상 편의가 향상되었다.



△내부전경
(출처: 『歴史ある建物の活かし方』, 91쪽)



△파이프 오르간
(출처: 『歴史ある建物の活かし方』, 91쪽)

◦ 내용출처:

- 김정동, 『일본을 걷는다2』, 한양출판, 64~67쪽, 1999
- 清水真一 · 蓑田ひろ子 · 三船康道 · 大和智編, 『歴史ある建物の活かし方』, 学芸出版社, 90~91쪽, 2001
- 東京新聞社出版局編, 『上野奏楽堂物語』, 東京新聞社出版局, 67~130쪽, 1987

보존 수리 공사 중, 재미난 사실도 발견되었다. 우에하라 록사부로우(上原六三郎)라고 하는 일본인이 설계한 음향설계는 짚을 사용하여 차음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었다. 목조 콘서트 홀에 무리없이 적용되는 천연재료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재 1층의 보존수리공사 기록을 남긴 조그만 전시실에 그 모습이 전시되어지고 있다. 현재는 중요문화재 294호로 지정(1988년)되어져 변함없이 콘서트 홀로 사용되고 있다.

음악 홀로서 이 건물은 마치 하나의 큰 악기와 같은 존재였다. 따라서 주악당은 보존운동이 일어난 첫해부터, 건물자체는 물론, 기능적인 면에서도 보존을 목표로 하였다. 즉 처음부터 보존과 활용을 목표로 보존운동이 전개돼 온 특징을 가진다.

보존운동은 처음부터 본래 기능의 유지를 제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축장소의 선택과 수리 방침 등에서도 그것이 잘 반영될 수 있었다고 보는 이가 많다. 그런 의미에서도 보존 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활용의 시점이 건물의 보존과 활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되살려진 주악당은 타이토우구의 소유로 되어, 관리운영은 구내의 다른 예술 문화시설과 함께 재단법인 ‘타이토우구예술역사협회’에 위탁되어있다. 일반 공개일과 홀의 사용일은 요일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견학자와 연주자, 관객의 동선이 겹쳐지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파이프 오르간을 유상으로 임대하고 있다.

목조 건물다운 부드러운 음향을 가진 홀은 현재도 인기가 높다. 일본의 굴지의 음악홀로 그 명성을 더하고 있으며, 이용률 또한 약 80%를 넘는다. 재단이 운영하는 자체행사를 포함하여 연간 150건 이상의 행사가 열려지고 있으며, 우에노 공원 내의 또 하나의 문화거점으로 거듭났다.

음악 홀 이외에도 1층에는 전시실이 있어 주악당을 거쳐간 음악가에 관한 자료와 보존수리시 명확하게 밝혀진 건물의 역사와 특징 있는 기술에 관한 전시도 볼 수 있다.

동경대학 공학부 1호관



△정면 주출입구



△1호관 전경

개수보존사례

소재지 : 도쿄도 분교구 혼고
(東京都 文京區 本郷)
지 정 : 시지정유형문화재,
전통적건조물
용 도 : 교육시설
건립년 : 1935년(1996년 증개축)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규 모 : 지하1층, 지상5층
건축면적 3,190㎡
연면적 16,511㎡
설 계 : 우치다 요시카즈
(内田祥三)
보수설계: 동경대학공학부
건축계획실
실시설계: 코우야마 토시오(香山
壽夫)환경조형연구소
시 공 : 토다건설

동경대학 공학부 1호관은 고딕풍의 외관과 차갈색의 스크래치 타일이 특징적이며, 2개의 중정을 가진 일자형 건물이다. 우치다 요시카즈에 의해서 설계된 동경대학 혼고오 캠퍼스의 여러 건물군(우치다 고딕 스타일 혹은 우치다 컬렉션) 중의 하나이다.

1호관이 리노베이션 되던 1995년에는 낡은 건물을 보존하여 다시 사용하는 것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이다. 당시 리노베이션 설계를 담당했던 카야마 토시오(香山壽夫)는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대학 측으로부터 문책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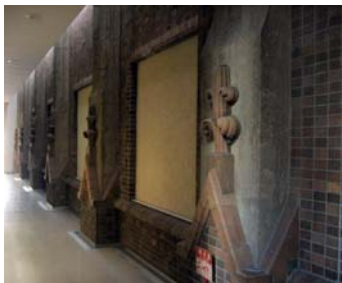
개수전의 동경대학 공학부 1호관은 외벽의 스크래치 타일이 떨어져 내리고 있었으며, 출입구의 철제문은 녹이 쓰는 등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평면계획상 건물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어야 할 중정도 가설실험 시설물들이 난입하는 실험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있어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다.

증개축은 원래의 건물 파사드 부분을 온전히 남기고, 외벽 등도 적극적으로 살려서 옛것과 새것이 조화된 디자인으로 계획하였다.

공사는 주로 외벽의 테라코타 장식과 개구부 등의 외부장식의 수복, 건물 내부의 타일 바닥, 정면계단실의 수복과 복도 동선의 조작



△기존부(우)와 증축부(좌)



△기존 외벽의 보존



△기존 외벽의 보존2



△건축학전공 도서관

◦ 내용출처: 清水真一 · 蓑田ひろ子 · 三船康道 · 大和智編、『歴史ある建物の活かし方』、学芸出版社、26~27쪽、2001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우치다의 설계에 의한 기존의 창을 일부 남기는 등, 세부적인 면에서도 건물의 역사적 의미를 남기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설계는 기존건물의 재료를 가능한 살리는 점을 생각하면서, 손실이 있는 부분과 도중에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형회복을 기본으로 하였다. 외벽에 사용되어진 스크래치 타일도 결손부에는 기존의 타일과 같은 것을 새로이 만들어 부착했다.

설계의 주안점으로는 기존의 중정에 새로이 지붕을 이어서 제도실로 한 점, 기존건물의 북면 외벽 증축부분을 커튼월로 처리하여 밝고 개방적인 공간을 구성한 점, 기존건물 외벽을 증축부분의 복도 내벽으로 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건물의 외관을 보면, 남측은 변함없이 고딕풍의 파사드를 가지고 있으나, 북측의 증축부분은 커튼월의 파사드로 구성되어 있어 북측과 남측의 디자인의 대비가 각각의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

기존의 중정에 지붕을 이어서 새로 만든 제도실은 커튼월의 외벽을 가지고 있으며, 2개층의 개방적인 공간이다. 복도를 지나가면 학생들이 무엇을 하는지 다 보인다. 지도교수 등이 학생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점이 매우 재미있다. 또한 커튼월을 지지하는 가는 철골도 개방적인 공간감을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기존 건물의 북측 외벽을 남기면서 증축 되어진 북측의 새로운 도서관도 제도실과 같이 커튼월을 가진 개방적인 공간구성을 하고 있다.

기존 건물의 북측에 새로운 도서관이 들어서면서 기존의 북측의 외벽은 내벽이 되었다. 외벽이 내벽으로 변하면서 기존 창호는 쓸모 없게 되었다. 그래서 기존 창호는 샷시를 없애고 회벽마감을 하여 흔적만 남기고 없었다. 창호중 일부는 연구실로 통하는 출입구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자칫 실내부분이 무거워질수 있지만, 1호관은 커튼월로 인하여 압박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1995년 당시는 리노베이션을 통한 활용의 사례가 매우 드물었던 시기였지만 동경대학 공학부 1호관은 기존의 건물을 살리는 것은 물론, 건축학과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실과 도서관을 부가시킴으로써 건물의 활용 가능성을 제공한 성공 사례이다.

■ CAP HOUSE (구 고베이주센터)



△CAP HOUSE 전경

원형보존사례
 소재지 : 神戸市 中央区 山本通
 3丁目 19-8
 용 도 : 교육시설 ⇨ 문화시설
 건립년 : 1928년

1928년 국립 해외 이민 수용소로서 건설된 고베 이주 센터는 몇 번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해외로 이주해 가는 사람들의 도입 교육에 이용되었다. 고베 이주 센터는 이민 사업을 종료하는 1971년까지 전국에서 연 25만 여명을 브라질 등으로 보냈다.

1971년 이후 고베 시립 간호학교와 해양 기상대 임시 청사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 1999년에 CAP에 의해 예술적 실험이 행해지면서 현재의 보존 · 활용형태로 안착되었다.



△CAP HOUSE 주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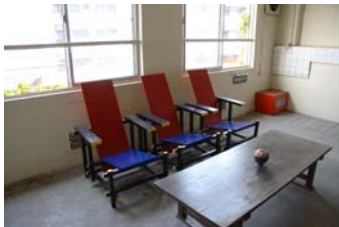
△1층 로비



△해외 이주 자료전시관



△자료실



△휴게실

CAP HOUSE란 특정 비영리활동법인 「예술과 계획 회의(C.A.P)」가 구 고베 이주센터를 사용하여 기획·운영하는 아트 프로젝트이다.

C.A.P.는 1999년 11월3일부터 약 반년 간 당시 비어 있던 건물이었던 구 고베 이주 센터에서 「CAP HOUSE : 190일간의 예술적 실험」을 했다. 이것을 계기로 세계 각국의 일본계 사람들로부터 해외 이주를 이야기 해줄 수 있는 역사적 건조물인 「구 고베 이주 센터」를 보존 정비했으면 하는 요망이 있었다.



△복도

고베시에서는 2008년의 브라질 이주 100주년을 계기로 이 건물이 국립의 「해외 일본인 회관(가칭)」으로서 정비 되도록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C.A.P.은 2002년의 봄부터 고베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건물의 관리, 해외 이주민의 자료 전시, 그리고 CAP HOUSE의 기획·제안을 행하고 있다.



△1층 식당



△2층 작업장

■ 기타노 마이스터 가든 (北野マイスターガーデン)



△기타노 마이스터 가든 전경



△우측면부

원형보존사례
 소재지 : 神戸市 中央区 中山手通
 3丁目 17番地1号
 용 도 : 교육시설 ⇨ 상업시설
 건립년 : 1908년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 지상2층

고베는 1868년 개항 이래 항구 및 외국인 거류지를 통해 일찍이 서양식 생활 문화가 이입되었으며 이와 함께 여러 산업이 생겨나게 되었다. 양과자, 빵, 커피, 구두, 진주, 기성복 등의 산업들은 고품격이고 이국적이 패션도시 고베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기타노 공방 마을’은 고베시가 이러한 지역 산업의 진흥 거점으로서 고베 브랜드를 만날 수 있는 체험형 공방을 주제로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고베 브랜드를 직접 체험하며 다양한 상품을 가져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기타노 공방 마을’은 구 고베 시립 기타노 초등학교를 활용한 것이다. 구 기타노 초등학교는 1908년에 개교한 역사 깊은 학교였으나 학생수의 감소로 인하여 1996년 폐교 되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보존 요청과 고베 대지진 이후 지역 산업의 부흥을 꾀하던 지역 경제계의 의견 일치로 1998년 7월 ‘기타노 공방 마을’이 탄생하였다.



△정면 주출입구



△구 학교복도 전경



△교실을 활용한 종이공방

■ DN tower21 맥아더 기념관



△DN tower21 전경
(출처: 안내팜플렛)



△DN tower21 증축전(좌) 증축후(우)
(출처: 일본 인터넷, 출처불명)



부분보존사례

소재지 : 동경도 치요다구
유락초우 1-13-1
(東京都千代田区有楽町)
지 정 : 중요문화재
용 도 : 업무시설 ⇨ 전시시설
건립년 : 1993년 10월(신관)
1995년 9월(본관)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규 모 : 지하5층, 지상21층
대지면적 7,438㎡
건축면적 6,094㎡
연면적 97,966㎡
설 계 : 시미즈건설(清水建設),
케빈 로치, 존 딘켈
앤드 어소시에이션
아키텍트 공동
시 공 : 시미즈 건설

JR유락초우역에서 내려서 히비야교차점(日比谷交差点)을 끼고 황거(皇居)의 호리(堀) 맞은편의 도로를 조금만 가면 구 제일생명빌딩이 보인다. 2차세계대전후 연합군사령부가 있었던 곳이다. 현재는 DN타워21로 불리고 있는데, D는 제일생명의 일본어 발음 다이이치세이메이비루의 D이고, N은 농림중앙금고의 일본어 발음 노우린츄우오우킨코우의 N에서 유래한다. 21은 건물의 지상부 층수를 말한다.

이 건물은 제일생명관과 농림중앙금고 유락초우 빌딩의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이 공동빌딩으로써 재생된 프로젝트이다. 저층부는 현재 두 회사가 사용하고 있다. 황거쪽에서 보이는 건물이 제일생명관이고, 유락초우역 쪽으로 면한 건물이 농림중앙은행으로 사용되고 있다. 건물의 측면을 보면 이음부를 확인할 수 있다. 케빈 로우치가 관여하고 있어서 더욱 관심을 모았던 이 프로젝트는 외벽의 보존과 이미지의 계승, 고층화에 대한 시대적 대응 등 다양한 요소가 혼합되어 있다.

또한 구제일생명관에 해당하는 저층부에 연합군사령부(CHQ)가 있었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2차대전의 연합군 최고 사령관은 유명한 더글라스 맥아더. 그는 미군 점령하의 일본의 최고권력자였다. 그의 인상적이었던 일화를 하나 소개한다. 소화천황 히로히토가 맥아더를



△정면 주출입구



△맥아더 장군
(출처: 안내팸플렛)

방문하였다. 신문에 실린 그 사진은 히로히토 천황의 예의 갖춘 모습에 반해, 장신의 맥아더는 평복에 허리에 손을 얹고 편안하게 서 있는 모습이다. 승자와 패자의 모습이다. 일본 정부는 이 신문을 발매금지시켰으나, 연합군 사령부는 그 처분을 철폐하였다. 맥아더가 일본국민에게 유명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어쨌든, 그 맥아더가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연합군사령부의 맥아더 집무실도 당시의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10시부터 오후4시반까지 견학할 수 있다.

다음은 팸플렛의 내용이다.

제일생명관은 1945년 9월 연합군에 접수되었다. 그 뒤 1927년7월에 이찌가야에 총사령부가 이전하기까지 6년 10개월간 연합군총사령부로 사용되었다. 맥아더 기념관은 그 기간 동안 연합군총사령관이 사용했던 방으로써,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한 것이다. 집무실의 면적은 54제곱미터(약16평)이다. 주변의 벽은 전부 미국산 호두목을 사용하고 있으며, 요세기세공(寄木細工-나무쪽을 끼워 맞추어 모양을 내는 세공법. 쪽맞춤이라고 보면됨)으로 되어있다. 책상과 의자는 제일생명의 3대사장이 사용하던 것을 맥아더가 그대로 사용하였다. 맥아더는 즉단즉결(即斷即決)로 일을 처리 하는 스타일이었기에, 서랍이 없는 이 책상을 좋아했다 한다. 그 외에 당시의 물건으로는 맥아더가 좋아했던 요트그림 2개가 걸려있다고 한다.

DNtore21의 맥아더 기념관의 보존방법

이 기념관은 인테리어 보존의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인테리어보존은 부분보존의 한 방법으로 건물의 내부를 보존하는 방법이다.

외벽보존이 건물의 외벽을 완전히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비해서, 인테리어보존은 건물의 내부를 완전하게 보존하는 것보다는 건물의 기념을 상징하는 인물과 그 사람이 사용하였던 방과 특수한 기술에 의해 만들어졌던 방과 귀빈실 등의 상징적인 방, 그리고 계단실 등과 같은 건물의 내부의 일부가 보존의 대상이 된다.

구제일생명관이 1945년 연합군사령부로 사용된 이 건물에 있어서는 맥아더 등 연합군총사령관이 사용한 방이 그 특징을 인정받아 현재 그 방을 맥아더 기념관으로 보존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 내용출처: 清水真一 · 蓑田ひろ子 · 三船康道 · 大和智編、『歴史ある建物の活かし方』、学芸出版社、141쪽、2001

■ 동경은행협회빌딩 (東京銀行協會ビルディング)



△동경은행협회 빌딩 전경



△동경은행협회 빌딩 원형 부분

부분보존사례

소재지 : 동경도 치요다구
마루노우치 1-3
(東京都千代田区丸の内)
용도 : 업무시설
건립년 : 1924년
구조 : 벽돌조
설계 : 요코가와민스테(横河
民助)의 요코나가공무소
시공 : 요코가와공무소
(横河工務所) 직영

시부사와 에이이치(渋沢栄一)에 의해서 창설한 은행경영자의 협회로써, 초대건물은 1884년 니혼바시 카야바쵸우(日本橋 茅場町)에 타츠노 킨고우(辰野金吾)의 설계에 의해서 지어진 연와조 건물이었다.

명치시대의 전기에 번성하였던 카야바쵸우 지역이 명치후기에 접어들면서 쇠퇴하면서, 동경은행협회도 1924년 현재의 위치로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설계는 타츠노킨고우의 애제자였던 요코가와 민스테(横河民助)의 요코나가공무소에 위탁되었다. 이 건물의 벽돌은 짙은 소두(小豆)색 깔의 유약이 발린 벽돌이라고 하며, 화강석(御影石)의 적절한 배치와 함께 세부 디자인까지 잘 마감되어 보인다.(동경건축탐정단저, 근대건축가이드북 관동편, 1982, p24)

동경은행회관은 구 동경은행집회소의 2층 건물 외벽을 2면만 남기고, 1993년에 내측에 고층건물이 건설되었다. 설계는 미츠비시지소이다.

우에노공원(上野公園)을 조금 지난 곳에 이와사키저(岩崎邸)가 있다. 이 저택의 주인인 이와사키 가문의 형제들이 설립한 회사가 현재의 미츠비시(三菱)그룹이며, 일본을 대표하는 거대기업으로 미츠비시지소(三菱地所)도 그 계열사 중의 하나이다.



△정면 중앙부 상세



△정면부 창호 상세

• **내용출처:** 清水真一・蓑田ひろ子・三船康道・大和智編、『歴史ある建物の活かし方』、学芸出版社、139쪽、2001

미츠비시 그룹이 황거를 눈앞에 둔 동경역 앞의 마루노우치(丸の内)일대를 명치정부로부터 불하받은 것은 1890년의 일이다. 명치정부가 육군을 이전하기 위한 부대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와사키가문에 불하한 것이 그 시초이다. 그래서 현재도 미츠비시그룹이 이 일대의 노른자위의 땅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미츠비시 그룹은 이 일대를 일본에서 제일가는 오피스가로 만들려는 노력을 했다. 그래서 건설된 건물들이 미츠비시1호관(三菱1号館), 마루노우치빌딩(丸の内ビル), 일본공업구락부(日本工業倶楽部) 등이다.

그 중 마루노우치빌딩은 현재는 그 파사드를 남기면서 마루빌딩(丸ビル)이라는 이름으로 서 있으며, 일본공업구락부 또한 후면에 고층빌딩이 들어서 전면의 파사드를 남긴 모습으로 남아 있다.

최근에는 미츠비시1호관의 재건축도 계획하는 등 이 일대의 변화를 읽으면, 명치정부로부터 이어져 오는 일본의 근대 건축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동경은행협회빌딩 또한 미츠비시지소의 소유로 그 보존은 마루빌딩과 같이 파사드의 보존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파사드 보존이라 함은 옛 건물의 파사드를 살리며 그 후면에 고층의 빌딩이 들어서서 보존 방식이다. 부분보존 방식의 하나이다. 대로에 면한 인상적인 역사적 건물로 대로의 상징으로 되어 있는 건물의 외관을 보존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거리의 경관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 연와조의 건물의 경우, 외벽을 남기고, 본체부분은 철골조와 철근콘크리트조등으로 건설하여, 외관상 이전의 건물이 그대로 서있는 것 같이 보이게 하는 방법이다.

또한, 토지의 고도이용을 위해서 이전의 건물의 지붕을 깨꿨은 형태로 고층건물이 서 있는 것 같은 연출을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고층건물로 탈바꿈하였다 하더라도, 이전의 건물의 외벽이 남아있기에 보행자의 시선으로 보면 이전과 변함없는 거리풍경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새로이 들어서는 고층건물은 보통 반투명 커튼월이 많이 채용되어 빛의 반사에 의해서 하늘과 같이 보이는 효과를 연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지의 제약에 의한 후면 공지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채용하기 어려운 단점도 갖고 있다.

■ BankART1929 요코하마



△BankART 1929 전경

이축보존사례

소재지 : 카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중구 본정 6-50-1(神奈川県横浜市中区本町)
용도 : 업무시설 ⇨ 업무+전시
건립년 : 1929년 (2003년 이축)
구조 : 철골조+철근콘크리트조
규모 : 지하3층, 지상27층
대지면적 3,840.76㎡
건축면적 153㎡
기획 : 도시기반정비공단
설계 : 도시기반정비공단,
마키(槇)종합설계사무소



△정면 파사드

1929년에 준공된 이 건물은 구 요코하마은행 본점 별관(旧横浜銀行本店別館)이었다. 현재의 건물은 터스칸식의 오더열주가 반원형의 발코니로 되어 있는 정면부분이 인상적인데, 이 부분은 정면 현관의 일부분과 함께 구 제일은행 요코하마 지점으로부터 이축하여 보존·복원된 것이다.

요코하마시 기타나카도오리지구(北仲通地区)에서는 요코하마시가 역사적 건축물을 활용하는 실험적 프로그램으로 제시한 BankART 1929를 실시하였다. 이것은 시가지 중심부의 도시재생에 관한 실험적 프로그램으로써 요코하마시의 문화사업의 일환이며, 은행 이었던 건물을 표현의 장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요코하마시의 이 실험사업은 두 가지의 테마가 있다. 그것은 역사적 건축물 등을 활용한 창조적 활동에 의한 거리조성의 실험과 행정과 민간과의 협력에 의한 시설 운영이라고 한다. 실제 2004년 1월에 요코하마시는 24개의 민간단체로부터 ST스포터요코하마(ST스



△주현관 로비



△실내에서 바라본 정면 주출입구



△실내 전경

ポット横浜-연극과 댄스 분야에서 활동하는 NPO법인)과 YCCC 프로젝트(YCCC 프로젝트-건축으로부터 예술을 어프로치하는 PH 스튜디오라고 하는 단체와 미술저널리스트 무라타 마코토의 공동 프로젝트팀)의 두 단체를 선출하였다. 이 두 단체는 이후 공동단체로 발족하였으며, 2004년 3월 6일 공설민영(公設民營)의 운영형태를 갖추고 BankART1929요코하마는 오픈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역시 시의 건설, 민간의 운영 체제이라고 하겠다.

오피스 기능과 홀 기능을 가진 탑옥(塔屋)1층과 2층 부분은 구 제일은행 요코하마 지점으로써 1929년에 지어진 건물이다. 시가지 재생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1955년에 중구본정으로부터 현재의 위치에 발코니부분과 정면현관부분을 이축하여 복원 보존되어 있으며, 2003년 2월에 마키 후미히코(槇文彦)의 설계에 의해서, 지하3층 지상27층의 상징적인 아일랜드 타워와 접촉하는 현재의 형태가 되었다.

구 제일은행 요코하마 지점의 홀 부분은 각종의 건축, 도시, 미술 등 예술전반에 걸친 전시와 기획전을 연중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요코하마시가 실험 프로그램으로 실시한 BankART 사업은 역사적 건조물을 활용하는 하드적인 면과 개관 이후 900여회를 넘는 자주적인 기획에 의한 전시회 등을 통한 소프트적인 면을 동시에 만족하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운영에 있어서도 시의 원조금과 동일한 규모의 이익을 BankART사업을 통해서 창출하고 있다고 하는 점도 눈여겨 보아야한다. 이는 시와 민간의 운영이 종속적인 관계를 벗어나 예술을 바탕으로 하는 다채로운 네트워크를 구성하였기에 가능한 결과이며, 이를 실현하는 매개로서 역사적 건조물이 활용되어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러한 대규모의 문화정책을 기반으로 한 도시의 재생프로그램은 일본 내에서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이 실험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창조적 보존 활동과 공설민영의 관계의 가능성은 우리에게 지금껏 없었던 포괄적 관계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 내용출처: 요코하마시 도시정비국 website 참조

■ 도쿄도정원미술관 (東京都庭園美術館)



△도쿄도정원미술관 근경

원형보존사례

소재지 : 도쿄도 미나토구
 시로카네다이 (東京都 港區 白金台)
 용도 : 주거시설 ⇨ 전시시설
 건립년 : 1933년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 지상2층
 대지면적 17,701㎡
 건축면적 1,408.29㎡
 연면적 2,100.47㎡
 전시공간 650㎡

도쿄도(東京都) 미나토구(港區)의 시로카네다이(白金台)에 위치한 도쿄도정원미술관은 아사카(Asaka) 왕자의 저택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이다.

아사카 왕자는 쿠니(Kuni)왕자의 8번째 아들로 그의 딸 노부코(Nobuko)공주와 함께 여기서 살았었다.

이 저택은 1931년에 착공하여 1933년에 완공되었으며, 전쟁이후 여러 시설로 임시 사용되다, 한때 외국인 공사의 공관으로, 또 국민의 게스트 하우스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 이후, 지어진 뒤 반세기가 지난 후인 1980년대에 와서 아사카 왕자 저택은 동경도 정부에 의해 설립된 도쿄도문화재단에 기증되어 1983년 10월 1일에 '도쿄도정원미술관'으로 개관하게 되었다.

건축양식을 살펴보면, 1920년대와 30년대에 세계적으로 바람을 일으킨 유럽풍의 아르데코양식을 나타내고 있다. 건물의 주요부는 프랑스 건축가 앙리 라핀(Henri Rapin, 1873~1939)에 의해 지어졌으며, 그 외에 프랑스와 다른 여러 나라에 의해 장식적 형상의 기초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설계의 기본 평면과 몇몇 실내장식은 황실소속 건축가에 의해 아르데코스타일에 일본풍을 가미하여 계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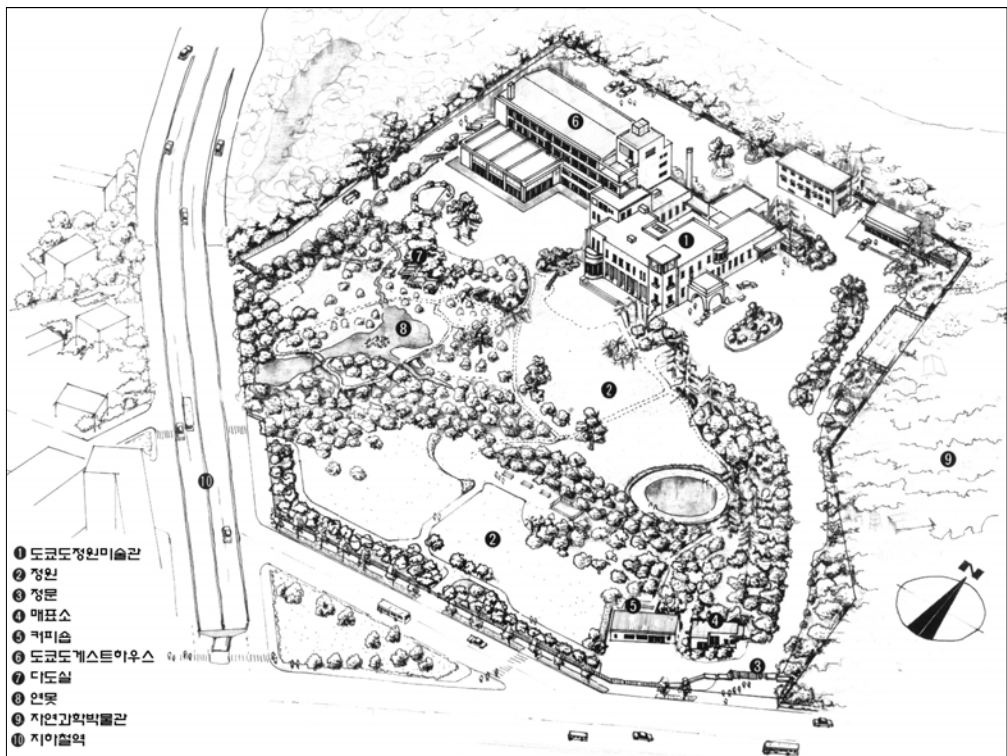
△미술관 내부1



△미술관 내부2

건물의 배치를 보면, 대지의 전면 주출입구를 중심으로 좌측으로 넓은 정원이 형성되어 있으며, 대지의 후면에 도교도정원미술관을 동향으로 배치하고 그 뒤에 도교도게스트하우스를 남향으로 배치하고 있다.

전용이전의 경우, 1층은 홀과 게스트룸, 그리고 식당 등으로 사용되었고, 2층은 왕자의 침실 및 도서관 등으로 이용되었다. 현재는 대부분 전시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전시내용은 건물의 장식적이고 우아한 특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회화 · 조각 · 장신구 · 인테리어소품 등 소재로 하여 다양한 기획전을 개최하고 있다.



△도교도정원미술관 조감도

■ 도쿄 오모테산도 힐스 (東京 表参道 Hills)



△옛 건물 전경



△중축 부분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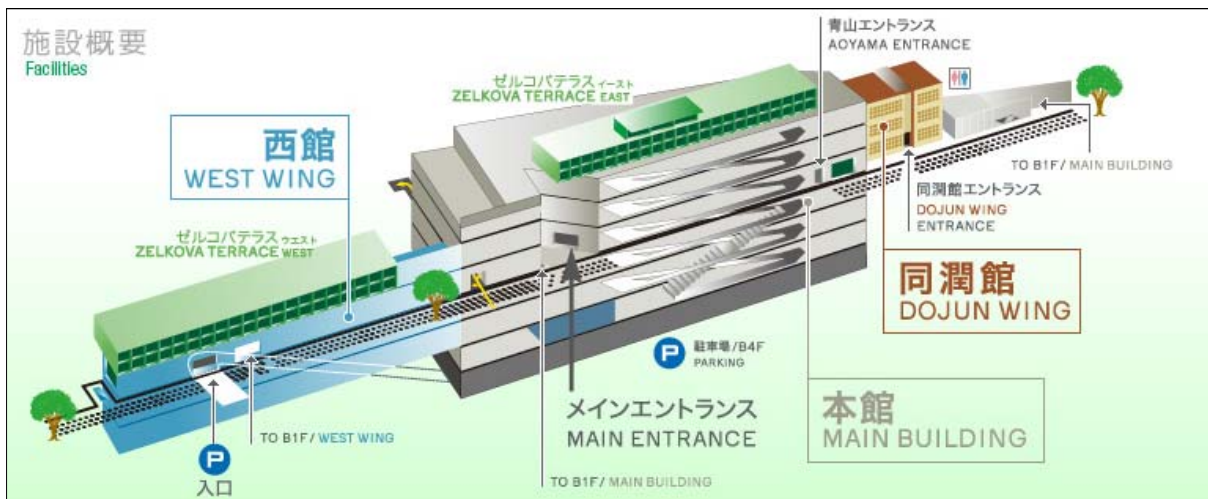


△오모테산도 힐스 전경

개수보존사례

소재지 : 도쿄도 (東京都)
 용도 : 주거시설 ⇨ 상업+문화
 건립년 : 1927년(2006.2 재개장)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개수설계 : 안도 타다오
 규모 : 지하3층, 지상3층,
 대지면적 2000여평

일본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패션 집적지로 부각되고 있는 도쿄의 오모테산도 힐스(Omotetsando Hills). 오모테산도는 도쿄의 지하철 하라주쿠 역과 오모테산도 역을 연결하는 번화가로 느티나무 가로수가 울창한 가운데 명품 브랜드의 간판 매장이 들어서 있는 곳이다. 이러한 오모테산도에 지난 2월, 약 250m의 폭으로 길게 뻗어 있는 오모테산도 힐스가 개장했다.



△오모테산도 힐스 배치도



△본관 입구



△건물간 연결통로



△아트리움

◦ 내용출처:

- 문경원, 「일본 도쿄 오모테산도 힐스」, It's Daejeon, 14~17쪽, 2006년 11월호
- 内田青蔵, 『消えたモダン東京』、河出書房新社、124쪽, 2002

서관(West Wing, 지하2층~지상3층), 본관(Main Building, 지하3층~지상3층), 도준칸(同潤館 : DOJUN Wing, 지하1층~지상3층) 등 3개로 구성된 오모테산도 힐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들의 패션·인테리어 제품 매장을 비롯해 다양한 갤러리, 전시장과 같은 문화시설이 밀집한 가운데, 카페나 레스토랑 또한 준비하여 라이브나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는 복합쇼핑센터이다.

오모테산도 힐스가 들어서기 전, 이곳에는 1927년 세운 ‘도준카이 아오야마 아파트(同潤會 青山 Apt)’가 있었다. 아파트 상층부는 일반 주거 공간 외에 예술가들의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저층부는 지역의 명소로 꼽히던 부티크 뮤지엄, 액세서리가게, 디자인회사 등 참신하고 재미있는 상점들이 자리잡고 있었다.

지역의 명소로서 인식되던 아파트는 노후화로 대규모 재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2,000여 평의 대지에 지하 3층, 지상 3층의 상업시설, 38호의 주택이 공존하는 복합시설로 리모델링 되었다.

오모테산도 힐스는 옛것에 대한 정취를 살린 재건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노후 아파트를 다음 세대에서 재생 시키고자, 건물 볼륨의 절반 정도를 매설하여, 건물 자체가 오모테산도의 길이 되면서 약 250m의 연속된 파사드를 만들었다.

지하층까지 자연광이 들어오는 아트리움은 은은하면서도 새로운 공간을 연출한다. 지하 3층부터 지상 3층까지 중앙을 비워, 나선형 램프로 건물을 감싼 것은 이 공간의 키워드다. 상업공간의 바람통로를 둘러싼 램프는 공기의 회유성을 느끼며 건물 내부에서도 오모테산도의 특정 있는 보행을 즐기게 하는 독특한 공간이다.

도준카이 아오야마 아파트를 전부 철거하지 않고, 아파트의 부분을 남겨 새롭게 보수한 도준칸(同潤館 : DOJUN Wing)에는 예전부터 존재하던 갤러리들을 그대로 두어, 오모테산도가 간직해왔던 독특한 예술적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옥상에 녹지공간을 꾸며 도심 속 신록을 느끼도록 연출했다.

오모테산도의 역사를 잇는다는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남아있는 아오야마 아파트의 외벽 일부를 재생한 것도 중요 특징의 하나이다. 이 거리가 본래 지니고 있던 따뜻한 분위기, 기억에 남는 경관을 다음 세대로 계승하고자 하는 의도를 살린 것이다. 기존 주거 시설을 최상층에 배치해 주상복합 형태를 취함으로써 아오야마 아파트의 자취를 남기는 데도 심혈을 기울였다.

1927년 아오야마 아파트의 건립으로부터 약 80년이 지난 2006년 2월, 전통과 21세기의 새바람이 어우러진 오모테산도 힐스가 선보이면서 이 거리는 새로운 비약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 오가사와라 백작 저택 (小笠原伯爵邸宅)



△외관



△주 진입구



△오가사와라 백작 저택 전경

원형보존사례

소재지 : 도쿄도 신주쿠구
이찌가야 카와타초우
10-10 (東京都新宿區市
谷河田町)
용도 : 주거시설 ⇨ 상업시설
건립년 : 1927년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 지하1층 지상2층
대지면적 1000평,
건평 330평
설계 : 소네츄우조우(曾根中條)
건축사무소
시공 : 이시이구미(石井組)



△주출입구 캐노피장식

동경 신주쿠구 카와타초우에 보행자들의 눈길을 끄는 건물이 하나 있다. 1927년 오가사와라 백작의 저택으로 건축되어진 스페니쉬 스타일의 건물이 바로 그것이다. 이 건물은 75년의 긴 잠에서 깨어나 2002년 6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탄생하였다.

수복공사 이전 이 건물은 동경도가 소유하고 있었으며, 일시적으로는 동경도 중앙아동상담소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방치되고 있었던 이 건물은 ‘동경도로부터 무상으로 대여 받는 대신, 도민이 폭 넓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민간이 수복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례적인 공모를 통하여 2002년 스페인요리를 취급하는 고급 레스토랑으로 바뀌게 되었다.

무상으로 도에서 빌릴 수 있는 기간은 12년간, 그 중 2년간(1년 반)이 수복 기간이었다 한다. 수복비용은 10억엔이 소요되었다.

건물의 외관은 크림색의 외벽에 에메랄드 그린의 스페인 기와. 창에는 철제격자 장식으로 치장되어 있다. 평면은 중정을 둘러싸고 있는 일자형이다. 정면현관의 캐노피는 국화줄기를 모티브로 한 장식을 가진 투명한 판으로 되어 있어 푸른 하늘이 그대로 보인다. 그리고 큰문을 지나 안쪽으로 들어서면 천장을 날아다니는 비둘기들의 모습이 아름다운 스테인드글라스 천장이 복원되어져 있다.



△주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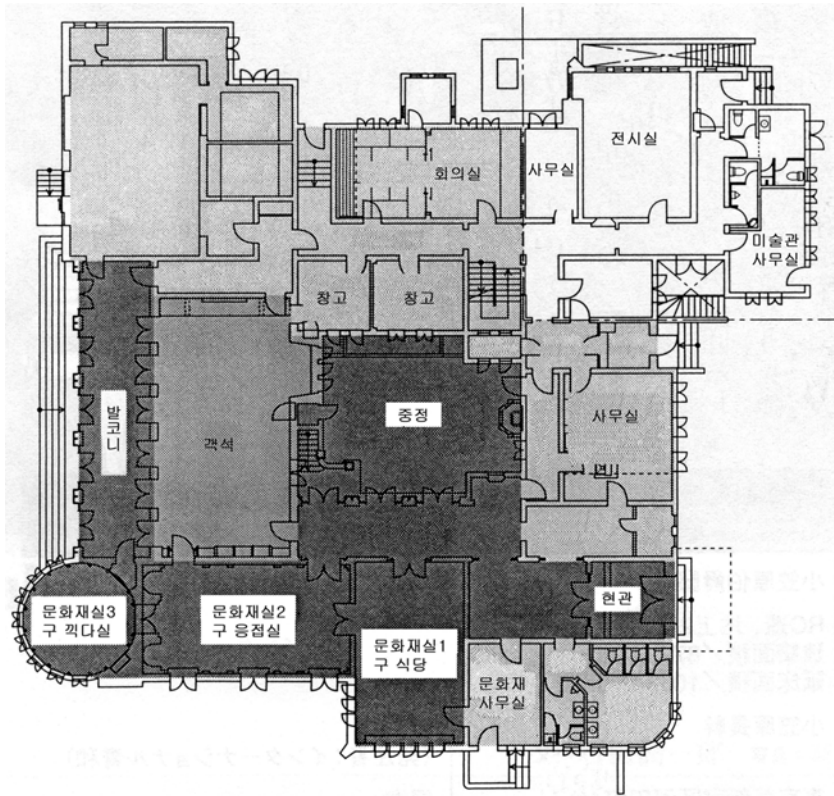


△흡연실 외벽

- 범례**
- 원형의 보존여부에 따라 명암을 달리 표현하였다.
 - : 원형보존·복원부위
 - : 현황보존부위
 - : 부분 개수부위
 - : 전면 개수부위

티크 목재의 질감이 중후한 맛을 더해주는 벽을 가진 식당에는 오가사와라 백작부부가 가족과 함께 사용한 큰 테이블이 그대로 놓여져 있다. 그리고 객실의 중앙에는 작은 꽃이 피어나는 것 같은 모습의 스테인드글라스가 장식되어져 있다. 이는 원형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 건물에서 가장 큰 볼거리는 이슬람 풍 흡연실의 화려한 장식이다. 회반죽 벽면에 다양한 조각을 가진 벽면과 대리석의 기둥, 바닥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 생명의 찬가를 모티브로 했다고 하는 장식타일 또한 복원되어져, 정원 측으로부터의 인상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현재 레스토랑이외 건물의 일부는 웨딩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더 넓은 정원을 이용한 웨딩 파티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예약이 필요 없는 바와 카페, 무가의 예의작법을 체험할 수 있는 오가사와라류 예법 교실, 갤러리, 지하에는 회원제도의 와인 창고도 구비하고 있다. 최근 광고와 프로모션 비디오를 찍는 장소로 사용되어 지기도 하는 등 수복 후 폭넓게 활용되어지고 있다.



△오가사와라 주택 평면

■ 구 이와사키저택 정원 (舊 岩崎邸 庭園)



△구 이와사키저택의 정면

원형보존사례

소재지 : 東京都 台東區 池之端
1-3-45
용도 : 주거시설 ⇨ 전시시설
건립년 : 1896년
구조 : 목구조
규모 : 지상2층, 지하1층
대지면적 약15,000평
설계 : 조사이어 콘더
(Josiah Conder)



△배면

구 이와사키저택 정원은 미쯔비시(三菱) 재단의 창립자인 이와사키 야타로의 아들인 이와사키 히사야의 저택으로 1896년에 조성되었다.

조성당시에는 15,000평의 부지에 20동 이상의 건물이 있었으나, 현재는 3동만 남아있다.

배치는 크게 양관(洋館)·당구실(撞球室)·화관(和館) 그리고 정원(庭園)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관은 일본 근대건축에 큰 영향을 미친 영국인 건축가 조사이어 콘더(Josiah Conder)가 설계한 것으로 일본에 얼마 남아있지 않은 목구조 양식건축의 대표작이다.

건축양식을 보면, 북측현관위에 각형 돔의 첨탑을 두고 남측베란다에는 열주를 배치하였다. 영국 르네상스 양식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주로 손님의 접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였는데, 이는 당시,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컨트리하우스를 모방한 것으로, 같은 시기에 지어진 다수의 조적조 양식건축과는 달리 세부적인 디자인에 있어 17세기 영국의 자코비안양식(Jacobean Style)을 주로 하여 르네상스



△1층 로비



△2층 실 전경



△화관내부의 관람모습



△당구실 전경

와 이슬람풍을 가미하였다.

양관과 지하통로로 연결된 당구실 역시, 조사이어 콘더가 설계한 것으로 메이지시대에 흔치 않았던 스위스 산장풍의 지상2층, 지하1층 규모의 목조 건물로 일본 메이지시대 상류계급주택의 대표작이다.

지상1층은 현관·식당·주방·서재·객실이 있고, 지상2층은 객실·집회장이 있으며, 지하1층에는 창고·기계실·통로 등이 있으며, 1952년에 국가 소유로 변경된 이후, 1970년까지 최고재판소사법연수소로 사용되었다.

양관 옆에 위치한 화관은 서원(書院)양식을 바탕으로 한 순수한 일본풍 건축으로 오카와 키주로(大河喜十郎)에 의해 설계된 것이다.

일상생활의 거실이 남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현재는 접객과 이와사키 가문의 관혼상제에 사용되고 있다.

1961년에 양관과 당구실이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화관은 1969년에, 그리고 대지·벽돌벽·실측도면 등은 1999년에 각각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2003년 4월 25일부터 양관과 당구실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구 이와사키저택 정원의 배치도

■ 외교관의 집 (舊內田定槌邸)



△외교관의 집 전경(좌측: 증축부, 우측: 원형부)

이축보존사례

소재지 : 카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중구 아마테정 16번지
 (이탈리아산 정원 내)
 神奈川県横浜市中区
 山手町16番地
 (イタリア山庭園内)
 용도 : 주거시설 ⇨ 전시+상업
 건립년 : 1910년
 구조 : 목구조
 규모 : 지상2층
 설계 : James McDonald
 Gardiner



△건물 전면

현재 외교관의 집으로 불리어지고 있는 이 서양관은 원래 명치시대 일본의 뉴욕총영사와 터어키 특명 전권대사를 지낸 경력을 가진 외교관 우치다 사다츠치(內田定槌)의 자택이었다. J.M. 가디나의 설계에 의해서 아메리카 빅토리안 양식으로 건축되었으며, 이축되기 전의 소재지는 동경도 시부야구(渋谷區) 미나미히라다이(南平台)였다. 이축 전의 건물은 이 서양관과 함께 바로 옆에 화관(和館)건물이 있었다. 이축전에는 우치다 외교관의 손자 미야이리(宮入) 부부가 사용하고 있었다.

시간의 경과와 함께 건물의 노후화가 진행되었고, 건물이 위치하던 ‘시부야구 미나미히라다이’는 시부야의 발전과 함께 주위가 점점 고층화 되어 가는 곳이었다.

손자부부는 건물의 보존을 고민하던 중, 법정대학공학부의 진나이 히데노부(陣内秀信) 교수의 도움으로 우선 건물의 서쪽 부분만, 1994년에 요코하마시에 기증하여 1997년 이축 복원되었다.

이축을 위한 운반비는 손자 부부가 부담하였다. 사비를 털어서라도 건물을 보존하고 싶다는 가족의 의지가 높았다.

1997년 요코하마시에 이축되어집과 동시에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이때부터 외교관의 집으로 불리어지게 되었다. 실제 이축되



△건물 내부



△증축부 연결복도



△증축부 1층 카페



△건물 후면 및 정원

기까지 10년의 세월이 지났다. 이 축·복원까지의 모습은 외교관의 집에 가면 비디오로 상영되고 있다.

이축된 외교관의 집은 후면 정원이 매우 아름답다. 장미는 요코하마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프랑스의 리옹에서 보내온 것이다.

재단법인 요코하마미도리의 협회(横浜緑の協会)는 이 외교관의 집 이외에도 야마테정의 이탈리아산내에 여러 서양관(이ギリス관, 야마테111번지, 야마테234번지, 에리스만저, 베이리크 홀, 브라흐18번지)을 지정 관리하고 있다.

건물 관리방침은 안락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의 제공과 도시의 오픈스페이스의 제공이다. 또한 야마테 일대의 여러 서양관 각각을 하나의 공원으로 관리하여, 찾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본 건물의 입장료는 무료이며, 건물의 휴게실 운영 수익금으로 관리·운영자금을 충당하고 있다. 이 외에도 민간 업체에 위탁 방식으로 웨딩사업도 하고 있다.

역사성을 가진 건물들의 활용은 수익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웨딩사업의 측면에서만 생각해 본다면, 이 건물은 추억제공의 측면을 포함하여 그 활용도가 매우 높다.



△건물 평면도(출처: 안내팸플렛)

■ 가자미도리관 (風見鶏の館, 구 토마스 주택)



△ 전경1(출처: 안내팸플렛)



△전경2

원형보존사례

소재지 : 고베시 주오구 기타노쵸
3-13-3 (神戸市 中央区
北野町 3-13-3)
지 정 : 국가지정 중요문화재
(지정 1978.1.21)
용 도 : 주거시설 ⇨ 전시시설
건립년 : 1909년
구 조 : 벽돌조
규 모 : 지상2층
대지면적 607.30㎡
건축면적 230.14㎡
연면적 891.03㎡
설 계 : 게오르그 데 라란데
(G.de.lalande)

이 저택은 고베에 살았던 독일인 무역상 고트프리트 토마스(G.Thomasa)씨가 자택으로 건축하였다. 기타노 야마모토 지역에 현존하는 이진칸(異人館) 중, 유일하게 외벽이 벽돌인 건물로서 선명한 벽돌의 색조와 돌로 쌓은 현관포치, 2층 부분의 하프 팀버(목골구조) 등, 다른 이진칸과는 다른 중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또한 첩탐 위의 가자미도리(풍향계)는 매우 유명하여 현재, 기타노쵸의 상징으로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가자미도리는 말 그대로 풍향을 알기 위한 것이지만, 수돗이 경계심이 강하다는 특징으로부터 악귀를 쫓는 의미나 기독교의 교세를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저택의 구조는 1층이 현관 홀, 응접실, 거실, 식당, 서재이고, 2층이 부부침실, 아이들 방, 손님용 침실, 조찬실 등이 배치되어 있다. 실내 디자인은 방마다 다르나, 전체적으로 독일의 전통양식을 수용한 한편, 19세기말 ~ 20세기 초의 새로운 예술 운동(아르누보)의 흔적도 느낄 수 있다.



△실내전경1



△실내전경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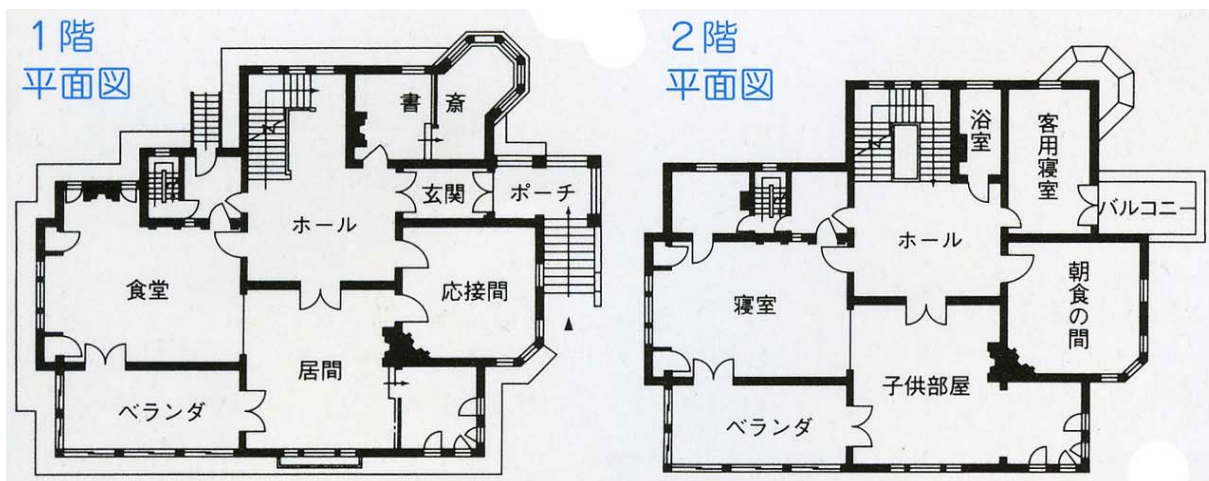
△2층 기념품판매점

예를 들면, 1층의 각 입구 문의 손잡이에 아르누보 풍의 장식이 달려 있고, 현관 포치의 기둥 상부 장식, 응접실의 상들리에, 서재 벽의 하부 판자의 풍자화 등에 그 경향을 볼 수 있다.

또한 식당에서는 중세성곽식 천장 들보, 장식장, 난로 장식 등 중후한 거장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

건축설계는 20세기 초기에 일본에서 활약한 유능한 독일인 건축가 게오르그 데 라란데(G.de.Lalande)가 담당하였다.

이 저택은 1938년 12월부터 1985년 3월에 걸쳐 본격적인 보존 수리를 시작하여 복원 가능한 곳은 전부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하였다.



△1,2층 평면도(출처: 안내팸플렛)

■ 모에기관 (萌黄の館, 구 샤프 저택)



△좌측면 전경



△정면 주출입구(출처: 안내팜플렛)

원형보존사례

소재지 : 고베시 주오구 기타노쵸 3-10-11
 (神戸市 中央区 北野町)
 지정 : 국가지정 중요문화재
 용도 : 주거시설 ⇨ 전시시설
 건립년 : 1903년
 구조 : 목구조
 규모 : 지상2층

연두빛의 저택으로 불리는 모에기관은 1903년에 미국 총영사 헌터 샤프의 저택으로 건축되었다. 그 후, 1944년에 고바야시 히데오 씨(전 코베 전철 사장)가 매입하여 사용하였다.

1980년에 국가지정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오랫동안 ‘흰 이인관’으로 불리었다. 그러나 1987년에 실시한 수리공사에서 건축 당시의 희미한 녹색 외벽을 발견하고, 복원하여 연두빛의 저택으로 다시 고쳐 부르게 되었다. 건물 2층 베란다에서는, 고베항까지 바라볼 수 있어 전망이 매우 좋다.



△건물 전면 광장



△1층 로비



△2층 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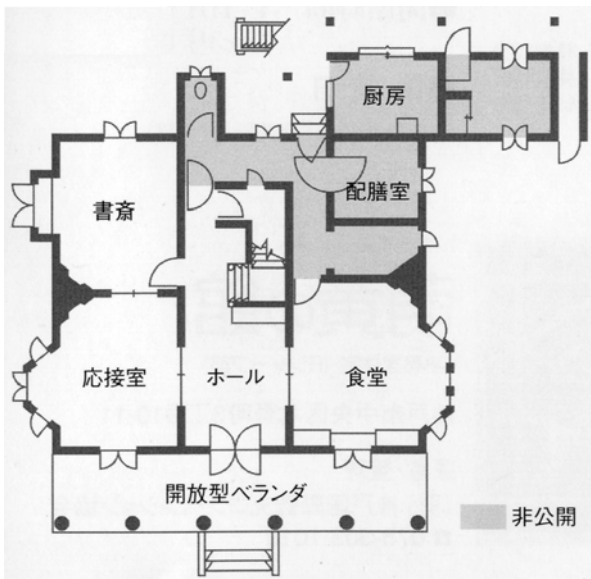
△1층 식당(출처: 안내팸플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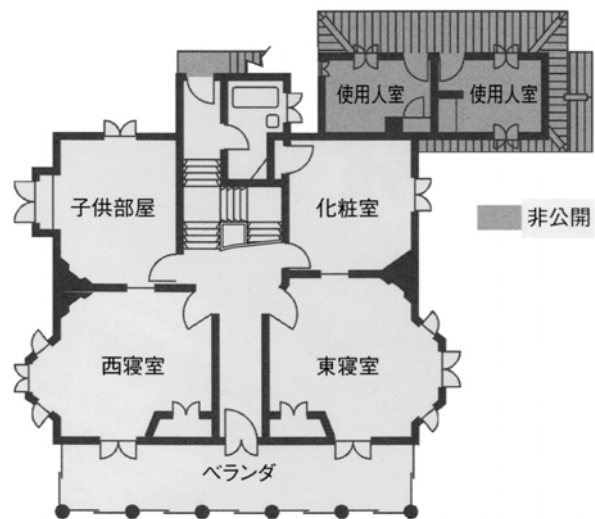
△2층 베란다(출처: 안내팸플렛)

1995년 한신 대지진 당시 모에기관도 지붕부의 굴뚝 3개가 모두 파손되어 떨어지는 등 건물 곳곳에 큰 피해를 입었다. 그 후 약 1년 동안의 수리과정을 거쳐 다시 개장하였지만, 서쪽의 굴뚝 하나는 한신대지진 당시의 파손된 모습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건물내부의 모습도 원형으로 재현하고 있다. 1층 응접실의 벽지는 건립당시의 원형으로 복원해 놓은 것이다. 벽난로는 무늬타일과 주물로 장식되어 있으며, 2층 베란드의 창틀은 기하학적 모양으로 매우 아름답다. 2층 침실은 밝은 색조로 마감되었다. 건물내외부의 상당부분이 밝은 연두색으로 마감되어 건물의 전체적인 인상으로 작용한다.



△1층 평면도(출처: 안내팸플렛)



△2층 평면도(출처: 안내팸플렛)

■ 옛 거류지 15번관 (舊神戸居留地十五番館)



△옛 거류지 15번관 전경

신축복원사례

소재지 : 고베시 주오구 기타노초
4-8-1
(神戸市中央区北野町)
지 정 : 국가지정 중요문화재
(1989년)
용 도 : 주거시설 ⇨ 상업시설
건립년 : 1880년
구 조 : 목구조
규 모 : 지상2층

1880년에 건축되어 현재 옛 거류지 유물로 남아있는 유일한 건물이다. 목조 2층이지만, 외관은 석조풍이다.

15번관이 있는 옛 거류지는 개항과 관련이 있는 곳이다. 개설 당시의 신문에서 「동양에 있어서의 거류지로서 잘 설계된 아름다운 거리다」라는 높은 평을 받았다. 영국인 건축가 에리에 의하여 거리가 계획되고 정비되었다. 당시 거류지는 전부 126개 구(區)로 나뉘었다. 그 중 15번관은 1880년에 건축되었고, 1881년부터 10년간 영사관으로서 사용했다.



△우측면



△안내 간판



△건립당시 하수관



△주출입구

15번관은 당시의 원형을 간직한 건물로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1989년에는 국가지정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다.

1995년에 한신 대지진이 발생하였을 당시에 본 건물은 매우 큰 타격을 받았다. 15번관 지반은 모래질층이었기 때문에 지진당시 액화 현상을 일으켜 기초석은 침하되고, 건물은 붕괴되었다.

그 후, 국가와 지방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아 소유자인 주식회사 자와를 중심으로 복구공사를 실시하였다. 복구는 기존의 설계도나 사진을 참조하여 진행되었다. 복구공사는 1998년에 완성되었다.

또한 일본 문화재 수리에서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면진공법(免震工法)을 채용하였다. 15번관에 사용된 면진공법은 진도 7의 지진을 3분의 1 정도로 억제할 수 있는 공법이다.

현재 15번관은 ‘카페 드 고베 옛 거류지 15번관’이라는 레스토랑 겸 카페로 이용되고 있다.

1층은 기념품 판매점과 전시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기념품판매점에는 고베시의 근대건축물 엽서 및 안내책자 등 각종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2층은 레스토랑을 배치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된다. 간단한 식사와 차를 즐길수 있다.

주출입구 우측면에는 건립당시에 사용하던 하수관을 그대로 보존 전시하여 역사적 유물로서 활용하고 있다.



△1층 로비



△2층 레스토랑 전경1



△2층 레스토랑 전경2

2) 프랑스사례

■ 뷔뜨 오 까이유 수영장 (Piscine de la Butte aux Cailles)



△ 뷔뜨 오 까이유 수영장 전면

개수보존사례

소재지 : 파리 13구 5, place Verlaine
 지 정 : 역사적 기념물 (Monument historique)
 1990년 7월 31일
 현용도 : 시립수영장
 구용도 : 공중목욕탕
 건립년 : 1908년
 1차개수 1922~1924년
 2차개수 1990년
 구 조 : 조적조+철근콘크리트조
 설 계 : 루이 보니에(1차개수 설계, Louis Bonnier)
 소 유 : 파리지 (1924년이후)

뷔뜨 오 까이유 수영장은 파리 뷔뜨 오 까이유 지구의 중심 베를렌 광장에 면해 있다. 이 수영장은 운동뿐만 아니라 전시회와 각종 문화 행사도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1908년부터 공중목욕탕으로 사용되던 건물은 1922년~4년 사이에 수영장으로 확장 개수되었다. 개수시 보건과 위생을 고려하여, 수영장으로 입장전에 샤워실과 발 씻는 곳을 꼭 통과하도록 계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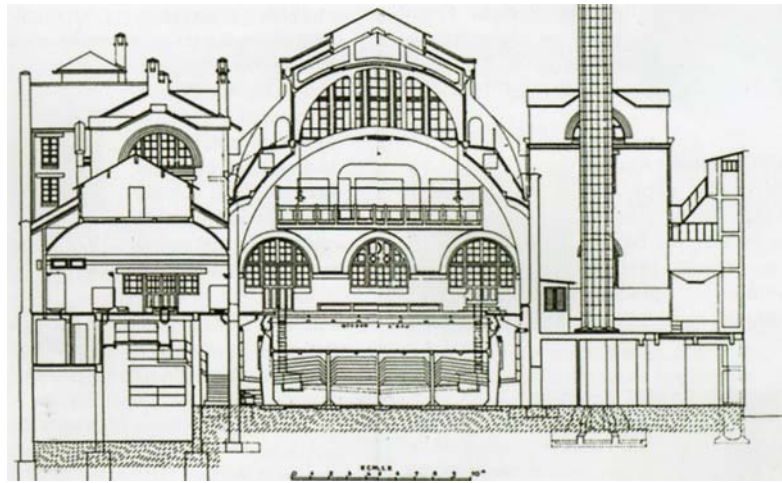
프랑스는 18세기까지 공중목욕탕과 수영장의 구분이 없었고, 1884년 첫 실내 수영장이 생겼다. 본 건물의 1차 개수는 당시 프랑스 보건 정책에 따라 목욕탕과 수영장을 구분한 첫 시도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건물의 외관은 콘크리트로 지어진 커다란 홀과 붉은 벽돌로 된 곡선 입면으로 특징지어진다.

건물 내부에는 수영장을 가로지는 7개의 콘크리트 아치와 그 상부의 둥근 천창으로 구성된다.



△대조적 입면, 붉은 벽돌과 콘크리트



△루이 보니에의 단면



△전면의 곡선 지붕

실내 수영장의 뒤쪽으로 2개의 야외 수영장이 있다. 건물 후면 야외수영장 입구는 전시회 등의 문화 활동 장소로도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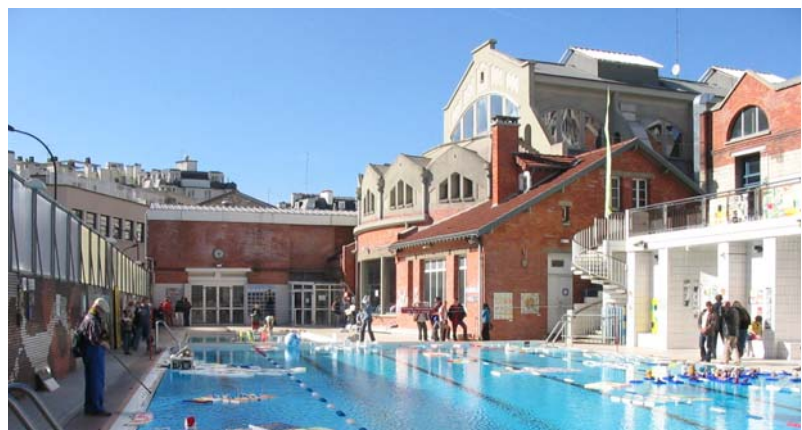
1990년 7월 31일 역사적 기념물(Monument historique)로 지정되면서, 기존 기능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인 개수작업이 2번째로 실시되었다.

개수내용은 수영장 내부의 타일 교체 · 수도관 시스템 재정비 · 난방시설 재설치 · 기존 관람석을 유리창으로 대체 · 기존 유리창 교체 및 외벽 재정비, 외부수영장 설치 등등이다.

저렴한 시립수영장이지만, 건물이 역사적 · 건축적으로 가치가 있고, 일년내내 이용 가능한 지하 온수 수영장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인기가 매우 높다.



△수영장 내부 아치



△건물 뒷면의 외부 수영장, 모자이크 작품 전시회

■ 파리 도시건축정보센터(Pavillon de l’Arsenal)



△퓏말



△석조, 철골, 유리로 어우러진 입면

개수보존사례

소재지 : 파리 1구
 21 boulevard Morland
 현용도 : 파리 도시건축 정보센터
 구용도 : 전시장, 아뜰리에
 건립년 : 1878 준공, 1989 개축,
 2003년 재정비
 구 조 : 석조, 철골조
 규 모 : 지상3층
 설 계 : 클레멍(Clément)
 개축설계: 베르나르 라이쎈,
 필립 로베르
 소 유 : 파리지

도시건축 정보센터는 파리의 역사 중심지에 위치한다. 이곳은 옛 루비에 섬의 왕의 병기창이 있던 곳으로, 이 건물은 병기창의 집 (Pavillon de l'Arsenale)이라 호칭된다.

건물의 원 용도는 목재상이던 개인이 소장 미술품을 전시하기 위한 장소였다. 그는 이 건물이 2000점이 넘는 그림들로 유명한 미술관이 되기를 원했다. 1883년 그의 사후에 딸이 그림들을 팔고 건물은 리브와르 & 까레(Rivoire et Carret)라는 회사에 임대를 하였다. 그 이후 주류 판매조합, 식당 등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었다가 1922년에는 사마리텐느사의 제조 아뜰리에로 사용되었다.



△이전 용도 - 사마리텐느



△이전 용도 - 파리지의 자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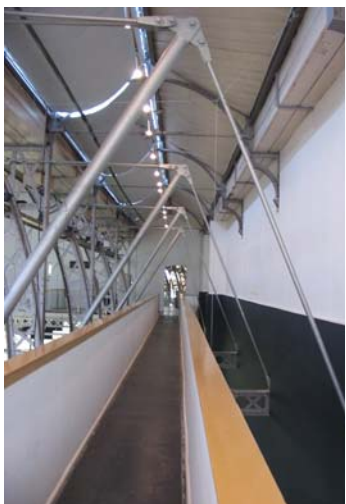
△홀 중앙을 가로지르는 다리



△1층의 파리시 모형 - 상설 전시장



△2003년 1층 재정비 때 설치된 신문 구독서



△3층의 전시공간을 잇는 다리

이후 파리시가 1954년 이 건물을 사들여 시 문서보관사로 사용하다가, 1989년 도시 건축 정보센터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2003년 1층의 전시관을 다시 정비했다.

건물 외관은 석조 건물의 느낌을 강하게 풍긴다. 내부는 철골 기둥위에 반원형의 철골 지붕으로 구성된다. 지붕과 박공 사이로 들어오는 측광이 실내를 비춘다.

이곳에서 파리시의 도시 계획과 건축 작품들에 관한 전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파리 역사 상설 전시장이 있다.

정보센터는 파리의 도시와 건축에 대해 전시와 서적편찬, 다양한 계층을 위한 토론의 장을 개최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파리 시민들이 파리의 변화하는 모습과 시의 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대화와 협의를 통해 도시 계획을 진행해 나가는 현재의 파리시 방침에 따른 활동이다.

건물의 전시 홀은 위로 가면서 점점 좁아지는 3가지의 전시장으로 나뉜다. 1층에는 800㎡의 면적에 ‘파리, 도시의 역사와 현재’라는 상설전시장이 있다. 이곳에서 파리시의 형성과 현재 상황·미래발전 방향을 여러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2층 전시장은 600㎡의 면적으로, 일 년에 세 차례의 특별전시회가 열린다. 각각의 주제는 콘크리트 건축, 파리의 주거, 오스만의 파리, 파리와 주택 등 매년 다양하다. 도시 건축 정보센터가 개관한 이래로 벌써 40여회의 전시회가 열렸다.



△상설전시장의 콘크리트 벽면



△3층의 비디오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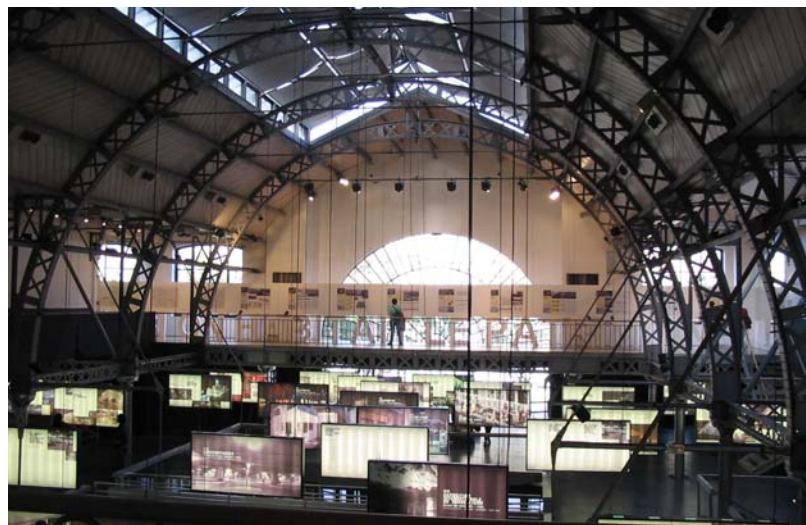
3층 전시장은 2층 전시장과 복층으로 구성된다. 이곳에서는 프랑스 건축과 국제 건축에 관한 내용과 시사성 있는 소재들을 볼 수 있다.

이 전시장 이외에도 여러 활동들을 계획하는 사무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자료실과 사진자료실이 있고, 붉은 색 아크릴로 시선을 끄는 비디오실과 1층 출입구 옆의 서점 등, 부속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연령과 직업은 어린이에서부터 노년층, 학생, 관광객 등을 매우 다양하다. 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내부공간이 적절히 어우러져, 많은 사람들이 찾는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2층 전시장



△3층 전시장, 홀 주변으로 좁은 복도를 따라 전시가 된다

■ 이르캄 (Ircam, Institut de Recherche et de Coordination Acoustique/Musique)



△스트라빈스키 광장쪽 현재 입면



△퐁피두 광장에서 본 입면

개수보존사례

소재지 : 파리 19구
 1 place Igor Stravinski
 현용도 : 음향, 음악 연구 기관,
 구용도 : 학교(1898),
 공중목욕탕(1930)
 건립년 : 1898년
 1930년 개수,
 1996년 개수
 구 조 : 조적조+석조
 개수설계: 렌조 피아노
 소유자 : 조르쥬 퐁피두 센터



△1996년 이전 모습

퐁피두센터 남쪽에 위치한 이르캄은 음향, 음악 연구 기관으로 퐁피두센터의 일부이다. 멀티미디어 도서관, 강의실, 강연실, 녹음실 등으로 구성된다.

구조와 설비 배관이 드러난 퐁피두센터와는 달리, 현대적인 느낌의 유리 마감과, 조적조·석조의 옛스러운 외관이 어우러진 건물이다.

1969년 이르캄의 설립과 함께 기존의 조적조 건물을 연구실과 음향실 등으로 사용하다가 1989년 렌조 피아노에 의해 일반 서비스 부분이 증축되었다.

이때 퐁피두 센터를 연상시키는 하얀색 환기구 등이 덧붙여졌고, 렌조 피아노 특유의 재료들이 사용되었다.

1996년 지하층과 근대기 학교로 사용하다가, 폐쇄하였던 부분을 현재의 기능과 통합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기존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각 부분에서의 시선은 지하에 조성된 중앙 내부정원을 통해 연결하였다. 음악연구 기관의 특성상 건물내부의 소음은 방지하기 위한 방음시설을 설치하였다.



△정면 주출입구



△지하층 채광용 유리지붕



△주출입구 단면

스트라빈스키 광장과 이르캄의 본 건물을 연결하는 지하부분은 지면과 같은 높이에 유리지붕이 덮여 있어 외부의 빛을 끌어들이고 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유리지붕의 위로는 진입하지 못하도록 난간을 설치하였다.

이르캄은 기존의 벽돌조를 유지하면서 주변 건물들과 자연스런 조화를 이루는 외관개조가 특징이다.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요소의 조화로운 결합이다.

내부로 들어서면 외부에서 느낌과는 달리 중정의 빛과 건축가 특유의 금속성 노란색을 이용하여 좁은 공간을 환하게 밝히고 있다.



△중정에 면한 실내



△최상층의 천창

■ 유리공예가 바리에의 집 (l'Hôtel Barillet, Maison du maître verrier Barillet)



△2003년 개축 이후 전면

개수보존사례

소재지 : 파리 15구
 15, square Vergennes
 현용도 : 현대디자인 예술센터
 구용도 : 작업실 및 주거
 건립년 : 1931-1932, 2001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설 계 : 말레 스티븐
 (Robert Mallet Stevens)
 소유자 : 이봉 풀랑
 (Yvon Poullain)

본 건물은 유리 세공 장인이었던 루이 바리에(Louis Barillet)의 소유였다. 그는 건물신축시 정면 계단실의 유리 작업을 담당했다.

건축가는 이 건물에서 가구, 장식, 조명 등 세부 사항들까지 건축의 범주에 포함시켜 모던 건축의 개념을 실현하고자 했다. 옥상 정원, 장식 없는 깔끔한 입면 등 당시의 국제주의 양식을 볼 수 있다.

동시대에 건축된 같은 용도의 다른 건축물과 비교해 볼 때, 이 루이 바리에의 집은 아뜰리에로서의 특수한 기능에 적합하도록 독창적인 프로그램으로 지어졌다.

각 층에서 유리잔해를 1층으로 배출할 수 있고, 세면대와 화장실도 각 층마다 계획되었다. 그리고 각 아뜰리에와 사무실 간에 전화와 편지를 운반하는 관을 통해 내부 의사소통이 수월하도록 했다. 그리고 무거운 재료를 각 층으로 운반하는 엘리베이터도 계획되었고, 작업 중인 작품을 걸어놓을 수 있는 레일 등이 배치되었다. 커다란 유리창을 통해 유입되는 빛으로 작업 환경의 질을 높였다.

이 건물은 60년대까지는 루이 바리에가 거주하였으나 이후 소유주가 바뀌면서 여러 차례의 변형을 통해 원형이 많이 파괴되었다.

2001년에 실업가이자 문예학술에 조예가 깊은 이봉 풀랑(Yvon Poullain)에 의해 인수되었다. 그는 건축가 프랑스와 레호에게 현대 디자인 예술 센터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건물을 개축하도록 하였다. 이 작업 이후에 원래의 구조와 대부분의 장식들이 사라졌다. 대형 유리창은 커튼월로 대체되었고, 외부 장식들은 알루미늄이나 PVC로 대체되었다. 내부는 계단실만 보존되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새로운 기능에 적합하도록 변형되었다. 특히 2개 층을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하고, 지하에 한 층을 더 늘려 부족한 면적을 보충하였다. 기존의 지하층은 1층과 연계하여 사용한다.

본 건물은 원형이 많이 손상되었지만, 현대적 해석으로 재탄생하였다. 개축시 현 실정에 맞도록 작은 부분까지 고려하여 계획을 진행하였다.

3) 독일사례

■ 굴프하우스 (Gulphaus, 농가+마굿간을 주택으로 개조)



△개조 전 건물

개수보존사례

소재지 : 올덴부르크 베저(Weser)
용도 : 주거+축사 ⇨ 주거+문화
건축년 : 18~9세기(추정)
구조 : 라멘구조
규모 : 지상2층



△개조 전 내부 중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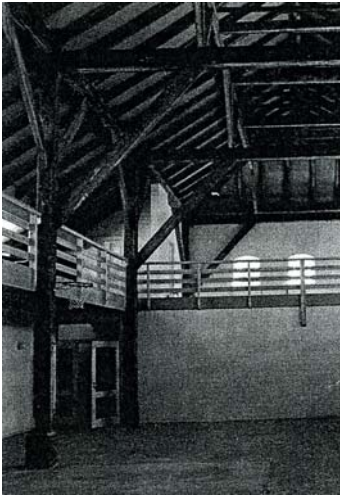
이 건물은 농가와 마굿간·외양간으로 사용하던 것이며, 네덜란드 북부에 위치한 프리즈지방의 양식으로 4개의 원형 기둥과 보로 구성된 라멘구조이다. 독일에도 흔하지 않은 양식으로 보존 가치가 있다.

건물은 소·말과 더불어 곡물이나 건조도 함께 보관하였다. 그래서 이 건물을 프리즈 농가 또는 굴프하우스(Gulphaus)라고 부르기도 한다.

건물은 1992년부터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 1994년에 올덴부르크(Oldenburg) 베저(Weser/Ems)지역의 문화재 관리청에서 개수작업을 하였다.

개·보수 후에도 원 소유주가 계속 사용을 하지만, 형태, 구조 그리고 공간적인 기능 배치는 관리청에서 다루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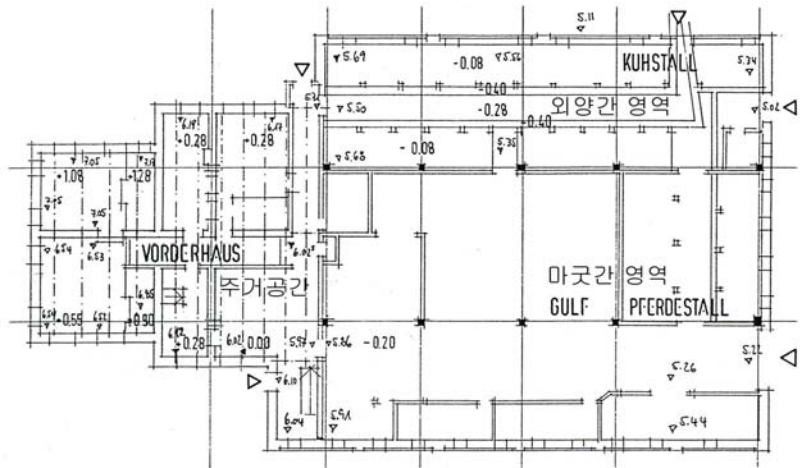
관리청은 이 건물을 6개의 주거영역으로 구분하고, workshop, 주말휴식, 주말단체 모임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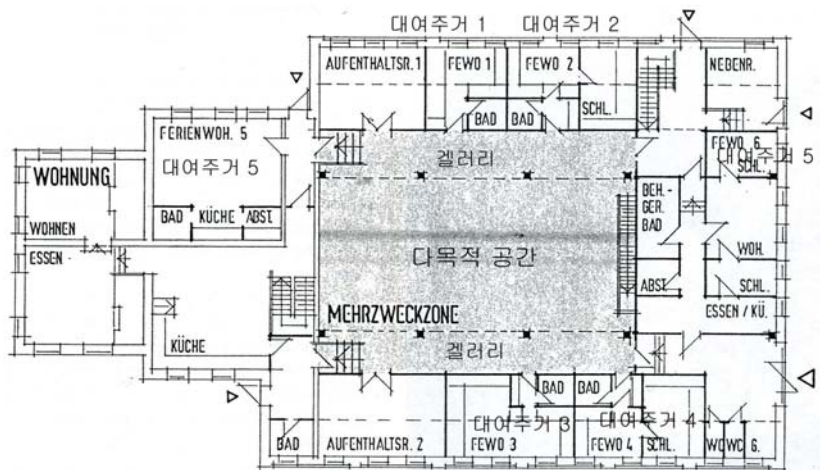
△개조 후 내부중앙

중앙에는 다목적 공간을 두어 2층의 갤러리를 통하여 연극, 음악회, 전시, 조각, 세미나 그리고 발표회 등을 개최한다. 이 다목적 공간에는 140개의 탁자를 배치할 수 있고 약 18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 갤러리의 3면 벽에는 창을 배치하여 자연광을 내부로 유도하여 쾌적한 공간을 만들었다.

건물의 주변은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유도한다. 이 건물은 지역에서 문화와 커뮤니케이션의 대명사로 인식이 되어 있으며 주민들의 중요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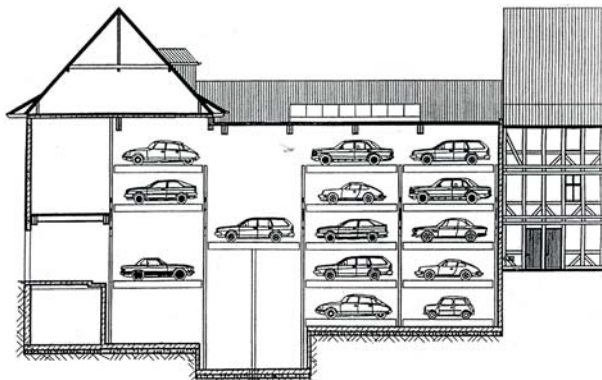


△개조 전 Gulfhhaus 평면



△개조 후 평면도

■ Zum Loewen 엘리베이터 주차장 (Duderstadt 마(馬)시장 리노베이션)



△주차장 단면



△주차장 입구

개수보존사례

소재지 : Duderstadt
 용도 : 상업시설 ⇨ 주차장
 건축년 : 18세기초
 구조 : 목구조
 규모 : 지상2층
 건축면적 380㎡

Duderstadt에 고급호텔 “Zum Loewen”이 있다. 이 호텔은 기독교 교회와 성당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호텔 앞 보행자 도로로 인해 손님들이 긴 거리를 짐을 갖고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호텔의 근처에 있는 18세기 초에 건축된 ‘구 마시장 건물’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이 건물은 이미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있는 문화재이다.

이러한 제안은 호텔을 통하여 보호재관리청에 전달되었고 Duderstadt, 도시 하노버의 TÜV(Technischer Überwachungsverein 독일의 차량정기검사 협회), 보호재관리청 그리고 건물주의 대리인 등이 협의에 들어갔다.

호텔이 지상에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 12대이며, 추가로 요구되는 주차대수는 64대이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건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으로 건물내에 엘리베이터 주차시설을 설치하였다.

기존건물을 보존하면서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문제를 해결한 사례로서 우리나라 구 도심에서 적용해 볼 가치가 있다. 건물의 보존이 확보되는 상황에서의 활용은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되고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이다.

■ Amberger Stadel



△Amberger Stadel Regensburg

개수보존사례

소재지 : Brückstraße 2,93047
Regensburg
용도 : 주거시설
건축년 : 1489년
(근대시기 여러차례
전반적인 개수실시)
구조 : 조적조+목구조
규모 : 지상5층
발주처 : Stuentenwerk
Niederbayern-Oberpfalz,
AöR
건축가 : Stadtbau-GmbH
Regensburg (기술부분)
개수공사: 1990년 4월 착수
개수준공: 1992년 10월

Regensburg은 독일 남쪽에 위치한 도시로 과거의 중세의 고풍스러운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있다. 도시 중심부는 도시개발에 대한 제한이 많다.

1489년 바바리아의 Duke Albrecht 4세에 의해 건축된 Amberger Stadel은 Danube강에 인접한 도시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과거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었다.

16세기에는 소금 저장소로 사용되었으며, 19세기 중반과 20세기 초에 여러번 개조 되었다. 현재는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으며, 모두 35호의 주거공간이 있다.

각 층의 주거는 복도를 따라 배치되며, 입구에 들어서면 대부분 2인용인 2개의 방이 공용공간을 마주보며 있다. 2인용 외에 3호의 1인용 주거도 있다. 또한 건물 지상층에는 5개의 상업 공간이 있다.

5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본 건물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능으로 개조하기 위하여 복잡한 시공과정과 많은 비용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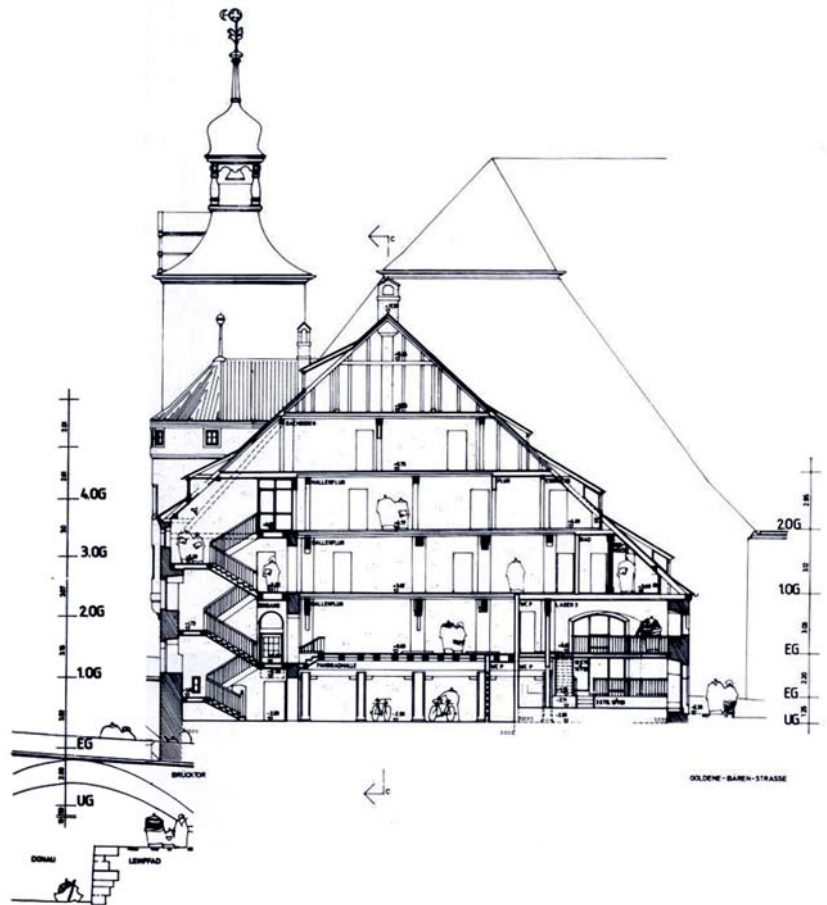
건물은 Danube강에 인접해 있어, 심토는 충적토이다. 개조후에는 새 콘크리트 기초로 보강해야 했다.



△과거의 기둥과 보

개조공사시 내·외벽은 대부분 벽돌로 마무리 하였으며, 각 층에서 사용가능한 원형 목조 바닥과 대리석은 그대로 두었다.

개조 후에도 기존 건물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구조물인 기존 나무 기둥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기둥은 각 층에서 노출된다. 목조바닥은 방화·방수 및 방음을 위하여 다양한 재료들로 변경되었다. 지붕도 오래된 타일을 걷어내었으며, 서까래 윗부분의 윗가지에 사용된 외장 절연재도 대체시켰다. 계단의 개수는 원형을 유지하면서 교체부위도 기존의 디자인을 따랐다. 문은 모던한 이미지를 살리려고 백색의 컬러에 프레임의 외부에는 청색의 테두리를 만들었다. 창문은 대부분 곡선을 살린 옛 아르누보창문이 남아 개조되었으며 부가적인 내부 창문은 방음과 단열조건을 갖추기 위해 시스템 창호로 설치하였다. 새 창문의 디자인은 건물의 외관과 도시이미지의 보존을 위한 Amberger Stadel의 법규에 따라 기존 형태를 그대로 따랐다.



△Amberger Stadel 단면

■ 기센 학생기숙사 (Giessen)



△학생기숙사 전경

개수보존사례

소재지 : Leihgesterner Weg 140
35392 Giessen
용도 : 숙박시설 ⇨ 주거시설
건축년 : 1915년
구조 : 조적조+목구조
규모 : 지상3층
발주처 : Stuentenwerk
Niederbayern-Oberpfalz,
AöR
건축가 : W. Beuermann
개수공사: 1992년 6월 착수
개수준공: 1993년 10월

기숙사는 1915년에 건축된 호텔이었다. 이후 군대시설과 시의 관리사무소로 사용되었다. 현재는 리노베이션하여 44개의 침대를 갖춘 기숙사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기숙사의 주변에는 745개의 침대를 갖춘 기존의 기숙사가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는 대학이 위치한다.

리노베이션은 건물의 대부분에서 이루어졌다. 3개 층의 내부는 새로운 공간배치에 맞추어, 기존벽을 허물거나 새로 추가 하였다.

주 현관 문은 그대로 사용하고, 비상문과 중정을 향하는 문들은 교체되었다. 새로운 문들은 방화문으로 설치되었다.

기존의 목재 계단은 그대로 보존되었다.

건물 외벽은 회벽마감 하였고, 기존의 형태는 가능한 보존하였다.

지붕층은 구조적인 보강이 있었다. 지붕층 벽은 원형부에 ALC, 방음재 등을 첨부하면서 벽면에 대한 보수를 추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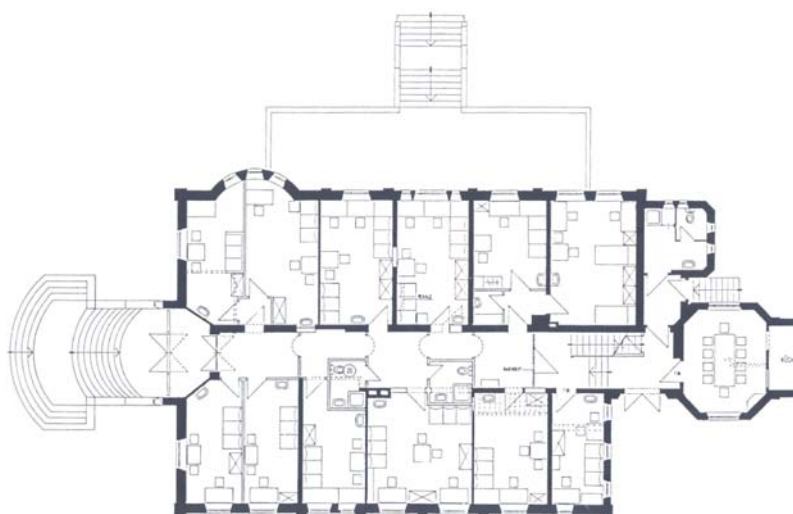
건물 바닥은 지상층의 경우 셋트로 된 2중 바닥처리를 하였고, 1층과 지붕층은 마루바닥으로 마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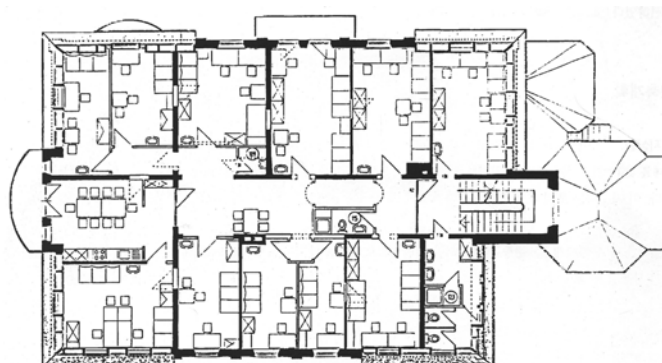
△기숙사 후면

바닥보는 균형을 다시 맞추고 곳곳의 빈 공간에는 진주석으로 메꾸었다. 그리고 두께 24mm의 방수용 판을, 표면에는 PVC를 덮었다.

기존에 있던 목재계단과 계단실의 창문은 F-30(화재시 불에 30분동안 견딤)으로 마감을 하였다.



△기숙사 지상층 평면도



△기숙사 1층 평면도

4) 캐나다사례

■ 캐나다 최초의 오키프 목장



△1886년에 건축된 오키프 대저택

원형보존사례

소재지 :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오키나간 버넌
용 도 : 목장 ⇨ 전시시설
건립년 : 1867년
구 조 : 목구조

오키프 목장이 위치한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남중부의 오키나간은 캐나다에서 가장 광활한 언덕 목초지로 유명한 곳이다. 1800년 후기 오키나간 계곡에 거대한 가축 농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1867년 콜로니어스 오키프와 그의 동업자 토마스 그린하우는 오키나간으로 이주해, 각자 160에이커의 땅에 목초지를 조성하고 목축업을 시작하였다. 1907년 오키프가 죽고 나자 많은 땅이 팔려 과수원으로 바뀌게 되었지만 그의 후손들은 목장을 계속 지켜나갔다.

1960년까지 목장을 유지시켜온 그의 아들 터니는 1967년 목장을 처음 목축업을 시작하던 당시의 모습 그대로 복원했다. 현재는 캐나다 개척 역사가 담긴 목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다.

방문객은 오키프 목장에서 오키프 선조들의 유품, 그들이 사용했던 옛 물건들을 볼 수 있으며, 한가로이 목장을 거닐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세인트 앤 교회(1889년 건축, 현재 결혼식장으로 사용중)

대 저택은 오키프와 그의 가족들이 살았던 곳이다. 아직도 빛바랜 벽지와 그들이 사용했던 침대와 옷가지들이 그대로 보존돼 있어 1900년초 가축업자와 가족들의 생활 모습을 엿 볼 수 있다. 또 근처에 아담하게 생긴 저택에는 일찍이 오키프 가족이 소유했던 빅토리아 시대의 가구와 비품들이 남아 있다. 저택 가까운 곳에 통나무집이 있어 대조를 이루는데 이 통나무집은 1867년 오키프와 그린 아내가 살았던 곳이다. 또 근처에는 그린 하우 박물관이 있다. 이곳에는 목장 지역의 역사가 보존되어 있으며 오키나간을 통하는 철도 모델이 놓여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농기구와 식품을 파는 가게도 있고, 1872년에 오키나간 계곡에 최초로 세워진 우체국이 지금도 그 자리에 있다.

세인트 앤이라는 교회는 1889년에 지어진 아주 소박한 교회다. 낡은 의자와 비품들, 풍금들이 옛날 그대로 놓여 있는데 지금도 결혼식장으로 이용된다.

이밖에도 목장에는 카우보이들의 합숙소를 포함해 곳곳에 예전에 쓰던 농기구들과 마차들이 원형 그대로 전시되어 있다.

오키프 목장은 매년 5월 중순에서 10월 중순까지 관광객들에게 개방되고 있다.



△오키프 목장 전경



△목장내부의 상점 (오키프 선조들이 사용하거나 팔았던 농기구와 식품 등이 전시되어 팔린다)

○내용 · 사진출처 : 데이빗 마우드, 「캐나다 최초의 오키프 목장」, 중도포커스, 32~35쪽, 1995년 5월호

3 교통유산

1. 국내사례

■ 신촌역사



△신촌역사 정면

부분이축 보존사례

소재지 :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74-12번지 일원
등 록 : 등록문화재 136호
(2004.12.31)
용 도 : 철도역사
건립년 : 1920년경
구 조 : 목구조
규 모 : 지상1층,
건축면적 181.74㎡
설 계 : 철도국
시 공 : 미상

신촌역사는 일제강점기 용산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 철도의 부속 역사로 건축되었다. 1920년대 건축된 기차역사 중 현재까지 원형이 훼손 되지 않고 서울에 남아있는 유일한 역사이다.

1920~30년대의 조적법, 목재지붕틀, 창호, 굴뚝 등이 원형이며, 이 시기 철도역사의 전형적인 맞배지붕에 삼각형의 박공을 강조한 지붕, 대합실과 역무실로 크게 양분되는 평면 등이 잘 표현되어 있어 건축적 보존가치가 크다.

분단이후 신촌역은 문산·파주 방면에서 서울간을 왕래하는 이용객에 의해서 매일 사용되었으나, 2004년 신촌 민자역사가 대형쇼핑몰과 함께 새롭게 건립되면서 해체될 예정이었으나, 철도역사로서의 보존가치 및 역사적 중요성이 인정되어 등록문화재로 등록 보존하기로 결정하였다.



△개수전 전경



△개수후 전경

보존운동의 성공은 당시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건물의 가치를 홍보하고, 토론의 장을 만들었기에 가능했다.



△건물후면 전경

보존이 결정되었지만, 현재 위치에서 불가피하게 현상변경하게 되어 본관격인 대합실은 현 위치에 보관하고 대합실 좌측의 역무실을 해체하여 대합실의 우측으로 이전하였다. 건물의 부분만 철거후 다른쪽에 복원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처음 실시되는 일이다.

공사는 후대에 변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일지라도 그 동안의 변화된 부분을 반영하여 일부는 그대로 보존하고, 교체가 불가피하게 퇴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당시의 원형을 추정하여 복원하였다. 등록문화재로서는 처음으로 건물의 일부를 이전하는 보존방식을 택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건물의 활용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지붕 전경
(출처: 신촌역사 이전(개축) 공사보고서)



△대합실 전경
(출처: 신촌역사 이전(개축) 공사보고서)

■ 철원 월정리역



△월정리역 전경

신축복원사례

소재지 : 강원도 철원군
 지 정 : 미지정
 용 도 : 철도역사 ⇨ 전시시설
 건립년 : 1924년
 구 조 : 목조
 규 모 : 지상1
 설 계 : 철도국
 시 공 : 미상

월정리역은 서울·원산간 경원선에 속한 간이역으로, 1924년 개역하였다. 1927년 당시는 역전에 3백여 명이 살았다는데, 지금은 아무런 흔적이 없다.

역사는 6.25전쟁 당시 유엔군의 폭격으로 파괴되었다. 1987~9년에 복원되었으며, 현재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철책에 근접하여 방문객이 갈 수 있는 최북단 역이 되었다.



△월정리역 후면

원래 경원선은 일제강점 이후 일본인들에 의해서 조선인을 강제동원하고 당시 러시아의 10월 혁명으로 추방된 러시아인들을 고용하여 1914년 8월 강원도에서 제일 먼저 부설된 산업철도이다.

당시 월정리역은 철원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과 각종 토산품 등을 서울과 원산 등지에 수송하고 원산에서 어류, 서울에서 생활필수품 등을 반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월정리역 좌측면



△개찰구

역의 바로 맞은편에는 ‘철마가 달리고 싶다’는 간판아래 6.25동란 당시 이 역에서 마지막으로 운행하였던 객차의 잔해와 유엔군의 폭격으로 파괴된 인민군 화물열차의 잔해가 남아있어 분단의 상징이 되고 있다.

월정리역은 제2땅굴·철원 노동당사 등과 함께 전쟁안보관련 문화유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월정리역 철로의 기차 잔해

■ 통영해저터널



△내부전경

원형보존사례

소재지 : 경남 통영시 당동~
미수2동
등 록 : 등록문화재 201호
(2005.9.14)
용 도 : 터널
건립년 : 1932년 11월 20일
(착공: 1931.7.26)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규 모 : 길이 483m, 폭 5m,
높이 3.5m

1922년 당시 통영 군수인 야마구치 아키라(山口 精)의 주장에 의하여 1928년 6월 26일 통영운하가 착공되었고 1931년 6월 3일 해저도로공사 신청에 따라 터널공사가 시작되었다. 1936년 6월 당시의 교통량은 보행자가 1일 평균 5,000명, 연평균 180만명이 통행하였다고 한다.

터널 양쪽 출입구 상부에 남아있는 용문달양(龍門達陽)이란 글자는 '용궁의 문으로 들어가면 미륵도의 행정구역인 산양면에 이른다'는 뜻으로 야마구치 아키라의 필적이라고 한다.

터널부는 철근콘크리트조이며 터널입구는 목조 기둥에 왕대공트러스 지붕틀 위에 함석지붕으로 시공되었지만 현재는 슬레이트 지붕이다. 양쪽 터널입구에서 중앙으로 향하여 경사로로 처리되었다. ㄷ자형으로 일체화된 RC조 기둥과 보가 3m 간격으로 배치되었으며 6m 간격마다 조명등이 설치되었다.



△출입구



△진입구



△해저터널 상부 전경



△건설당시 터널바닥굴착 (멘부란식공법)공사 사진



△건설당시 기초콘크리트 타설공사 사진



△출입구상부 트러스

통영과 미륵도를 잇는 통영 해저터널은 이름과 달리 개착식(Open Cut)공법으로 시공되었다. 해저터널로 연결되기 전의 미륵도는 밀물 시에는 섬이었지만 썰물시에는 도보로 왕래가 가능한 상태였다.

일제강점 이후 일본 어업민의 이주가 본격화함에 따라 통영이 근대어항으로 개발되면서 운항거리를 단축할 목적으로 운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때 운하를 파면서 동시에 만든 것이 해저터널이다.

해저터널 공사는 양쪽 바닷물을 막는 물막이 공사를 먼저하고 노출된 해저면을 다지는 멘부란식 바닥굴착공사를 한 후 터널기능을 하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건설하였다. 구조물 완공 후 토사로 되메우기를 한 결과로 바다가 운하가 된 것이다.

해저터널 중간부분에는 당시 터널공사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어 공사의 전모를 알 수 있게 해준다.

통영 해저터널은 동양 최초의 근대기술에 의한 해저 구조물로서 비록 공사의 주창과 시행이 일본에 의한 것이라고 하나 투입된 인력과 자재가 우리민족에 의한 것이고 또 일본의 사용기간이 13년에 불과한 데 비하여 해방 후 50년간 우리가 사용하고 관리 보수하면서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랜드마크 역할을 수행해 온 귀중한 근대 문화유산이다.

○내용출처: 도쿄모모 코리아, 『제2회 근대건축탐방(경남지역)자료』, 9쪽, 2005

■ 부산 영도대교



△부산영도대교 전경

개수보존사례

소재지 : 부산시 영도구 대교동
 지 정 : 시지정기념물 56호
 용 도 : 교량
 건립년 : 1934년
 구 조 : 도개교, 플레이트거더교
 규 모 : 길이214.63m, 폭18m
 설 계 : 増田 淳, 山本印太郎
 시 공 : 대림조(大林組, 일본)



△영도대교 측면전경

· 내용출처

- 부산일보 2006.11.23
- 중앙일보 2006.11.25
- 근대문화유산조사 및 목록화 사업보고서(부산광역시),2005

영도대교는 부산의 근대사와 영욕을 같이해 온 부산의 상징물로서, 옛 부산시청(웅미산터) 남쪽에서 영도의 북서단을 연결하고 있다.

다리는 개폐기능을 가진 도개교(큰 배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상판이 들어 올려지는 다리)이다. 영도대교는 1934년 일제에 의해 도개교로 개통돼 하루 7차례씩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며 1000t급 이상의 배가 다리 사이를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나가는 차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도개 횟수가 점차 줄어들어 60년 초부터는 하루 두 차례로 감소했으며 66년 9월 1일 고정교로 바뀌었다. 이때 다리 위 부설된 전차궤도도 철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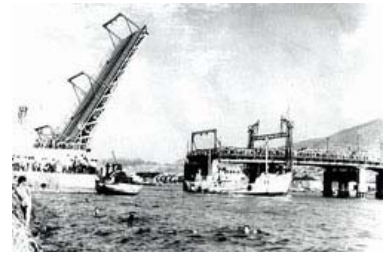
2000년 이후 부산시는 영도대교를 D급 교량으로 판정하고, 안전상의 문제와 제2롯데월드 건설로 인한 교통체증 현상을 대비한다는 이유로 철거를 검토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된 부산지역 문화 예술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영도대교 살리기 운동'이 지역주민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각계의 논의와 노력으로 보존이 결정되었다. 당시 시민들의 여론을 받아들여 문화재청은 지방문화재로 지정·보존하도록 권고했고, 부산

시문화재위원회는 2006년 11월 23일 영도대교를 지방문화재(부산시 지정기념물 56호)로 지정,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살리되 늘어날 교통량을 감안해 기존 4차로를 6차로로 넓혀 재가설키로 의결했다.



△1966년 부산 영도대교
(출처:부산일보 2006.11.23)



△1966년 부산 영도대교 2

문화재위원회는 또 다리 상판을 들어 올리는 장면을 구경하는 전망대 역할을 했던 다리목의 석축과 이곳에 세워진 다리 개통 기념비 역시 역사적·건축사적 가치가 높아 보존키로 했다.

영도대교는 2009년 말에 완공예정이며, 건축주인 롯데쇼핑이 공사를 시행한 뒤 부산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결정되었다. 다리상판은 특별한 기념일 등에만 상징적으로 들어 올릴 예정이다.



△난간기둥



△도개교 추 구조물

■ 철원 승일교



△승일교 정면



△승일교 전경

원형보존사례

소재지 :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장흥4리~갈말읍 문혜리
읍계
등 록 : 등록문화재 26호
(2002.5.31)
용 도 : 교량
건립년 : 1948년~1958년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규 모 : 길이 120m, 폭 8m,
높이 35m
설 계 : 김명여



△교각 하부



△새로 조성된 한탄대교(좌)와 승일정(중앙)

총길이 120m, 높이 35m, 너비 8m로, '한국의 콰이강의 다리'라고도 한다. 1948년 북한 땅이었을 때 북한에서 공사를 시작하였다가 6·25전쟁으로 중단되었다. 그후 휴전이 성립되어 한국 땅이 되자, 1958년 12월 한국 정부에서 완성하였다. 결과적으로 기초 공사와 교각 공사는 북한이, 상판 공사 및 마무리 공사는 한국이 시행한 남북합작의 다리인 셈이다.

3개의 교각 위에 아치형을 이루고 있는 다리로, 처음 북한 쪽에서 지을 때에는 구소련의 유럽 공법이 도입되었으나, 뒤에 한국측에서 지을 때에는 그와는 다른 공법으로 완성되었다. 처음의 북한 설계자는 진남포제련소의 굴뚝을 설계한 철원농업전문학교 토목과장이던 김명여라고 한다. 콘크리트 다리로서 시공자와 완성자가 다른 까닭에 양쪽의 아치 모양 또한 약간 다른데, 북한 쪽에서 먼저 지은 다리는 둥글고, 한국측에서 지은 것은 둥근 네모 형태를 띠고 있다.

명칭에 대해서는 김일성(金日成) 시절에 만들기 시작해서 이승만(李承晩) 시절에 완성했다고 해서 이승만의 '승(承)' 자와 김일성의 '일(日)' 자를 따서 지었다는 설과 6·25전쟁 때 한탄강을 건너 북진하던 중 전사한 것으로 알려진 박승일(朴昇日) 대령의 이름을 따는 설이 있으나, 현재는 후자의 설이 정설로 되어 있다.

1999년에 한탄대교를 개설하면서 현재 승일교는 차량통행이 금지되었으며, 일대는 공원으로 지정되었다.

■ 영동 노근리 쌍굴다리



△노근리 쌍굴다리 전경

원형보존사례

소재지 :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서울기점225km)
등 록 : 등록문화재 59호
(2003.6.30)
용 도 : 철도교량
건립년 : 1934년
구 조 : 무근콘크리트구조
규 모 : 길이 24.5m, 폭 6.75m,
외부높이 12.25m
내부높이 10.35m
구조체두께 1.9m



△당시의 총탄흔적
(오른쪽은 1999년 방수공사시
도포한 모르타르 흔적이다)

노근리 쌍굴다리는 경부선철도 개통과 함께 선로 아래 흐르는 개근천(愷勤川) 위에 세워진 철도교각으로 2개의 아치가 반복되는 형식이다. 무근콘크리트로 축조하였다.

1950년 한국동란 당시 1950.7.26~7.29 4일간 후퇴하던 미군이 영동읍 주곡리, 임계리 주민과 피난민들을 굴다리 안에 모아 놓고 집단학살을 자행한 장소로, 우리나라 근대사의 아픈 상처를 보여주는 곳이다.

다리 곳곳에 당시의 총탄흔적이 남아있었지만 1999. 8.19~9.16 사이에 실시한 다리 액체방수공사 실시로 교각의 총탄흔적이 모르타르로 도포되었다. 그러나 다리 일부에서는 당시의 총탄흔적(○표식), 총탄(△표식)이 드러나 있어 전쟁의 비극적 상황을 그대로 전달하여 주고 있다.

노근리 쌍굴다리는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이라는 6.25 전쟁의 또 다른 아픈 상처를 그대로 보여주는 역사의 산 교육장이다. 가해자에 대한 편향된 시선이 아닌 엄연한 역사적 사실로서 이곳은 보존되고 있으며, 후세에 전쟁의 비극적 현장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마이너스 유산이다.

■ 남지철교



△남지철교 전경

·원형보존사례

소재지 : 경남 창원군 남지읍 남지리~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등 록 : 등록문화재 145호 (2004.12.31)
 용 도 : 교량
 건립년 : 1933년 2월 (착공: 1931년)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규 모 : 길이 391.4m, 폭 6m, 트러스 높이 6m



△철교 내부 전경



△철교 상판 연결부위 상세

1900년에 가설(架設)된 우리나라 최초의 강철교인 한강철교와 1911년에 가설된 압록강 철교에 이어 일제강점기인 1931년에 구마 국도상에 가설된 남지철교는 창녕과 함안사이 낙동강에 걸쳐진 근대식 트러스 교량이다. 70여 년간 우리 국민이 이용하고 관리하면서 6.25를 겪는 등 갖가지 애환이 깃들여 있고,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다리 중 하나이다.

이 다리는 철근콘크리트 T자형교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교각 부분의 트러스를 높게 함으로써 물결이 치는 듯한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다. 이 시대에 만들어진 가장 아름답고 우수한 다리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트러스는 리벳 접합방법으로 제작되었는데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과 제작공법이 같으며, 계절의 변화에 따른 철재의 신축을 조절하는 이음장치로 연결하는 등 당시의 최신 기술이 적용되었다.

1950년 9월 8일 한국 전쟁시 미군이 북한군의 도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량의 중앙부를 25m를 폭파하였으나 1953년 복구하였으며 그 후 여러 차례의 보수 및 보강공사를 거쳐 주요 교통로로 사용되어 오다가 1993년 7월의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차량 통행이 금지된 민족의 역사와 애환이 서린 다리이다.

○내용출처: 도쿄모모 코리아, 『제2회 근대건축탐방(경남지역)자료』, 17쪽, 2005

■ 금강철교



△금강철교 전경

원형복원사례

소재지 : 충남 공주시 금성동163, 신관동553번지
 등 록 : 등록문화재 232호 (2006.3.2)
 용 도 : 교량
 건립년 : 1933년 10월 23일 (착공: 1932.1.2)
 구 조 : 철골조
 규 모 : 길이 513m, 폭 6.5m,
 설 계 : 조선총독부 내무국 경성토목출장소
 시 공 : 나가문구미(長門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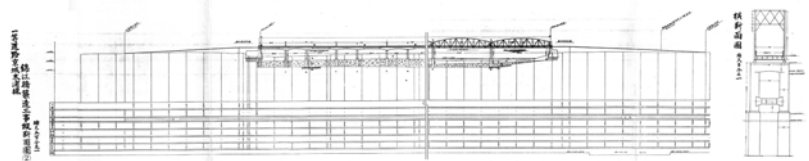


△1956년 공사개요

금강철교는 경성과 목포를 잇는 1등도로 구간 중에 교통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공주읍과 장지면을 연결하기 위해 1932년 1월 2일 착공하여 1933년 10월 23일에 준공되었다.

종래에는 선교(船橋)에 의해 교통하고 있었으나 우천시의 수량증가로 빈번히 해체돼 교통지장을 초래하여 지역사회가 요청하여 총독부 예산으로 새로운 다리를 건설한 것이다.

당시의 설계기록을 살펴보면, 길이 513.9m, 유효폭원 6m의 3연식 곡현(曲弦)트러스 구조(66m)와 11연식 겔버교(Gerber bridge, Cantilever bridge) 구조(36m, 22미터 두 종류)로 시공되었다. 다리 윗면은 글라놀리딕 포장(Granolithic concrete pavement)을 하였고, 교대(橋臺)는 콘크리트조로 평균높이는 10.8m(2개소)로 하였으며, 교각(橋脚)은 정통기초공(井筒基礎工)의 ㄱ형 철근콘크리트조로 평균높이는 19.652m(13개소)로 하였다. 전후 부설도로는 연장 327m, 유효 폭 7m 로 조성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량의 설계와 건설공법은 당대 교량건설사에 새로운 시대를 연 것으로 평가받았다.



△금강철교-도면-입면도(좌)와 단면도(우)
 (출처: 충청남도 근대문화유산목록화사업 보고서)



△금강철교 하부 교각



△금강철교 진입구



△트러스 상세



△다리 상판 하부상세

준공당시, 총공사비 35만원을 들여 시공을 하였으며, 강재 1,085t, 시멘트 2만 6천포, 철근 150톤, 작업원수 5만8천명 등이 투입되었다.

현재의 금강철교는 1950년 6·25전쟁 당시, 교량의 2/3가량이 파괴된 후, 1952년에 복구공사 착공하였다. 철골을 흥화공작소에서 설계하고, 노량진공장에서 제작하여 1956년 9월에 준공하였다. 이후, 2002년 12월에 공주시 주관으로 (주)지성엔지니어링이 설계하고, (주)우석종합건설이 시공하여 교량의 보수공사를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금강철교는 공주지역의 상징으로서 금강으로 가로막혔던 도시를 연결시켜 현재의 도시형태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공주 시민의 사랑을 받으며, 평상시에는 교통로로서, 각종 문화행사시에는 차량통행이 금지되는 행사용 인도로 사용된다.



△1933년 당시 금강철교 원경

2. 외국사례

1) 일본사례

■ 구 신바시 정거장 (舊新橋停車場)



△구 신바시 정거장 복원모습

신축복원사례

소재지 : 동경도 신바시
 지 정 : 사적문화재
 용 도 : 철도역사 ⇨ 전시+상업
 건립년 : 1872.10.14
 (복원: 1996)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 지하1층, 지상2층

이 건물은 1872년 10월 14일에 개업한 일본 최초의 철도터미널인 신바시 정거장의 외관을 당시와 동일한 위치에 원형대로 재현한 것으로 원래, 이 건물은 미국인 R.P. 브리젠스의 설계에 의해 1871년 5월에 착공하여 같은 해 12월에 준공되었는데, 당시 서양건축이 아직 많지 않았던 동경에 철도개업직후에 서구식으로 정비되던 긴자(銀座)거리에 대표적인 건축물로 그 위용을 자랑했다.

일본인들에게 근대화의 상징으로 친숙한 이 역사건물은 1923년 9월 1일 관동대지진에 의한 화재로 소실되었고, 1934년부터 시작된 신역사의 개량공사에 의해 잔존하던 플랫폼과 일부 시설들도 해체되었다.

1914년에 여객역의 기능을 동경역으로 이전하면서 화물전용역으로 변경되고, 이전의 카라스모리역(烏森驛)이 신바시역으로 개칭됨



△구 신바시 정거장 준공당시 모습



△구 신바시 정거장 전경



△유구전시모습



△카페테리아

에 따라 구 신바시역은 시오도메역(汐留驛)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후, 경제부흥기를 맞아 1934년부터 1936년까지 대대적인 개량공사를 통해 화물운송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일본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1960년대에도 보강공사를 하여 물류화물역사로서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차츰 도로와 항만이 정비됨에 따라 자동차와 해운을 통한 화물수송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철도화물수송은 상대적으로 점차 줄어들게 되고, 1986년에 이르러 시오도메역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1991년부터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구 신바시역 정거장의 플랫폼과 일부 유구의 초석을 발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6년 12월 10일에 일본 문화청은 역사(驛舎)와 플랫폼홀의 일부 유구가 '구신바시정거장유구(旧新橋停車場跡)'라는 명칭으로 사적 문화재로 지정하고, 사적 보호와 철도발상지임을 기념하기 위해 정거장을 재건하여 철도역사전시실로 전용,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다.

전시내용은 에도시대의 동경과 신바시역에 관련된 자료 및 유물들을 상설 또는 기획전시하고, 멸실 당시 남은 흔적들을 원형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벽체·현관·플랫폼의 석축 등을 일부 보존·전시하고 있으며, 전시실에서는 컴퓨터와 VTR 등의 영상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건물 내에서 카페테리아를 운영함으로써 자체적인 수익확보와 아울러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철도역사전시실안내도(자료 : 구 신바시정거장 안내판플렛)

■ 구 국철료우고쿠역사 (舊國鐵兩國驛舎)



△구 국철료우고쿠역사 정면부

원형보존사례

소재지 : 동경도
 지 정 : 사적문화재
 용 도 : 철도역사 ⇨ 역사+상업
 건립년 : 1929년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 지상2층



△구 국철료우고쿠역사 좌측면부

전자제품 상가의 메카로 불리던 아키하바라(秋葉原)에서 JR소우부센(総武線)으로 갈아타고, 두 정거장을 가면 료우고쿠역(兩國驛)이다. 이 역의 서구를 나와서 오른쪽으로 돌면 바로 옛 역사(驛舎)였던 건물이 나온다. JR료우고쿠역 주변은 일본스모의 본산 국기관, 에도동경박물관 등이 위치하여 많은 이들이 통행하는 관광명소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1996년 구 국철의 역사가 거대한 비어레스토랑 (beer restaurant)으로 재생되어 색다른 건물로 오픈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로 되었다. 2006년 4월 비어레스토랑은 일본식 주점인 이자카야로 업종이 변경되었다. 건물의 일부는 현재도 JR료우고쿠역으로 사용되고 있다.

구 국철료우고쿠역사는 1929년에 철근콘크리트조로 준공되었다. 건물은 2층 높이의 보이드한 공간으로, 역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었던 시기에는 2층의 일부가 료우고쿠역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지금도 계단이 남아있는데, 그 계단을 오르면 옛날 역사로 이어지던 통로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계단은 장식성이 풍부한 철제주물로 제작되었다. 2층은 현재 이자카야를 경영하는 모회사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사용중인 JR료우고쿠역



△주점 중앙의 스모경기장



△스모경기장 주변좌석 배치

이 건물은 창이 특징적이다. 전철의 흠플렛 측의 외벽에는 스테인드글라스의 세로로 긴 창이 붙어있었다. 정면에도 3개의 아치형 큰 창과 몇 개의 긴 창이 붙어 있어, 당시는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었다. 건물 외벽에는 특별한 장식이 없다.

이자카야라는 일본식 주점으로 전용할 때, 원래 건물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건물에는 가급적 손을 대지 않았다. 조명도 그리 화려하지 않다. 아이보리의 평범한 색으로 도장된 내벽에는 스모 선수들이 장식되어져 있다. 스모가 열리는 국기관으로 가는 길에 위치하기에, 주점 내에는 일본의 국기 스모를 벌이는 경기장(土俵)이 주점의 한가운데에 놓여있다. 이곳이 주점의 특징적인 모습으로 작용한다. 이 스모경기장을 에워싸면서 자리가 배치되어 있다. 요리 메뉴도 스모선수들의 음식(창코나베)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 료우고쿠역사는 이렇듯 건물의 재생이라고 하는 하드적인 면과, 시각적인 포인트를 동반한 맛의 제공을 통하여 고객의 요구에 답하고 있는 건물 활용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다.

동경도 내에는 료우고쿠역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가진 역사가 있다. JR동경역과 우에노역 등 대규모의 서점과 음식점 들을 가진 역사가 등장하고 있다. 또한 지하도에는 음식점과 스테이션 숍이 들어서 변화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지금은 역은 교통의 기점으로써의 본래의 기능적 역할은 물론, 지역의 거점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내용출처: 清水真一 · 蓑田ひろ子 · 三船康道 · 大和智編、『歴史ある建物の活かし方』、学芸出版社、86쪽, 2001



△주점 내부와 구 계단

■ 우메코지 증기기관차고관 (梅小路蒸氣機關車庫館)



△우메코지 증기기관차관 전경1

원형보존 + 이축보존사례

소재지 : 京都市下京区観喜町
 지 정 : 사적문화재
 용 도 : 기관차고 ⇨ 전시시설
 건립년 : 1914년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 지상1층

우메코지 증기기관차고관은 1972년 10월에 당시의 일본 국유 철도가 철도 100년 기념사업으로서 1987년 4월에 일본 여객 철도 주식회사가 사업을 계승한 증기 기관차 전문의 박물관이다.

예전의 증기 기관차 기지였던 우메코지 기관구의 부체현 차고와 함께 본격적인 일본풍 건축물인 구니쵸 역사를 보존하고, 당시 증기 기관차의 전시를 통해 교통 문화유산으로서 미래에 계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일반인들이 증기 기관차를 가깝게 느끼고, 증기 기관차와 관련된 일본의 산업문화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다.



△우메코지 증기기관차관 전경1



△현재 운행중인 증기기관차



△증기기관차 수리창1



△증기기관차 수리창2



△증기기관 실물전시

우메코지 증기기관차고관의 정문은 교토시 지정 유형 문화재인 [구니쥬 역사]를 1997년 7월 이축, 복원한 것이다. 현재는 자료전시관으로 개수되었다. 1층은 전시실이고 2층은 사무실이다. 전시관에는 기관차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갖추고 있으며, 증기기관에 대한 기계적 원리를 보여주는 코너도 마련되어 있다.

부체현 차고의 기관차 전시관에서는 근대시기의 대표적인 증기 기관차 16형식 18량을 전시 보존하고 그 중 7량을 실제로 운전하고 있다. 일반인들 특히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객차를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는 점이 인상 깊다.

기관차 수리창에서는 당시에 실제 작업하던 모습 그대로 전시하고 있으며 시기별로 다양한 열차들을 직접 볼 수 있다. 일부 기관차는 공개하여 관람객이 조작해볼 수도 있다.

이외에도 기차의 운행에 관한 모형을 전시하고 있어 기차에 대한 이해와 친밀도를 높이고 있다.



△구니쥬 역사 정면



△자료전시관 내부

2) 프랑스사례

■ 파리 북역(Gare du Nord)



△구 역사와 신 역사

개수보존사례

소재지 : 파리 10구
Place Napoléon III
용도 : 철도역사
건립년 : 1865년, 2001년 개수
구조 : 철골조+철근콘크리트조
설계 : 이토르프(Jacques-Ignace Hittorff)
소유자 : SNCF



△파리 북역의 정면

파리 북역은 일반철도, 고속철도, 교외선(RERE), 지하철, 버스, 그리고 택시까지 연결되고 있어 비행기를 제외한 모든 대중교통 수단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파리 북역 입면의 고대 로마시대 영향을 받은 9개 조각상은 북역과 연결되는 프랑스 북부와 유럽의 도시들을 상징하는 요소들이다.

역사 내부 주 홀의 거대한 철골 구조는 19세기 말의 괄목할 만한 기술이었다. 기둥 장식들이 매우 아름답다.

준공 이후 끊임없이 새로운 요소들이 추가되고 수리되었다. 1994년에 북유럽을 연결하는 TGV와 영국 런던으로 가는 유로스타가 정착하면서 대대적인 변형이 이루어졌다.

유로스타가 도착하는 역은 승객 제어시스템과 대기실, 승차권의 검사 방법 등이 공항과 같은 형식으로 변경되었다.

유로스타 대기실과 식당·카페 등 편의시설들이 위치한 곳은 철골과 목재로 이루어진 중층으로 구성된다. 19세기 말의 구조물 속에 현대적인 구조가 더해지는 부분이다.



△바닥의 하부 상세 철골과 목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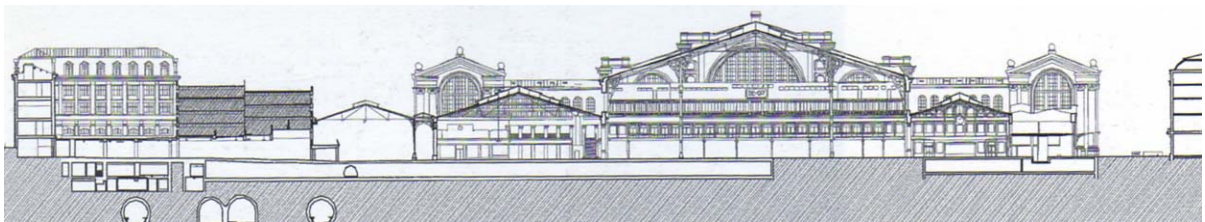
△이층으로 올라가는 신설 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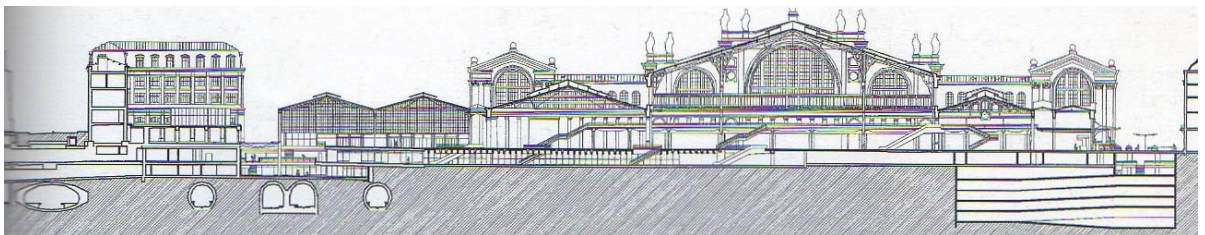
△신축 역사의 홀

여러종류의 철도노선과 교통수단이 교차하는 역은 진입구를 매우 인상적으로 재정비하였다. 현대적인 분위기로 바뀐 동쪽 역사를 통해 안으로 들어서면 철도, 교외선, 지하철로 연결되는 커다란 홀이 있고, 이곳에서 각 교통수단으로 동선이 분리된다. 또한 홀을 통해 지상층은 물론 지하층까지 빛이 유입되어 쾌적함을 느낄 수 있다.

2001년 마지막 공사가 끝날 때까지, 북역의 얼굴에 해당하는 주 입면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기능의 확장에 따라 내부 공간을 적절히 변형하고, 새로운 공간을 첨가하기도 하고, 또한 동역까지 직접 연결되는 보행자 통로를 만드는 등, 단일 건물의 활용에서 출발하여 도시적 관점으로 확대되는 대규모 사례의 좋은 예라 하겠다.



△확장 전의 단면



△확장 후의 단면, 각 교통수단과 서비스 공간을 연결하는 확장 공사가 이루어졌다.

■ 오르세 미술관 (Musée d'Orsay)



△2층에서 바라본 전시실



△오르세 미술관 전경

개수보존사례

소재지 : 파리 7구 Quai
Anatole France
현용도 : 미술관
구용도 : 철도역사, 호텔
건립년 : 1900년
1984~1986년 개수
구 조 : 철골조+석조
설 계 : 빅토르 랄루
(Victor Laloux)
개수설계: ACT Architecture
소유자 : 프랑스 정부

파리 센스 강변에 위치한 오르세 미술관은 바로 건너편의 루브르 박물관과 더불어 파리의 기념비적 건물로서 유명한 건물이다.

미술관은 본래 기차역이었다. 1900년 파리 만국 박람회가 개최되면서 오를레앙 철도회사가 정부로부터 현재의 오르세 미술관 자리를 사들여 파리 남동부에 있는 오스테르리츠역의 기능을 파리 중심으로 옮기는 오르세역을 건축하였다.

역은 지명 공모전을 통해 보자르의 교수로 있던 빅토르 랄루(Victor Laloux)의 안이 당선되었다. 공모전은 여행객을 위한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 편리하고, 쾌적하며, 아름답고 역사적인 주변 환경을 고려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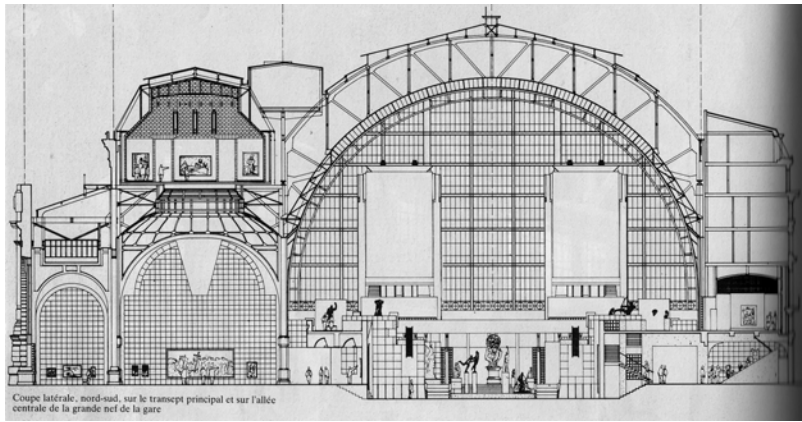
△오르세 역 항공사진



△1900년 7월 14일에 개관한 오르세 역



△기존의 철골구조와 회랑



△현재 미술관의 남북 단면, 중앙홀과 건물의 날개부분

기차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호텔로 개수되었다가, 1978년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에 의해 미술관으로의 전용계획이 수립되었다.

공모전을 통하여 ACT Architecture의 안이 당선되었다. 당선안은 게 울렌티(Gae Aulenti)의 내부 계획과 더불어 빅토르 랄루의 중앙홀을 잘 활용하여 미술관의 기능에 접목시켰다.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건물로 재활용하기 위해 랄루의 회반죽 장식, 기둥, 들보 등 기존의 장식을 되살려내고, 옛 철길 방향의 축을 살려 커다란 중앙 전시장으로 변화시켰다. 그리고 역과 호텔의 다락층으로 쓰이던 건물의 최상층은 자연광이 넘치는 넓은 갤러리로 개조되었다. 호텔의 식당은 미술관의 식당으로 재정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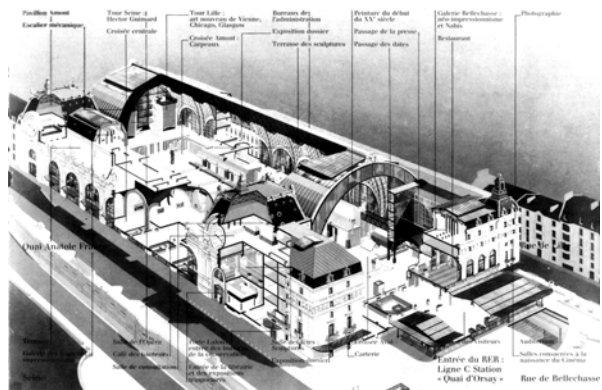
현재 오르세 미술관은 19세기 작품들을 중심으로 그림, 조각, 가구 등의 소장품을 전시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공연, 교육의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전시실 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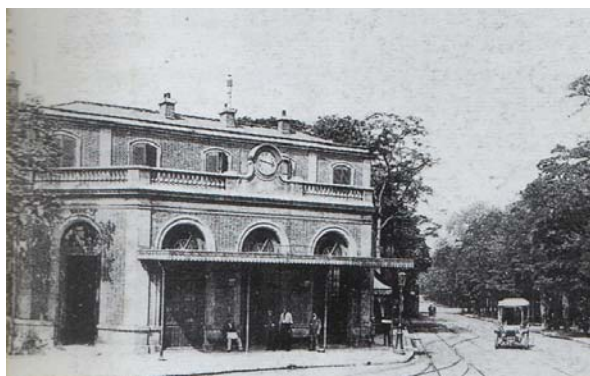


△개수후 1층 전시장



△오르세 미술관 엑소노(개수후)

■ 파시 라 뮤에뜨 역 (La Gare de Passy la Muette)



△20세기 초의 역사 입구



△옛 철도위에 자리잡은 현 식당

개수보존사례

소재지 : 파리16구,
19, Chaussée
de la Muette
현용도 : 식당, 카페
구용도 : 철도역사
건립년 : 1854년 준공
1995년 개축
구 조 : 조적조+철골조
소유자 : CRI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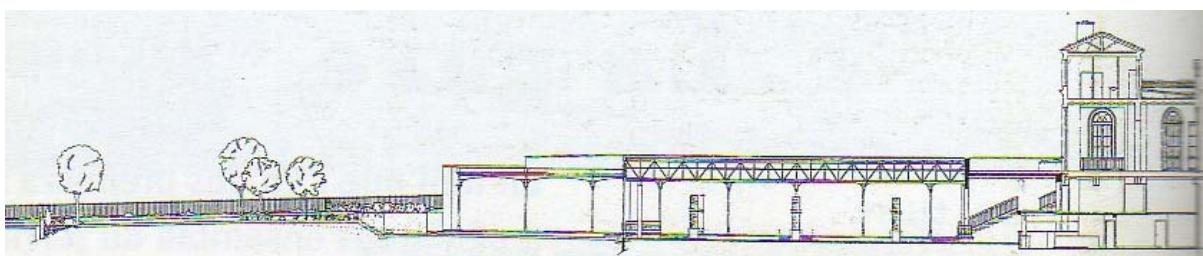


△1960년대의 승강장

1852년과 1854년에 건축된 이 역은 건축 파리 북서쪽의 생 라자르 역과 파리 외곽을 연결하는 기차 길에 위치한 역중의 하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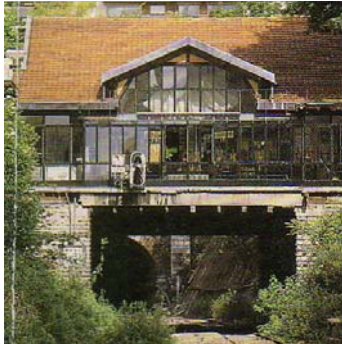
1934년 역이 폐쇄된 이후부터 1985년까지 역에 부속된 한 부분만이 화물철로로 이용되었고 이 오랜 기간 동안 아무런 변화 없이 그 모습을 유지해왔다. 그 후 1995년 역사는 카페가 되었고, 승강장은 넓은 테라스를 갖춘 식당이 되었다.

건축가는 주철 구조와 연두색 페인트 그리고 승강장의 바닥 돌을 그대로 유지하고, 철도위로 새로운 구조물을 설치하여 유리를 통해 빛이 유입되도록 하였다. 철로와 승강장의 경계에 6개의 양철 기둥을 세워 공간을 구분하고, 이 안에 냉난방 시설을 설치해서 용도 변경 전 외부였던 곳을 내부로 변환하면서 생기는 설비 문제를 해결하였다. 승강장에서, 그리고 철길을 덮는 천창 아래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이곳은 어느 식당보다 높은 천장과 150년 넘는 세월이 느껴지는 철도 등, 기차역으로 사용되었던 공간의 재미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변경 후 단면, 식당 부분의 천장 구조설치와 테라스 확장

■ 카페 드 라 플레시 도르 (Café de la flèche d'Or)



△카페(역 후면)



△카페내부



△콘서트홀 내부

개수보존사례

소재지 : 파리 20구 102bis,
rue de Bagnolet
현용도 : 카페, 공연장
구용도 : 철도역사
건립년 : 19세기 말,
1996년 용도 변경
구 조 : 조적조, 철골조

카페와 콘서트홀의 원 용도는 샤론느 역사였다. 뷔띠뜨 생튀르 (Petite Ceinture) 철길 위에 세워진 역은 승객 수송의 역할을 끝내고 1934년 문을 닫았다.

뮤에뜨 역에서와 마찬가지로 활용에 대한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었다. 철도 위로 산책로, 자전거 전용도로 혹은 전차로 등 여러 가지 활용 계획안이 나왔지만 철도의 폭이 좁아 무산되었다.

방치되었던 역사는 1996년에 카페로 용도 변경되었다. 철도를 장식하던 여러 표지판과 철도 부속물들이 실내를 장식하는 요소가 되었고, 카페내부의 현대적인 스타일의 원색 가구에 앉아서, 기차가 지나가지 않는 철도를 바라보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또한 음향 장치가 완비된 콘서트홀에서는 록 · 레게 · 샹송 등 음악을 즐길 수 있다. 카페와 콘서트홀은 독창적인 내부 장식으로 여러 행사나, 학생들의 파티 장소로 적합한 곳으로 환영받고 있다.



△1900년경 샤론느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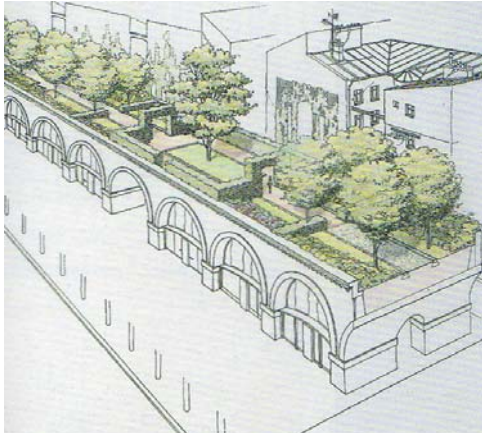


△1960년대 샤론느 역



△1997년 샤론느 역(용도변경 후)

■ 예술가 거리와 고가교 위의 산책로 (Promenade plantée du Viaduc des Arts)



△상가와 산책로 전경 투시도



△고가교 아치와 상가

개수보존사례

소재지 : 파리 12구
Avenue Daumesnil
현용도 : 아뜰리에, 상점, 산책로
구용도 : 철도교량
건립년 : 1930년 준공
1996년 개축
구조 : 조적조, 석조
소유자 : 파리지



△1990년 고가교와 철로 전경1



△1990년 고가교와 철로 전경2

1858년부터 1970년에 이르기까지 파리의 바스티유광장에서 뱅센느 숲을 잇는 철로가 있었다. 그 이후 이 철로가 산책로로 새로 태어나기 전까지는 파리지의 소유로 마땅한 용도 없이 버려졌다가 1990년 파리지의 결정으로 철길을 따라 이어지는 정원으로 재계획되었다.

이후 철로는 산책로로 고가교의 구조물은 새로운 문화 예술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고가교의 재사용을 위한 구체적인 진행은 파트릭 베르제와 장 미셸 빌모뜨(Patrick BERGER, Jean Michel Wilmotte)의 계획안이 공모전에 당선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994년 고가교 위의 산책로와 함께 장인들의 공간이 완성되었다. 고가교와 대로가 만나는 곳 이외에도 작은 도로와 만나는 곳에는 아치가 비어 있다. 대로와는 달리 이곳은 보행자 도로로 꾸며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주민들의 휴식처 및 놀이터가 되고 있다. 그리고 아뜰리에의 장인들은 이곳을 통해 아뜰리에의 후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

산책로에는 구조물의 형태를 활용하여 큰 나무를 심고 그 주변에 작은 관목과 잔디밭·화단·연못을 조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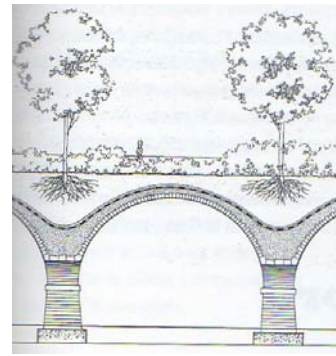
산책로는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통하여 올라갈 수 있다. 주요도로 및 지하철역과 만나는 부분에서 계단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진입로를 통해 산책로가 통제된다. 계절과 날씨에 따라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진입로를 열고 닫는다.



△산책로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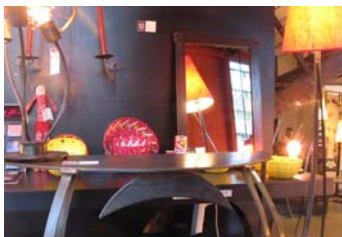
△보행자 통로 아치



△산책로 단면



△아뜰리에 내부전경 1



△아뜰리에 내부전경 2

관리인들을 통한 꾸준한 관리와 통제로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로서의 기능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고가교 아래에는 현재 1,5km의 길이를 따라 71개의 아치 안에 가구제조자 · 조각가 · 실내장식가 · 모형제작자 · 복원전문가 등의 장인들을 위한 아뜰리에와 상점이 들어서 있다.

이 거리를 걷다보면 다양한 작품과 작업을 볼 수 있다. 예술가의 거리라 불릴 만큼 작품의 완성도나 가치가 높아 저도 모르게 유리창 너머의 전시품을 만져 보고픈 마음이 들기도 한다. 모든 아뜰리에에는 벽돌과 돌로 지지되는 기존의 구조에 내부의 활동과 전시물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목재와 유리창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내부 공간들은 그 내용에 따라 혹은 예술가의 구미에 따라 각기 다르게 꾸며져 있다.



△아뜰리에 내부전경 3



△아뜰리에 내부전경 4



△상점 내부전경

4 산업유산

1. 국내사례

■ 선유도 정수장



△한강전시장

개수보존사례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양화동
95번지
지 정 : 미지정
용 도 : 정수장 ⇨ 공원
건립년 : 1978년(정수장)
구 조 : 철근 콘크리트조
규 모 : 대지면적 117,362㎡



△한강전시장 내부

선유도는 두 개의 다른 이름을 갖고 있다. 수려한 풍광을 자랑하던 시절의 '선유봉', 그리고 도시인에게 수돗물을 대주던 시절의 '정수장'. 이젠 더 이상 절경을 자랑하는 봉우리도 없고 물을 정수하지 않는다.

예로부터 선유도는 빼어난 풍경을 자랑하였다. 조선시대 진경산수화의 대가로 알려진 겸재 정선의 작품중, 한강과 서울 인왕산 일대의 모습을 담은 경교명승첩(京郊名勝帖)에도 선유봉의 절경이 담겨 있다.

그러나, 아름답던 선유봉은 1920년대 한강의 대홍수 이후로 제방을 쌓고 여의도 비행장을 만들기 위해 선유봉의 암석들이 채취되면서, 봉우리는 흔적조차 남지 않았고 사람들로 부터 잊혀졌다. 쓸모없는 섬으로 버려졌다가 1978년부터 선유도는 정수장이 되었다. 그때부터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섬이 되었다.

정수장이 폐쇄된 후 서울시는 한강의 자연을 시민들에게 선사하려



△녹색기둥의 정원



△화장실



△카페테리아 '나루'

는 목적으로 선유도공원을 계획하였다. 공원은 기존시설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물과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생태공원으로 조성되었다.

공원입구의 방문자 안내소는 정수장의 여과지를 재활용한 공원안 내 및 정보제공의 공간이다. 지상층은 휴식 및 공원 정보를 제공하며, 콘크리트 상판을 철거하여 만든 지하층에는 주차장과 공원관리실 및 기계실이 있다.

한강전시관은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을 공급하던 송수펌프실을 개조한 건물로서, 기존 구조물의 외벽을 벽돌과 유리로 감싸 과거의 시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녹슨 철판과 적삼목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전시관은 3개의 층으로 나뉘어 구성된다. 1층은 멀티미디어 갤러리 및 휴게공간, 2층은 기획전시실, 지하층은 한강의 관리·생활역사·환경 및 생태를 전시하고 있다.

취수펌프장을 재활용한 카페테리아 '나루'는 관람객에게 훌륭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선유도공원은 우리나라에서 근대문화유산중 상수도시설의 활용에 관한 매우 좋은 사례이다. 그동안 개발이라는 이름아래 잇고 부수고 버리는 일들이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유도의 활용 예는 더욱 소중하다.



△배치도 (출처: 안내팸플렛)

■ 세왕주조 (진천 덕산양조장)



△지붕전경(출처: 문화재청 기록화조사보고서)



△진천 덕산양조장 전경

원형보존사례

소재지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용몽리 572-16번지
 지 정 : 등록문화재 58호
 (2003.6.30)
 용 도 : 양조장
 건립년 : 1930년 9월 2일
 구 조 : 목구조+조적조
 규 모 : 지상1층,
 대지면적 457㎡,
 건축면적 347.1㎡
 설 계 : 성조운(成造運)
 시 공 : 성조운(成造運)



△평면도
 (출처: 문화재청 기록화조사보고서)

덕산양조장은 70년 전통 민속주인 천년주를 만드는 근대적 양조장으로 3대가 가업을 잇고 있다. 아직도 1935년 용몽리 가마터에서 구워진 항아리(‘龍夢製’가 표면에 음각됨)로 전통주를 빚고 있다.

예전에는 전통적인 주조방식으로 술을 생산하는 곳이 상당히 많았지만, 현재는 대부분이 사라지고, 대규모로 자동화된 공장에서 생산되는 술이 익숙한 현실이다. 그러나 양조기술도 하나의 엄연한 문화로서 인식되는 현실에서,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해 활발하게 전통주의 맥을 잇고 있는 진천 덕산양조장은 매우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덕산양조장은 일식 목구조 공장건물로서 주 건물에 덧붙여서 좌측으로 주조장, 우측으로는 창고 건물이 있다. 주조장과 본건물은 내부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창고는 본관과 같이 건립된 초기모습 그대로이다. 본건물 지붕은 공장건물의 특성상 솟을지붕을 하고 있다.

양조장 솟을천정 용마루대 상량문에는 1930년 상량(昭和五年庚午九月初二日未時上梁)이라는 문구로 건축시기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상량문에는 시공자가 성조운(成造運)으로 나온다.

산업시설은 생산의 효율성을 따지기 때문에 미적인 측면과는 매우 거리가 있다. 그러나 덕산양조장은 등록문화재로 등록후 양조장의 역사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상표와 디자인으로 지역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문화재도 훌륭한 홍보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매우 뜻깊은 사례이다.

2. 외국사례

1) 일본사례

■ 요코하마 적벽돌창고(赤煉瓦倉庫)



△적벽돌 창고 전경1

개수보존사례

소재지 : 카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신미나토1-1
(神奈川県横浜市新港)
용도 : 산업시설 ⇨ 상업시설
건립년 : 1호 창고 1913년,
2호 창고 1911년
구조 : 조적조
규모 : 지상3층,
길이148m, 폭22m
건축면적 5,479㎡(1호)
10,755㎡(2호)
설계 : 대장성 임시건설국 부장
츠마키 요리히로
(妻木頼黄)
개수설계: 건축연구협회 외
시공 : 대장성 임시건설국 직영
개수시공: 타케나카공무점
(竹中工務店) 외
공사기간: 1994.6.15~2003.3.31

명치말기에 준공한 적벽돌 창고는, 현존하는 일본의 벽돌조적조의 건물로는 최대급에 속한다. 당시 일본의 건설기술을 집대성한 조적조건축의 완성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벽돌과 지붕의 기와, 동재의 50%정도를 포함, 중요한 부재는 대부분이 국산의 물건이나, 당시 일본에서는 생산이 불가능 한 사이즈의 동재·엘리베이터·기동기의 특수기계 등은 영국, 독일, 미국 등으로부터 수입하여 사용하였다.

기술적으로 재미난 것은 슬라브이다. 활용에 따른 해체공사시 들어난 1호창고의 슬라브의 철근은 건설당시에는 싱글배근으로 보 간격에 조인트가 없다. 단부는 전부 플랜지에 혹 가공으로 걸려있다. 그러나 1927년에서 1930년사이에 진행된 재해(1923년의 관동대지진을 말함)의 복구공사에 사용한 슬라브에는 밴드근이 사용되고 있다. 약 10년 사이의 기술적 변화를 볼 수도 있다.



△적벽돌 창고 전경2



△쇼핑몰 전면 입구



△로비



△내부 식당



△건물외벽의 기존철문보존

1945년 이후는 이 적벽돌 창고가 미군의 항만사령부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1989년의 용도 폐기전까지는 세관창고 등으로 사용되어졌다. 이 후 방치되어 오다가 1992년에 요코하마시가 사들였다. 1992년 요코하마시가 구입할 당시에는 이 건물은 벽면에 낙서가 가득하고, 지붕은 비가 새고, 개구부의 철문은 부식되어 떨어지는 흉물이었다고 한다. 이후 1994년에서 1995년 구조보강공사, 지붕개수공사,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외벽개수공사 등을 행했고,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내부개수공사를 하여 2002년에 현재의 아카렌가소우코(赤レンガ倉庫)로 오픈하였다.

이념에 기초하여 기존건물의 풍모를 재생하여 살리기에, 외관은 물론 내관도 가능한 한 건설 당시의 모습을 살리기 위한, 노화손상에 대한 처치를 하였다.

벽면에 낙서를 지우는 청소는 수압으로 청소 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청소시에는 수압을 조절하는 것으로 적벽돌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였다 한다. 또한, 노화된 적벽돌의 벽면을 수복하는데 있어서는, 건설당시의 풍모를 갖추기 위해서, 해당 연와의 치수와 색상을 자세히 검토하고, 이를 건설당시의 규격에 가까운 규격을 갖춘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채용하였다 한다.

내진보강도 구벽면을 덮는 습식공법이 아니라 철골 보강을 메인으로 한 방법으로, 벽면의 노출을 가능케 하였다.

창과 문의 기존창호도 손상정도를 조사하여 보수성을 검토한 뒤, 재사용이 가능한 곳은 교량의 보 등에 사용하는 중방식염장을 사용하여 해풍에도 견디도록 하였다.

출입구의 3장 접힌 문은 현재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리벳 접합이다. 이를 복원하기 위해서 평소에는 건축물을 취급하지 않는 리벳 접합기술을 가진 공장을 일부러 찾아서, 협의를 거듭한 끝에 제작하였다.

우선, 적벽돌 창고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근대건축물로서 이 건물이 가진 역사성과 소재감 등 건물 자체의 특징을 살린 형태로 재생하여 활용하는 것이었다.

활용방법으로는 형식적이고 정적인 내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적인 활동의 장으로써 사용되어지는 건축의 재생을 우선으로 생



△건물내부의 기존 행거도어



△기존 벽돌의 보존 전시

각하여, 향구의 번성과 문화의 창조를 메인 테마로 하였다 한다. 그 구체적 대안으로 2동 중 1동을 홀, 극장을 중심으로, 이벤트 공간도 갖춘 다목적 문화시설로 하였고, 다른 동은 맥주 홀, 재즈라이브 하우스를 중심으로 한 음식, 물품판매소를 갖춘 상업시설로 하였다

현재 조금 작은 쪽 1호관은 문화시설이 중심이다. 시민의 문화활동을 창작과 전시, 교류 등의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또한 극장 · 재즈 · 서점 등을 통하여 요코하마의 특색을 정보화하고, 국제적인 전시회 · 영화제 · 콘서트 등을 개최하며, 각종 문화행사 정보를 요코하마에서 국내외에 발신하고 있다.

2호관은 왼쪽에 있는 상업시설 중심의 건물을 말하며, 식문화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 외에는 엔터테인먼트 요소로 재즈와 라이브 하우스, 이벤트 등의 행사를 개최하여, 1호동의 문화시설과 연계함으로써 문화시설적 성격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적벽돌창고의 일년내내 다채롭고 재미난 공연과 이벤트 등이 야외 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이어진다. 이벤트와 전시물은 일정기간마다 변화를 주어 방문객들에게 식상함을 느끼지 않게 한다. 첫째 방문객은 1000만명에 가까웠으며, 지금도 매년 많은 사람들이 요코하마의 명소로서 방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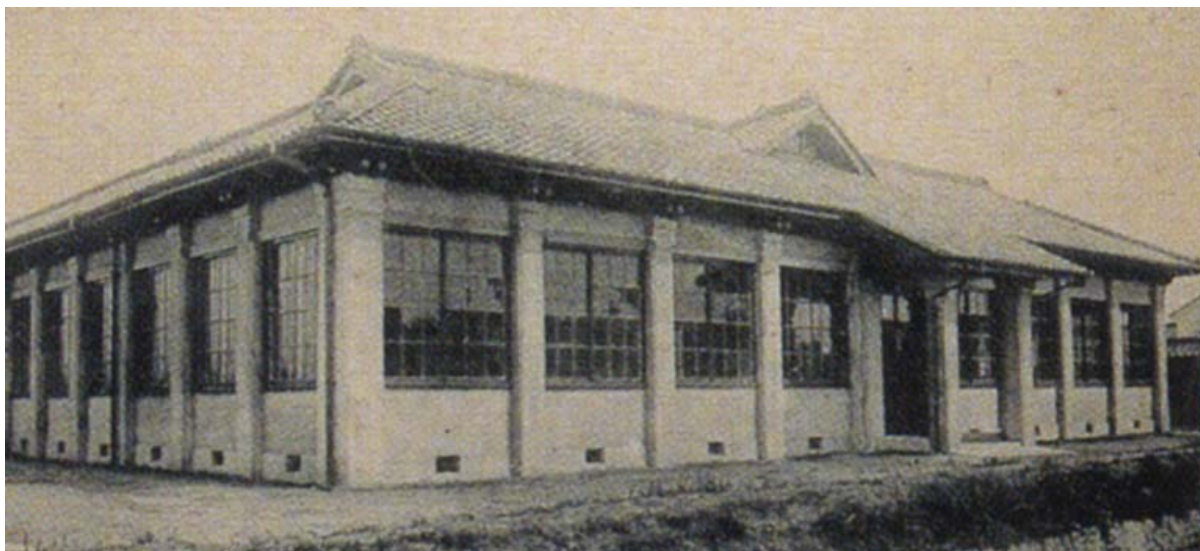


△내부 계단



△내부 판매장

■ 도요타시 근대산업유산발견관



△ 구 아이치현 잠업취급소(출처: 안내팸플렛)

개수보존사례

소재지 : 愛知県豊田市喜多町
4-45
등 록 : 등록문화재
용 도 : 산업시설 ⇨ 전시시설
건립년 : 1921년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 지상1층,
대지면적 2225㎡,
건축면적 562.5㎡



△주출입구(출처: 안내팸플렛)

근대산업유산 발견관은 등록문화재로서, 구 아이치현 잠업취급소 제9지소의 건물이다. 이 건물은 1921년에 건설되었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의 벽에 목조 지붕틀의 합각 지중식 기와지붕을 가진 단층 건물이다. ㄷ자형의 평면형과 넓은 수평 방향의 창 등에서 서양 건축적 장식을 나타내는 한편 지붕과 각 기둥의 머리 부분에 전통적인 일본풍 건축을 의식한 의장이 시공되어 있다.

이 건물이 건설될 당시 아이치현은 전국 굴지의 양잠 현으로 현재의 중심 시가지 주변은 니시미가와 지방 북부의 고치거래의 중심지로서 번창하고 있었다. 고채병 예방을 위해 누에고치 검사와 고치의 품종 개량에 관한 연구 등을 행하는 기관이었던 잠업 취급소로서 이용되었던 이 건물은 도요타 시역이 양잠으로 번영했던 시기를 떠올리게 하는 몇 안 되는 유산중 하나이다. 또한 이 건물은 도요타 시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철근 콘크리트조의 건축물이면서 이 지역에 있어서 최초의 철근 콘크리트조의 건축 양식을 현재에까지 전하고 있다.

도요타시 근대산업유산발견관은 시민의 교양, 학술 및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문화재 시설이다. 시설의 목표로서는 근대의 산업과 시가지의 변천과 생활 소개를 통해 도요타시의 특색을 발견하는 장, 사람과 정보의 교류의 장, 시내에 있는 근대 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도모하는 장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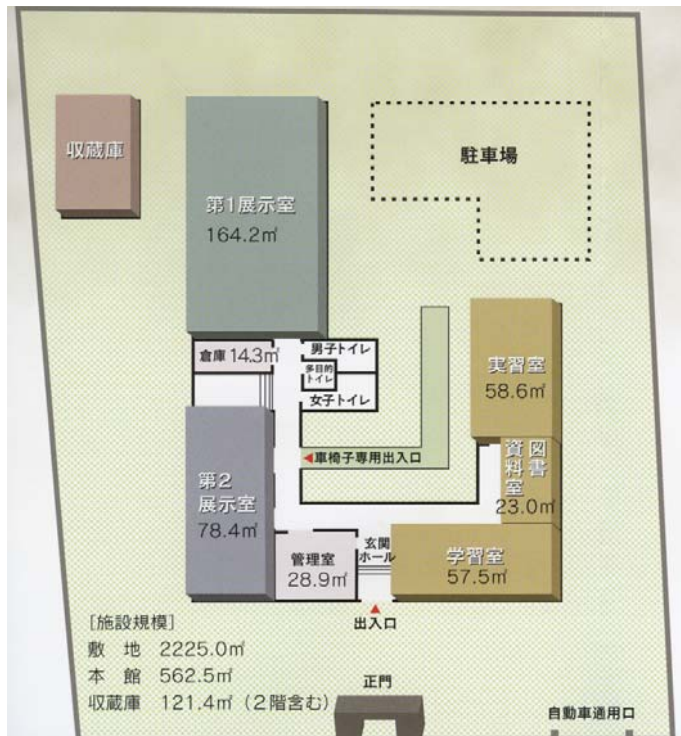


△발견관 내부전경(출처: 안내팸플렛)



△잠업취급소 당시 내부
(출처: 안내팸플렛)

근대산업유산발견관에서 취급하는 자료는 도요타시의 메이지부터 쇼와 34년경 까지 ‘근대산업유산’, ‘근대화 유산’, ‘시가지의 변천과 근대의 생활에 관한 자료’, ‘그 외 상기에 관련된 자료’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상시 전시(도요타의 근대 건축·마을의 변천·다실의 풍경)와 기획전시, 체험 강좌와 강연회 개최, 근대 유산에 관한 정보 제공과 현지 견학 등의 안내, 홍보 보급 활동 등이다. 또한 도요타시의 근대관련 자료와 전시 등에 관한 안내도 수행한다.



△배치도(출처: 안내팸플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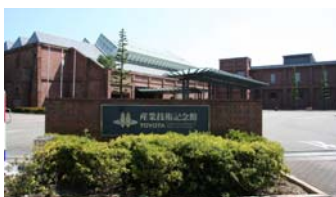
■ 도요타 산업기술기념관



△기념관 전경

개수보존사례

소재지 : 나고야시 니시쿠
 노리다케신마치 4초메
 1번 35호
 용도 : 산업시설 ⇨ 전시시설
 구조 : 벽돌조
 규모 : 지상1층,
 대지면적 41,597㎡,
 건축면적 26,846㎡,
 전시장면적 14,133㎡



△기념관 정문



△기념관 주출입구

산업기술기념관은 도요타그룹 13개사 공동으로, 도요타그룹의 발
 생지인 구 도요타방직 본사공장터에 남겨져 있던 건물을 귀중한 산
 업유산으로 살리기 위해 설립한 것이다.

도요타그룹은 자동직기를 발명한 도요타사키치와 장남 도요타키이
 치로가 시작한 방직기계와 자동차 제조에 그 뿌리를 두고 만들어진
 그룹이며, 연구와 창조의 물건 만들기 정신으로 보다 경제와 사회발
 전에 기여할 것을 지향해 왔다.

최근 생산활동의 고도화에 따라 ‘물건만들기’ 공정을 볼 기회가 줄
 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차세대를 책임질 젊은 세대에게 ‘연구와 창
 조’와 ‘물건 만들기’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산업기술기념관
 을 설립하였다.

기념관 입구 로비에는 환상직기와 기념실을 배치하고 있으며, 섬
 유기념관에는 방직·직조 기계기술의 기본 및 섬유기계 기술의 변
 천을 보여준다. 방직도구에서 기계까지 전시하고 있다.

금속가공 기술의 재현관에서는 주조·단조·절삭의 과정을 단계별
 로 보여주고 있다.

자동차관은 자동차의 구조와 구성부품, 창업시부터 현재에 이르는
 자동차 기술과 생산기술의 변천을 보여준다. 도요타그룹의 대표차종



△자동차관



△섬유전시관 전경

을 전시하고, 기술개발 관련사항과 생산기계를 전시하고 있다.

재료시험실 · 시험제작공장은 자동차 창업당시의 공장을 재현하고 있다.

창업공장은 도요타자동직기 창업당시의 공장을 부분 이전하여 복원해 놓았다.

테크노랜드는 초대형지레, 인력 발디딤차 등을 설치하여 기계의 원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도요타그룹관은 다이쇼(大正)시대의 사무소 건물에서 도요타그룹의 역사를 소개한다.

도요타상회 사무소는 도요타사키치가 거주하면서 발명에 힘쓰던 건물이다. 1905년에 나고야시에 세워진 건물을 현재의 위치로 이전 복원하였다.



△동력의 정원



△도요타그룹관



△도요타상회 사무소

■ 나고야 연극연습관 아크테논



△배면



△아크테논 정면

개수보존사례

소재지 : 名古屋市 中村区 稲葉地町
1丁目47番地
용도 : 산업시설 ⇨ 문화시설
건립년 : 1937년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대지면적 1,763㎡,
건축면적 937㎡,
연면적 2,996㎡
공사기간: 1994.10~1995.11
개관 : 1995년 12월 1일

나고야 연극연습관 아크테논(名古屋演劇練習館アクテノン)은 연극을 중심으로 한, 무대 예술의 연습 전용시설이다. 이 건물은 1937년에 이나바지(稲葉地) 배수탑으로 건설되었고, 1965년~91년까지 나카무라(中村) 도서관으로 사용되었다. 1982년에 일본건축학회로부터 전쟁전의 건축학적으로 중요한 건물의 하나로서 선정되었다. 그리고 1995년에 당시의 외관을 가능한 한 살린 개수를 하여, 연극연습관으로서 새롭게 바뀌었다.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풍의 건물은 연극을 시작으로, 음악,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연습에 사용되도록 설비가 갖추어져 있다.



△연습실



△도서관

■ 구라시키 아이비 스퀘어 (倉敷アイビースクエア)



△내부 광장(출처: 안내팸플렛)

개수보존사례

소재지 : 岡山県倉敷市本町 7 - 2
 용 도 : 산업시설 ⇨ 숙박시설
 건립년 : 1889년



△전체 조감도(출처: 안내팸플렛)



△호텔내부(출처: 안내팸플렛)

구라시키 공장 건물들은 1889년에 준공되어 공장 건축의 표본이 되었다. 준공후 다이쇼 초기까지 증개축을 거듭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공장 건물중 준공당시의 원형은 한 쪽 벽밖에 없지만, 전체적으로는 메이지 시대의 것이 많이 남아있다. 돌을 깬 바닥과 아이비가 어우러진 영국식 쌓기의 벽돌 벽과 기와지붕, 톱날형 지붕은 메이지 시대의 공장 분위기를 잘 전하고 있다.

이러한 구라시키 방적 공장을 1974년 빨간 벽돌과 넝쿨이 어우러진 호텔로 개축하였다. 또한 다이쇼(大正) 초기에 세워진 공장 강당은 다목적 홀 「프로랄 코트(フローラルコート)」로 개조하였다.

넓은 부지에 배치된 메이지(明治) 및 다이쇼(大正) 시대의 공장건물은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의 조화’, 활기찬 광장·문화 시설·수제 공방·각종문화행사가 있는 호텔이 되었다.

아이비 스퀘어는 공장을 빨간 벽돌 벽에 녹색의 넝쿨이 어우러진 광장이라는 뜻이다. 공장 건물의 일부를 개조하여 중정 광장을 만들었다.

현재 이 장소는 관광객의 쉼터가 되어있고 광장을 둘러싸듯이 배치되어 있는 공장 건물을 재이용한 호텔, 전시장, 공방 등에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다.

■ 삿포로 팩토리(삿포로 개척사 맥주양조소, 구 삿포로 맥주회사 공장제조실)



△건물 전경1(출처: 안내팸플렛)

개수보존사례
 소재지 : 札幌市中央区北2条東4丁目1-2
 용도 : 산업시설 ⇨ 상업시설
 건립년 : 1876년
 구조 : 벽돌조
 규모 : 지상2층
 소유자 : 삿포로 비르(주)



△건물 전경2

삿포로 팩토리는 일본 맥주 산업의 발상지이다. 일본 최초로 일본인에 의해 맥주가 만들어진 곳이다. 1876년 현재의 지역에 개척사 맥주양조소(札幌開拓使麦酒醸造所)가 설치되었다. 개척사 맥주 양조소(開拓使麦酒醸造所)의 건설·사업 책임자는 무라하시 히라나리(村橋久成)였다. 이것은 당시 일본 최대의 근대 공장으로 1993년 벽돌관으로 재생한 적벽돌의 건물군의 원형이 된다.

삿포로 개척사 맥주 양조소는 옛날부터 「맥주 공장의 심볼」로서 사랑을 받아왔으며, 현재도 「삿포로 팩토리 랜드마크」인 검고 큰 굴뚝과 함께 다이쇼(大正)시대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벽돌 건물이다.

기따3조 길에 면해 길게 늘어선 장대한 모습은 예전 삿포로의 핫카이도 본 청사를 정면으로 하는 메인 스트리트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

내부에는 실제로 맥주를 만들고 있는 양조 설비 외에 맥주 양조에



△판매장(출처: 안내팸플렛)



△복도



△기존벽의 보존

관한 패널, 맥주 양조소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귀중한 사진 자료 등도 전시하고 있다.

서측에 큰 맞배지붕의 건물은 구 술저장 발효실이다. 준공시에는 보 사이가 넓은 단층 1동의 건물이었지만 1909년 2층을 증축한 맞배 2연속 지붕으로 개조, 그 후도 증축을 거듭하여 장대한 건물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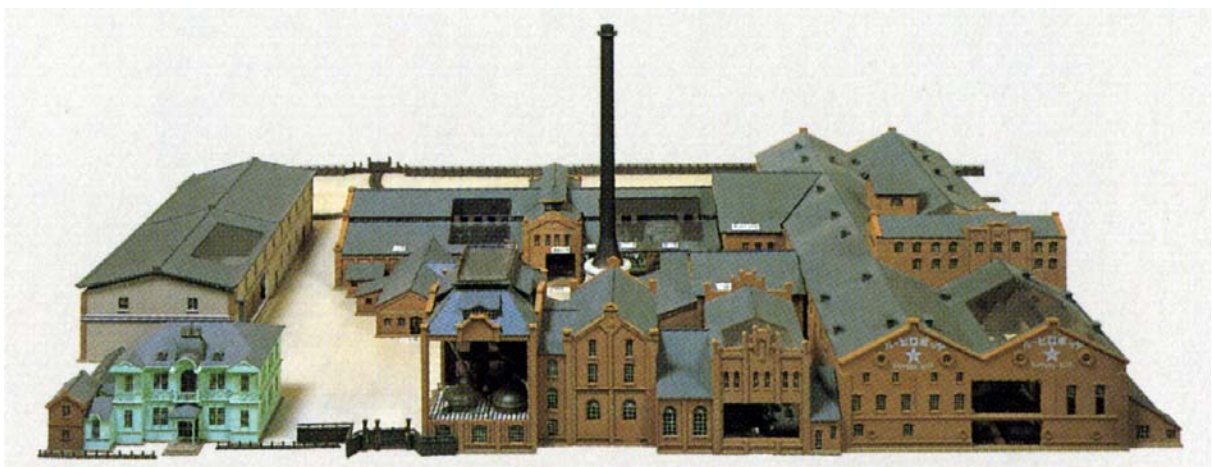
거대한 맥주 통을 옆으로 누인 길이45m의 벽돌 터널은 그대로 맥주홀로서 활용. 긴 시간을 건디어 온 빨간 벽돌 벽이 개개의 가게에 활용되어, 소박한 따뜻함을 느끼게 한다.

동측의 2동은 구 기관실과 제조실. 기관실의 측벽 장식을 보이는 박공부분 벽은 1915년의 개조시에 부가되었다.

1968년의 구시로 오끼(十勝沖)지진으로 손상을 입었지만 벽돌관으로 수복 시에 복원, 동쪽 끝의 제조실은 도로 확장 관계로 정면의 벽을 수 미터 후퇴 시켰지만, 그래도 창건시의 소박한 모습을 그대로 남기고 있다.

굴뚝 광장에 면한 작은 건물은 보리를 찌는 구 가마장(기관실) 강철제의 굴뚝은 1915년, 가마장 증개축시의 것이다. 1998년봄, 다시 이 건물은 120년 전의 느낌을 재현하는 미니 블루와리로서 재생되었다.

오오구라구미를 거쳐 이어진 삿포로 맥주 회사(삿포로 비르(주)의 전신)은, 메이지25년 새로운 양조소를 건설하여 이전하였다. 이 양조소는 현재 삿포로 맥주박물관으로 용도변경되었다.



△근대시기 삿포로개척사맥주양조소 전경(출처: 안내팸플렛)

■ 삿포로 맥주박물관



△초기 공장전경(출처: 안내팸플렛)



△맥주박물관 전경(출처: 안내팸플렛)

원형보존사례

소재지 : 札幌市東区北7条東9丁目
 용도 : 산업시설 ⇨ 전시시설
 건립년 : 1890년
 구조 : 벽돌조
 규모 : 지상2층
 소유자 : 삿포로 비르(주)

삿포로 맥주박물관은 삿포로 제당회사(札幌製糖會社)의 공장으로 1890년(메이지23년)에 건설된 것으로 1905년에는 삿포로 맥주의 제맥소(製麥所)로 개수되어, 맥주 공장이 되었다. 일본 유일의 맥주에 관한 박물관이다. 맥주에 관한 지식을 심화시킬 목적으로 1987년 7월에 박물관으로 개설하였다.

건물은 폭84m, 깊이17m나 되는 상당히 큰 것으로, 이러한 긴 몸체를 가진 건물은 삿포로 시내에서도 드문 것이다. 건물의 뒤에 보이는 긴 굴뚝은 높이가 49m이다. 건물의 벽에는 아치가 있는 위로 긴 오르내리창이 리드미컬하게 이어져 있다. ㄱ지붕의 군데군데에는 지붕창이 있어서 유럽의 분위기를 느끼면서 홋카이도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건물 외관상부 붉은색 벽은 당시 관영 공장의 징표였다.

박물관내에는 1875년의 개척사맥주(開拓使麥酒) 창설시 부터의 귀중한 자료와 모형을 전시하고 있다. 최신의 전시, 영상 기술을 구사하여 맥주의 역사와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부지내의 맥주원(ビール園)은 삿포로 관광의 명소이다.

내부는 이전에 출구였던 곳으로 들어가서, 접수의 안내를 받아 엘리베이터로 3층까지 올라간다. 3층은 역사적인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다. 삿포로 공장에서 사용된 거대한 탕비솥(煮沸釜)을 끼고 슬로프를 돌아 2층으로 내려오게 되어있다. 2층은 예전의 간판과 포스터, 삿포로 맥주 브랜드의 변천과 텔레비전 광고등이 전시되고 있다.

1층은 시음이 가능한 오래된 큰 홀과 판매점이 있다.



△탕비솥(출처: 안내팸플렛)



△기념품 판매점
(출처: 안내팸플렛)

■ 하코다테 히스토리 플라자 가나모리 홀 (구 가나모리 창고 3호, 4호, 5호)



△하코다테 히스토리 플라자 야경

개수보존사례

소재지 : 函館市 末広町14-16
 용 도 : 산업시설 ⇨ 상업+전시
 건립년 : 1909년
 구 조 : 벽돌조
 규 모 : 지상1층



△정면부(출처: 안내팸플렛)



△내부 홀(출처: 안내팸플렛)

이 지역은 메이지 초기부터 선착장의 마을로 매립 조성된 곳으로
 서 일찍부터 화물, 창고, 조선소로서 발달해왔다.

가나모리(金森) 빨간 벽돌창고의 역사는, 초대 와타나베 구마시로
 (渡邊熊四郎)가 최초의 사업으로 가나모리 양물점(洋物店)을 개업한
 것으로 시작된다. 현재의 건물은 1908년부터 1910년에 걸쳐 가장
 번성한 시기에 2대째의 와타나베(渡辺)에 의해 건축되었다.

붉은벽돌을 이용하여 영식쌓기에 의한 벽은 항구의 전형적인 창고
 촌의 느낌을 그대로 전달해 준다.

1988년 창고로 사용될 당시의 외관을 유지하면서, ‘하코다테(函
 館)히스토리 플라자’로서 실내 공간을 획기적으로 전환했다.

새로 조성된 중앙의 전시 홀에서는 가나모리창고의 역사와 옛 창
 고에서 실제로 사용되었던 도구의 전시를 하고 있다. 또한 다목적
 공간으로 이용되는 중앙홀과 더불어 각종 사진전시를 위한 갤러리
 도 있다.

하코다테 히스토리 플라자에는 전시공간이외에 하코다테 비어홀과
 하코다테 낭만관, 웨건 숭, 천엔 공방, 수제 센베이점 등의 다양하
 고 풍부한 점포가 입점해 있어 많은 관광객들을 모으고 있다.

■ 오타루 운하와 오오이에 창고(大家倉庫)



△오타루 운하 전경

원형보존사례

소재지 : 小樽市 色内2丁目 3-11
 등 록 : 역사적건조물
 용 도 : 산업시설 ⇨ 상업+전시
 건립년 : 1894년(오오이에 창고)
 구 조 : 목골 석조
 규 모 : 지상1층



△가스등

오타루 운하는 1914년부터 23년까지 10년에 걸쳐 건설되었다. 어선의 정박과 하역을 위한 시설이었다. 번영하던 때의 상징물이 독특한 풍정을 자아낸다.

오타루 운하와 그 주변 석조 창고들은 이 도시의 모습을 결정지었다. 폭 작고 아름다운 운하, 그 주변을 걷게 만든 산책로, 그 사이로 고개를 맞댄 어물 창고들….

그러나 이 오타루가 어느 날 별안간 아름다워진 것은 아니었다.

오타루도 다른 도시와 다를 바가 없었다. 도시도 사람과 같아 떠오를 때가 있고 질 때가 있는 것이다. 한 도시가 번영하면 다음에는 쇠락이 오는 것이다. 그것은 지정학적 이유에서, 도시화의 물결에 밀려서이기도 하다.

오타루도 쇠락하는 도시가 되었다. 하물 하역을 인력이 아닌 트럭, 화차가 대신하자 운하와 창고가 용도 폐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빛을 발했다. 지역 업체, 그리고 전문가들이 함께 나선 것이다.

오타루 시는 1966년 들어서면서 옛것을 살리는 계획을 시작했다. 한편에는 운하를 매립해버리자는 주장도 있었다.



△운하주변 창고들



△화장실

‘오타루 운하를 보존하는 모임’ 이 시민운동을 개시했다. 삿포로, 도쿄에도 ‘오타루 운하 문제를 생각하는 모임’, ‘오타루 운하를 사랑하는 모임’ 이 각각 결성되었다. 그 일은 일본 국회, 문화청까지 움직였다.(<오타루 우리 거리>, 1979년 5월, 130~13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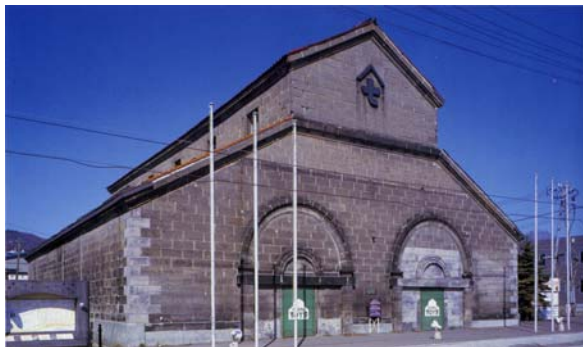
오타루 시는 다행히 운하를 살려놓고, 13년만인 1979년 그 운하와 주변 환경정비를 시작하여, 7년이 지난 1986년 2월에야 대체적인 오늘의 모습이 되었다.

운하를 따라 아름다운 산책로가 조성되고 바닥은 화강석을 깔았다. 운하 주변 산책로에 깔린 돌만 약 60만개라고 한다. 거리에는 33개의 가스등을 달았다.

운하와 더불어 1980년대에 이미 이곳 창고 중 17동 정도를 ‘역사적 건조물’ 로 등록시켰다. 창고가 문화재가 되었다. 1894년 세워진 오오이에 창고도 그중 하나이다.



△오오이에 창고 좌측면



△오오이에 창고 전경 (출처: 小樽再生フォーラム, 『小樽の建築探訪』, 北海道新聞社, 札幌, 44쪽, 2001)

오오이에 창고는 이시가와현(石川県) 출신의 해상무역상인 오오이에 시치헤이(大家七平)에 의해 건축되었다. 규모가 매우 큰 고시야네(越屋根)가 특징이다.

창고는 방치되었다가 1992년에 양철 완구 박물관 오타루 토이즈로 바뀌었다. 입구의 이중 아치 오른쪽에는 새로운 연석이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트럭의 하역 작업으로 넓혀서 사용하던 것을 복원한 것이다.

큰 규모와 특징있는 모습은 오타루 운하(運河)지구의 석조 창고를 대표하는 것의 하나이다. 2001~2002년에 외벽과 지붕 기와를 일부 수복했다.

■ 오타루시 박물관



△오타루시 박물관 전경(출처: 小樽再生フォーラム, 『小樽の建築探訪』, 北海道新聞社, 札幌, 42쪽, 2001)

원형보존사례

소재지 : 小樽市 色内2丁目
1番20号
지 정 : 역사적건조물
용 도 : 산업시설 ⇨ 전시시설
건립년 : 1893년
구 조 : 목골 석조
규 모 : 지상1층

1893년 가가(加賀)의 상인 西出孫左衛門 西谷庄八의 두 사람에 의해 구축된 이 창고는 외벽에 삿바로와 오타루(小樽)의 연석 지붕에는 若狭(후쿠이현, 福井県)산의 기와와 샤치호코(シャチホコ)가 올려져 있다. 이 샤치호코는 높이 1.5m 중량 120kg의 기와로 머리부분에는 제작자인 四方吉次郎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또한 중정을 가진 일(日)자형의 창고로 좌우대칭의 균형미를 갖추고 있고 현존하는 목골석조 창고군의 대표작으로서 역사적 건조물로 지정되어 있다.

오타루시 박물관은 1985년 9월부터 구 오타루 창고의 일부를 재이용하여 이전 개관하고 여러가지 보급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박물관 내부의 오타루 시가지를 재현한 코너와 오타루에서 서식하는 동식물, 자연을 소개하는 코너도 있다.



△박물관 내부



△오타루시 박물관 전체 모형

2) 프랑스사례

■ 세느강의 7월 14일 극장 (Cinéma 14-juillet-sur-Seine)



△스탈린그라드 광장에서 본 옛 건물



△현재건물

이축보존사례

소재지 : 파리 19구 8-14
quai de la Seine
현용도 : 극장
구용도 : 전시장
건립년 : 1872년 준공,
1996년 개축
구 조 : 철골조
규 모 : 지상1층
개수설계: 프레데릭 나뮈르
(Frédéric Nam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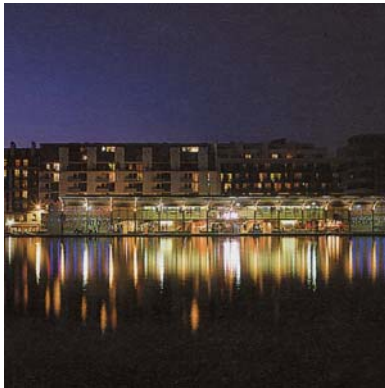
△개축 전 건물

극장은 세느강의 생마르탱 운하 옆에 위치한다. 이 건물은 본래 1872년 파리 만국 박람회 위해 건조된 전시장의 일부이었다. 박람회 이후 분해되어 라빌레뜨 정박지로 이축된 후, 창고로 이용되었다. 1985년에는 배를 보관하는 창고로 바뀌었다가 1996년에 건축가 프레데릭 나뮈르(Frédéric Namur)에 의해 극장 건물로 개축되었다.

건축가는 100년이 넘는 만국박람회의 흔적을 그대로 남기기 위해 철골 뼈대를 그대로 보존하였다. 극장으로 개수하며, 유리로 외부를 마감하고, 내부에 목재와 금속재료를 사용함으로써 현대적인 모습으로 재구성하였다. 영화 상영관외에 전시장과 카페·식당이 있다.

초기의 구조물의 양 끝부분에는 상영관의 볼륨이 약간 돌출되었는데 그 표면에는 영화와 관련된 유명 문장들로 장식되어 있다.

기존 건물은 직사각형으로 운하를 따라 길게 배치되었다. 건물에 상영관과 전시 공간을 양립시키기 위하여 운하 쪽으로 긴 복도를 내었다. 복도는 극장에 개방감을 부여한다. 식당과 카페는 외부 테라스를 조성하고, 건물의 폭 전체를 사용하고 있어 진입도 편하고 개방적이다. 운하 맞은편에는 다른 MK2극장이 있다. 같은 형태와 크기를 가지며 공간구성만 약간 다르다. 10분 간격 운행하는 배를 타고 갈수 있다. 극장표가 있으면 무료이다.



△야경



△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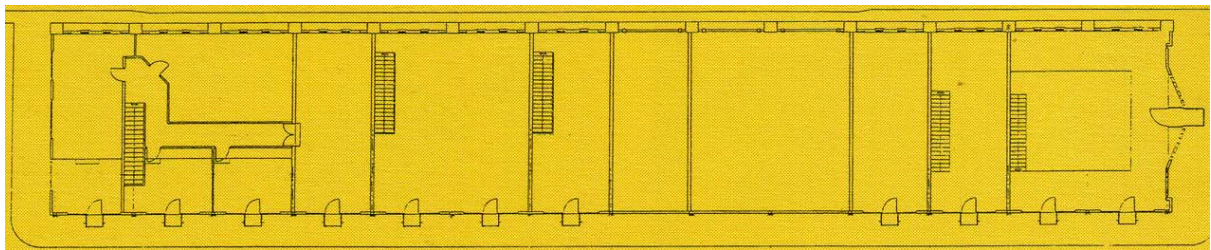
△카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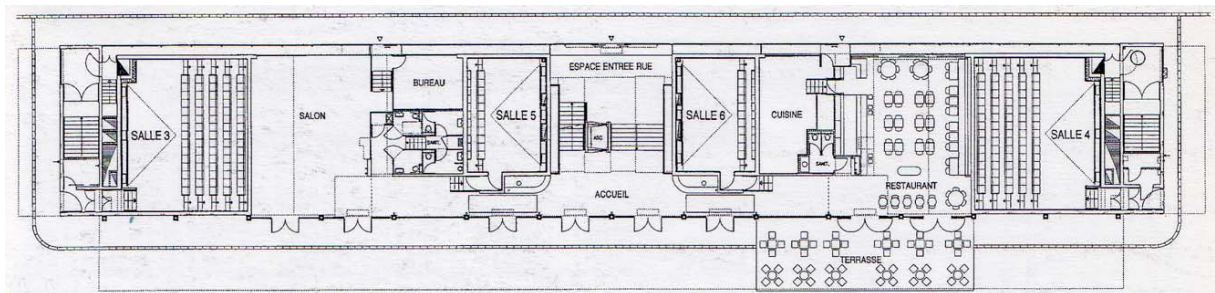
△야외테라스

이 극장은 주변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협소한 공간이었지만, 운하 건너편으로 극장을 확장하고, 운하변의 넓은 공간과 운하마저도 극장의 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구성은 건물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도 문화시설로서 커다란 활력을 주고 있다.

특히 해가 진 후 운하에 비치는 조명은 색다른 야경을 연출하고, 다소 음침한 느낌의 주변 지역까지 안전감을 주는 커다란 역할을 한다.



△창고로 쓰일 당시의 평면



△현재 평면

■ 라 빌레뜨 (Le quartier de la Villette)



△가축 도살장으로 쓰이던 당시의 전경

파리 라 빌레뜨 지구는 파리 외곽의 독립된 시였던 곳으로 1860년에 파리 시에 귀속되었다. 이곳에는 1867년에 건설된 가축 도살장이 있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 현대적인 시설의 새로운 도살장을 재건축하였다. 그러나 점차 육류의 냉장운반이 수월해지고, 더 이상 주거지 가까이에 위치할 필요성이 없어지자 1974년에는 이 새로운 도살장도 문을 닫게 되었다.

프랑스 정부는 이곳에 당시 부족했던 파리 동부의 공공시설을 건축하고, 파리시와 외곽을 잇는 북동쪽의 새 진입구를 만들고자 계획하였다.

1976년 과학단지(Cité des Sciences)를 위한 공모전이 발표되었고, 1983년에는 버나드 츄미(Bernard Tsumi)가 50헥타르가 넘는 방대한 지구의 도시계획부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지구내의 리노베이션된 주요 시설물로는 과학산업단지(Cité des sciences et de l'industrie), 그랑드 알(la Grande Halle), 파리 빌레뜨 극장(Théâtre Paris-Villette), 라 빌레뜨의 집(Maison de la villette), 라 빌레뜨 공원, 공연장(le Zénith), 음악 단지(City de la musique) 등이 있다.

이 계획안을 통해 여러동의 기존 건물들이 보수·개수되어 재사용되고 있다.

■ 라 빌레뜨 - 라 그랑드 알 (La Grande Halle)



△현재의 북쪽 입면

개수보존사례

소재지 : 파리19구 Place del
a Fontaine aux Lions
현용도 : 전시 및 공연장
구용도 : 우시장
건립년 : 1867년 준공,
1983년 개축
구 조 : 철골조
규 모 : 지상1층
설 계 : 줄 드 메랑돌
(Jules de Merindol)
개수설계: 라이첸 & 로베르
(Reichen et Robert)
소유자 : 라빌레뜨 공원
그랑드알 공공시설



△시장으로 쓰이던 당시의 전경

파리 북동쪽 라 빌레뜨 공원 내에 있는 이 건물은 원래 우시장으로 사용되던 건물이었다. 19세기의 철골조 건축물의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주요 건물들 중의 하나이다. 날렵하고 우아하게 정렬된 철골조와 섬세하게 디자인된 상세를 살펴볼 수 있다.

1983년 문화·상업행사 등을 위한 다목적 건물로 리노베이션되었다. 건물 개수시 원래의 구조적 특징을 보존하면서도 혁신적인 공간을 창출하였다.

지하층은 서비스 공간이며, 1층의 3분의 1 크기이다. 이곳에는 전시를 준비하는 장소와 아뜰리에·기계실 등을 두었다. 1층에는 바·카페·상점·공공 아뜰리에·소규모 회의실·전시실 그리고 관리실 등 방문객들과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는 기능들로 구성된다. 중앙부의 넓은 홀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200㎡ 크기의 바닥판 3개가 북쪽의 외부로 연장될 수 있도록 하여 필요시 전시장의 면적을 넓힐 수 있게 하였다. 이 바닥판은 여러 개의 다리로 연결될 수 있어 무대장치나 천장의 천막 등을 관리할 때도 사용된다.



△공사 후의 모습



△실내에 설치된 다리, 건물의 축을 따라 옮길 수 있다.



△공사 중(지하 구조물 추가)



△진행 중인 공사의 투시도

건물내부의 화장실과 같은 서비스 기능들은 지하와 발코니의 수직 동선 상에 배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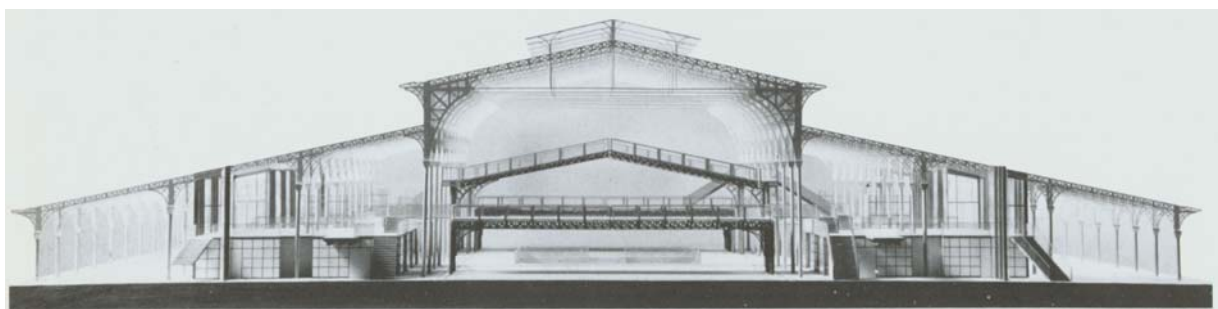
입면계획의 기본 방향은 기존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건물 외관은 모두 유리로 마감되었으며, 홀의 양쪽 날개 부분에서는 유리면이 기둥의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 따라서 이 건물의 지붕 아래 외부 공간이 생기도록 하여 내부와 외부의 중간 성격을 갖는 공간을 두었다.

투명한 유리를 통해 유입되는 빛으로 주요 공간과 구조들이 더 잘 드러나도록 계획되었고, 자동 덧창과 블라인드를 통해 빛이 조절된다.

건축물 내부의 색은 전시회가 있을 상황을 고려하여 구조물은 회색으로, 새롭게 첨가된 부분은 파란색 바탕에 진한 붉은 색을 사용하였다. 나무 바닥판 또한 회색빛 도는 갈색으로 처리되었다.

1983년에 다목적 전시, 공연장으로 개수된 후 20여년이 지난 현재 이 건물은 보다 더 현대적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공사 중이다.

이번에도 공모전을 통하여 건축가 라이센 & 로베르가 선정되었다.



△1983년의 단면 모형

■ 라 빌레뜨 - 과학 산업 단지 (Cité des sciences et de l'industrie)



△주 진입구가 있는 북쪽 입면

개수보존사례

소재지 : 파리 19구
 현용도 : 박물관
 구용도 : 도살장 식육 판매장
 건립년 : 1969년 준공
 1983년 개수
 구 조 :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개수설계: 아드리안 펜질베
 (Adrian Fainsilber)

과학 산업 단지는 라 빌레뜨의 주요 건물중 하나로서, 북쪽 진입구의 전면에 위치한다.

도살장의 식육 판매장이었던 건물은 1974년 폐쇄되었다. 이후 공모전을 통하여 라 빌레뜨의 새로운 과학 박물관으로 새로 단장되었다.

건물 개수당시 에펠탑에 버금가는 무게인 7000톤의 폐기물을 들어내는 등 난공사였지만, 기존 구조부인 화강암으로 마감한 콘크리트 기둥과 파란색으로 도장된 지붕은 보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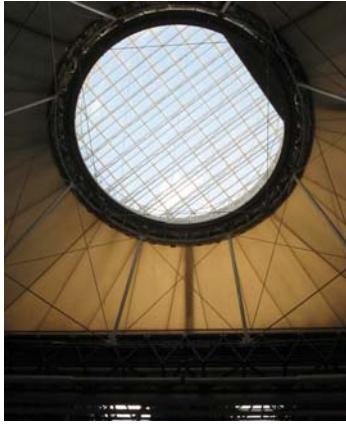
△주 진입구가 있는 북쪽



△남쪽의 개방적 입면



△중앙홀의 에스컬레이터



△지붕으로부터 빛을 끌어들이는 천창

건물 주위로 지하 2층 깊이의 땅을 파 물을 채우고, 과학관의 출입을 중앙의 다리를 통과하도록 함으로써 기념비적인 성격을 강화하였다.

북쪽의 입면은 다섯 개의 거대 기둥과 지붕의 금속 구조 그리고 은빛의 벽면이 주는 느낌으로 다소 폐쇄적이나 반대로 남쪽 입면은 세 개의 커다란 투명한 온실로 공원을 향해 개방성을 부여하였다.

현재 이곳에서는 과학을 주제로 다양한 전시를 관람하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상설 전시관에서는 우주·자동차·항공·에너지·인류·수학 등 과학 기술의 기본적인 각 분야를 체험해 볼 수 있다. 기획 전시관에서는 자체 프로그램에 따라 주로 과학이 사회 경제 또는 예술 분야에 미치는 영향 등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기획된다. 이 외에도 우주체험관, 수족관, 어린이를 위한 특별 전시관, 영화관, 도서관 등이 있고 연중 프로그램으로 강연회와 토론회가 끊임 없이 열리고 있다.

개수보존사례



△파리 빌레뜨 극장

■ 파리 빌레뜨 극장

파리 빌레뜨 극장(Le théâtre Paris-Villette) 그랑드 알의 서쪽에 위치하며, 옛 가죽거래소를 개수한 건물이다.

건물 정면의 계단으로 올라가면 유리벽의 안내 홀이 있고, 그 안쪽으로 돌아 들어가면 공연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화장실과 계단 난간 등에서 옛 흔적을 가늠할 수 있다.

개수보존사례



△라 빌레뜨의 집

■ 라 빌레뜨의 집

과학산업단지의 북쪽 입구쪽에 있는 라 빌레뜨의 집(Maison de la Villette)은 수의사들이 사용했던 건물로 1867년 지어졌다. 당시에는 동물의 내장, 기름을 다루고, 수의사들의 실험실이자 정육점 조합으로 사용되었으나, 1987년 개축되었다.

현재는 라 빌레뜨 지구의 역사에 관련된 전시회나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다.

■ 나이프 아트 미술관 (Musée d'art Naïf)



△미술관 전경

개수보존사례

소재지 : 파리 18구 2,
rue Ronsard
현용도 : 미술관
구용도 : 시장
건립년 : 1868 준공,
1986년 1차개수
1990년 2차개수
구 조 : 철골조+조적조
소유자 : 파리지

나이프 아트 미술관은 원래 1868년에 시장으로 지어진 건물이다. 1900년에는 시립 체육관으로 바뀌고 그 일부는 경시청의 주차장으로 쓰였다. 1986년에는 주차장으로 쓰이는 부분이 건축가 끌로드 샤프펄티에와 자끄 발랑탕의 의해 나이프 아트 미술관으로 개수되었다. 그 이후 1990년 까릴 부부가 다시 정비를 했다.

미술관은 시장으로 건축되어 기둥간격이 넓고, 내부 공간이 넓어 여러 가지 용도로 개조되는 것이 가능했다.



△1900년



△1980년



△2006년



△중앙 계단



△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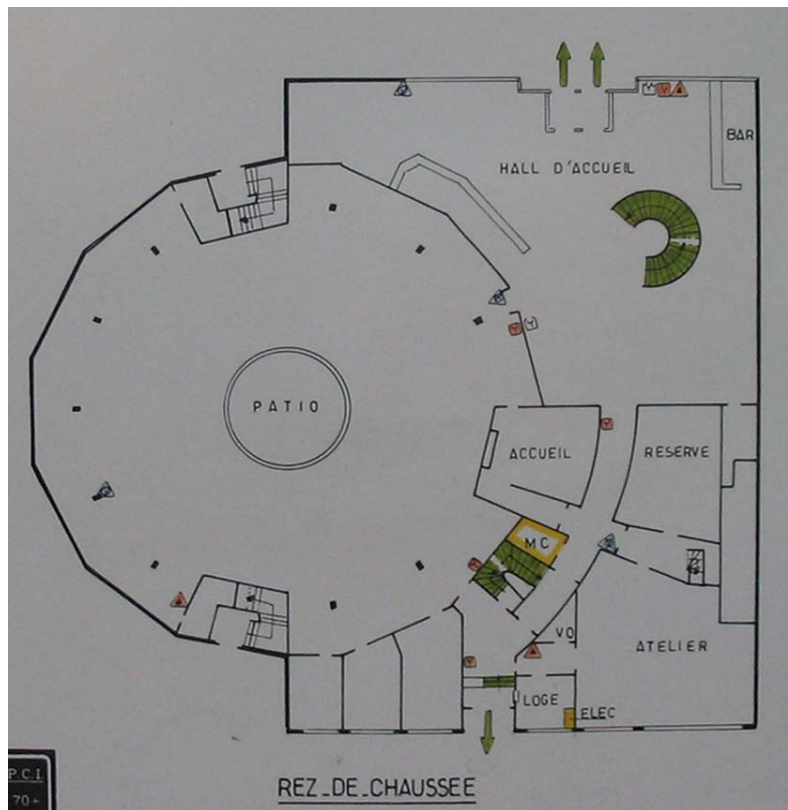
△상층부 전시장과 천창

건물의 구조는 19세기 말에 건축된 여느 시장 건물들처럼 돌과 벽돌로 구축한 기반위에 철골 구조로 건물이 구성된다. 건물은 천창을 통해 내부로 빛이 유입된다. 건물의 외부 철물에는 전체적으로 꽃 모양으로 장식되어 있고, 기둥의 주두 부분도 섬세하게 디자인되어 있다.

입구를 통해 들어가면 먼저 원형계단 주변으로 카페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안내소와 서점이 있다. 특히 이 서점은 동화책과 소품들이 많아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좋다. 엽서와 카드 판매대도 구비되어 있다.

중앙의 원형 계단은 전시 공간과 서비스 공간을 구분하면서, 지하에서 2층을 잇는 주요 통로가 된다.

미술관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건물의 규모가 한눈에 파악이 되는 정도이나 중층을 두어 공간을 나누고 미술관의 전시 기능을 충족시키도록 적절히 시선을 차단하고 있다.



△1층 평면

■ 개인 주거 (Appartement dans un réservoir)



△전경



△주거의 기준층

개수보존사례

소재지 : 파리 7구 avenue Rapp
 구분 : 근대 건축
 현용도 : 개인주거
 구용도 : 시계탑, 전망대
 저수탱크
 구조 : 석조, 철골조
 규모 : 82㎡
 건립년 : 19세기
 2000년 개축
 소유자 : 모니카 도나티
 (Monica Donat)



△건물상부의 탑

본 개인주거는 옛 급수탱크를 개조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매우 특이한 사례이다.

급수탱크가 있던 본래의 건물은 오랫동안 루브르의 부속기관으로 쓰이던 19세기 주거 건물군중 일부이다. 건물군중에는 탑과 전망대가 있다. 탑의 8, 9층 높이에 물을 저장하던 탱크가 있었다.

2000년, 건축가는 기존의 철골 구조를 그대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도시를 360도 돌아볼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다. 이 탑에서는 전망이 매우 좋아, 에펠탑·앵발리드의 돔을 바라볼 수 있다.

탑의 8층에는 탑에 부속된 공간과 주 건물의 다락방 층이 연결된다. 이곳에 약 60㎡크기의 주거 기준층이 있다. 방 두 개와 화장실 두 개, 그리고 공용 공간이 있다. 기준층과 같은 높이의 탑 내부에는 부엌과 식당 그리고 작은 거실이 있다. 거실의 사방으로 배치된 4개의 작고 긴 창문을 통해 파리지 전경을 화폭을 통해 보듯 바라볼 수 있다.

8층부터 9㎡의 면적에 층고가 6m인 공간이 3개층 더 있다. 10층 시계탑에도 4방향으로 창이 나있다. 시계바늘을 통해 파리를 바라볼 수 있다. 한층 위에는 경사 지붕이 있는 다락방이다. 이곳에는 작은 여닫이창들도 새로이 정비되었다.

■ 에스빠스 블랑 망토 (Espace d'animation des Blancs Manteaux)



△정면



△체육공간으로 쓰이는 내부

개수보존사례

소재지 : 파리 4구 48, rue
vieille 여 temple
현용도 : 다목적 문화예술
체육 공간
구용도 : 블랑 망토 시장
건립년 : 19세기 초,
1992년 개수
구 조 : 석조, 철골조
소유자 : 파리지

본 건물은 커다란 아치문을 통해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불투명한 문으로 막혀 있던 곳에 유리문을 만들어 개방적인 공간을 만들었다. 전시회, 공연, 체육 등 갖가지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주변의 아기자기한 카페와 상가 사이에 위치해 다목적 공공시설로 입지가 매우 좋다.

에스빠스 블랑 망토는 19세기 초에 건축되어 시장으로 사용되던 건물이다. 1992년에 렌조 피아노의 사무실에서 일했던 스위스 건축가에 의해 현재의 모습으로 개조되었다.

건물은 출입구 위의 대칭을 강조해주는 석재 문양은 물론, 양 측면도 서로 같은 입면으로 다소 무거운 느낌이다.

내부 공간은 출입구에 집중된 사무실과 계단, 엘리베이터, 중층의 사무실을 제외하고는 모두 열려 있는 하나의 공간이다. 석조와 철골의 기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새로이 첨가되는 부분도 이와 맥락을 같이해 가벼운 느낌의 철골 구조를 쓰고 있다. 석재의 밝은 색과 대비되어 철골 구조가 강조되고, 철골로 받쳐지는 지붕의 천창과 벽의 상부를 따라 창이 나 있어 빛이 유입되어 경쾌한 느낌을 준다.

긴 시간의 흔적을 지워내지 않고, 새것처럼 만든 느낌이 드는 건물이다.



△정면 야경

5 근대마을 및 거리조성

1. 일본사례

■ 메이지무라(明治村)



△메이지무라 내의 이축·복원된 건축물 원경

이축보존 · 복원사례

소재지 : 아이치현 이누야마시
1번지 (愛知縣 犬山市
内山 1番地)
용도 : 근대마을(건축박물관)
건립년 : 1965년
규모 : 면적 약 1,000,000㎡
전시건물 67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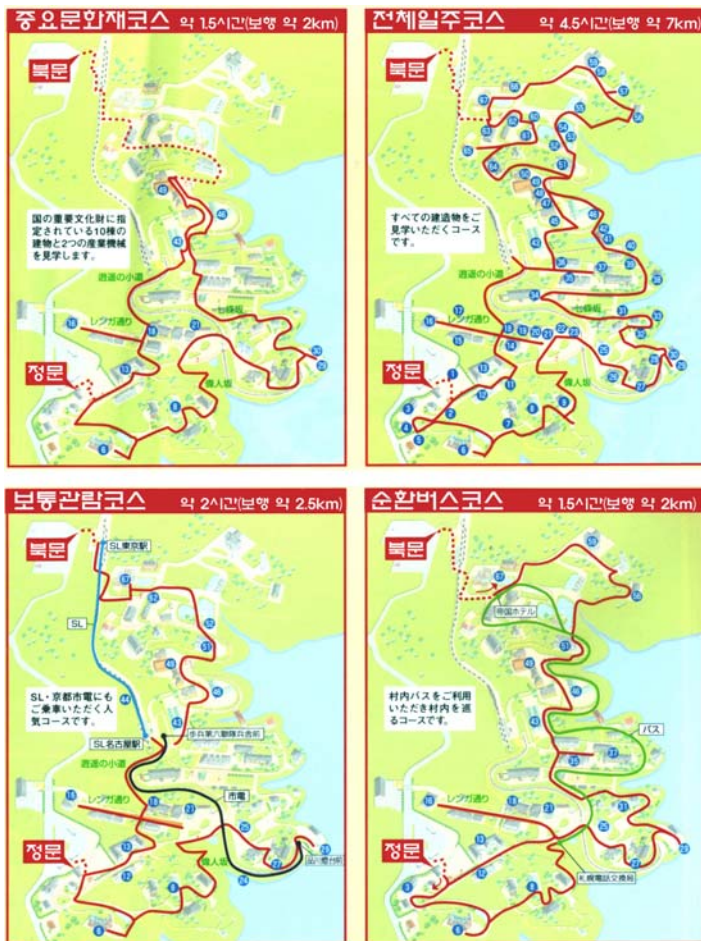
메이지무라(明治村)는 메이지시대(明治時代, 1868~1912)의 건축물을 이축·복원하여 일본의 근대화 초기 생활상을 재현해놓은 야외박물관이다. 1965년 3월 18일 일본 아이치현(愛知縣) 이누야마시(犬山市) 개촌하였다.

일본인 건축가 다니구치(谷口吉郎, 1904~1979)와 나고야 철도주식회사 회장 쓰치가와(土川元夫)가 협력하여 조성한 새로운 타입의 야외박물관으로 도심에서 열리는 건물의 리스트를 작성해, 가치 있는 건축물들을 차례로 이전·복원하겠다는 사업계획을 토대로 시작되었다.

개촌이래 해마다 꾸준히 건축물의 보관을 거듭하여 현재 약 100만㎡의 부지위에 9개관을 중심으로 5개 권역별 테마공원을 조성하였다.



△메이지무라 정문(좌)과 순환버스(우)>



△메이지무라 관람코스 안내지도
(자료 : 메이지무라 안내 팸플릿)

10동의 일본 중요문화재와 1동의 아이치현유형문화재를 포함한 총 67여동의 건축물 및 구조물을 이축·복원해 놓고 있으며, 도로경관 및 조경, 가구 및 조명 등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모습을 재현하기 위한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 건물의 소재지는 일본 전역은 물론이고, 멀리는 시애틀, 하와이, 브라질에 이르고 있다.

근대건축물들은 이축·복원에만 그치지 않고, 건축물 관련자료를 전시·판매함과 아울러 교회는 결혼식장으로, 우체국·상가·철도시설 등은 기존의 기능을 유지하고, 기타 건축물들도 전시실 및 판매점 등으로 이용함으로써 수익창출은 물론, 현실감 있는 역사체험의 장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어 이제는 일본의 근대건축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지방경제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명치촌 식당



△궤도열차



△기념품 판매점



△시나가와 등대

박물관의 운영에 있어, 당시의 기관차·전차·버스·마차 등을 재현, 실제로 운행함으로써 관람객들의 이동시 편의제공 및 이색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수익성도 높이고 있으며, 관람코스외의 경우, 소요시간 및 관람내용별로 크게 4단계로 구분하여 보다 풍요롭고 다양한 체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축·복원된 건축물의 종류는 정부청사·공공시설·주택·교육연구시설·상업시설·병원·종교시설·기타동산문화재(기관차·자동차 등) 등으로 구분되며 근대기의 모든 유형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메이지무라에 현재까지 조성된 근대건축물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구역	건물명		
제1구역	1. 제8고등학교 정문 2. 오오이 고기전문점 3. 미에현 보통사범학교, 구라모치 초등학교 4. 황궁 경찰서 별관	5. 아카사카리큐 정문 초사 6. 성 요하네 교회당 7. 학습원장 관사 8. 사이고우 스구미치 저택 9. 모리오가이, 나츠메소세키 저택	10. 토요 맹인학교 주차장 11. 니쥬바시 장식 전등 12. 철도국 신바시공장과 황실기차 13. 미에현 청사
제2구역	14. 치하야 아카사카 초등학교 강당 15. 제4고등학교 물리화학 교실 16. 히가시야마나시 군청 17. 시미즈의원	18. 도오마치가 저택 19. 교토 나가이 주조 20. 야스다 은행 아이즈지점	21. 삿포로 전화교환국 22. 증기동차 23. 교토 시치조오 순사파출소
제3구역	24. 교토시전 25. 기타사토 연구소 본관 26. 교오타로한 주택 27. 사이몬지킨모츠 별장	28. 차실(에키라쿠양) 29. 시나가와 등대 30. 수가시마 등대 부속관사	31. 나가사키 거류지 25번관 32. 고베 야마노테 서양인주거 33. 종교대학 주차장
제4구역	34. 제4고등학교 무술도장 35. 일본적십자사 중앙병원 병동 36. 보병 제6연대 병사 37. 나고야 수비대 병원 38. 시에틀 일본계 복음교회 39. 브라질 이민주택	40. 하와이 이민집회소 41. 로쿠고오가와 철교 42. 비사이 철도증기관차 1호 43. 증기기관차 12호, 9호 3등객실 44. 철도합숙소 신바시공장 45. 공부성 시나가와 유리제조소	46. 우지야마다 우체국 47. 홍고기노토코 48. 고이즈미 야쿠모 피서집 49. 극장구레하자 50. 목욕탕 한다아즈미유
제5구역	51. 성자비엘 천주당 52. 가나자와 감옥정문 53. 고나시미섬 등대 54. 텐도오 아이치형 다리 55. 스미다가와 신대교 56. 다이메이지 성 파울로 교회당	57. 가와사키 은행 본점 58. 궁성정문 석교식 전등 59. 내각문고 60. 도쿄역 경비순사 파출소 61. 마에바시 감옥 잡거방 62. 가나자와 감옥중앙간수소 감방	63. 미야즈 재판소 법정 64. 키쿠노요 주장 65. 다카다오쿠마 사진관 66. 메이테츠 이와쿠라 변전소, 츠치가와 모토오 기념관 67. 제국호텔 중앙현관



△제국호텔 중앙현관



△시애틀 일본계 복음교회



△스미다가와 신대교



△메이지무라 전체배치도

■ 에도도쿄다테모노엔 (江戸東京建物園)



△방문자센터(구 광화전, Center Zone) 전경

이축보존 · 복원사례

소재지 : 東京 小金井市 桜町
3-7-1
용도 : 근대마을(건축박물관)
건립년 : 1993년,
규모 : 대지면적 70,832.69㎡
건축물 27동
건축면적 4,568.51㎡
연면적 5,555.11㎡

에도도쿄다테모노엔(江戸東京博物館)은 에도시대에 도쿄에 세워진 역사적 · 문화적으로 가치있는 건축물 중에서 현지 보존이 불가능한 경우, 이축하여 수장 · 전시하고, 귀중한 문화유산으로서 다음세대에 계승할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야외 박물관이다.

복원된 건물은 민가에서 상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건축물의 이축 · 복원뿐만 아니라 당시의 생활모습을 재현하여 전시하고 있다. 또한, 에도도쿄다테모노엔은 구 무사시노향토관(武蔵野郷土館)의 자료를 옮겨와 전시실을 설치하고, 고고 · 민속자료 등을 상설 전시하고 있으며, 총 35동의 이축 · 복원을 장기적인 목표로 현재까지 27동의 건축물과 29건의 옥외전시물을 조성해 놓고 있다.



△방문자센터 뮤지엄샵



△방문자센터 전시시설(출처:안내팜플렛)



△방문자센터 도서관(출처:안내팜플렛)



△토키와대 사진관(서쪽구역)



△田園調布의 家(서쪽구역)



△고다카라유(子宝湯, 동쪽구역)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특별기획전



△경전철 운행모습



△시타마치 나카도리 전경

에도도쿄다테모노엔은 East · Center · West Zone의 3개 구역으로 구분된다.

중앙의 센터존은 6동의 건물이 이축 · 복원되었으며, 비저터 센터가 정면 출입구에 위치하여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비저터 센터는 다테모노엔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기념품 등을 판매한다.

방문자센터의 전시프로그램은 에도시대의 도교를 소개하는 영상물과, 무료개방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의 건축물을 소재로 한 각종 이벤트 및 특별기획전을 실시하고 있다.

그 예로 최근에 개봉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千と千尋の神隠し)’에 등장하는 목욕탕의 실제 모델인 ‘자보탕’이 건물원에 복원되어 있어 영화를 주제로 한 특별전을 개최하였다.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아 많은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그 외에 간단한 다과를 즐길 수 있는 휴게소가 있으며, 홍보책자를 비롯한 각종 서적과 문구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뮤지엄 샵(museum shop) 등이 운영되고 있다.

동쪽존은 옛 상가, 공중목욕탕, 선술집 등을 이축 · 복원하여 당시 서민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건물안에는 당시의 살림이나 도구 · 상품 등을 전시하고 있다.

서쪽존은 일본전통 주택과 근대주택 등이 주로 이축 · 복원되었다. 일본근대기의 주거변화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좋은 장소이다.

이러한 건축물은 ‘시타마치 나카도리’, ‘무사시노의 길’, ‘다마의 길’ 등 5개의 길을 따라 배치되어 있어, 당시의 거리풍경도 함께 느낄 수 있다. 거리에는 당시의 경전철이 방문객을 대상으로 운행되고 있어 풍치를 더한다.

■ 홋카이도 개척촌(北海道 開拓の村)



△ 구 삿포로 정차장(정문)



△ 구 삿포로 본청사(방문자 센터)



△홋카이도 개척촌 전경(출처: 안내팸플렛)

이축보존 · 복원사례

소재지 : 북해도 삿포로시
아츠베츠크구 아츠베츠크쵸
오노포로 50-1
(北海道札幌市厚別区
厚別町小野幌50-1)
용 도 : 근대마을(건축박물관)
건립년 : 1983년 4월
규 모 : 대지면적 약54ha
전시건물 52동



△구 우라카와쵸 지청 청사

홋카이도 개척촌(홋카이도 카이타쿠노무라)은 홋카이도 백년을 기념해서 설치되었다. 개척촌은 삿포로시 교외의 노포로 삼림공원에 위치하며, 그 면적은 약 54ha에 달한다. 이 야외박물관은 옛 건조물의 보존과 북해도 개척자들의 생활을 전시할 목적으로 1983년 4월 16일에 개장하였다.

개척의 과정에 있어서 생활과 산업·경제·문화의 역사를 나타내는 건조물 등을 이설, 복원하여 보존함과 동시에, 개척 당시의 정경을 재현 전시하여 홋카이도의 개척 역사를 친근하게 배울 수 있는 야외 박물관이다.

개척촌은 메이지(明治)·다이쇼(大正)시기 즉 19세기중반·20세기초의 건조물 약60동을 시가지군, 어촌군, 농촌군, 산촌군으로 나누어서 전시하고 있다. 각각의 건조물은 이축한 건물이 다수이며, 모두 원형대로 복원하였다. 그 내부에는 살림살이를 전시하여 옛 생활을 재현하였다.

메인스트리트를 따라, 여름에는 마차철도가, 겨울에는 마차썰매가 운행되고 있다. 그 외에 일년내내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개척촌 전부를 돌아보는데 2~3시간 정도가 걸리며 인접해 있는 홋카이도 개척 기념관도 볼거리이다.



△구 오타루 신문사



△구 개척사 공업국 청사



△구 야마모토 이발소 내부



△구 구루마사 여관



△구 히로세 사진관 내부



△구 우라카와 공회회당

각 군의 주요 건축물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시가지군

개척촌의 현관 역할을 하는 건물은 ①구 삿포로 정차장을 복원한 건물이다. 1908년부터 1952년까지 사용되었던 스틱스 스타일의 건물이다. 내부에는 토산품을 취급하는 가게와 개척당시 마을의 모형을 전시하고 있다.

②방문자 센터로 사용되는 구 개척사 삿포로 본청사는 1879년에 소실된 것을 복원한 것이다. 원 건물은 목구조였으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복원되었다. 현재 종합안내, 연수실, 강당,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다.

⑧구 우라카와초(浦河町)지청 청사는 홋카이도 도청의 지청으로 지방행정의 발자취를 찾아볼 수 있다. 건물은 1919년에 건축된 목조 2층 규모로서 이전 복원되었다.

⑨구 오타루 신문사는 1909년 오타루시(小樽市)에 건축된 것이다. 건물은 삿포로의 응회암을 사용한 목골 석구조가 특징이다. 건물 내부에는 당시의 신문과 활판 인쇄기 등이 전시되어 있고 홋카이도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

⑩구 개척사 공업국 청사는 1877년 삿포로시에 건축된 목조 2층 건물이다. 당시 건설·제조사업 등 홋카이도의 개척사에서의 업적을 전시하고 있다.

⑮구 야마모토 이발소(旧山本理髮店)는 다이쇼(大正)말기 삿포로시에 건축된 목조 2층 건물이다. 다이쇼 말기부터 1986년까지 삿포로의 서쪽, 마루야마 공원 근처에서 영업하였다. 서양풍의 디자인은 이 시기의 일반주택의 특징이기도 했다.

⑱구 구루마사 여관(旧来正(くるまさ)旅館)은 1919년 아사히가와시(旭川市)에 건축된 목조 2층 건물이다. 여행객의 숙박과 기차의 대합실로 이용되었던 여관겸 대합실이다. 이 건물은 연속 TV드라마 「스즈란(すずらん)」의 역 앞 여관의 모델이 된 건물이다. 실제로 이 건물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다.

㉘구 히로세 사진관(旧広瀬写真館)은 1924년 이와미자와시(岩見沢市)에 건축된 목조 2층 건물이다. 1958년까지 영업했던 사진관이다. 2층 스튜디오 지붕의 일부는 촬영을 위한 자연광을 받아들이기 위해 유리로 되어있다.



△구 아오야마가 어촌주택



△구 소게슈오마베쯔 역체소



△구 타무라 북성관 잠종제조소



△삼림철도기관 창고



△마차철도



△마차썰매

①7구 우라카와 공회회당(旧浦河公会会堂)은 1894년 우라가와초(浦河町)에 건축된 목조 2층 건물이다. 이 건물은 고베에서 결성된 크리스천의 이민 회사가 세웠던 교회이다. 개척당시 교회의 기능 외에 집회소와 교육장으로써 활용되어 이민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다.

이외 22동의 건물이 시가지군에 속해 있다.

■ 어촌·농촌·산촌군

③3구 아오야마가 어촌주택(旧青山家漁家住宅)은 오타루시에 1919년에 건축된 목조 2층 건물이다. 오타루 연안에서 청어 잡이를 했던 어부의 주택이다. 그물 창고·쌀 창고 등 7동의 부속 시설을 갖추고 있다. 안채의 오른쪽은 주인의 거주 공간이고 왼쪽은 돈벌이를 하러 온 어부의 거주 공간이다.

■ 농촌군

③8구 소게슈오마베쯔 역체소(旧ソーケシュオマベツ駅通所)는 키모베쯔초(喜茂別町)에 메이지(明治)40년경에 건축된 목조 단층 건물이다. 역체소는 철도가 놓여지기 이전, 여행객의 숙박소로서 도로의 요소요소에 설치되었다. 여러 마리의 말을 사육해서 여행객을 나르거나 짐을 운반했다. 또한 당시에는 우편물도 취급하였다.

③9구 타무라 북성관 잠종제조소(旧田村家北誠館養蚕製造所)는 우리우슈초(浦臼町)에 1905년 건축된 목조 2층 건물이다. 메이지시대 비단은 일본의 주요 수출품이었다. 이 건물은 누에씨를 생산하여 양잠농가에 제공하는 특수농가이다. 양잠실과 뽕 저장실이 있다.

■ 산촌군

⑤0삼림철도기관 창고는 오케도초 대정말기에 건축된 목조 단층건물이다. 이 건물은 목제수송을 위해 사용되었던 기관차의 보관, 정비를 위한 건물이다.

이러한 다양한 건물과 함께 거리의 모습도 당시 개척시대의 것으로 꾸며놓아 방문객에게 그 시대로 돌아간듯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홋카이도 개척촌에 현재까지 이전 및 복원된 건물명은 다음과 같다. 건물명의 번호는 배치도의 건물번호와 일치시켰다.

구분	건물명
시가지군	①삿포르정차장(관리동), ②개척사 삿포르 본청사, ③테미야역 역장관사, ④개척사 니시도오리 서양풍 주택, ⑤후쿠시씨주택, ⑥마츠아시씨 주택, ⑦아리시마씨 주택, ⑧우라카와 지청청사, ⑨오타루 신문사, ⑩개척사 공업국청사, ⑪북해중학교, ⑫류우운지, ⑬삿포르경찰서 남일조 순찰파출소, ⑭시마우타 우체국, ⑮아마모토 이발소, ⑯와타나베 상점, ⑰우라카와 공회회당, ⑱쿠루마사여관, ⑲삼마수 카와모토 메밀국수 가게, ⑳ 타케이 상점주조부, ㉑콘도병원, ㉒콘도염색가게, ㉓타케오카 상점, ㉔오오이시 삼성당 지점, ㉕오오다 제철소, ㉖후지와라 마차(마차썰매) 제작소, ㉗혼쵸 철공소, ㉘히로세 사진관, ㉙삿포르 척식창고, ㉚삿포르 농학교 기숙사, ㉛삿포르 사범학교 무도장
어촌군	㉜쓰찌야씨 창고, ㉝아오야마씨 어부주택, ㉞복도, ㉟아키야마 어부주택
농촌군	㊱아마모토 소방용구 격납고, ㊲와카사씨 다다미창고, ㊳소오케슈오마베쓰 역체소, ㊴타무라 북성관잠종제조소, ㊵농상무성 타키카와 목양장 기계창고, ㊶오사무나이 둔전병 주택, ㊷아마다씨 양잠창고, ㊸시나노신사, ㊹이와마씨 농기주택, ㊺카와니시씨 쌀창고, ㊻히구찌씨 농업주택, ㊼오가와씨 낙농축사, ㊽키쿠타씨 농기주택, ㊾개척사옥
산촌군	㊿삼림철도기관 창고, ①히라 제재부 합숙소, ②숯 굽는 가옥



△전체 배치도(출처: 안내팸플렛)

○내용·사진출처 : 안내팸플렛 및 개척촌 홈페이지(www.kaitaku.or.jp)

■ 고베 이인관(異人館) 거리



△이인관 거리 전경

원형보전 및 개수사례

소재지 : 神戸市 北野町・山本通
지 정 : 중요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
용 도 : 근대거리(상업+전시)

고베시(神戸市) 기타노초(北野町)과 야마모토도리(山本通) 지구는 메이지(明治)시대 이래, 외국인거주지로 발전한 곳으로 ‘이인관’이라 불리는 양풍건축과 화풍건축이 혼재하여 독특한 거리모습을 형성하고 있다.



△이인관 안내소

1975년, 일본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전통적 가로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 제도가 신설되어 이를 중심으로 일본은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의 선정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인관 관람매표소

이에, 고베시는 기타노초와 야마모토도리 지구에 대해 국가보조로 조사를 실시하고, 1978년에 ‘고베시 도시경관조례’를 제정하였다. 이후 이 지역의 이인관을 포함한 거리경관보전여부를 검토하여 이듬해인 1979년 10월에 ‘도시경관형성지역’으로, 동년 12월에는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를 지정하였으며, 1980년 4월 10일에 국가로부터 ‘중요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로 선정되었다.

현재, 고베시는 이러한 근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거리 전경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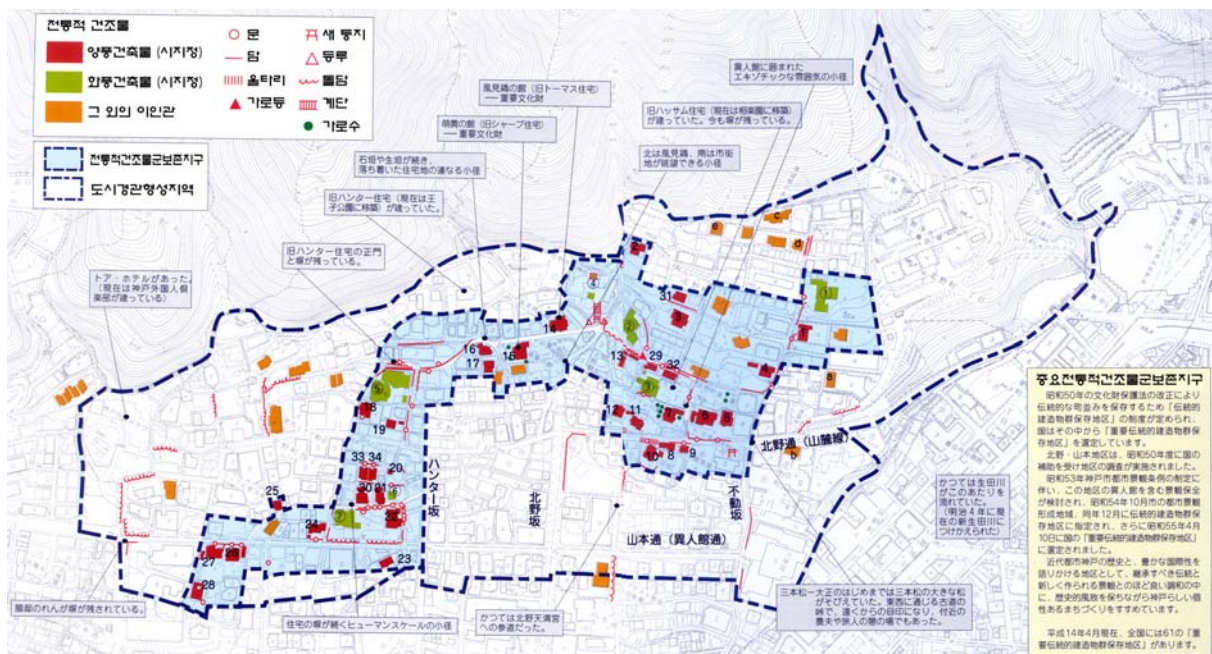
△거리 전경3

크게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와 ‘도시경관형성지역’을 설정하고, 건축연대가 오래된 건축물을 중심으로 34동의 양풍건축물(시지정)과 7동의 화풍(和風)건축물(시지정) 등을 전통적 건조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수의 이인관을 포함하여 문·담장·울타리·가로등·계단·가로수 등의 세부 시설물까지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도시경관형성을 위한 중요 건조물로 선정하여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

이인관에 대한 관람은 현재 주민거주지역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관람코스를 지역 및 지구단위가 아닌 개별 건물단위로 설정, 무료입장관을 비롯하여 3개관 입장권, 9개관 입장권, 개별 입장권 등 다양한 관람방식과 코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스탬프찍기·사진촬영·음료제공 등을 통해 탐방객에게는 편의 및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이색적인 소규모 점포 및 관람 건물 내에서의 물품판매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수익모델을 개발해 놓고 있다.



△고베시 중요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 지정현황도 (출처: 안내팸플렛)

2. 중국사례

■ 상해 신천지 광장



△상해 신천지 광장 항공사진(출처: 나소미 외, 「상해 신천지」, 동남대학교 출판사, 2002, 89쪽)

개수 및 이미지보존

소재지 : 上海市 新天地
 지 정 : 역사풍경보호구역
 용 도 : 근대거리(상업+전시)
 규 모 : 30,000㎡



△상해 이농주택 전경(개발전)

“상해 신천지 광장”은 현재 상해시의 역사문화 풍경을 갖춘 중요한 관광지 가운데 하나로 동서문화가 교차하고 역사와 현대가 대화하는 장소이다. 사남로(思南路), 흥업로(興業路) 역사풍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한다.

본래 이곳은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한가로운 전원 지역에 불과했으나 191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점차 프랑스의 조계지에 속하면서 급격히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다양한 석고문 이농주택이 대량으로 지어졌고 강소성과 절강성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상업주거지로 발전하였다.

근대 시기 상해를 대표하는 주거형태로 자리 잡은 이농주택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주택공급의 심각한 부족현상과 이러한 기회를 이용한 부동산업자의 개발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19세기 중반부터



△상해 신천지 광장의 로고
(이농주택의 석고문 입면을
모티브로 제작되었다.)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기본적인 공간개념은 군대의 병영과 영국식 집합주택에 두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중국 강남지역의 주거형식이 가미되었다. 이러한 이농주택은 상당 부분 표준화가 이루어져 주택의 대량 보급에 유리했으며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었다. 또한 중국인의 전통적인 사유방식을 적절히 수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개혁개방 정책으로 상해시는 현대적인 상업도시 발전하게 되었고 이농주택은 무분별한 철거와 개조로 사라질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다행히도 상해시 정부는 이농주택이야말로 상해시의 도시경관과 상해인의 삶을 대표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임을 재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존과 재활용 대책을 모색하게 되었다.



△석고문 활용사례

1999년 초에 착공되어 2001년 가을에 준공된 “상해 신천지 광장”은 바로 이농주택의 적절한 보존과 재활용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실험적인 프로젝트로서 시도된 것이다.

이 지역에는 국가중점문화보존단위인 중공일대회지(中共一大會址)와 일부 보존 대상 건물을 제외하고 대부분 철거가 가능한 상해 근대건축의 상징인 석고문(石庫門) 이농주택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계획의 기본방향은 석고문 이농주택의 원래 주거기능을 바꾸어 상업적인 경영기능을 새롭게 부여하는 것으로서 상해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는 낡은 집을 국제 수준의 식당, 상가, 공연장 등 유행과 휴식 문화, 오락의 중심 기능으로 집단 개조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아울러 신천지 광장 지역에 분포하는 석고문 건축군의 외피 가운데 기존의 벽돌담, 기와 등은 부분적으로 남겨두었으며 가로체계도 일부 유지시켰다.



△개수전 이농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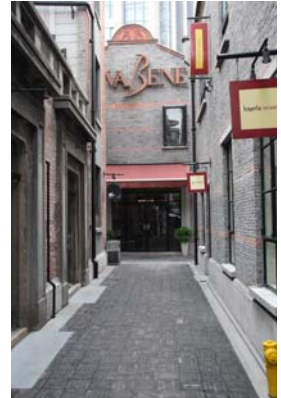
△개수후 이농주택 (현재 노천카페로 사용)



△개수전 거리전경



△개수후 거리전경1



△개수후 거리전경2



△생활사 전시관1

각 건축물의 내부는 구조보강과 설비교체를 통해 21세기 현대도시인의 생활방식과 흐름, 정서에 맞게 개조함으로써 현대 휴식생활의 분위기를 충분히 체험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생활사 전시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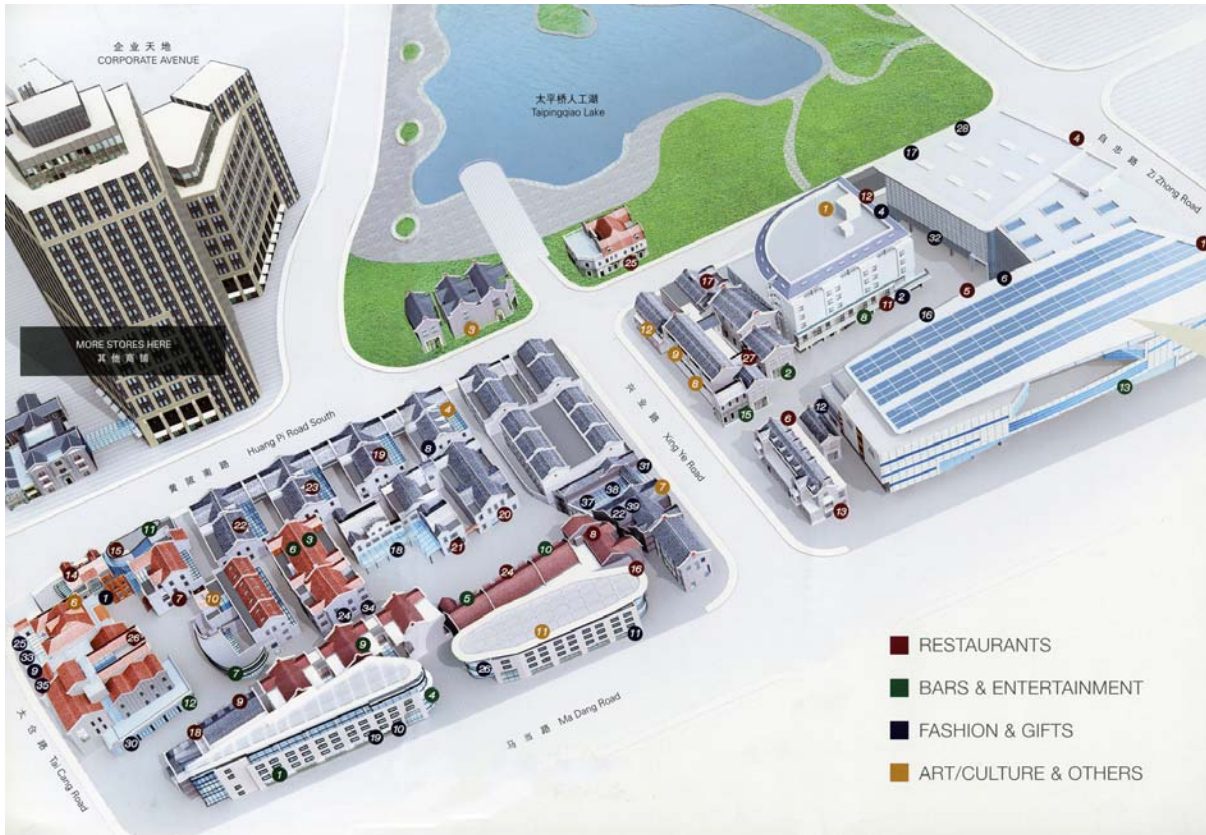
“상해 신천지 광장”은 크게 남리(南里)와 북리(北里)로 양분되어 있다. 현대식 건축을 위주로 하는 남리는 호수에 면한 신천지 호텔식 아파트 이외에 총면적 2.5만㎡에 달하는 쇼핑, 오락, 휴식을 위한 센터가 있다. 석고문 건축을 위주로 하는 북리에는 세계 각국의 식당과 커피숍, 바, 명품관 등이 집중되어 있어 신천지의 국제화된 모습을 보여 준다. 또한 북리에는 과거 이 지역의 도시생활을 보여 주기 위하여 이농주택을 이용한 생활사 전시관을 만들었으며 블록 내부의 크고 작은 광장들은 남북 두 지역의 연계성을 맺어 주는 한편 다양한 이벤트가 열릴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남리 광장



△북리 광장



△상해 신천지 광장 배치도(출처: 안내배치도)



△골목길 간판

상해의 신천지 개발구는 2002년 11월 22일 미국건축가협회는 상해 신천지 광장에 “문화유산건축”이라는 상을 수여하였으며 2003년 11월 3일에는 Urban Land Institute(ULI)로부터 상해 신천지광장 북리(北里: 북쪽 블록 부분) 부분이 “Award for Excellence”라는 상을 받았다.

또한 2004년 12월 30일에는 중국 문화부로부터 “국가문화유산시범기지”라고 하는 상도 받아 이미 중국에서는 물론 외국에서도 도시 개조사업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다.

상해 신천지 광장이 성공한 이면에는 상해시 노만구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외에도 몇 가지의 전략적인 측면이 있다.

첫 번째는 완벽한 복원 또는 완전한 보존의 강박관념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존체계를 유지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그 사이의 완충공간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신천지 안내물



△간판 상세

도시상업가로의 개념을 도입하여 해결하였다.

두 번째로는 철저한 상업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수익창출의 요소들을 다양하게 개발하였다는 점이다. 이곳의 경영주체인 서안 그룹은 단순히 상가 임대 수입에만 의존하지 않고 건물 사이의 오픈스페이스와 광고표지판의 임대 등 세세한 부분에까지도 이윤창출을 위한 도구로 적극 활용하였다.

세 번째로는 건축물의 개조는 물론 간판, 가로등, 사인보드, 로고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전문 디자이너가 개입하여 고급화 전략을 추구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통하여 “상해 신천지 광장”은 국제 수준에 손색없는 문화거리로 탈바꿈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측면은 “상해 신천지 광장”을 상해 시민만을 위한 내수용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계획 초기부터 국제 도시상해의 위상에 맞도록 상해 시민은 물론 상해에 거주하는 외국인, 상해를 찾는 국내외의 관광객 모두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는 문화공간의 조성을 목표로 삼았다.

이 같은 전략은 대체로 잘 맞아 떨어져 현재 이곳은 상해를 가면 반드시 찾아가야 할 명소로 바뀌었으며 주변 지역의 개발욕구를 자극하여 신천지의 효과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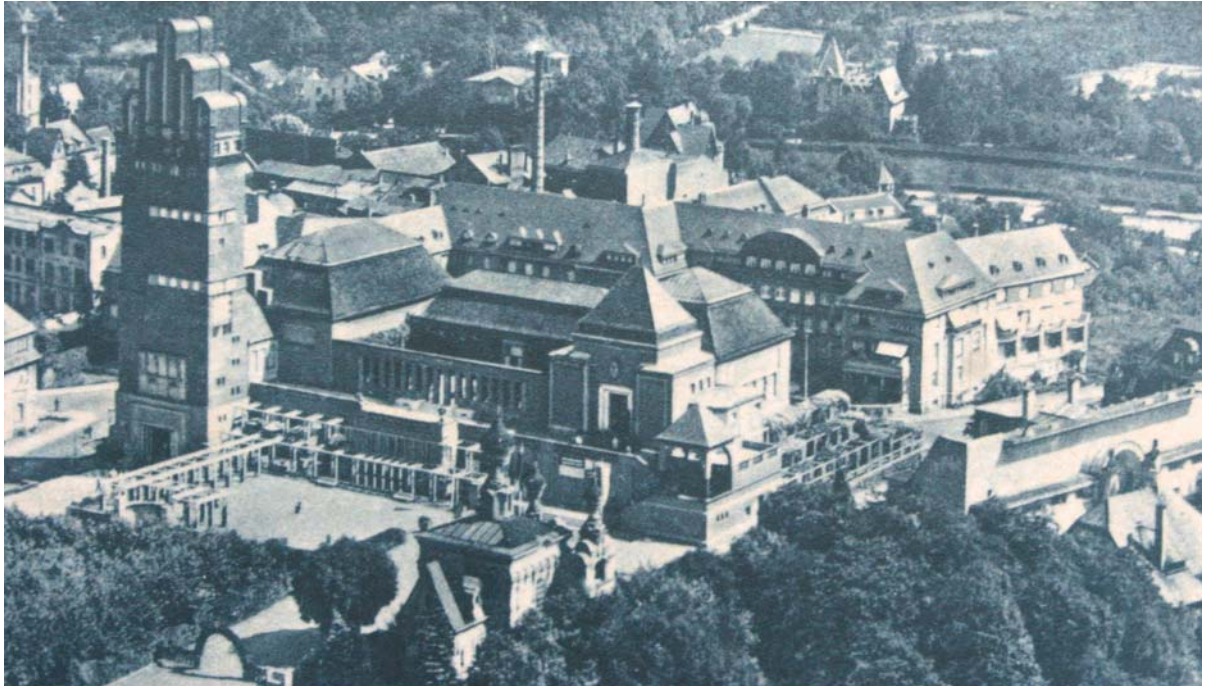
△야경1



△야경2

3. 독일사례

■ 아르누보의 요람지 다름슈타트(Darmstadt) 마틸덴훼헤(Mathildenhöhe)



△마틸덴 훼헤의 1944년 항공사진

원형보존 및 복원사례

소재지 : 다름슈타트
지 정 : 국가문화보호재
용 도 : 근대마을(건축박물관)



△전시관

도시 다름슈타트는 독일 중부에 위치하며, 2차 대전 전에는 헤센 주의 수도였다. 이 도시는 독일 아르누보 건축의 요람지이다. 19세기에 조성된 마틸덴훼헤는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여, 박물관 언덕 또는 도시의 머리라고 불린다. 근대의 아르누보(독일은 유겐트 스틸 Jugendstil) 건물이 잘 보존되고 사용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의 러시아식 예배당은 1897~99년에 옛 러시아의 황제 Nikolaus 2세가 그의 처남인 대작 Ernst Ludwig을 위해 페테스부르크의 정원 건축가 L. N. Benois를 통해 건축하였다.

1899년 예술잡지 발행인이었던 A. Koch이 Ernst Ludwig에게 제안하여 마틸덴훼헤 일부에 예술 집단지를 조성하였다. 건축가로 J. M. Olbrich, P. Behrens, P. Huber가 참여하고, 미술가로는 H. Christiansen와 P. Buerck, 조각가로는 L. Habich와 R. Bosselt가 참여하였다.



△에배당



△Ernst-Luwig-Hause

첫번째 공동 과제는 그들이 주거와 작업실을 만들고 전시 기간을 갖는 것이었다. 작업은 건축물 이상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새로운 예술 스타일을 창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전시회는 1901년 ‘독일 예술의 증명’의 타이틀로 열렸으며, 유겐트 스타일(Jugendstil)을 보여주었다. 이후 1904·1908·1914년에 개최된 전시회는 예술과 경제적인 큰 성공을 거두었다.



△Olbrich Hause, 1944

1901년에 전시는 Ernst Luwig Haus에서 열렸다. 건물은 빈에서 온 J. M. Olbrich가 설계하였다. 그는 오스트리아 빈 분리파와 아르누보로서 다름슈타트의 Jugendstil에 영향을 주었다.

2차대전중 파괴되었던 예술집단지의 아틀리에는 1950년 재건되었다. 또한 1899년부터 1914년까지 전시회 포스터에서 가구까지 당시 예술가들이 남긴 자료에 대한 방대한 수집이 이루어졌다.



△Olbrich Hause



△Behrens house



△결혼탑,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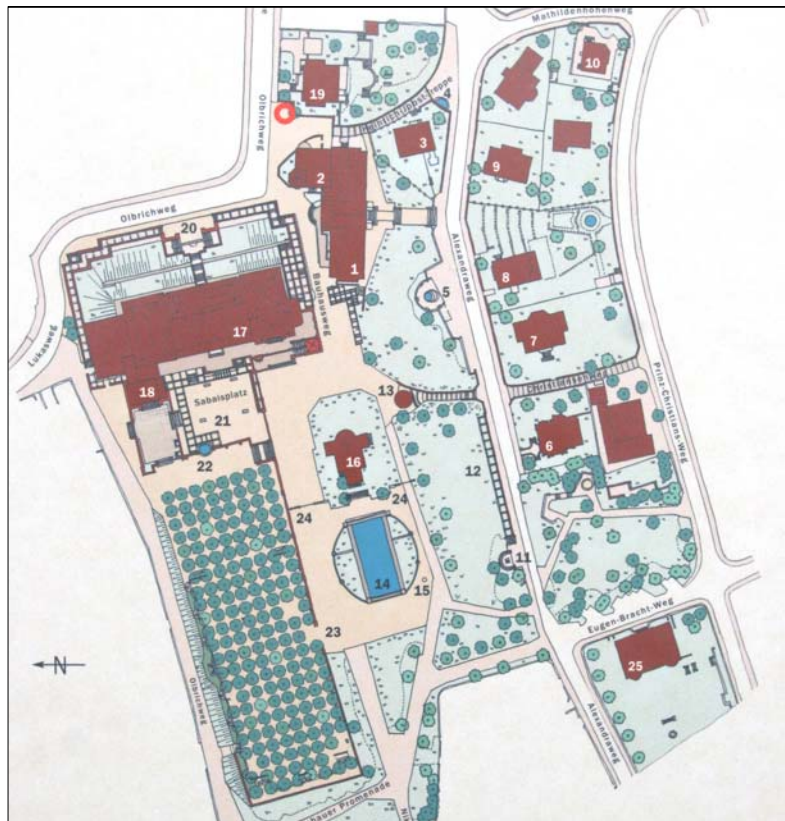
1905년에 영주 Ernst Ludwig가 결혼하자 도시는 선물로 결혼탑 (Hochzeitsturm)을 건축하였다. 설계(1907~8년)는 Olbrich가 담당하였다.

48.5미터 높이의 이 탑은 다섯 손가락을 상징하며, 부드러움·평등·지혜·강함·영주의 방패를 나타낸다. 이 건물은 도시의 상징으로 자리잡았으며, 1981년부터 국가 문화보호재로 지정되었다.

현재 마틸덴훼헤의 건물들은 모두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다. 전시관에서는 연중 미술관련 행사가 이어지며, 결혼기념탑에서는 도시를 조망할 수 있다.

마틸덴훼헤의 남쪽에 위치한 주택들은 모두 아르누보양식이다. 일반인들이 주거를 하고 있지만 도시의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으며 거주자와 도시가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거주자는 건물이 어떤 역사적 배경과 가치를 갖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며 시민들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된다. 독일의 문화재 건물 대부분은 생활 속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보존적인 가치에 있어서 문화재에 대한 데이터의 저장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마틸덴훼헤의 배치도

■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지 기념관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지 기념관 전경

현장보존사례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제암리 322-4
지 정 : 사적 299호,
(1982.12.21)
용 도 : 유적지+전시시설
건립년 : 1998년
구 조 : 철근 콘크리트조
규 모 : 사적지: 301㎡
기념관: 지하1층, 지상2층
대지면적 17,355㎡
건축면적 667.02㎡
연면적 1,262.85㎡
설 계 : 다담건축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지 기념관은 제암리 사건과 함께 수원·화성지역 주민들의 독립 만세운동을 널리 알림으로써 선열들의 애국정신과 넋을 숭양하고 사적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건립되었다. 현재 역사 현장 학습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념관 뒤편 언덕에는 '제암리 3.1운동순국 23위지묘'가 있고 우측으로 기존 교육관이 있다. 불탄 예배당터에는 순국기념탑을 세웠다.

기념관 계획시 묘역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높이를 묘역 진입계단의 상부높이 이하로 제한하고, 형태를 여러개로 분절하면서 나지막하게 처리하였다. 평면은 안마당을 둔 □자 형태로 계획하여 야외전시도 가능하도록 했다.



△3.1운동 순국기념탑



△제암리 3.1운동순국 23위지묘



△전시관 연결부위

제1전시관은 제암리에서 일어난 3.1운동에 관한 역사적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총 10가지 주제로 구성된 전시물은 제암리 학살사건의 배경이 된 사건부터 제암리 사건의 내용, 제암리 학살사건에 대한 증언자료와 당시 일제 만행에 대한 각종 자료 등을 전시하고 있다.

제2전시관은 경기도와 전국의 3.1운동에 관한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총 8가지의 주제로 구성된 전시물은 경술국치일로부터 국외에서 일어난 독립운동과 전국의 3.1운동에 대한 것까지 망라되어 있다. 또한 1910년대 독립운동 연표와 일제가 저지른 만행, 3.1운동의 영향을 받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전시물 등을 관람 할 수 있다.

시청각교육실은 3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으며, 상영하는 자료는 제암리 사건에 대한 내용과 사건을 목격한 증언자들의 증언자료이다.



△3.1정신교육관



△23인 상징조형물

■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분수광장



△포로수용소 막사촌

현장보존사례

소재지 : 경남 거제시 장평리·수월리 및 신현읍 양정리·고현리
 지정 : 문화재자료 99호 (1983.12.20)
 용도 : 유적지+전시시설
 건립년 : 1999년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외
 규모 : 8,887㎡

거제도 포로수용소는 6.25전쟁 포로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1950년 11월 27일 고현, 수월, 양정지구를 중심으로 포로수용소를 설치하였다. 이후 1951년 6월까지 인민군 포로 15만, 중공군 포로 2만명 등 17만 3천여명의 포로들을 수용하였다. 포로 중에는 300여명의 여자포로도 있었다.

포로수용소에서 반공포로와 친공포로간의 유혈살상이 자주 발발하였고, 1952년 5월 7일에는 수용소의 사령관 돛드준장이 포로에게 납치 감금되어 4일만에 석방되는 사건까지 있었다.

1953. 6. 18일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포로 27,389명을 석방시켰고 이어 1953. 7. 27일 휴전 협정 조인으로 수용소는 폐쇄되었다.



△탱크 전시관 입구



△디오라마관



△M.P 다리



△당시의 유적 1



△당시의 유적 2

1983년 12월에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99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으며, 전쟁역사의 산 교육장 및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하여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을 건립, 당시의 막사를 재현하고, 사진 의복 등의 관련자료를 수집 전시하고 있다.

유적공원은 미국 디즈니의 기법과 러시아 전승기념관의 연출방식을 참조하여 계획되었다.

전체는 프로 쇼·메인 쇼·포스트 쇼의 3개 존으로 구분하였다. 프로 쇼는 6.25 전쟁과 포로수용소를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분수광장조형물, 인공폭포, 탱크 전시관, 대형 거제디오라마관의 4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메인 쇼에서는 한국전쟁 존과 포로수용소 존으로 구분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한국전쟁 존은 북한군납침, 위장망 터널, 6.25역사관, 계곡도하 장면, 대동강철교 디오라마, MP 다리등 6개 공간으로 구성되었고 포로수용소존에는 수용소 관람게이트, POW 미니어처관, 극기훈련장, 여자포로수용소, 포로사상대립관, 포로폭동관, 포로설희관, 기자 세트의 9개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포스트 쇼에서는 홍보관과 박물관 스타일의 실내전시관을 설치하여 기유적지 전시관, 기념품 판매소 등을 배치하였다.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배치도 (출처: Plus 2003년 8월호)

■ 홍주의사총



△홍주의사총 전경

현장보존사례

소재지 : 충남 홍성군 대교리
124-2
지 정 : 사적 431호
(2001.8.17)
용 도 : 유적지+추모시설
건립년 : 1949년
규 모 : 면적 40,166㎡



△1962년 홍주의사총

홍주의사총은 1906년 일제가 강권한 을사보호조약에 항거하여 전 참판 민중식과 홍주(현 홍성) 지사들을 주축으로 궤기한 병오의병의 유골이 모셔진 곳이다.

홍주 병오의병은 구한말 독립운동사에서 일본 정규군과 최초로 전투를 벌여 승리한 후 결국 장렬히 산화하여, 민족의 기상을 보여준 의거였다.

당시 병오의병은 광시장터에서 3천여명이 동참하였다. 광시장터 한양과 홍주를 잇고, 홍주, 청양, 부여로 이어지는 교통의 요지이며, 인근에서 가장 큰 장이었다.

병오의병은 청양 화성(化城) 전투에서 첫 패배를 하였지만, 남포서 일본군을 상대로 첫 승리를 하였다. 5월 19일 5천명의 의병으로 홍주성을 점령하였다. 이후 일본군 기마병 1개 소대와 보병 2개 중대 및 일본군에 협력하던 관군에 대항하여 치열한 전투를 치루었다. 일진일퇴를 거듭하다, 5월 31일 대부분의 의병이 전사하였다.

당시 일본군은 1905년에 제작한 38식 최신 소총과 기관총 등으로 무장하고 있었지만 의병은 기초적인 무기로서 대항하였다.

전투후 홍성천변에 의병의 주검으로 가득 찼으며, 일본군에 의한 홍주읍성 초토화 작전으로 홍주읍성내외가 폐허화 되었다. 이 작전은 이등박문의 지시였다.



△의사총 조감도

치열한 의병운동이 전개되었던 홍주는 일제강점기 이후 쇠퇴하였으며, 명칭도 홍주에서 홍성으로 강등되었다.

전투후 의병들의 시신은 약 40여년간 홍주천변과 남산일대에 버려져 있다가, 1949년 4월 5일 현 의사총 전면 천변에서 유골이 발견되었다. 충청남도는 현 위치에 유골을 수습하고 합장하여 분묘를 조성하고, 도기념물 제4호로 지정하였다. 이후 2001년 8월 17일 국가지정 사적 제431호로 승격되었다.

의사총은 봉분 아랫부분에 돌레석을 둘렀고, 총의 오른쪽에는 정인보가 짓고 심상직이 쓴 묘비가 있으며, 좌우에는 망주석 1쌍이 세워져 있다.



△의사총 입구

사당인 창의사(彰義祠)에 900의사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어 구백의총이라 했던 명칭을 1992년 홍주의사총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매년 5월 30일 순국지사 추모제를 올리고 있다.

홍주의사총은 구한말 조국을 지키고자 일어났던 의병들의 숭고한 넋이 깃든 곳이다. 금산의 칠백의총과 더불어 충남이 자랑하는 구국의 성지이다.



△창의사

현재 홍성은 홍주의사총과 함께 홍성출신의 독립운동가 김좌진 장군과 만해 한용운 선생의 생가를 성역화하여 조국의 가치와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널리 알리고 있다.

홍주의사총은 역사적 장소로서 보존이 매우 잘되어 있으며, 그 의미를 새기는 추모제도 매년 올리는 등 지역의 자긍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다만 후손에게 의사총의 유래와 의미를 알릴 수 있는 전시관과 기념관의 건립이 매우 아쉽다, 또한 이러한 훌륭한 성지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수단도 강구되어야 한다.



△홍주성(병오의병 전투장소)



△홍주성 병오의병 기념비

7 사례조사 소결

1. 사례조사 과정

사례조사는 각 지역별로 담당자를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국내사례는 등록문화재외에도 지정 및 미지정 근대문화유산까지도 범위를 확장하였다.

조사과정에서 각 조사대상의 최신 자료 접근이 매우 어려웠으며, 사진촬영에 따른 어려움이 컸다. 사진은 되도록 최근의 것을 수록하였지만, 현황이 동일한 것은 예전의 자료도 사용하였다.

현지조사과정중 기존에 알려진 자료와 현황이 다른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 최근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수리에 들어가서 폐쇄한 경우 등이 발견되어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였다.

국내사례조사에서 가장 아쉬운 대목은 수리과정에 대한 자료의 접근이 매우 어려웠다는 점이다. 건물에 대한 수리발간 보고서와 각종 공사기록·수리관계자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외국의 사례처럼 통합된 관리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사례는 비록 활용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보존상태 및 활용에서 모범이 될만한 사례들로 조사하였다. 각 건물의 용도도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하려고 하였지만 마땅한 사례가 없는 경우는 조사수량에서 편차가 발생하였다.

외국의 사례조사는 국내 근대문화유산과 비슷한 규모와 양식으로 한정하여 진행하였다.

국내사례에 비하여 활용에 대한 과정 및 공사수법·관계자 등 관련 자료의 접근이 쉬웠다. 기본적인 사항 대부분은 각종 책자와 현장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안내팸플릿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었다. 좀더 자세한 자료는 각종 보고서와 판매서적·홈페이지 등에서 찾을 수 있었다. 외국의 경우 근대문화유산의 활용이 하나의 이슈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국사례 수록사진은 최근 현지에서 촬영한 사진과 함께 안내책자·팸플릿에서 필요한 것을 골라서 수록하였다. 수리전·후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도록 옛 사진도 가능하면 수록하였다.

2. 사례조사 결과

근대건축 국내사례는 많은 수가 건축물의 형태와 규모에서 변화가 적은 원형보존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개수보존·부분보존·이축보존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과정중 수집한 각종 안내 팸플렛 및 소개책자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내용보다는 전시물 위주의 설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건축물에 관련된 것은 간단한 연혁으로만 그치고 있어, 건축물의 자체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근대건축 외국사례는 원형보존보다는 다양한 목적에 맞추어 건축물을 개수후 활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수리 및 복원과정을 통해서 재탄생한 건축물은 각종 안내서와 팸플렛 등에 현재의 용도설명과 함께 건축물의 연혁과 양식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수리 및 복원과정에 대한 정보도 자세하게 기록하여,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건축물 자체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홍보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근대문화유산에서 전반적으로 발생한다.

교통유산의 경우 국내사례는 철도역사와 교량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 보다는 원용도로서 그대로 이용하고 있었다.

일본의 철도역사는 원형복원사례에서부터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례까지 다양한 활용방식을 보여준다. 원형복원의 경우 이미 철도 노선이 사라진 역까지도 복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프랑스의 철도역사는 현재 사용중인 역사까지도 원형보존이 아닌 개수활용사례가 많았다. 개수의 경우 공모전을 통한 설계경기방식을 도입하여 우수한 활용방안을 발굴해내고 있다.

산업유산의 국내사례는 매우 취약하다. 초기 조사대상 대부분이 원 용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별히 활용사례로 선택할 만한 것이 매우 적었다. 산업유산 사례는 소유주의 보존 및 활용 의지가 높고 다양한 매체로 홍보되는 것으로 선정하였다.

외국의 산업유산은 국내와는 다르게 매우 활발하게 보존·활용되고 있었다. 산업유산의 경우 규모가 크고 내부가 단일공간으로 이루어진 것이 많아 용도를 새롭게 재구성하는데 다른 건축물보다 유리한 점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프랑스의 사례에서 공장건물의 다양한

활용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근대마을 및 거리 조성사례의 경우 현재까지 활용되는 국내사례는 전무하다. 현재 인천에서 근대거리조성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종료되지 않아서 사례에 넣지 않았다. 충남 논산 강경은 좁은 지역 안에 많은 근대건축물이 현존하여 그 자체로도 근대마을 또는 거리로서 손색이 없지만, 보존과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가 없어 역시 제외하였다. 이 두 지역에 대한 근대마을 및 거리 조성사업이 시행된다면 외국의 선행사례와 크게 다를 것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일본의 근대마을은 보고서에 수록된 3가지 사례가 대표적이며, 이외에도 작은 단위의 근대마을 및 거리 보존사례가 많다. 또한 근대거리 조성은 고베 이인관처럼 근대와 관련된 주요 지역마다 기존 근대건축물의 보존과 함께 다양한 활용을 통한 근대거리 재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란 두 가지 이익을 모두 달성하고자 진행한다.

중국의 신천지는 건축물 자체의 보존보다는 거리의 이미지 보존에 더 치중한 사례이다. 전통적 주거단지의 외벽과 석고문만 보존하여 거리의 이미지를 계승하면서 현대적 쇼핑거리로서 조성하여 내·외국인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상해 신천지의 성공으로 그와 유사한 계획이 중국 각지에서 실행되거나 준비중이다.

신천지는 평범한 근대문화유산도 그 활용에 따라 얼마든지 새로운 가치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

근대유적지는 국내 사례만 조사 수록하였다. 일반적으로 근대이전의 유적지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고, 전시 및 편의시설 등을 잘 갖추고 교육 등의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근대시기의 유적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유적지 조성시설이 미흡하다. 또한 활용도도 많이 떨어진다.

보고서에 수록된 유적지는 모두 3가지로서 구한말 의병유적과 일제강점기 3·1운동 유적, 6.25전쟁관련 유적이다. 6.25 관련유적은 현대사이지만, 50여년전이므로 등록문화재 요건에 맞추어 근대유적지에 포함시켰다.

근대유적지는 관련자료가 풍부하고, 일부 유적은 아직도 관련인사들이 생존해 있어 다양한 전시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효율적인 계

획을 수립하여 민족의 아픔을 대변해주는 역사로서 교육의 장으로, 각종 매스미디어의 배경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향후 진행 과제

국내사례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접근이 어려웠던 수리 및 활용과정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자료는 현재 여러곳에 분산되어 있거나, 기록이 미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축물 자체에 대한 연혁 및 양식에 대한 기록은 상당부분 축적되었으므로, 수리와 활용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각종 기록을 정확하게 남길 수 있도록 관련제도 및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록은 한곳에 취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조사기간중 방문했던 일부 사례는 수리과정중에 있어 부득이 하게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런 경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루트(문화재청 홈페이지, 각 시군청 홈페이지 등)를 통하여 수리기간 및 범위를 고시 한다면 조사업무 및 관광에 따른 낭비를 예방할 수 있다. 실제로 수리중인줄 모르고 현장에 방문하였을때 몇몇 일반인들도 발길을 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

요즘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몇몇 자료에서는 단위표기가 평으로 기록되어 현행 미터법으로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경우 보고서에 그대로 수록할 수밖에 없었다. 예전자료에 대한 보완작업이 필요하다.

외국의 사례조사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어려움이 따른다. 연구인력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해당국가에 유학중인 관련 전공 유학생을 활용하여 꾸준한 자료수집을 할 수 있는 방법(예: 문화재 기자)을 강구한다면,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이다.

현재까지의 사례조사는 보존과 활용에 관한 내용만을 조사하였지만 향후 진행될 연구용역에서는 보존·수리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사항들을 사례와 함께 조사한다면 실제 현장에서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외의 보존·활용의 실패사례도 역시 조사함으로써 시행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사례 연구 _____

V. 보존·활용 및 홍보방안

① 보존·활용방안

1. 등록문화재 제도의 활성화 방안 강구
2. 활용을 위한 등록문화재의 대중화 유도

② 홍보방안

1. 홍보자료의 다양화 추구
2. 홍보자료의 구성방안

1

보존·활용방안

1. 등록문화재 제도의 활성화 방안 강구

등록제도 시행 이후 각계 분야에서 이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반인들의 근·현대건축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동아일보사, 대법원, 신세계백화점 등의 경우는 리노베이션 되어 재활용되고 있다.

서울 종로구의 정신여중고 구 세브란스관의 등록 요청 민원과 광주 동구의 중앙초등학교의 등록 요청 민원이 있었다. 역사의 현장을 지키려는 노력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정신여중고 세브란스 관은 등록문화재로 예고(2002.10.28)까지 되었으나 소유주의 반대로 등록되지 못했다. 광주 중앙 초등학교의 경우는 동창회 몇 사람의 노력만이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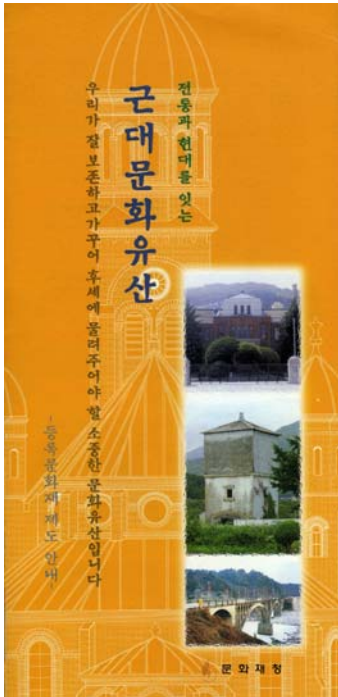
등록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몇몇 소유자들은 이 제도를 오해, 기피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사례도 있다. 몇몇 학교, 교회, 여관, 다방 등은 선정 예고되었으나 건축주에 의해 거부되어 등록되지 못했다. 그리고 곧이어 건축물 파괴로 이어졌다. 건축주의 등록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급선무이다.

근현대건축사 연구자와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관련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등록문화재 제도 업무에 관련된 관계자들에 대한 등록제도 및 보존·활용방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등록문화재의 보수, 복원 작업이 전문가 부족, 경험 부족으로 난항을 보이고 있다. 기존 보수 기술자는 전통건축 중심의 지정문화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근대건축물 중심의 등록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 전통건축과 근대건축은 양식 및 구조에서 그 출발이 전혀 다르다. 그러므로 보수 기술자도 좀더 세분화된 구분과 시험제도가 필요하다.

2004년에 근대문화유산목록화 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전체적인 근대건축물 리스트가 만들어 졌다. 이것을 바탕으로 문화재청은 등록문화재를 계속 추가하기 위해 각 지역별 연구자들과 함께



△문화재청 발간
등록문화재 제도 안내
팸플릿

조사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때 기존자료에 대한 보완작업과 누락 건축물의 발굴을 함께 진행해야한다.

전국의 근대문화유산목록에서 군 관계시설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군시설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일본군 관련시설과 6.25전쟁관련 시설물에 대한 조사는 필히 행해져야 한다. 또한 용산미군기지 등 미군기지 조사는 여건상 조사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DMZ내의 조사도 앞으로 숙제가 된다.

더불어 북한과 우리 역사와 관련된 외국의 근대건축물 리스트 확보가 필요하다.

2006년 12월 현재 등록문화재는 전남이 52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이 44건, 전북이 39건, 그리고, 경남이 33건으로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부산(1건)과 인천(4건)의 등록문화재 등록률은 매우 저조하다. 이 두 지역은 근대기 개항지로서 많은 근대건축물이 현존하고 있으므로 등록문화재의 대상은 다른 지역보다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등록문화재 제도의 적극적인 시행이 필요하다.

등록문화재는 지역의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다.

등록문화재는 장차 가치 변화에 의하여 지정문화재로 바뀔 수 있으며, 등록 해지될 수도 있는 것이다. 철저한 유지관리가 요구되고 된다.

정부 예산 중 등록문화재 관련 예산 확대도 시급하다. 지정문화재 보수비용에 추가되는 시급예산 성격이 짙어 당국의 적절한 대응이 요망된다. 관리할 자원마련이 시급한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문화재 수리보수 정비 예산 중 등록문화재에 쓰는 예산이 4.2%에 육박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소정의 예산을 들여 등록문화재에 대한 정비·보수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11월 현재 277건의 등록문화재에 대한 정비·보수작업을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등록문화재의 경우는 수리의 시급을 요하는 건물이 많다.

아울러 세제혜택 개선도 필요하다. 현재 등록문화재가 된 건축물은 지방세(종합토지세 및 재산세)의 감면(50%)을 해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산세·종합토지세·증여세·법인세·소득세 등의 세제 혜택으로 '완전 면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50%로



△도코모모 코리아 발간
근대건축 안내책자

는 소유자가 혜택을 체감하지 못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문화재 건조물은 보존수리 공사시 국고로 50~85%를 보조해 주고 있다. 등록문화재의 경우는 여기에 설계감리비 50%를 추가 보조해 주고 있다.

다음은 등록문화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할 사항들이다.

- 근대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협약체결
 - 도코모모 코리아, 내셔널 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등 근대문화유산의 보존에 힘쓰는 각종 단체와 정보교류 및 보존 협약을 체결함.
-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보존을 위한 계몽활동 추진
- 근대건축물의 보존·재활용 방안연구
- 행정당국의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Incentive) 방안 확대
- 전문직 공무원·기술자 양성
- 근대건축 설계·보수 전문업체 선정
- 근대건축 사학자와 관련 시민단체와의 연계체제 구축
- 북한, 국내 군사시설(미군부대 포함), DMZ 등에 대한 근대건축물 조사연구
- 중국 동북삼성(만주), 하와이, 기타 해외에 있는 한국 관련 근대문화유산의 현장조사

2. 활용을 위한 등록문화재의 대중화 유도

인터넷과 방송매체를 통한 등록문화재 제도의 홍보와 대중화의 방안구상을 구상한다. 일반 국민이 문화재를 접하는 기회는 뉴스나 영화·드라마를 통하는 횡수가 가장 많고,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그 다음이다.

대중화는 접촉횟수와 매우 관련이 깊다. 보존과 더불어 활용을 고려한 등록문화재는 일반 국민이 되도록 많이 접할 수 있을 때 그 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

관계기관에서 대중화를 직접적으로 시도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대중매체 및 개인·단체에서 등록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작품활동을 유도해야한다. 이때 관계기관은 각종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접근이 쉽도록 해야 한다.

2

홍보방안

1. 홍보자료의 다양화 추구



△문화재청 발간
등록문화재 제도 안내책자1



△문화재청 발간
등록문화재 제도 안내책자2

일반국민이 문화재에 대한 정보는 극히 한정된 부분만 접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주로 학술 관계서적에만 존재한다. 이것은 홍보의 기본적 원칙인 다양한 정보제공에 반하는 사항이다.

등록문화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국민의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은 앞서 기술하였다. 그러면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문화재청 및 관계기관에서 생산된 약간의 자료와 인터넷에만 의존하는 상황이다. 또한 시간과 경비를 들여 방문한 문화재에서도 매우 간단한 팸플릿 정도만 구비되어 있고, 그 내용은 매우 한정적이다. 그나마 등록문화재의 경우는 갖추어지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다.

학술자료는 전문적인 내용과 더불어 일반인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만, 쉽게 접할 수 없을뿐더러 그 내용이 매우 어렵고 전공 용어로만 구성되어 있어,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다가가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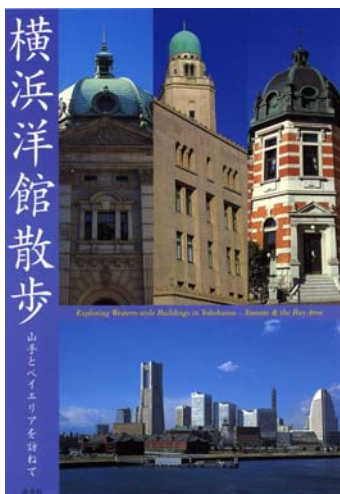
결국 일반국민이 등록문화재에 대한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당하는 현실에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등록문화재 제도를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보존과 활용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방안 마련과 더불어 쉬우면서 전문적인 내용의 홍보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홍보자료는 크게 3단계로 구분하여 일반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첫째는 인터넷을 이용한 간단한 홍보자료의 구성이다. 주로 근대문화유산을 쉽게 찾아 올 수 있도록 자세한 위치안내와 대상 문화재의 특징을 부각시켜 홍보한다.

둘째는 현장에서 무료로 나누어주는 안내 팸플릿이다. 팸플릿에는 건축물의 연혁과 보존 및 활용현황에 대한 간단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활용현황은 주로 전시내용에 대한 것이다. 또한 팸플릿에는 인터넷에서 접할 수 없는 보수현황 및 관련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요코하마 근대건축
안내책자



△삿포로시 시계탑
건립당시 정면



△삿포로시 시계탑
1949년 개수부위(녹색부분)

정보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셋째는 유료로 구입하는 자료이다. 각 근대건축물에는 반드시 그 건축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은 책자를 판매하고 있다. 어느 전문적인 서적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생생한 기록과 다양한 사진을 수록하여 일반인은 물론이고 관련 전공자들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한다. 물론 그 내용의 서술은 매우 쉽게 구성된다.

또한 크게 보수하거나 복원한 건물일 경우 공사당시의 자세한 내용과 함께 보존 및 보수과정에 대한 매우 상세한 내용(보존발의자·보수공법의 선정·보수업체 등)을 수록함으로써 이후 시행되는 보수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인상적이다.

홋카이도의 삿포로시의 시계탑은 홋카이도 개척 당시에 건축된 건물로서 당시 미국인 선교사들이 세운 건물이었다. 도시가 팽창함에 따라 도로의 확장에 따른 시계탑의 철거 위기가 왔을때 보존문제가 대두되었고, 결국 시계탑은 이축·보존되었다. 시계탑을 방문하면 방문자들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 시계탑의 이전시 도면과 시행년도별로 정리된 보수도면이 비치된 자료실이다. 홍보자료는 잘 구성된 팸플렛과 홍보책자만이 아닌 보수도면도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파악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도면에 대한 접근이 매우 어렵다. 관련 전공자들도 구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일반국민들이 접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 되고 있다. 정보의 공유측면과 홍보측면에서 크게 생각하여 공개범위를 재조정할 때다.

개별건축물에 대한 홍보자료 외에도 일본 문화청에서는 등록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자세한 안내책자를 만들어 무료로 배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근대문화재의 가치와 효용에 대해 꾸준히 홍보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문화재청에서 몇가지 홍보책자를 만들어 이미 배포하고 있지만, 중앙부서의 특성상 개별건축물보다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언급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제는 등록문화재 하나하나에 대한 특징과 자세한 내용을 담은 홍보용 안내팸플렛을 작성할 때다.

또한 문화재청에서 매년 작성되는 다양한 연구보고서의 경우도 정보제공의 가치가 있는 것을 선별하여 책자로 재구성 후 매우 저렴하게 판매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이제는 국민들도 좀더 자세하고 전문적인 내용을 원하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현재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내용은 매우 간단하므로 자세한 내용과 다양한 사진·영상물을 서비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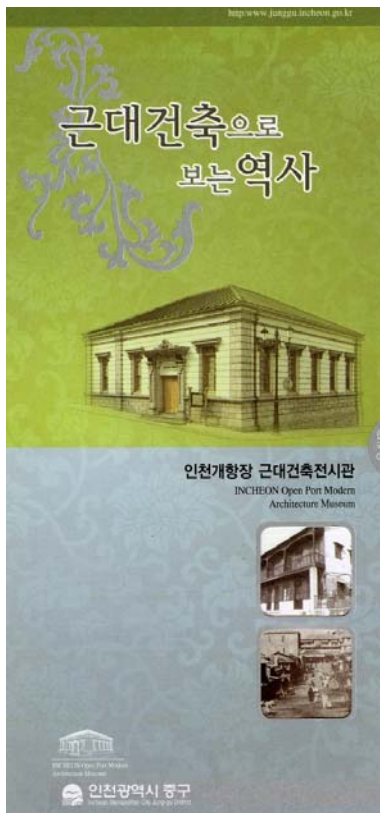
2. 홍보자료의 구성방안

■ 안내팸플릿 구성방안

일반 대중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홍보자료는 안내팸플릿이다. 인터넷의 경우 연장자 또는 컴퓨터에 익숙하지 못한 계층이 존재하고, 장소가 제한적이므로, 현장에서의 홍보는 안내팸플릿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홍보수단이 된다.

현재 국내에서 발간되는 안내팸플릿은 주로 전시시설 및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며 건축물 자체에 대한 내용은 간단한 연혁정도만 언급되는 것이 현실이다.

다시 말해 정작 중요한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 안내팸플릿 표지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 안내팸플릿 내지

외국의 작성된 팜플렛은 다음과 같은 구성 원칙을 보이고 있다.

- ① 해당 건축물의 가치에 대해 먼저 설명하고
- ② 그에 따른 보존방안(공사개요 및 관계자)을 서술한 후
- ③ 건축물의 가치를 증폭시키기 위한 활용내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④ 또한 보수내용에 대한 간단한 언급도 빠지지 않는다.

팜플렛이라는 한정된 지면으로 자세하게는 설명하지 못해도 핵심적인 사항은 꼭 수록하고 있다.

팜플렛의 사진은 건축물의 미적인 측면을 부각시킴과 더불어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내용을 꼭 포함시켜 구성하고 있다. 국내의 전시물 위주의 사진구성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등록문화재 개별 건축물에 대한 안내 팜플렛은 우선 건축물의 가치를 홍보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그리고 복원·보수·개수과정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동결보존이 아닌 등록문화재의 활용보존의 실례를 보여줌으로써 일반 대중의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免震レトロフィット

文化的に価値の高い歴史的建築物を免震構造にすることにより、必要な耐震性能を持たせながらも、建物の外観や内部の意匠の改変を最小限に抑えることができる耐震改修の方法です。

免震構造の完成予想図

改修断面図

免震断面図

保存・再生工事概要

◆免震構造とは
免震構造とは、建物の基礎と上部建物間に免震装置を配置した免震層を設けることによって、上部建物に伝わる地震力を大幅に低減させ、耐震性能を高めた構造のことです。

◆基礎について
中央公会堂は、長さ約3.6m、3,935本の松杭を併用して地盤に直接支持された建物でした。今回の免震レトロフィットでは、鋼管杭を建物下で圧入し、建物全体を仮受けした後、免震層を既存基礎の下に設けました。なお、仮受けした鋼管杭は、残しておくことにより大地震時に効果を発揮します。

◆免震装置
免震装置は積層ゴムとダンパーにより構成されます。積層ゴムは建物の荷重を支える力を十分に保ちながら水平方向には柔らかく変位し、上部建物へ伝わる地震力を大幅に低減させる働きをします。また、ダンパーは揺れ巾を小さくし、減衰させる働きをします。

1. 建物の外観及び内部空間の保存・再生
大正時代の優れた建築意匠をもつ建物の外観及び内部空間はできる限り保存し、創建当時の輝きを取り戻します。創建以来80余年経過しているため、劣化しているところは改修し、大集会室などこれまで大きく改変されてきたところは当初の姿へ復元することを基本としています。

2. 必要な耐震性能の確保
現在の基準で必要とされる耐震性能を確保するために、建物の基礎の下に免震装置を設置する免震構造を採用しています。これにより建物上部の構造補強を建物四隅のれんが壁の補強や屋根面等の鉄骨補強など最小限にとどめることができ、優れた意匠を守ることが可能となります。

3. 機能的・利便性の向上
中央公会堂を将来にわたって活用していくため、必要な機能的・利便性の向上のための改修を行います。さまざまなイベントに対応できるよう、音響・照明・舞台装置などの機能的性を向上させるとともに、ゆったりとした椅子や空調設備の改善など、快適性を向上させます。また、エレベーターやスロープなどの設置により、利用者の利便性を図ります。

△보수공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수록 사례(일본 오사카 중앙공회당)

현 활용상황에 대한 내용은 단순전시물 또는 현황에 대한 사진소개가 아닌 전시물의 가치에 대한 소개가 주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소홀하게 취급되는 사항으로써 건축물에 대한 자세한 건물개요(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 등)와 함께 설계자 및 시공자에 대한 사항을 수록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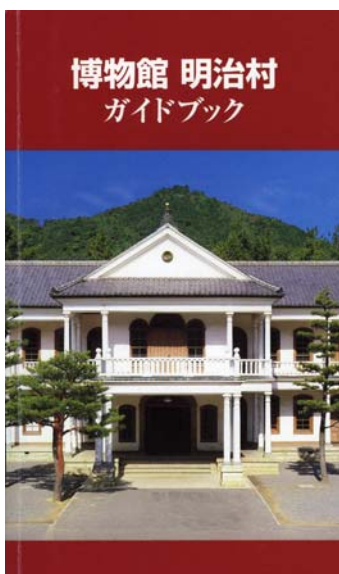
■ 안내책자 구성방안

안내책자의 경우 유료로 판매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책자에는 팸플릿에서는 언급할 수 없었던 많은 내용이 수록된다.

국내에서는 개별 등록문화재에 대한 안내책자의 발행이 미진하다. 외국의 경우는 매우 활발하게 발행되고 있다. 안내책자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개별건축물에 대한 안내책자와 지역의 근대건축물에 대한 안내책자이다.

개별건축물에 대한 안내책자의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 ① 건축물의 설립 및 건축개요와 자세한 연혁
- ② 건축물의 설계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작품소개
- ③ 설립당시의 기능(도면자료 첨부) 및 지역에서의 역할(관련자료 및 관계자 인터뷰 수록)
- ④ 건축주에 대한 소개
- ⑤ 건축물의 자세한 양식(부분상세 수록)
- ⑥ 퇴락 및 보존·수리과정에 대한 내용(보수절차 및 관련 단체·인사 수록)
- ⑦ 보수공법 및 사용재료 소개
- ⑧ 원형보존부위 소개(도면표시)
- ⑨ 현황도면 수록
- ⑩ 보존 및 활용에 지역주민 및 방문자 반응 수록
- ⑪ 건축물의 정확한 위치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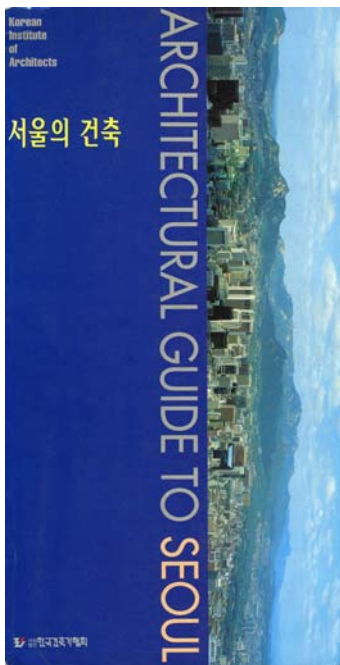


△메이지무라 안내책자

외국의 경우 안내책자의 내용을 충실히 전달하기 위해 사진촬영 및 도면수록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사진의 경우 같은 장소에서 사계절의 변화된 모습을 촬영하여 소개하는 경우도 조사되었다. 사

진촬영은 주로 해당건축물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 단순히 사진기술로만 접근하지 않는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또한 일년중 가장 아름다운 모습과 하루중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포착하여 표지에 수록하는 정성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모두 투시도 효과를 보정하고 있다.

도면의 경우 국내 안내팜플렛은 내부 안내에 그치고 있는데 반하여 외국의 경우는 평면·입면도와 함께 단면도 및 상세도면까지 수록하여 대중에게 건축물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의 건축 표지

지역근대건축물에 대한 안내책자는 국내의 경우 주로 민간에서 발간하고 있다. 이미 ‘서울의 건축’과 ‘대전’의 건축’ 등이 발간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근대문화유산만이 아닌 전통건축과 현대건축까지 포함하고 있어 성격이 약간 다르다. 근대문화유산에 관한 책자로는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등록문화재 30선’이 있다. 이미 등록된 근대건축물을 대상으로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발간하여 홍보하고 있다. 사진구성 및 내용은 훌륭하지만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역성을 살리는 것에는 부족하다.

외국의 경우 그 지역의 관광안내소에 가면 꼭 비치되어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지역 건축문화재의 안내책자이다. 개별건축 안내책자와는 약간 다른 구성을 보여준다.

- ① 건축물 안내지도
- ② 지역의 건축개요
- ③ 지역의 주요인사(주로 건축물 관련 인사)
- ④ 개별 건축물 건축개요 및 건축양식
- ⑤ 보존·활용현황 소개
- ⑥ 일부 도면수록
- ⑦ 사진수록
- ⑧ 지역의 대중교통편

지역의 건축안내책자의 경우는 개별건축물에 대한 안내 팜플렛보다 정보가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많은 건축물을 수록하면서 정보를 축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내 팜플렛과는 다르게 지역의 건축현황에 대한 자세한 파악이 가능하고, 훌륭한 관광가이드 역할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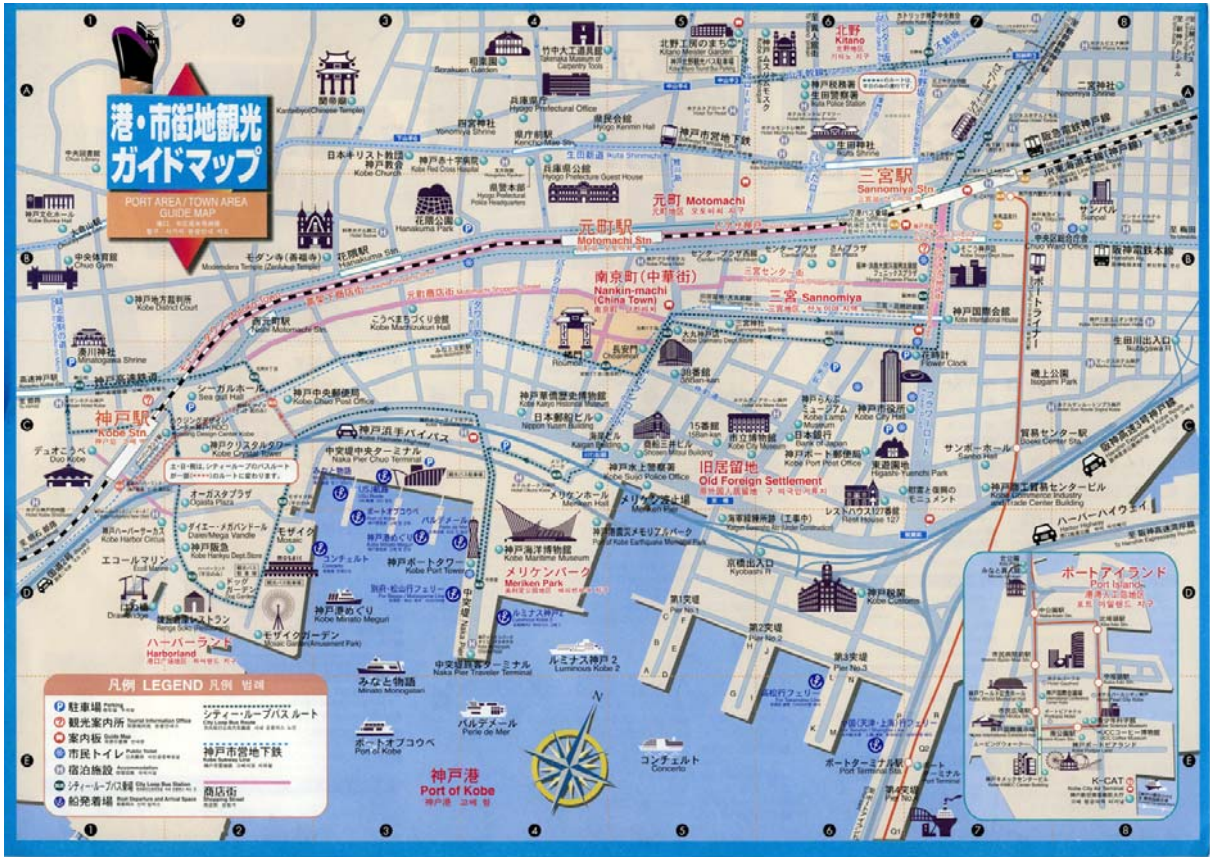
행한다.

우리도 이제는 각 지역별 근대건축에 대한 안내책자가 필요하다.

■ 안내지도

일본과 유럽은 지역별 근대건축 안내지도가 매우 발달해 있다. 지도는 한정된 지면에 많은 내용을 수록할 수 없으므로 특정한 목적에 따라 재구성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달된 지도는 교통안내지도와 지번도이다. 문화재안내지도는 주로 팸플릿에 주변현황도와 더불어 매우 간략하게 발행되고 있다.

요코하마의 시가지 관광안내지도는 주요 건축물의 이미지와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도로 및 교통체계를 3개 국어(일본어·한국어·중국어)로 무료로 인쇄하여 배포하고 있다.



△요코하마 시가지 관광안내지도

□ 연구진 및 관계자

1. 연구진 구성

- 조사기관 : 한국건축역사학회
- 연구총괄 : 김정동(목원대 건축학부 교수, 공학박사)
- 연구간사 : 이기욱(목원대 건축학부 강사, 공학박사)
- 연구 및 집필진
 - 보 존 - 김란기(한국역사문화 정책연구원, 공학박사)
 - 한동수(한양대 건축학부 교수, 공학박사)
 - 활용사례 - 양용기(안산1대학 건축설계과 교수)
 - 김문수(천주교 대전교구청, 관리국장 신부)
 - 박정수((주)가가테크)
 - 조홍석(한국산업연구소 선임연구원, 공학박사)
 - 홍용석(일본 공학원대학교 대학원, 공학박사)
 - 이인기(프랑스 파리-말라케 국립건축학교)
 - 김지윤(프랑스 파리-라빌레뜨 국립건축학교)
- 연구보조 : 박재성(석림건축연구소원)

2. 문화재청 관계자

- 유 흥 준 (문화재청장)
- 이 성 원 (문화재청차장)
- 김 창 준 (문화유산국장)
- 이 유 범 (근대문화재과장)
- 이 향 원 (근대문화재과 서기관)
- 정 석 (근대문화재과 건축주사)
- 최 병 하 (근대문화재과 전문위원)

참고문헌

■ 보고서

□ 근대문화유산 목록화사업보고서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근대문화유산목록화 및 조사보고서1·2-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004
- 동아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 『근대문화유산조사 및 목록화사업보고서-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2005
- 인천대학교 도시건축연구소, 『근대문화유산목록화조사보고서-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2004
- 대구가톨릭대학교 박물관, 근대주거사연구실, 『근대문화유산목록화조사보고서-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2004
- 목원대학교 건축근대사연구실, 『근대문화유산목록화조사보고서-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2003
- 경기문화재단, 『근대문화유산조사 및 목록화보고서-경기도』, 경기도, 2004
- 강원대학교 부설 조형예술연구소, 『근대문화유산목록화 및 조사보고서-강원도』, 강원도, 2004
- 목원대학교 건축근대사연구실, 『근대문화유산목록화사업-충청남도』, 충청남도, 2004
- 청주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 『근대문화유산목록화조사보고서-충청북도』, 충청북도, 2004
- 경남대학교 박물관, 『근대문화유산목록화 및 조사보고서-경상남도』, 경상남도, 2004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근대문화유산목록화 및 조사보고서1·2-경상북도』, 경상북도, 2004
- 강원대학교 부설 조형예술연구소, 『근대문화유산조사 및 목록화사업-전라남도』, 전라남도, 2003
- 전북발전연구원, 『근대문화유산목록화 및 조사보고서-전라북도』, 전라북도, 2004

□ 근대문화유산 기록화조사보고서

- 영남대학교 건축학부, 『효목동 조양회관 기록화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04
-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건국대학교 구 서북학회 회관 기록화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04
- 충남대학교 건축학과, 『진천 덕산 양조장 기록화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04
- 경일대학교 건축학부, 『대봉동 구 대구사범학교 본관 및 강당 기록화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05
- 세종대학교 건축공학부, 『이화여자대학교 파이퍼홀 기록화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05
- 경일대학교 건축학부, 『대구 동산병원 구관 기록화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05
- 한남대학교 ATA 아시아 건축연구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충청지원 기록화조사 보고서』, 문화재청, 2005
- 탐라대학교 건축학과, 『제주 이승만 별장 기록화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05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건축역사·이론연구실, 『구 보성여관 기록화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05

□ 문화재청 발간 근대건축 실측보고서

- 충남대학교 지역개발 연구소, 『20세기 초 건축물 사진실측 조사 보고서』, 문화재청, 2000
-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부설 산업기술연구소, 『근대문화유산 건축물 사진실측 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01
- (주)현석종합건축사사무소,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부설 산업기술연구소, 『대한의원 본관 실측조사 보고서』, 문화재청, 2002
- 우리건축사사무소·대원고건축연구소·한국기술교육대학교 건축공학과 도시건축 연구소, 『진해우체국 실측조사 보고서』, 문화재청, 2002
- (주)삼풍엔지니어링, 『구 서울구치소 실측조사 보고서』, 문화재청, 2003
- (주)엠티건축사사무소, 『서울역사 정밀실측 보고서』, 문화재청,

2004

- 새한건축사사무소, 『애양교회 및 애양병원 실측조사 보고서』, 문화재청, 2004

□ 시군 및 단체발간 근대건축 실측보고서

- 예그린 건축연구소, 『대한의원 본관 실측조사 및 수리보고서』, 서울대학교병원, 1982
- 명지대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제일은행 구 본점 실측 및 개축준공보고서』, 제일은행, 1994
- (주)삼풍종합건축사사무소, 『감곡(옛 장호원) 성당 건축사천주교』, 천주교 청주교구 감곡성당, 1996
- 제로건축연구소, 『구 일본 제일은행 인천지점 건축물 실측조사 및 준공수리 보고서』, 인천광역시 중구청, 2000
- 목포대학교 건설공학부, 『(실측조사연구 2002) 목포의 근대건축』, 목포문화원, 2002
- 목원대학교 건축근대사연구실, 『신세계 백화점 본관 현황 및 실측조사보고서』, (주)신세계, 2004

□ 단체발간 보고서

- '99건축문화의 해 충청북도 조직위원회, 『충북의 건축문화』, 1999
- 목원대학교 건축근대사연구실, 『전주 전동성당 및 사제관 실태조사보고서』, 천주교 전주교구 전동교회, 2003
- 목원대학교 건축근대사연구실, 『전주 전동성당 개·보수 기본계획』, 천주교 전주교구 전동교회, 2006

■ 논문 및 학술세미나 자료

- 목원대학교 건축근대사연구실, 『근대건축물 보존과 등록문화재제도』, 한국과학재단, 2002
- 김경호, 「근대건축물의 상업용도 활용사례에 나타난 내부공간 디자인 수법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5권 5호, 2006년. 10월

■ 단행본(국내도서)

- 김정동, 『일본 속의 한국 근대사 현장을 찾아서, 일본을 걷는다 1』, 한양출판, 서울, 1997
- 김정동, 『하늘 아래 도시 땅 위의 건축 1·2』, 가람기획, 서울, 1998
- 김정동, 『김정동 교수의 근대 건축 기행』, 푸른역사, 서울, 1999
- 김정동, 『일본을 걷는다2』, 한양출판, 1999
- 김정동, 『일본 속의 한국 근대사 현장을 찾아서, 일본을 걷는다 2』, 한양출판, 서울, 1999
- 김정동, 『남아 있는 역사 사라지는 건축물』, 대원사, 서울, 2000
- 김정동, 『일본 속의 한국근대사 현장3』, 하늘재, 서울, 2001
- 김정동, 『일본 속의 한국근대사 현장4』, 하늘재, 서울, 2003
- 최규학·양용기, 『기숙사 건축문화』, 멘토Press, 서울, 2006

■ 단행본(외국도서)

- 東京新聞社出版局編 『上野奏樂堂物語』, 東京新聞社出版局, 1987
- 清水真一·蓑田ひろ子·三船康道·大和智編 『歴史ある建物の活かし方』, 学芸出版社, 2001
- 内田青蔵, 『消えたモダン東京』, 河出書房新社, 2002
- 函館建築研究会, 『函館の建築探訪』, 北海道新聞社, 札幌, 2003
- 小樽再生フォーラム, 『小樽の建築探訪』, 北海道新聞社, 札幌, 2001
- 나소미 외, 「상해 신천지」, 동남대학교 출판사, 2002
- 横浜洋館散歩, 淡交社, 京都, 初版, 2005

■ 잡지

- 건축사 8708, 8709, 8710, 8712, 8804, 8805, 8806, 8810, 8811, 8902
- 플러스 0206, 0206, 0308, 0310, 9402, 9610, 9805, 9808, 9904
- 건축문화 8909, 9503, 0603

- 이상건축 0206
- 건축 9507, 9906, 0412, 0507
- It's Daejeon 0608, 0611
- 문화도시 문화복지 vol22
- 중도포커스, 1995년 5월호

■ 기타자료

- 도쿄모모 코리아, 『제2회 근대건축탐방(경남지역)자료』, 2005
- 부산일보 2006.11.23
- 중앙일보 2006.11.25

- 국·내외조사대상 건축물 홍보 팸플릿 및 지도
- 외국 조사대상 건축물 관련 홈페이지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사례 연구

조사기관 : 한국건축역사학회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34-20 삼익빌딩 417호

홈페이지 : www.kaah.or.kr

발행처 :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홈페이지 : www.ocp.go.kr

인쇄처 : 삼성디자인기획 (042-221-3111)

발행일 : 2006년 12월

(非賣品, 限定版)